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 획 관 광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

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 11월 29일 (목)

장소 : 제1회의실

---

### 감사일정

1. 감사개시 선언 .....	1면
2. 증인선서 .....	1면
3. 인사 및 간부소개 .....	3면
4. 감사실시 .....	5면
가. 기획조정실 .....	5면
나. 감사담당관 .....	79면
다.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 .....	600면
2) 재무과 .....	197면
3) 교육협력과 .....	374면
4) 세무1과 .....	642면
5) 세무2과 .....	642면
6) 민원여권과 .....	115면
라. 일자리산업국	
1) 관광문화과 .....	465면
2) 일자리창출과(도시재생추진단) .....	239면
3) 경제진흥과 .....	316면
4) 교통행정과 .....	430면
5) 늘푸른과 .....	508면
마. 인문학도서관 .....	148면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559/661면
사. 문화회관 .....	281면
아. 동 .....	576면
5. 감사강평 .....	725면
6. 감사종료 선언 .....	725면

---

1. 감사개시 선언

2. 증인선서

○위원장 조영진

(10시 01분 감사개시)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말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대한 작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 11. 21.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창 현
일 자 리 산 업 국 장	백 종 기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상 희
감 사 담 당 관	박 성 웅
도 시 재 생 추 진 단 장	권 영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윤 정
재 무 과 장	임 외 현
교 육 협 력 과 장	김 유 성
세 무 1 과 장	오 재 환
세 무 2 과 장	김 병 수
민 원 여 권 과 장	김 현 관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숙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류 영
경 제 진 흥 과 장	변 수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태 승
늘 푸 른 과 장	김 성 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인 철
문 화 회 관 장	권 창 오
인 문 학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위원장 조영진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3. 인사 및 간부소개

○위원장 조영진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먼저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검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8대 구의회에 들어 처음 받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오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생각하며,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어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상 희
감 사 담 당 관	박 성 웅
도 시 재 생 추 진 단 장	권 영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윤 정
재 무 과 장	임 외 현
교 육 협 력 과 장	김 유 성
세 무 2 과 장	김 병 수
민 원 여 권 과 장	김 현 관
인 문 학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오재환 세무1과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진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산업국 전 부서장과 전 직원들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자리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속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류 영
경 제 진 흥 과 장	변 수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태 승
늘 푸 른 과 장	김 성 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인 철
문 화 회 관 장	권 창 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진

일자리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 4. 감사실시

##### 가. 기획조정실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    획    팀    장    박    상    화  
예    산    팀    장    이    경    송  
법   무   조   직   팀   장   이   재   온  
신   평   가   팀   장   김   해   영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8년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우리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만, 지적을 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것에 따른 대안제시,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5분 전후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할애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항에 따라서 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거수함)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두 분이... 누가 먼저 손을 드셨지요?

○김상수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9를 한번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성군 위원

지금 저희 구청에 6급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여성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김성군 위원

그러면 5급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5급 비율은...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40%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성군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거기 위원회를 꼭 읽어보세요. 1-9, 여기에 지금 40%가 넘는 데가 있습니까? 꼭 넘겨보십시오. 어떤 데는 0%도 있고, 14%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성군 위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는 총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들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고요.

○김성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다음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위원들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위원회도 있고, 외부 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총 9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7개 위원회의 위원 수가 총 1,280명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저는 여성 비율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7개의 위원회 중에서, 1,280명 중에서 위촉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86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 328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총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40%에는 조금 미달됩니다만 거의 38%까지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여성을 채우기 어렵거나, 진출이 어려운 위원회의 경우 알다시피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성군 위원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니까?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둘째 칸, 해운대구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 대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품의금액 과다 산출’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념품을 샀는데, 그게 수불부가 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라든지 할 때 운용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참석했던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교육과 조치를 취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십시오. 몽골방문, 이것은 다 놀러 다닌 것이 아닙니까? 우호 증진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구정에 접목하여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항올구를 갔다 온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항올구하고...

○김성군 위원

예, 두 차례 방문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8월에 간 것은 우호교류를 9월에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로 우리 직원 중심으로 먼저 다녀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정식으로 그 당시 구청장님 외 8명이 가셔서 항올구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항올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가보자는 취지로 2017년도에 우호교류 차 다녀오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몽골에 나담(Naadam)축제가 있는데, 우호교류 도시에서 나담축제에 방문을 꼭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해 7월에 부구청장님과 직원들이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구정과 접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우호교류 협력 체결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해운대에 몽골 영사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몽골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운대의 발전을 배우고 싶다, 또 몽골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몽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와서 해운대의 선진 문화도 배워가고, 서로 관광 차원에서라든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로 몽골 영사님께서도 직접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작년에 우호교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몽골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이 교류에는 관과 관끼리 스타트(start)를 하지만, 중국적으로 가서는 경제인이라든지, 문화 교류인들이 서로 교류가 이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까지도 서로 상호 도시를 이해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호교류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본 위원회의 생각은 전임 구청장의 선심성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일단 우호교류가 작년에 처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 몽골의 발전적인 방향을 봐가면서 양 도시 간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김성군 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우호교류가 맺어졌으면 우리 구 축제에 항올구에서 다녀가기도 하고, 항올구에 있는 축제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는 경영자들도 가게 되고, 민간인 중에서도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인도 같이... 종국적으로는 관과 관끼리의 교류가 민과 민의 교류로 이어져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교류가 있으면 민간의 참여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PX 장산마을 안에 있는 그것이지요, 홍보관? 군인들한테 해운대구를 홍보하는 게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장산회관 내에 있는 홍보관 조성 공사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53사단 측에서 부산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장산회관에 방문하는 부모님들, 면회를 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시설의 리모델링 요청이 있어서 부산시가 1억 2,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우리 구에다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부산시의 돈을 받아서 저희들은 공사만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이디어가... 저도 부대 생활을 했지만 해운대구에 계시는, 53사단에 들어간 병력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당시에 상호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군하고 부산시,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때 아마 53사단에서 부산시에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가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또 다른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군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 1억 2,000만 원을 우리 구에다가 전액 시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준 것,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풀(pool)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된 게 836만 원입니다. 2018년도... 여기에 보면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예산 지원(행정안전부 지침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행정안전부 지침시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침시달서와 836만 원이 집행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풀예산 현황 및 지출내역에 1,60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페이지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풀예산... 위원회에 지출할 때 수당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게, 1인당?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1인당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7만 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준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수불부 작성이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물품...

○김상수 위원

예, 물품 수불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물품을 사게 되면요. 직원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물품은 지급하고 수불부를 적는 것으로...

○김상수 위원

기념품 구매도 마찬가지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은 없고요. 특별하게 외빈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외빈한테 지급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주요 외빈이 오실 경우에 우리 기관에서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기념품 한 개만, 또는 특정한 2~3명에 대해서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외부인에게 드리는 기념품 수불부를 작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지적 사항에 보면 물품 수불부 미작성으로 인해서 기념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지급이 외부적으로 나간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연번 39번을 보면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간담회 개최’에 3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중·장기 용역은 2018년 9월 17일에 개최가 되었다고요. 앞에 내역서를 보면... 12페이지를 보시면 되면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에 날짜가... 중간보고회 개최가 9월 17일입니다. 밑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간담회 개최 비용은 20일에 집행되었다고요? 3일이나 갭(gap)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간담회 중간보고회를 9월 17일에 개최를 했고요. 중간보고회 개최 이후에 바로 달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아마 카드 결제 상 날짜는 3일 이후에 9월 20일로 카드 결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집행부 논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먼저 9월 17일에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한 것을 저희들이 재정회계시스템에 등록하는 날짜가 9월 20일로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출 처리는 9월 20일로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한 것은 9월 17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김상수 위원

그 내역서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번 43번에 보면 ‘부산시 구·군 의장단협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2018년도입니다. 10월 11일에... 구·군 의장단이 우리 해운대구청을 방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방문 기념품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품 종류를 몇 가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지급을 하면 되지, 굳이 의장단이 왔다고 해서 선물까지 별도로 사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 의장님께서 구·군 의장단협의회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아마 첫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군의 의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각 구·군의 의장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각 구·군의 의장님들께서 다 오시는데 기관 차원에서 그 의장들에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성의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녀 성별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여성 비율을 6:4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여성 비율을 40%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달성 목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거의 그렇게 흡사하지 않고, 10%, 15%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위원회의 성격이 남성이 그 전문가 집단에 많은 위원회가 좀 있고요. 또 복지파트라든가, 어떤 파트에는 여성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라는 것이 각자 위원회, 개별 위원회마다 40%를 달성하는 것도 목표이지만, 우리 구 전체의 차원에서 여성 위원회 비율을 40% 달성하는 것도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참여하시는 것들이 부서에서는 노력하지만 그런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이 꼭 40%를 달성하는 목표치 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 심의 때 50명까지 통과시켜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구성입니까? 2018년도...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50명 구성이 완료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27명인데, 날짜가 전부 다 2015년에 위촉된 사람이 많고,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거든요? 이번에 신규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 우리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 외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다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스물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구의원인 김경호 의원님하고, 장성철 의원님하고 두 분이 빠지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머지는 25명이 있고, 추가로 23명, 전체 48명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48명...

○김상수 위원

48명이 지금 모집되어 있네요? 혹시 우리 구의 자문위원회가 중복도 가능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거기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일부 몇 분을 보면 중복으로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서별로 다니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통상적으로 위원들은 2년을...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2년으로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연임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최초 임기하면 그대로 계속 갑니까? 재위촉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년이 지나고 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2년 정도 더 연임할 수 있고요. 총 4년을 하시고 나면 다른 위원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연임 위촉이 청장이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면 새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임기가 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 임기가 있으면... 청장과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관계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재위촉하면? 청장이 바뀌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위촉 해서 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면 또 2년을 더 하시는 것이지요.

○김상수 위원

청장과 관계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계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중에 48명 위촉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2017년, 2018년 구정조정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무원인데, 예산액을 1,400만 원씩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불러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히 들어보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원이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까지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것도 공무원 위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우리 내부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공무원은 당연히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제 이름이 밑에 박혀있더라고요? 위촉직으로... 2018년 7월 13일 김상수 구의원이라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저는 위촉된 적도 없고,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이름이 박혀있는 이유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의회에다가... 자체평가위원회에 앞에 7대 의원님들이 계시다가 8대로 바뀌면서... 자체평가위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위촉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웃음) 구의원님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보니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촉장을 받은 부서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자치평가위원회는 올해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거든요.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위촉장을 저희들이 다 드릴...

○김상수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최초 위촉일이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일이... 그러면 회의와 관계없이 위촉장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되어서 구의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일단 위촉을 해 놓지만, 이 위촉장을 드린다는 게 전체 행사가 있을 때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요. 000 구의원... 위촉이 2014년 1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대학교 금융경영학 교수... 이때는 구의원이 아닌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는데, 회의 수당이 왜 나갔지요? 2017년 2월 27일에 7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 000 위원님은 동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위원장 조영진



동명이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동명이인... 동부산대학교 교수님...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000 씨라고 여기에 가운데 보면 '세무회계사 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에 위촉이... 지금 몇 군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전체적으로 몇 군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이 지금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000 위원님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여성성과금심의위원회에도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것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하고 그 두 군데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세무회계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된 위원직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 영역이 세무회계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파트 쪽에서는 이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또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계획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신규 위원을 모실 일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에 저희들이 넣은 것 같은데, 한 분이 유사한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리고 밑에 000 위원이 위촉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에도 2015년 8월 26일에 위촉이 되고... 이분도 구정자문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요.

○김상수 위원

참여는 안 하는데, 명단에는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그 당시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000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고, 또 아까 전에 제가 기존에 계시는 분은 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000 위원님께서 구정정책자문위원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이 2017년도 11월까지 했습니다. 11월 18일까지 해서 수당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들의 위촉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오래되어서... 전 위원들을 보면 거의 7~8년이 다 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조례에서 연임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연임을 원하기 때문에 4년, 안 그러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6년이면 그 위원은 계속 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대부분 길게 하면 6년인데, 거의 다 막판에 와 있더라고요. 2013년에 위촉한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보면 000 씨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장인데, 이분은 어떤 시민운동지원센터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센터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 이분이 대표로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2015년 3월 4일에 위촉되었더라고요. 이분도 2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의 기여도나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000 센터장께서는 지방 시민운동에서는, 부산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고,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방의 어떤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32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원 수가 지금 8명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위에 구성시기에 보면 총 10명,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당시에는... 올해...

○김상수 위원

2018년...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지금은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을 해서요. 총 10명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민간인 8명이지요? 그 위에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까지 8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착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상수 위원

전체 11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000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 지급 내역이기 때문에, 000 위원에게

수당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000 위원님은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빠져나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언론 보도사항’에 보시면 8월 11일, 8월 14일, 8월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최초 구립극단 해운대개그학과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단체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해운대개그학과가 201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청년문화일자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아서 좋은 운영 성과를 거두고 왔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근 2년 가까이 활동해 봤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평가 결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9년도 12월 31일이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힘을 빼는 역할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부터 예산 지원이 나가서 연말까지 나가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1년 단위로 예산 지원을 해 줘서 마치는 스타일(style)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반송에 있는 해운대문화놀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영 성과를 보고, 계속 위탁 여부는 공개공모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김상수 위원

그래서 해운대문화놀이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은 따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선거와 연계되어서 업무 추진에 공무원이 관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간단하게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개그학과는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일이고요. 반송에 있는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반송 지역에 문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송 지역의 문화를 융성하는,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건립한 사업입니다. 반송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반송 지역의 문화 활성화,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해서 들여다 봐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시간이 조금 오버(over)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진행은 하시고...

○김상수 위원

예. ‘몽골 나담축제 초청 방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 접목 아이디어 발굴’을 하겠다고 하는데, 발굴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나담축제라는 것이 몽골에서 하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민간문화단체에서도...

○김상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현재로서는...

○김상수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은...

○김상수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54페이지를 보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교류나 이런 것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 시·군·구 우수 벤치마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에 관련해서 나온 것도 지금 자료가 전혀 없고요. 우리 위원들도 해외에 나갈 때 정말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혹시 몽골에 다녀오시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몽골 나담축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호교류 도시이기 때문에 우호교류의 목적이 그 도시에서 초청이 오면 저희들은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 구가 초청을 하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기들도 자기들 경비를 들여서 우리 구를 다녀가시고 하는 우호교류의 한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그 해외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우호교류 도시는 그런 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의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렇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군·구를 방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벤치마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인데, 벤치마킹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은 중앙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각종 세미나 이런 것은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타 시·군·구, 또 다른 정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미나는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갖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타 시·군·구의 우수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직원들 부서 이동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정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한 2년 내외로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2년 이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 근무자는 왜 장기적으로 근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통상적으로 아마 2년이면 다른 부서로 전보가 허용되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차가 되면 전보를 가는데, 특수 부서의 특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장기간 근무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김혜정 씨 행정 6급에 보면 2013년도 7월 25일에 현 부서에 전입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상수 위원

무슨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특정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팀의 주무를 맡고 있는데, 기획이라는 것이 구정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고 업무를 기획을 하고 조정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주무가 조금 오랫동안 기획조정실에 몸을 담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몸을 담은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 부서에 5년 4개월이나 근무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전문적이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만 유독 5년 4개월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간 오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혜정 주무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의 주무라는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직원들도 골고루 업무를 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한 부서만... 물론 업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넓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보시면요. 78~79페이지를 보면 업무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강선임 씨하고 김문정 씨, 행정 6급, 7급이... 2017년도 10월 1일부터는 1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인구정책팀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김상수 위원

예, 인구정책팀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줄어든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던 규제개혁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서...

○김상수 위원

아~ 감사담당관실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감사담당관 쪽으로 조정해 주고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앞에 순서가 많이 밀려서 나중에 나머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셨는데, 정확히 30분이 소요됐거든요? 뒤에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든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15분, 길면 20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조영진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긴급행정 수요대비 풀(pool)예산 행정안전부 지침, 그다음에 21페이지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간담회 관련 제출하는 부분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조영진

그다음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자 명단을 마치는 대로 8부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저는 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인구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용역 중인데,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 내용 중에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영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위원

업무성과 6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핵심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장성철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변호사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중간보고회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반여,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송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 지역에는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특이한 현황을 띠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시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물에 사실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좀 더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내실 있게 해서 정책이 제시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전문가라고 하면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도시전문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누구를 말씀하시는...?

○장성철 위원

실장님이 도시전문가입니까? 도시전문가는 뭐가 전문가인지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고, 교통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지역의 도시 성장까지도 다루는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아주 실타래가 엉켜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저희들은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019년도 정책을 보면 담배공초 줄기하고, 내 집 앞 풀 뽑기, 일회용품 사용근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사항은 앞에...

○장성철 위원

도시전문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전임 청장님께서도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게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해운대구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자...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런 차원으로...

○장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자꾸 혼자 이야기를 다 하면...

그리고 이 세 가지하고, 도시전문가가 사실... 해운대구가 지향해야 될 정책 방향, 정말 앞으로... 이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다 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해운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동서 간의 격차 문제는 정말 해운대의 어떤 영원한 숙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반여, 반송, 재송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많은 연구,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이상한 말이 들리던데...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벌써 구성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는 외부 전문가 두 명이...

○장성철 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두 분을 선정했는지는...

○장성철 위원

아~ 아직까지 확정을 안 받아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니, 선정 절차가 다 끝났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일단 선정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줄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선정이 다 되고 나면 누가 선정되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장성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000 씨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또 체육회 사무국장 000 씨가... 두 분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모르겠습니다. 전에 선거 본부장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과 다른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문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행입니다. 아니지요, 이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현재로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너무 시간에 촉박해 하지 마시고...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장성철 위원

물을 것은 많은데, 또 뒤에 사람들이 한마디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영진

장 위원님은 아직까지 시간이 더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장성철 위원

한 번씩은 다 하시라고...

○위원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요. ‘인구정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만 6월부터 10월 25일까지 2,45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다 용역비로 편중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20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지금 인구정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약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회의를 하고 했는데, 벌써 기대치를 보면 안 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중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인구정책 최종보고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중간보고회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 6월 1일에 이 용역은 저희들이 총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비 집행이 2,19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7월 12일부터 그 이후까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대학생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인구정책 관련 보고회 때 간단한 비용으로... 그런 내용들이지 전체가 다 용역비로 집행되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도시재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인구정책이거든요.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혹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비전(vision)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반송 지역에서... 반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거기에서의 인구정책은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녀를 둔 세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박기훈 위원

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기획조정실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래서 이야기되는 내용은요. 반송, 반여 지역에는 어르신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건립해 오고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왔습니다만, 거기에 보태어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반여, 반송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 그런 것들을 보다 강조해서 시책이라든지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노령화도 있겠지만, 가장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전출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나가는 전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의 주민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장 많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유추는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상당히... 인구 이동 관계는...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해운대구의 인구가 42만 명... 지금 청장님이나 42만 명이라고 하는데, 42만 명은 깨진 지 오래고 41만 1,000명인데, 제가 볼 때 인구가 아무리 증가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가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용역 최종 보고에 그런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다음해에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그 사항을 꼭 넣어서 빅데이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저번에 한번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

면요. 주민참여예산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 17개 사업 중 7억 1,4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12개는 완료되었고, 5개는 추진 중인데... 이게 1억 1,400만 원을 17개로 나누면 한 지역 당 4,2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 의제설정을 해서 지역에서 총 25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박기훈 위원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총액은 저희들이 바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전에 한번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동마다 4,200만 원을 주면 큰 사업을 못 합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 공사, 아스팔트 땀질 공사 이것밖에 못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좋다고는 생각하나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 큰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매번 하는 말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고,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어서 새로 한다.’ 이런 편파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총액 중에서는 소소하게 1,000~2,000만 원이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많게는 2억 원까지 드는 사업도 있고요. 4,000만 원, 1,000만 원...

○박기훈 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좌동 쪽에 춘천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송동 같은 경우에도 재반로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까지 올라오고요.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보도 정비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차피 다른 용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런 것밖에... 큰 틀에서 보기에 주민참여라고 해서 ‘우리 한번 이런 것을 해 보자.’ 안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사업을 해 보자.’ 그러니까 예산이 도로, 보도블록, 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길은 누구나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이 생각해서 이 집을 부수어서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이 집을 부수어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크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박기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밖에 안 되는, 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부터가 종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변경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을 해 보자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올라오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에서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한테 지원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시스템 체계를 내년부터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기훈 위원

맞습니다. 그게 바뀌는 게... 주민이 참여해서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오로지 풀만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형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앞으로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 도로는 얼마든지 노후화되면 구에서 수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도블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주민이 진짜 참여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그런 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리번호 2-5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어서 우리 구에다가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데 행사라든가...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정순세 위원

혹시 자격은 어떤 자격을... 추천이라든지, 본인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크게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46명을 두고 있는데,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49명 중에 31명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인터넷으로 신청도 받았습시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해 오는 인원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분을 포함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도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또 보면 주로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회의할 때 참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이 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 자체부터 동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까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단순히 CCTV를 달고, 뭐 한 개를 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우



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그 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까지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저도 해봤는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셔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불러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는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수당이 3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책정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 실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정한 것이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3만 원 정도입니다.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참여, 예산의 편성... 자기 마을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3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정순세 위원

그렇습니까?

125페이지를 보면요. 처리결과에 ‘불가’라는 게 몇 건이 되는데, 이 불가라는 건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미반영, 불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다가 일차적으로 다 검토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내년이나 그때 해도 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결과에다가 ‘불가’라고 표시했고, 이것 또한 우리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순위를 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가였지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미반영’ 내지는 ‘불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몇 번 정도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주최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회의는 동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1차 총회도 거치고, 분가위원회도 거치고, 2차 총회도 거치고 회의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그동안 조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뒤편 동에서부

터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해서 동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추천이 됐으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훨씬 보기가 나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정순세 위원

그리고 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위원회가 많지만 보통 7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금 인상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춰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회의를 조금 길게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분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토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정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이 우리 구 행정의 기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타 위원회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40분인데, 계속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1시부터 개의를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뒤에 두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장성철 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김상수 위원

더 합시다. 단축해야지...

○장성철 위원

내가 할까요?

○원영숙 위원

예, 하세요.

○장성철 위원

오래 끌려고 하나, 왜 그래... 간단하게...

○김상수 위원

안 한 사람 위주로...

○원영숙 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오후에 하시겠어요?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세 분은 하셨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남아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보면 47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장성철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미포~청사포 군 해안경계철책 철거공사하고, 또 여기 밑에 미포~청사포... 이렇게

해서 7,9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미포~청사포 구간의 해양경계철책 철거공사는요. 그린레일웨이 사업 조성 구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린레일웨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미포에서 송정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군부대가 철책을 치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부대가 거기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53사단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군이 거기에서 철수하기로 되었거든요. 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그동안 쳐져 있던 철책을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편안하게 거닐고,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서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한 내역이,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휘람건설에서 공사를 꼭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철거하고 나서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철거는 다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84페이지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업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철거 작업을 다 했는데요. 84페이지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책 철거 사업으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했다고 자랑삼아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장성철 위원

자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47페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자료를 넣어놓은...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교복 무상,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그런 게 예산 삭감 등으로 많은 예산이 내년엔 복지비로 편성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그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급식에 드는 예산을 각 구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나, 그런 의견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장성철 위원

확정은 안 났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겠나 싶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시에서는 그것을 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면 다른 형태로 구에다가 재정 지원을 충당시켜 주겠다는 게 부산시 방침이거든요. 무상 급식에 드는 비용을 각 구·군에서 들어서 부산시와 부산시에 있는 각 구·군이 함께 하자, 그러면 각 구·군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부산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부산시의...

○장성철 위원

다른 형태로 준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다른 형태로 해서 그 비용을... 그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군에서 재정이 부담되는 양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부산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비로 늘어나도 다른 형태로 또 들어오니까 예산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일단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이런 게...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예산 편성이 올라오겠지만, 너무 편중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그런 사항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내년 본예산에는 일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도시 해운대를 지향한다고 변화를 시작해 놓고... 좀 틀린 게 안 보입니까? 물론 몇 개월이 안 되었지만...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또 인기가 있는 곳에 편성을... 물론 그럴겠지, 사람이라면 욕심이 다 안 그럴겠습니까? 싫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싫어할 것이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있지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만 일단 예산 편성이 되었고, 크게 신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장성철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현재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각종 위원회를 꼭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 위원회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회가 자문을 얻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력을 갖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런 것처럼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위원회가 구속력이 좀 있고, 힘이 실려야 정말 위원회에 있는 보람이 있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게 없는 위원회는 서로 간에 통폐합을 해서 그것을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알차게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위원회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을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게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는 민간 인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이 위원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에게) 밥 먹고 하세요. 자투리는 내가 할게요.

○위원장 조영진

(웃음) 그러면 문현신 위원, 그렇게 양해를...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밥시간 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8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준비 부족’으 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타당성 조사가 도시시설공단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별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타당성 조사가...

○김상수 위원

이름만 바뀌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시설공단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름만 바꿨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으로 처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관광시설공단 하고 도시시설공단의 큰 개념은 도시시설공단입니다. 도시시설공단 안에는 관광 시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시설까지 포함하는 도시시설공단 쪽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크 게 검토를 하고 나면 작은 것은 흡수가 가능한데, 작은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는 큰 것을 포

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스케일(scale)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때는 왜 큰 스케일로 생각을 못 했습니까? 이 행정 업무가 자꾸 바뀔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것이 공단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함에 있어서 관광시설공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그러면 관광 시설을 포함하는 도시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앞으로는 어떤 공단이든, 어떤 업무이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은 지금 시대에는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면 좋겠고, 저희들이 도시시설공단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선발 기준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대학생들의 행정 참여를 요구했을 경우에 한 명을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보내준 그런 내용이고, 총괄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김상수 위원

대학생이 참여할 때 자기의 전공 학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학생 위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통계 조사를 하면 해당 총괄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학과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학생의 학과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방학기간에 단순히... ‘연수내용’에 보니까 통계조사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선발 기준이... 그 학생이 어떤 학과이고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선발은 총괄 부서에서 해서요. 각 필요한 부서에다가 학생들을 보내주거든요.

○김상수 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대학생들의 행정체험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일부분 학비 보조비용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김상수 위원



수단이 너무 형식적인 수단이면 아닌 것 같고요. 좀 제대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라도 자기 학과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서 이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방학 때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77개 과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제가 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선거 때의 유인물을 갖고 와봤는데, 혹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 위주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청장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 7개 분야, 77개 과제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사항에서 몇 개 정도는... 한 개 과제인데, 타이틀(title)은 한 개인데, 약간 분리해서 거기에 있는 과제보다는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부서별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실속 있게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공약 사항에 집중되어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건수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엉성하게 올라오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그쪽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의회나 우리 관계 기관은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에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공약에 치우쳐서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 공약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 사업도 있고, 또 단기 사업이 있고, 아주 장기 사업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 사업 공약이라는 것이 4년 동안 이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요. 이 공약 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정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약 사항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사업의 유형, 가짓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만 공약이라는 것이 매니페스토로부터 우리 해운대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다룰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구민만 보고 그렇게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올라오는 자료의 내용을 꼭 검토해 보면 제가 아까 보여준 이 자료하고 흡사하게 다 끼워져서 짜깁기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적을 안 하겠는데, 자료를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77개...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게 주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형식에 치우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공약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킬 수밖에 없는...

○김상수 위원

약속은 좋은데, 지키되 제대로 되게 만들어라, 이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 예.

○김상수 위원

형식적으로... 안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올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면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주민위원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9월 26일에서 10월 14일까지 해서 주민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던데, 각 부서장은 별도이고, 44명인데, 여기에는 4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017년도 예산참여주민위원이 44명이었던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두 분이 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면서 46명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어떤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석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 10명. 그런데 위촉직은... 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름이 7명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수당 나가는 게 7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상수 위원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9명이 아닙니까? 명단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017년도, 31페이지의 위촉직 인원을 보시면요. 지금 000 위원님은 11월 1일에 참여를 하였고, 3월 2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3월 2일 것을 보시면... 여기에 쪽 나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31페이지를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2017년 3월에 2일에 참석하신 분이 총 6명입니다. 000 위원님, 000...

○김상수 위원

그러면 000 위원은 아닙니까? 맨 위에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7명...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착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맞습니다. 7명이 맞습니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실수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이날 보니까 위촉한 사람이 3명입니다. 수당이 나간 사람도 3명, 21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수당이 나간 게 21만 원입니다. 21만 원에 3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3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여기에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실수이고요. 다음에 14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이것도 인원수가 밑에 위촉직이 4명이, 그런데 앞에는(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촉한 사람이 6명입니다. 000 위원도 앞에 명단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5명만 되어 있습니다. 집계는 4명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료 준비가 미흡하게 된 게 너무 많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159페이지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2018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에 어떤... 64번이요?

○김상수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삭감되었고,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방보조금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것만, 올해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000 씨라고 있고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단체에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164페이지 맨 밑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164페이지...

○김상수 위원

29번입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이 모임이 신규 단체로 2018년도에 처음 잡았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장산제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지원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장산제가 매년 개최하는데 시비 지원을 좀 받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에 350만 원이 잡혀있어요.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350만 원 가지고 달맞이온천축제, 대대적인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잡혀서 행사를... 어차피 자기네들이 스폰서(sponsor)를 받아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게 350만 원으로 대대적으로 삭감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달맞이온천축제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비를 얼마 지원받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시비를 천몇백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구비가 1,200만 원이 나가다가 350만 원으로 삭감되었을 때... 달집태우기 행사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달집태우기인데, 예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달맞이온천축제가요. 일단 보조금 심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시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관광단체의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작년에 지원을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변하는데, 우리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의 어떤 지역성, 대표성을 보고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시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비가 줄어드니까 구비까지 다 줄어버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런데요.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따로 좀...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라고 해서 방안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문화원 사업 지원이 대대적으로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사업 지원이 3,200만 원에서 올해 7,000만 원이고, 운영 지원이 4,700만 원에서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늘려준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해운대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체계로 운용되는데, 지금 해운대문화원에서는 향토사 발굴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고유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해당 부서인 관광문화과하고 문화원하고 서로 업무를 많이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무슨 성과가 있느냐보다는 저희 해운대문화원이 부산시에 있는 타 구 문화원보다는 상당히 뒤늦게 발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신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과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해 준만큼 실속 있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짜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산만, 인원수만 늘려서... 타 구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해운대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런 것들도 아마 해운대문화원이 연간 업무계획을 마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이 고유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한 기본운영비는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직접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김상수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 만큼 연간 업무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것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달 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까? 엇그제 1주년 행사를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해운대문화원 개관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

○김상수 위원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문화의 달 행사가 있고, 문화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문화의 날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사를 하고,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라고 이 예산을... 그동안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문화원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사업을 넘겨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이것은 어딴니까, 위치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푸드뱅크, 푸드마켓...

○김상수 위원

예, 연번 37, 38.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푸드마켓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김성군 위원

영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해운대푸드뱅크나 해운대푸드마켓은 000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해운대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개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를 보면은요.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지난해까지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하면 1,48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하면... 아, 지난해까지 상이군경회가 1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상이군경회 이분들이 다양하게 예산 지원을 요구합니다. 전적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과...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적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조금...

○김상수 위원

올해 조금이 아니고, 180만 원에서 1,480만 원으로 늘었는데, 그 위에 다른 유공자들은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고엽제전우회도 700만 원이고, 6.25참전유공자회도 700만 원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런 형평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단체하고 어떤 단체 간에 명확한 이유 없이 편차를 두기에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회원 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도 800만 원이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900만 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이군경회에 700만 원이 지원해 나가는 것은 타 단체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를 위로 넘기는 형식에서 옆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거



를 적극 반영해서 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료를 보는 것도 용이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용이해졌습니다.

관리번호 1-30,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 공통사항이니만큼 아무래도 실장님의 역할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꼭 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셔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 ○문현신 위원

기획조정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어도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 제목이 이거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부서에도 다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소속 부서의 자료를 훑어보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히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건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는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와 비슷한 생각의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 시·군·구의 사례를 접목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구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 보신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인데요.

#### ○문현신 위원

혹시 실장님도 살짝 놀랍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있었지 않았느냐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한 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저도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런 사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타 시·군·구의 우수시책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 계획을 입안하고, 타 시·군·구를 벤치마킹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야 될 부서의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몇 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현신 위원

예, 다른 부서에도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이 자료 목록이 공통질문으로 보면 제가 살펴본 것, 그러니까 작년 자료나 재작년 자료를 보면 공통으로 기존에도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 질의는 올해에도 다시 나올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보러 간 게 타 시·군·구에서 한 게 우수시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러 간 것으로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타 시·군·구의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 이렇게 하는 개념하고 우수시책을 보고 온 개념하고는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해석을 각각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벤치마킹 실적이라고만 하면 저는 벤치마킹은 더러 다녀온 걸로 봐지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타 부서하고 좀 더 조율하고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굳이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벤치마킹을 가긴 갔었는데 실적이 없었더라도, 그런 과정이라도 명시를 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 속에서 잘 짚어주셨기에 저는 뒷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관리번호 2-14, 빅데이터 업무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실장님, 빅데이터 정책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빅데이터 분석은 2017, 2018년,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기존에 예산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용역만이 아니라 전체 파트 부분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주민불편을 위한 정책지도 제작 한 건하고, 구남로 일대 상권 소비 분석 한 건하고 두 건을 했었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 원 정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소비의 패턴까지도 분석을 한다고 하던데, 활용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작년에 처음으로 구남로 일원, 애항길까지 포함하고 해운대전통시장 일원까지 포함해서 구남로 일원에 대한 상권 소비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경에 구남로가 개통이 완료되고 해운대광장으로 조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지역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최초로, 상권 소비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구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있어도 17% 이상이 증가되었고, 애항길 주변에서 해운대전통시장 각각에서도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해운대광장이 만들어지기 전 2016년도의 7월, 8월, 그다음에 만들고 난 당해 연도, 2017년도의 7월, 8월, 그 2개 연도를 상호 비교 평가를 했거든요. 아, 9월, 10월입니다. 2016년도의 9월, 10월과 해운대광장을 만든 이후 2017년도의 9월, 10월, 그 2개 연도를 상호 비교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해운대광장을 만들고 나서 구남로 일원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활성화가 되었다는 자체 결론이 나왔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빅데이터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203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남로 일대의 상권 소비 분석 후에 정책제언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언 내용들을 보면 굳이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지극히 교과서적 내용들입니다. 보면 ‘구남로 문화광장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을 위한 시책

추진’, ‘내국인(타 사·도 거주자) 대상 관광객 유치 홍보 확대’, ‘구남로 일대 점포 임대료 안정화 방안 모색’, 보시다시피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극히 통상적인 부분의 나열인데... 어떨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상권 소비 분석 후에 나온 4가지의 제언이 그냥 원탁 회의석상에서도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정책제언의 내용을 보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냥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또 우리 구에서 느끼고 있고,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남로 일대 상권 소비 분석은 BC카드사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한 겁니다. BC카드사는 향후 그 지역의 상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중심이 아니고, 이 지역의 상권이 전년도와 올해 연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BC카드사의 카드리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의 대부분입니다.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를 함에 있어서는 아마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정책제언을 했는데, 이런 제언을 얻기 위한 용역의 취지는 일단 아니었고요. 해운대광장을 만들어놓기 이전과 이후가, 우리 구가 해운대광장을 정책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중점적이었고요. 정책제언, 이 내용은 그냥 일반론적인 제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이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BC카드사라는 업체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분석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거를 제대로 할 거라면 단순히 분석 자료를 축적해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그 분석 자료를 제대로 활용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관광특구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2017년에는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그 당시에는 전년도와 올해 연도의 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빅데이터 분석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다양하게 조사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상권 활성화로 해서 어떤 시책이 펼쳐져야 되는지 하는 것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분석 결과에서 구남로에서는 사계절 관광의 문제, 젊은 층을 유인하는 문제, 소비자 패턴을 분

석해서 패턴 결과 여기에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 또는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트렌드(trend), 패턴사항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만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책을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당시에는 구남로 광장이 조성된 전후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살짝 흐지부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3.0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그거에 따라서 잠시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추어서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고민,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아까 언급된 인구정책 부분이나 그런 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탁상공론[卓上空論] 형으로 추상적인 분석이나 계획,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거 사업 중에 보면 2017년 결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빅데이터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구정업무 센스상식 네이버게시판이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 게시판은 뭐죠?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찾는 건지를 모르겠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우리 구정의 업무가, 종류 가짓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구정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 업무의 기본적인 현황을 모든 직원이 알자는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들을 만드는 그런, 새울행정시스템에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빅데이터에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그 안에 올리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빅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정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전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자체 게시판에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게시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 내부 시스템인 새울행정시스템상에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희 실장님과 기획조정실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소송 패소 사건에 대해 행감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소송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 등 현황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여기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2017년과 2018년도 각각 승소 20건, 패소 8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패소율이 35%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패소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우리 구의 승소율은 종전 구정업무 성과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5%인데,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승소가 20건이고 패소가 8건이거든요. 2017년, 2018년, 공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계류 중인 사건은 빼고, 그러면 패소율이 35%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소송 승소율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패소율이 35%나 된다는 것은 법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주민의 편익 증대보다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으로 직무를 태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에 따라서 패소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올해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80%? 80.5%?

(집행부 답변 준비)

○원영숙 위원

올해 승소율은 65%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28건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70% 조금 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승소가 20건이고 패소가 8건이면...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올해 같은 경우에 총건수가 28건이거든요.

○원영숙 위원

지금 계류 중인 사건 빼고 승소와 패소가 20건이고, 8건이면 패소율이 35%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총 48건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빼면 총 28건이지 않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8건 중에서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소가 20건이고, 총 청구건수가 28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면 70%를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승소 대비 패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총건수가 28건이거든요. 총건수가 28건에 승소가 20건, 패소가 8건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패소가 28.5% 승소가 71.5%로, 70%를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비율을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공무원은 영원히 없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는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일해야 된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이 일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조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분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주로 건축과, 건설과, 또는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직접적인 처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소송이 붙으면 소송 수행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법상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패소 사건을 한 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제공받아서 먹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대가 처분에 자기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결과만 보고 처분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온 것이 처음부터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중에 누가 한 명이 미성년자를 불러서 그 이후에 미성년자가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과정까지는 모르고 결과만 보고 처분을 하다 보니까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합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할 때 결과 위주로 처분을 하다 보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있고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왔을 때 저희들은 다양한 이유로 반려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법에서는 건축 허가 반려가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각종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대비해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다뤄서 처분에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도 같이 하고, 많은 자료도 공유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부서에서는 개별법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실장님,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승소하는 것은 맞겠죠? 이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70%밖에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처분 관련 부서들과 같이 회의도 더 강화시켜나가고, 처분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들만 발체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를 처분할 때는 좀 더 신중히 법 적용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183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는 가리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패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 또 소송비 등 낭비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총액을 저희들이 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에 따른 패소자 부담을,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예산의 부담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2017년, 2018년, 2개 연도 자료요?

○원영숙 위원

예, 2개 연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자료에도 보시면 2017년도 패소 사건에, 18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다 패소를 한 겁니다. 위에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원영숙 위원

실장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낭비된 예산은 어떻게...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거를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처분을 한 직원한테 책임을 물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구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그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지 직원한테 그 책

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패소한 사례 중에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 취소, 이 건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불복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건인 것 같은데요? 결국 패소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행정권의 대표적인 남용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낭비, 변호사 수임비가 220만 원, 이렇게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당 기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복직 판정 여부를 고민할 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에 질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에서 저희들이 갈등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문 회신 결과를 참고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이분은 다시 복직 이후에 현재는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서 근무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불복하고 처분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앙기관의 의견을 구했으나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저희들은 일단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처분을 한 이후에, 패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결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한 기관은 이게 해고 사유까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기간제 근로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2년을 근무하거든요. 2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을 요구하는 거였고, 저희들은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처리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분이 너무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채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법에도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채용하는 걸로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또한 저희가 공무원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예산낭비도 없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당시에는 공무원 전환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분도 기간제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2명에 이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그 이전의 단계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이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188, 189, 190페이지를 보면 기초연금급여 결정 취소 000 건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단처분취소 000 건, 도로사용료 변상금 처분 취소 000 건 등을 보면 대체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주민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통해 패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좀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쉽게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처분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료라든지 기타 수입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기준 소득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상으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법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분의 소득을 인정 안 해 주는 법의 판단을 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분을 할 때 부서에서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분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회하는 소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처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고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관리하다 보면 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득의 인정 여부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소득을 생계소득으로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법의 판결을 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190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변상금 처분 취소가, 이거는 도로가 4.1㎡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1.5평도 안 되는 도로점용을 했는데,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력 남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막 찾아내서 돈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의 요구에 저희들이 수단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이 없었다면 해당 부서에서도 굳이 이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처분이라는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2017년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우동 자이 2차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건의 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행정지도 정도를 했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약자인 주민과 근로자한테는 우리 구가 행정력을 강하게 남발하고 있고, 또 GS건설이라는 강자한테는 약한 해운대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분의 소득 여부를, 본인 제출을 요구해서라도 인정해 줄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정해줬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분을 하는 부서들하고 패소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런 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가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결국은 상처만 남긴 채 패소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처분 취소 외에 이런 영세사업자가 받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어

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과거에는 행정을 늦게 지연 처리했을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경우도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경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구가 그 주민들한테는 행정소송까지 휘말리게 하는 불이익을 드린 셈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치유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없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승소를 하면,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주고요.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영숙 위원

공무원들은 승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올바른 행정을 했다면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게 처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소송 담당자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 담당자가 자료 조사도 열심히 잘하고, 소송에서도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한 담당자한테 한 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으로 10만 원가량,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 수행 담당자가 소송을 잘 수행해서, 변호사한테 소송을 줄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로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변호사에게 나가야 될 비용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승소하는 데까지 노력을 기했다는 격려 차원에서 소송 수행 직원한테 소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업무성과보고에 보니까 직원 직접 수행이 65%이고, 변호사 위임이 35%라는,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피해를 준 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한 직원한테 처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현재로서는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향후 가질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처분을, 너무 위축시켜놓으면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원영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10월 31일에 입법예고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이 건이 일부라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서 소송을, 우리 구가 현재 소송 중인 건이 부산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3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한 명 정도 더 댈서 4명 정도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문변호사를 1명 더 늘린다고 해서, 예산에서 그분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그냥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한 달에 16만 5,000원 그것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댈서 소송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여나가면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 조례 말고도... 입법예고가 지금 세 건이 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20분 경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 건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공무상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법을 어겼다는 등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아마 우리 직원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규칙으로 규칙의 개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직원은 보호해야 되고, 어떤 대비책은 없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정상

적인 업무를 하다가 업무에서 약간 미스(miss)가 있을 경우, 그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게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입법예고된 데에서는 패소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결과론적으로는 패소를 했지만 그 직원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거거든요.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법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기는 법을 해석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한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법에 판단을 구했을 때, 법은 종합적으로 다 자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여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은 자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한다는 취지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영숙 위원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권이 남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변호사 비용이나 우리 예산이 동반되는 건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런데 이게 패소의 유형을 봐서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것이 판단되면 그거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일탈해서 당한 패소 같으면 그 직원은 약간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법대로 했느냐 안 그러면 법을 벗어나서 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처분했느냐의 문제인데, 관련 법을 근거로 법의 집행 차원에서 처분을 했다면 그 직원은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직원의 처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초래되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해 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또 승소한 사건의 소송에서 지출한 승소 사례금,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소송비용은 있지만 패소한 주민한테...

○원영숙 위원

승소한 건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변호사 비용은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소송비용, 승소 사례금, 수임 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요. 현재 미회수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회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0월 말 현재로서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159건 중에서 회수는 125건을 했고 일부 12건 정도는 미회수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거의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게 기준이 소송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착수금이 100만 원이고,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일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송 착수금을 일단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도 소송 착수금에 기준해서 그 정도 비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180, 18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님!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5분 내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백팔십몇 페이지요?

○원영숙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질문이 기니까 193페이지에...

○위원장 조영진

예, 193페이지요.

○원영숙 위원

예. 2017년도 손해배상, 000 건 있죠? 변호사 수임료가 550만 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수임료 지급 기준을 보면 소송물 가액이 커서 그런지 교액 소송 건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반여1동, 지금은 재송동 구역입니다마는 계룡리슈빌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옆에 센텀시티 유치원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은 사항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수임료가 550만 원이 돼 있는 것은 소송 착수금 기준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 착수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만 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

결국 소송사건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부득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승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생한 비용은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이와 반대로 패소를 했다면 저는 패소에 따른 책임은 좀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패소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그 처분에 직원 개인이 법을 어겼거나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분을 한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구하기 위해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설사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 책임을 안고 가야 될 문제이지 그 처분을 한 직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을 또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렴도 꼴찌의 원인이 이게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고민하고 여타 부서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원영숙 위원께서 상당한 자료 준비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한테 30분 이상을 드리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안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영숙 위원은 질의를 마치셨고,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장성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라고 했죠? 박옥봉, 박지형, 김미애,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까 전에 십몇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16만 5,000원.

○장성철 위원

한 달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고문변호사로 해서 또 나가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고문변호사가 되면 소송에 따라서 변호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장성철 위원

아~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행정을 하면서도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4~10 관광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민선 7기 청장님께서 시설공단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이 되었든 도시시설공단이 되었든 그거를 가지고 내년에 한번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물론 충분히, 청장님께서 그런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자기도,

자기 마인드만이라도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외부에서나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넣고,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의 실적은 안 하고 4년 후의 선거운동을 벌써 하려고 한다, 이런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안 하고, 풀 뽑기하고 휴지 줍는 거, 담배꽂초 줍는 거, 그거 노인네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란 옷 입고 노인네들이 담배꽂초를 주우러 다니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나는 걱정이... 그런 일자리까지 다 없애버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담배꽂초 주우라고 하고, 풀 뽑으라고 하면 노란색 옷 입고 다니는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찌려고...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면 끝난 다음에라도 이제 끝났다고 하면 또 끝이겠죠? 공단을 갖다가... 그런데 그런 선발을 할 때 주로 자기 사람들을 넣고, 그 명단을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들리는 소문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되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만들어서 그런 잡음이 없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말만 먼저 도니까 우리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님!

○장성철 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장내 웃음)

서로 소통을 한다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지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그게 맞다, 원한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님, 지금 공단이...

○장성철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도 지금 안 한 상태이고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 지나치게 앞서 나가셔서 거기에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런 문제는요...

○장성철 위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깐... 걱정이 돼 가지고, 또 그런 소문도 나니까 노파심에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에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안합니다.” 소리는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장내 웃음)

○장성철 위원

그래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초선이 돼 가지고...

○위원장 조영진

하실 말씀은 바로 해 주시고, 나중에 소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두 과목이 남아있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실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짚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7년도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맨 위에 연번 47, 지난해 1,5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을 증가시켰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좌1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갈수록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여기의 다문화센터 직원들이 해운대에 있는 다문화가족들과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 센터장님께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분이 우리 해운대에 잘 정착을 하고 그분들의 자녀가 아무런 불편 없이 우리 해운대에서 구민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 국민이고 우리 해운대구민이니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책을 펼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왜 이 예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용역비만 2,190만 원이고, 전체 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투자된 비용이 207페이지를 보게 되면 2,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별로, 밑에 보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교육, 기타 등등... 용역을 한 데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인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한 가정에 아기가 한두 명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출산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봤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다문화가족은 아이를 가장 많이 데리고, 그날 행사에도 보니까 행사는 굉장히 미흡했지만...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를 거론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인구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좋은 견해 감사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이라고 1억 7,000만 원이 잡혔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한테 빨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억 7,000만 원 중에서 이때는, 처음에 시설비, 차량을 구입하고 빨래방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최초 투자비용이 상당 부분으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이거는 최초에 이렇게 들어갔지,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무료로 빨래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처음입니다. 이때가 최초 투자비용, 차량을 구입하고...

○김상수 위원

2018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몇 월부터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빨래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방문한 횟수라든지, 빨래방을 제공해 준 실적들은 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대라든지 모든 게,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그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한다는데, 자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송, 반여 지역에서는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라든지 이불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 또 제법 무게가 있는 빨래를 했을 경우에는 빨래를 적당하게 말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동빨래방이 가면 이불 세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 말려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혹시 실장님, 찾아가는 빨래방을 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거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반여2동에 무지개이야기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빨래방 지원 사업을,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할 때 제가 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었거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같이 넣어드리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와서 세탁하고 건조시켜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 빨래방 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운영을...

○김상수 위원

실장님, 지금 시행한 지가 2개월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실적을 좀 알 수...

(「2월부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2월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연번 53번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2017년도에는 241개에서 예산 지원이 1,7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늘었던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공기청정기 그거 때문에 그럴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경로당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지원돼 나갑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모든 경로당에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2억 4,000만 원이 나갔다면 어떤 특별한 경로당을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비품 구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축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그럴습니까? 혹시 이게 송정 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행복나눔과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심의 과정에서 총액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소상한 내용은 제가 어설픈게 답변을 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이것도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이 1,76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이 잡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68번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보니까 건축과인가 거기에 지난해 2억 5,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 전체 아파트임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될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경비는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잡혀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갔고요.

○김상수 위원

이게 어디에 잡혀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거는 예산서에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 경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는 3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지원돼서 나갔었거든요. 이거는 그거 말고 아마 별도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169페이지에 인문학도서관에 보면 ‘장산마루’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혹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는 무지개마을연구회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했던데, 2018년도에는 장산마루라고 바뀌어버렸어요. 무지개마을연구회가 없어지고 장산마루로 변경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돈이 지원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데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데인지 판단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예.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동물 사체 처리’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에만 해도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제가 알기로 동물 사체 처리는 잘 선호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정도를 처리하죠?

(집행부 답변 준비)

단가도 모르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이게 청소행정과 업무가 돼 가지고 사체 처리가 몇 건이 있었는지... 이거는 아마 총괄로 수의 계약을 해놓고 그때그때 당직이라든지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쪽에다가 사체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 그분이 와서 사체를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걸로...

○김상수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 위촉해제처분취소’ 해 가지고 220만 원이 들었는데, 이 내용은 짧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분이 반송2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000이라는 분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는데, 그쪽에서 또 파랑새종합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의 소외계층분들과 조금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면서 복지관장님이신데 지역의 소외계층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위신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을 해촉시킨 것 같습니다. 그 해촉에 불복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위촉과 해촉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동장입니다.

○김상수 위원

동장이죠? 위촉, 해촉자는 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동장이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해촉의 건수가 되느냐고 논의를 한 결과 해촉하시는 걸로 됐는데, 본인이 불복하셔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다음에 191페이지인데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을 더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내년에 한 분을 더 추가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한 분 더 추가로 하시면 현재 세 분이 여기에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옥봉, 박지형, 김미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정치적인 성향은, 이분들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밑에 계시는 분이 최근에...

○김상수 위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수석부위원장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현재까지는 이분의 임기가 연말까지거든요. 연말이 됐을 경우에 본인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해촉을 하고 민주당 쪽으로 넣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아니, 김상수 위원님! 좀 조정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해촉...

○위원장 조영진

아니, 해촉은 아는데 정당 관련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시면 교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개 국가 교류 현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교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은 중국 한강구, 필리핀 파라냐케시로 돼 있고요. 제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중국 양주시에 있는 한강구하고 교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집행액/예산액’에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이거 말고는 예산이 집행된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게 총계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계로 가운데 묶어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이거는 총액을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아~ 총액으로 해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에 보면 풀(pool)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을 보면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집행된 게 아까 최저는 주민참여 위원에 3만 원, 최고 줄 수 있는 게 7만 원, 이렇게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풀예산과 관련해서 지출된 단체는 예산이 12만 5,000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수당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나오시면 2시간 범위 내에 회의를 마친다고 보고 7만 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에 3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넘어서 3시간 안쪽으로 회의를 마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비용을 조금 더 드리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위원회...

○김상수 위원

그 규정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강사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기본 30만 원인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과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수당을...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강사도 초과가 되면 조금 더 드리는 걸로...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가 경주에서 (교육)할 때도...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회의수당인데...

○위원장 조영진

자, 김상수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주민참여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3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관련해서 위원회 조성을 한 데는 수당이 7만 원에서 12만 5,000원까지 조금만 오버(over)돼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일하는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오버하고 관계없이 최저 수당 3만 원으로만 땡 처리하

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군의 형평성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군하고도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의 플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가 1,609만 9,000원 지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앞에 보니까 선거 관련된 것은 836만 원,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청장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아까 앞에 지출된 게 836만 원,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있었죠? 1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여기에 보면 플예산으로 해서 반영했더라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836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8년도 플예산 집행내역에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게 이번에...

(집행부 자료 찾음)

○김상수 위원

11페이지에 총 지출된 금액이...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올해 9월 18일에 ‘가칭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56만 원, 7만 원 곱하기 8명이 돼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몇 번 지급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이거 외예요?

○김상수 위원

예?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9월 18일에 한 번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회의수당이 두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그 당시에는 최초로 늘푸른과에서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플예산으로 수당 지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9월 18일 회의에는 지급을 했거든요.

○김상수 위원

며칠 전에 늘푸른과 과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2회 집행했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을 당겨서 2회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회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렇다면 이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집행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날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8명에 대해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이 자료 명부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제언이 있습니다. ‘정책홍보현수막을 월 1회씩 주제를 바꿔 제작하여 설치’, 이렇게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 보면 지정 게시판이 있던데, 그 지정 게시판의 용도는 수익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정 게시대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구정 홍보용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전부 상업용으로 붙어있지 구정 홍보용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아가멤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구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홍보, 공고,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붙여줘야 되는데... 핵심 요지에 게시판이 있는데 보면 전부 상업용밖에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상업용 게시대는, 비용을 받고 게시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행정게시물은 행정게시물대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게시물하고 상업게시물, 이 두 개를 봤을 때 실질적인 요소는 상업 게시대의 위치가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 게시대의 위치가요?

○김상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두서없이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

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정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김상수 위원

아니,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시정돼야 할 이런 사항을 꼭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인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실장님한테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분은 그렇게 같음하고요. 오후에 나온 부분 중에서 패소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 추가 건적 내역, 승소 시 비용 청구 내역, 찾아가는 빨래방 이용 실적, 위원 수당 지급 기준, 장산보전 및 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이렇게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덟 분이 공히 공유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6:4, 아마 거의 근접하게 가시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향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중복가입을 지양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수당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3만 원이죠? 현실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용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제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내실 있는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통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제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한 행정권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소를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나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기준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단, 고의로 한다면지 이럴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일을 진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책임을 다 묻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속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실수로

간주가 됐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예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종지를 모아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묻는다면...

○원영숙 위원

일반적인 실수, '실수'라는 부분은 좀 빼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법이 실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아니, 이를테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일은 사기진작[士氣振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잘됐다고 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시간 동안 김상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38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 사 팀 장 박 재 학

청 령 조 사 팀 장 이 명 옥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2018년 부서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징계 내용을 보시면... 다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징계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이게 6급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가벼운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무거운 것은 시에서 징계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신분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법원에서 다 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징계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144페이지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검경에서 통보한 사항은 별개로 신분 조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이것은 법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우리 자체 업무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신분 조치 사항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한 건은 경감이고, 2018년도에는 또 감봉인데,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

○감사담당관 박성웅

음주... 혈중알코올 농도의 치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이고, 0.1% 이상일 경우에는 정직에서 감봉까지...

○김성군 위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렇지요.

○김성군 위원

그러면 경찰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면 벌금 얼마라든지, 받아서 지금 우리 자체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김성군 위원

통보가 다 온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검경 적발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 과실이나 업무 소홀로 해서 한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김성군 위원

이 사실, 3-1 이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여기에도 섞여있습니다.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성군 위원

음주운전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음주운전은 관계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입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 위원

예, 법원에서 넘어온 거... 형량, 벌금도 형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검경 통보가...

○김성군 위원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징벌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논의)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견책은 벌금 100만 원이고요. 그 뒤에 감봉 1월은 벌금 400만 원...

○김성군 위원

40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요즘 보면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인데,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 징계가...

○감사담당관 박성웅

자체 징계는 일단 징계 기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개인이 또 소청할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군 위원

그 위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무원이 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아마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

○김성군 위원

이것도 법원에서, 검찰에서 넘어온 겁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이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것도 벌금 200만 원...

○김성군 위원

20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자체 징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성폭력하고 음주운전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 건은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앞으로 징계를 강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알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관계는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범죄는 바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위원장 조영진

내용을 차치에 두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봉 1개월, 견책...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종을 울리셔서 각별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청렴 1번지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성웅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제 개인적으로 정직과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은 사명감, 책임감, 또 청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대해서, 책임감과 청렴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것은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청렴도가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500개 공공기관에 대한 빅데이터 순위 분석에 의하면 500개 공공기관 중에 종합순위가 몇 위이지요? 457위이지요? 69개...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69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라고...

○원영숙 위원

예, 청렴도가 5등급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87~116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 감사’에서 공사비가 감액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죄송합니다만 공사비 총액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시공 감사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시공감사한 자료...

○원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제가 총액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시공 감사에서 4억 원이 넘게 감액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시공 감사는 시나 우리 구의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예방

적인 지도의 목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에 낭비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산을 바로 잡고, 또 단가나 어떤 원가를 바르게 적용한 부분을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계산적이나 또 과다하게 잡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감사 방법입니다.

○원영숙 위원

상부기관이 서류만 검토해서... 공사위의 서류 감사로 지적한 것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도 합니다.

○원영숙 위원

현장 확인도 하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지적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 계산표에 의해서, 품셈에 따라서...

○원영숙 위원

설계 내용에는 있지만 시공 상의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가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가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원영숙 위원

공사 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감독은 전체적인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원영숙 위원

시공 감사에서 공사대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고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공사대금은... 공사 금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이나, 기성금이나, 준공금 형태로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원영숙 위원

공사 감독 경유 하에 재정관이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된 내용을 보면 시공 감사 상에 설계도서, 착공계, 준공계 등의 기본 서류만 잘 검토해도 충분히 내용을 거를 수 있었는데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담당자인 공사 감독관이 발견하지 못하고 상부로부터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이유는 뭘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 시공감사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져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공 감사 부분은 우리가 시에 감사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에 감사 요청한 부분이 되더라도 미리 공사 감독관이나 재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어주기 전에...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돈을 내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가 감사하기 전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것은 맞지요.

○원영숙 위원

이런 경우에 시공 업체한테 특혜를 받는 대가로 눈감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2017년도 하자 보수가 1건이고요. 2018년도에는 하자 보수가 0건이거든요? 하자 보수 요청이 거의 없는 것도 이런 눈감아주기 식과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물론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기간 내에... 또 의무적으로 하자가 있건, 없건 간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를 새로 신축한 경우에 물이 샌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하자 보수가 2018년도에 0건입니다. 송정동이라든지, 우3동이라든지 ‘물이 샌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만약에 상부로부터 감사 지적이 없었으면 4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니, 이 시공 감사는 공사 대금을 집행하기 전 중간에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적받기 전에... 공사 감독관이나 재정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이게 또 우리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기강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해이해져 있고, 직무 태만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 청렴도 꼴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청렴도 꼴찌를 한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해운대구에 대한 비리 문제라든지,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보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청렴도가...

○원영숙 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청렴도가 457위이고, 69개의 구청 중에서 69위를 한, 꼴찌를 한 원인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저희들은 외부 청렴도에 의해서, LCT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이 더 많은 작용을 했다고...

○원영숙 위원

단지 LCT 관련만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단지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더 많은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LCT 관련해서도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잘 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징계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보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너무 경미한 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해운대라고 하면 저희 스스로는 참 자부심이 있는 도시인데, 청렴도 꼴찌라는 것은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려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 실명제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지금 실명제는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원영숙 위원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사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고 선호하는 직업이고, 참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 같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떤 노력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박성웅



지금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제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한테 교육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친절함이 청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이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는데,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세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청렴구민감사관 명단’에 보니까 2018년도 8월 1일부터 2년간이네요. 임기가,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우동 쪽에, 잘사는 동네의 사람들을 많이 뽑은 것 같아서... 위원을 뽑을 때 어디에 치중을...?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공개모집?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지역의 안배 없이 본인이 감사관으로 신청을 하면, 크게 조례상에 걸격이 없으면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쪽 지역은 못사는 동네니까 인터넷을 볼 시간도 없는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제가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감사를 핑계대고... 사실 감사 기간에 행정은 뒷전에 두고, 물론 그럴

게 하겠지요. 누구든지 감사 기간에는 행정은 일단 뒤에 두고 공무원이 업무... 예산이나 감사할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감사 기간에 그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게 많더라고... 그럴 때는 꼭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좀 감사 처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지금은 옛날처럼 감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종일 앉혀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처리한 서류만 가져오고 담당자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혹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 번씩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의 방법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착오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좀 대범하게 베풀 때는 베풀고, 정말 이게 실수이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그런 뜻에서 하느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같은 지적을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좀 보호를 해 줄 것도 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보호를 해 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지금은 적극행정면책제도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사기가 조금 더 북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꼭 법으로만 자꾸 따지면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전에 제가 허가 같은 사항을 접수했을 때 서류를 자꾸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가라고 반려를 시키는 거야, 그게 접수를 하고 안 가져가서 통지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면 그게

감사 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민원서류를 일단 접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성철 위원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그냥 전화로 됐으니까 가져가서 처리해 달라면서... 자기들이 우편으로 보내주면 될 것인데, 우편으로 보내면 건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공문서를 반려하면 좀 그런 게 있나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것을... 그냥 우편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본인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지... 그런 문제는 뭐 때문에... ‘자진으로 처리해서 가져가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혜택을, 감사 지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오셔서 찾아가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왜 종용을, 가져가라고 권유를 자꾸 하던데 내가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그 때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지금은 대부분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장성철 위원

그러면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러니까 담당자가 민원에게 어떤 부연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오시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인에게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반려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미비한 것은 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수를...

○장성철 위원

아니, 해결이 다 됐을 때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다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장성철 위원

해결이... 하다가 안 되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장성철 위원

보완을 하라고 할 수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장성철 위원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15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분 후에 감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하시다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웃음)

○문현신 위원

한 시간을 하려고 그랬더니... (웃음) 농담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웃음)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아직 통장님이라는 게 저에게는 익숙한데, 호칭이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하기에... 보통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조영진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발령 난 지가 언제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11월 5일입니다.

○문현신 위원

뜨끈뜨끈하네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직까지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관리번호 3-9번, 185페이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상에 각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에만 한정된 감사였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을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감사를 하도록 조례 개정이고, 2017년 3월 10일인가 그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017년 3월 10일이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래서 2017년 당해 연도에는 못 하고, 2018년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상에는 들어가 있던데...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때는 아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는 201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민간위탁 사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민간위탁 기관에 최소한으로 한정해서라도 감사가 한 번쯤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감사를 처음 실시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원래는 당연히 했어야 할 업무를 앞에 분들이 안 하고 2017년도 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하게 되셨는데, 앞에 안 한 바람에 더더욱 잘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셨네요.

일단 대상기관을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8개 및 지도감독 부서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 건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게 당초 민간위탁 사무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부서에 73개 정도가 되는데, 감사대상 사무를 10개 부서에 16개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이 지금 위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우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감사라서 뺐고, 그다음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탁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빼고, 이 부분은 주로 체육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놀이센터, 상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좌동에 있는 해운대 도서관은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제외해서 저희들이 10개 부서에 16개 사무로... 그래서 올해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솔밭예술마을 창작공방, 청사포문화예술촌, 기술교육원, 교통콜센터, 유아숲체험장, 숲해설 민간위탁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남은 8개 사무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런 중복 감사 부분을 빼고, 도서관이나 BTL 사업 같은 것도 다 빼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지금 10개 부서에 16개 사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향후...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 결과를 보면 8개 사무 중에서 기관경고가 3건이 있고, 주의도 10건, 통보 1건... 그런데 기관경고 3건은 어느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일단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사포문화예술촌, 교통콜센터 이 3개 기관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상근직 변경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기관경고를

줬고요. 청사포문화예술촌은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분실, 정산 검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경고를 줬고, 교통콜센터는 사무에 대한 정산 검사가 부적정해서, 서류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서류가 소홀히 되다 보니까... 이 3개 기관에 기관경고를 줬습니다.

○문현신 위원

청사포는 이미 현재 없는...

○감사담당관 박성웅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문현신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하고 상근직 변경 절차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격요건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거기에 보면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 당시 센터장이 60세를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적이 되고 난 이후, 2016년 12월에 이사회와 2017년 7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계속 변경 승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직을 변경하면서, 수당제였는데 호봉제로 변경하면서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수당제를 호봉제로 변경하면서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변경했다는 것은 이것 역시 센터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콜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정산 검사가 부적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소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류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일부 서류 확인이 불가해서 그렇게 처분한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서류 확인이 불가했다는 것은 서류가...

○감사담당관 박성웅

정산서를 제출할 때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문현신 위원

교통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청사 내에 있는데도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네요?

그러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어떤 선정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감사담당관 박성웅

민간위탁 사무는 이미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관계적으로 재위탁을 한다든지, 제가 일반적으로 그전에 봤을 때...

○감사담당관 박성웅

위탁자가 만료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탁사무가 맞다, 아니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단순히 맞다, 틀렸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다른 어느 부서의 위탁사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대상기관이 현재 이 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기관인데, 계약 바로 직전 2개월 전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위탁받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 등록 2개월 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성웅

위탁사무가 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 민간위탁보다는 용역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업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조금 불합리한 그런 민간위탁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도 될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관계적인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고 해도 공모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없이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거나... 또 2개월 전에 법인 등록을 하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개월 후에 위탁 승인을 받고, 이렇게 위탁 계약이 되고... 그런 경우처럼 누가 봐도 내정된 위탁,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는 이런 식으로 위탁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경우가 은근히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문현신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따로...

○문현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사담당관님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문현신 위원

물론 민간위탁 기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첫 감사를 실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감사 과정에 있어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라든지, 조작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위탁자 선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단순히 형식적 주의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도점검과 민간위탁 심사까지 해서 관리·감독의 허점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시 5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좀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직원 청렴교육 실시 결과에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원 교육이 우선이라고 해서 교육을 올해 조금 강화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보는 교육은 ‘청렴하라, 깨끗하라’,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에 자긍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해운대구청 공무원이다’, ‘해운대구의 회 의원이다’, ‘내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런 자긍심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육이 전부 보면 청렴교육이라서, 이런 교육의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 어떨겠는가, 예전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처럼 ‘나는 해운대구 공무원이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해운대구 공무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청렴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의 이런 교육보다는 사전의 교육은 자기의 본분입니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청렴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적에 남길 때는 ‘청렴’이라는 말을 많이 포함해서 씁니다. 교육을 했을 때 콘서트 같은 것도 했는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박기훈 위원

제 말은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명칭을... 먼저 튀어 나오는 게 청렴교육이라고 하지 마시고,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시켜달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청렴교육보다는 ‘공무원일 때 나의 자긍심’, 이렇게 ‘공무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교육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청렴교육은 검으니까 하얗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하얀 거를 더 하얗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 자긍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명칭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또 145페이지에 청렴구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 실적에 보면 2003년도 8월 11일에 14명으로 위촉됐잖아요? 지금은 37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당초에 옛날에는 동에서 1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나 그런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여기에 보면 ‘무보수·명예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산이 19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인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분들의 연간 활동비로 연말쯤에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형태로...

○박기훈 위원

아~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무보수라도 무조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인적사항 및 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데, 여기에 15페이지 정도의 활동 실적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이 건의사항을 보면 여기가 감사담당관인지 민원담당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건, 한 건, 다 읽어보니까 청렴도라든지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특히 여기에 보면 ‘벤치를 도색해 달라...’, 거의 다 보면 조치 완료예요. 여기에 보면 전부 조치 완료, 뭐 했다, 뭐 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청렴구민감사관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민원만 내면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올리지 말든가, 여기에 전부 보면 자기 집 앞에 봉이 있다고 치워 달라, 벤치를 칠해 달라, 뭐 도로가 이상하니 치워 달라, 전부 조치 완료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올해부터 구민감사관도 앞에 청렴을 붙여서 청렴구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쓰는데, 향후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단순히 주민불편신고나 어떤 건의사항 위주로 감사관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져서 시책적인 그런 건의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 주는, 지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여기에는 위원장이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위원장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 담당 부서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아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청렴도를 위한 그런 곳이니깐 그런 질문만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14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니까...

○박기훈 위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얼마든지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라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으면 이분들이 해결하러 오면 맨투맨(man to man)을 하든지 여기에다가 건의 내용을 적어서 조치 결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안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민원사항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일단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의 활동 실적을...

○박기훈 위원

활동 실적이라도 이런 실적을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치 결과를 해놓으면 저라도 만약에 다음에 제가 민원 넣은 게 조치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라도 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는 다른 과로 직속으로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과에다가 민원을 넣든지, 이렇게 건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조치 결과까지 해서 처리부서까지 다 적어놓는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행감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지만 교육보다는 먼저 행동이거든요. 행동이니까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와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면서 조치 결과까지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저는 그럴습니다. 청렴, 참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보다는 공무원의 자세,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자긍심을 느낄 때 청렴도는 10위가 아니고 1위로 금방 올라올 겁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박기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박성웅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관리번호 3-7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전국 69곳 중에 37등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정순세 위원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는 69개 자치구 중에 69등인데, 이거는 주로 원인이 LCT 문제라고 하셨는데, LCT 문제가 정확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LCT 문제가 많이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청렴도의 측정 대상이 인허가 및 보조금 지원 등 관련 민원이 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의 업무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자세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 친절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인분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고, 서로 대부분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업무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로서 우선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는 그런 민원 응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LCT 관계는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본다면 측정 방법이 LCT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해운대구의회 구의원 청렴도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것도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랑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꼴찌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정순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7대 구의회도 전국에서 꼴찌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구의회는 왜 꼴찌라고 측정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너무 의아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의회도 외부청렴도가 많이 작용한 걸로,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합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외부 언론 보도사항은 구나 의회나 같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정순세 위원

청령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대부분이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인허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세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세무 관련 업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평가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거기에는 민원접수만 하지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정순세 위원

크게 관련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정순세 위원

얼마 전에 관내출장비 허위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거는 일단 정리된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처리했던 일부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외근부를 한 번 달면 멀리 가는 업무야 가는 소요시간이 있지만 직원들이 가까운 곳은 계속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짧은 시간마다 계속 외근부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처리를 하고 그런 업무를 반복적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거는 개인 업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혹시 청령도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 말고, 다른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올해 저희들이 청령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직원들의 교육을 우선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 관련 업무들을 저희들이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청령교육을 5회 정도 실시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령연수원팀을 초청해서 콘서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서나 동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또 청령문화체험도 실시하고, 또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면 오늘

의 청렴상식이나 퀴즈,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설명 등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렴해피콜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민원을 보고 가신 그런 분들의 명단을 찾아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적정하게 잘 처리했는지, 친절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리콜(recall)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계속 청렴도 하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고, 앞으로 청렴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올 연말 평가에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대민 친절에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질의했어요?

○위원장 조영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하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집행을 안 한 것들이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밑에 잔액 사유가 '연내집행예정'은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추경에서 잔액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31페이지를 보시면 청렴문화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80만 원,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입니까?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니,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이거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아, 이거는 2017년도 거네...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에 청렴콘서트 개최가 주로 보면 판소리, 청렴 상황극, 이게 청렴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청렴 내용을 주제로 한 판소리입니다.

○김상수 위원

판소리가 청렴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것을 판소리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봤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로 보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너무 딱딱하게, 교육을 여러 부분으로 많이 해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 청렴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있는 팀들이 하는 공연 형태를 지닌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초청을 해서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주 사용내역이 뭐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주로 여기에 보면 간담회 경비나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자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간식 정도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상급기관 간식비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의 간식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주로 상급기관입니다.

○김상수 위원

명칭은 상급기관이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상급기관이 뭐... 내용을 보면 전부 상급기관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대부분 시나 다른 중앙부서에서 감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식대가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선거법과 관련돼서 기타 등등...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거는 최대 4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최대 4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6월 7일에 보니까 4만 원이 있더라고요. 금수복국에 가면 전부 4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도가 4만 원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 결과가 있는데, 청렴도와 관련돼서 부서별로 연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안 한 걸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난 연도도 없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안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거는 올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안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올해는 왜 안 했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아, 이거는 저희들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청렴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구청이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요. 학교에도 어린 학생들을 보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다 나와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선생님이 어떨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긴장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 소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설문조사는 한 적이...

○김상수 위원

원래 1년에 평균 몇 회씩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실질적인 것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청렴도이지 우리 해운대구청은 좀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에 공개모집하는 위원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렴구민감사관의 명단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37명을 공개모집한 걸로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37명이 접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접수한 37명 모든 분을 다 위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37명이 접수했는데, 37명이 다 청령구민감사관이네요. 이 명단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 청령구민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접수를 한 그대로 37명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특별한 결격사유나 지역에서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면...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거를 보면 왜 우리 해운대구가 청령도가 떨어지고 자꾸 형식적인 일을 하느냐, 이게 다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대가리 수 채워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10명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청령도에 대해서 따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37명이 접수했는데 37명을 다 받아서, 그러면 50명이면 50명 다 받아서 수당만 나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모집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온 37명을 청령구민감사관으로 모집했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일단 저희들이 규정상 40명 정도는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모집됐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구에 관심이 있고 청령도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10명을 해도 좋다는 거죠. 제대로 좀 추려내서,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명단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동네 부녀회 했던 사람,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사람, 안 그러면 뭐 소개받아서... 명단을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청령도에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해운대구가 너무 형식적이다,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관이 개선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모두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5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 해서 ‘2018년도’에 쪽 나와 있는 것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없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치 결과를 적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 자체감사 실시 현황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굳이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고, 137페이지에는 보면 ‘지적사항 없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러니까 1-20의 내용은 우리 부서가 감사를 받고 지적된 것에 대해 실적을 적는 걸로...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 통틀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을 기록하는 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작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해외 방문내역 및 효과분석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기관에 방문한 사항은...

○김상수 위원

부서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업무가 아주 정해져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가 거의 없네요? 전부 부서에서 다 해버리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오직 청렴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해외기관을 방문해서 연수, 출장 사업설명회를 한 실적이 없다

는 말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내역, 이것도 그러면 부서의 하자 보수만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렇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자 보수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러니까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축제, 행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공통사항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라든지 현황 및 환류내역에 출장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출장 목적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벤치마킹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이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하고 간 경우의 대다수가 이 항목에 적용하고 실적을 기록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육을 갔을 때 이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석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거는 어떤 상급기관에서 그 대상자에게 출장을 오라고 해서 간 사항을, 여기에서의 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간 벤치마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청렴구민감사관 37명, 할 때는 나름대로 시책이라든지 심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37명 임명만 하고 그 뒤에 회의를 한 적은 없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없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시기 전에, 그러면 위촉은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구청장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그게 끝이지,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연말에 되겠습니까? 굳이 연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말 송년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

○김상수 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게,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 내용이, 이 책의 페이지를 보면 반 이상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실로 연락하면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니까, 아마 그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 가면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든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145페이지에 37명의 주요 역할을 보니까, 이 역할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역할이 과연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2017년도, 2018년도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거는 과다 책정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예산은 전부 300만 원씩 잡았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집행된 것은 78만 원, 9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보니까 '12월 중 집행예정'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성웅

2017년은, 그분들의 활동 보상비를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까 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한 거고요. 2018년은, 해마다 활동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이번 기회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에 위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개선점이나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 조치 결과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위원장 조영진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전체 여덟 분이시니까 같이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행복마을센터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급 기관 또는 구 자체 감사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보시게 되면 행복마을센터 지도감독 부서, 아마 일자리창출과가 소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 규정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모니터링을 한 시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여기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 운영하고 수익금 관련까지, 회계자료까지 다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은 첫 번째는 청렴구민감사관 회의 자료, 두 번째는 행복마을 모니터링 시행 결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실적과 조치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위원님이 여덟 분이시니까 여덟 부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문현신 위원

청렴구민감사관 회의는 안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위촉식은 8월에 했고, 회의는 연말에...

○문현신 위원

회의는 아까 연말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촉까지만 한 상태이고, 회의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자료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시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속기가 돼 있다고 보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성폭력 등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사항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자체 감사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issue)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운영의 묘니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설문조사는 청렴도 등이 파악 가능하나 실적이 전무하므로 업무 소홀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인 청렴도 향상의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위원님의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시다마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 속기 내용에 다 돼 있으니 과장님이 참조로 하셔서 차체에 또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안이 생기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되 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들의 청렴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있으신가요?

○김상수 위원

그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렴구민감사관 37명 위촉한 거, 그거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 감사담당관 37명의 위촉 건, 그러면 그 자료...

○감사담당관 박성웅

그런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재위촉은 조금...

○김상수 위원

아무리 임기가 있어도 그렇지...

○위원장 조영진

아니요,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리가 없고...

○장성철 위원

8월 1일에 했는데...

○위원장 조영진

아니, 8월 1일에 해도 임기가 개시가 됐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위원장 조영진

개시가 됐으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일단 차후에, 2년 후에 그렇게 해 주시되 대신 명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명단은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다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위원장 조영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법적으로 2년 후에 안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 서 이런 위촉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앞으로 시정 조치할 의향은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박성웅

예.

○김상수 위원

앞으로 청렴구민감사관들이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회의할 때마다 그 회의록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

## 6) 민원여권과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객 만 족 팀 장 조 진 훈

가족관계등록팀장 장 정 해

여 권 팀 장 윤 중 호

통 합 증 명 팀 장 정 인 실

(「사랑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영진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2017년, 2018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점사업이 민원실 환경 개선 추진, 두 번째 전화 친절 및 고객 만족도 증진, 세 번째 탄생 축하기념 증

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네 번째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접수 운영, 다섯 번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여섯 번째 여권 도착알림 문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해운대구 공인 교체하고, 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 주민센터 확대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추진 실적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어떤 부분...?

○원영숙 위원

가령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이 2017년도에는 2,114건인데, 2018년에는 1,750건이고요.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접수 운영의 추진 실적이 (2017년에는) 72건인데, 2018년에는 4건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의 추진 실적이 2017년에는 1,004건인데, 2018년에는 790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먼저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2018년도 자료는 지난 10월 말까지의 자료라서 더 수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본인의 신청 여부를 떠나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민원여권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선전해 내면 추진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일단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는 이미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같이 해 놓고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2018년도 중점 추진 사업에서... 아까 기 업무성과 보고를 할 때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원영숙 위원

이 부분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넣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인바디 시스템이나 셀프... 그런 것은 이미 해온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민원여권과는 온몸으로... 직원들 모두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원영숙 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애로사항이 왜 없어야 하겠습니까마는... 오늘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무1과나 세무2과에 민원이 왔는데, 여기에서 접수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1차로 저희 부서에 옵니다.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가고, 이것은 세무1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짜증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지난 2016년도까지는 시에서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우리 구가 단연 탑(top)이었습니다. 그런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정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대민 창구이니까 우리 구의 얼굴이고 한데, 어쨌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시키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격려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김현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9-13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정순세 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이것은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려면 절차를 다 거쳐서 호적관계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출생이 등록된, 아기 이름으로 등록된 기본증명서를 그 자리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탄생 기념축하 증명서와 같이 줍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원 편의 시책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기가 등록된 기본증명서를 바로 받아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느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기본증명서라고 하면 어디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가족관계증명서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의 호적등본인데, 그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나와 아버지와 자식 그것만 있고, 출생증명서가 따로 있고, 출생관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양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옛날에는 호적등본에 모든 게 다 나와 버리는데, 초본과 등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된 사람은 입양 관련 서류가 따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9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측석에서 발급해 드리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구청에서도 발급을 하고,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순세 위원

아~ 동에서도...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무인발급기도 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는 업무 외라서 안 되고요.

○정순세 위원

지금 현재 혼인신고 무료 포토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토존만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사진을 즉석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본인 카메라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가시지요.’라고 해서 두 분이 앉으면 직원이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분이 신청만 하시면 직원이 나가서서 촬영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자기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찍어드리는...

○정순세 위원

휴대폰으로 해서 찍어드리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정순세 위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정순세 위원

본 제도가 출산장려정책 등 좋은 시책이므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해운대구의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율적인 대책,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웃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다른 구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시설이 되어 있는 구는 하겠지만, 현재 포토존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증명서도 우리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구에 올해만 해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시설을 해놓은 부분 있지요. 인바디라든지 셀프 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상담, 일자리상담, 복지상담 이런 것까지 그런 시설은 전국으로 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다녀간 사례가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글쎄요. 내년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느 방

법이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은 광범위한 것이라서... 출산까지 가려면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새로운 도시를... 반여, 반송에 젊은 층을 많이 유입하고, 아이를 낳기 좋게 교육 환경부터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시책보다는 그런 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세 위원

포토존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신고를 잘 안 하고, 우리 구에서 거의 다 합니다.

○정순세 위원

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정순세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시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17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대가 더 들어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증명서를 떼는데,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창구에서도 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무인발급기에서도 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얼마나 떼는지 비교가 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이 무인발급기하고, 민원24시하고, 우리 구에 방문해서 하는 것하고 전부 해 보면 우리 구에 방문해서 하는...

○김성군 위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

○김성군 위원

동사무소를 포함해야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동 것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문화복합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민원발급 건수가 6만 4,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김성군 위원

아니, 미안한데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건수하고, 동사무소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건수하고,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건수 이게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민원24시는 41만 건이 됩니다.

○김성군 위원

예, 41만 건... 전체?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올해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김성군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11만 3,000건 정도 되고요.

○김성군 위원

11만 3,000건...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다음에 우리 구 창구로 발급된 게 6만 4,000~5,000건 정도 되고요.

○김성군 위원

창구가 현저하게 적네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인터넷이 훨씬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송, 반여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어  
도... 저도 해봤지만 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약간 어렵습니다.

○김성군 위원

인원을 하나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해 주면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

○김성군 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인원 배치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새로운 인원을 배정받아주면 모를까... 그런데 인원을 배치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창구에 가서  
발급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창구에서 할 것 같으면 굳이 무인발급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하지,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물론 그런데 보시면 민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반여1동, 우3동, 그다음에 좌2동,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김성군 위원

인구가 많으니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와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럴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아 가지요.

○김성군 위원

젊은 분들이...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오셔서 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 어려울 때 옆에서 약간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드립니다. 보조 인력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직원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화면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직접 다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김성군 위원

자활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법만 가르쳐주고 빠져나와야지요. 그것을 개인정보까지 보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김성군 위원

주민센터의 사무분장 권한은 동장에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인력 배정은 구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성군 위원

그렇구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인력을 배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반송, 반여 쪽...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런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성군 위원

그렇지요. 검토해볼 만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은 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더 복잡한 일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민원이 줄을 서 있는 경우에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하면 효율적인데, 민원이 줄을 서지 않는데 굳이 그 기계를 사람까지 배치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김성군 위원

일괄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반여, 반송은 빼고 차라리 그 돈을...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반송2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반송1동에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있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괜히 설치했나 싶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낮 시간은 그렇고,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박기훈 위원

저쪽에 갔다가 오지요.

○위원장 조영진

그럼시다. 운영의 묘를...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아까 여권팀장님께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도 아까 친절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지향한다는 말씀에... ‘사랑’과 ‘친절’ 이런 단어들을 들어서 오늘 쌓인 피로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2017년도 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후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고 말 그대로 행복민원실로 탈바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았던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아까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반응은 어떨습니까? 민원인들의 현장에서의 반응...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아~ 민원인이 오시면서 3년 전에 왔다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보고 관공서가 아닌 분위기이다, 디자인이 관공서에 들어오는 기분이 아니라서 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별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층에서 해야 할 일자리 이런 상담을 아래층에서 바로 하고 가니까 편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건강 체크가 있지요? 인바디하고 건강 상담을 금요일에 하는데, 그것을 하는 날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나왔던 그런 칭찬들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 ‘훈인신고 기념 포토존’ 그 부분에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촬영을 본인 휴대폰으로 찍어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그 촬영 후에 인화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면...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2018년도에 790건이고, 2017년도에 1,004건이면 1,000건 내외라는 애긴데, 인화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된다면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을 때는 가서 찍어주는데, 대다수가 자기들끼리 찍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화 서비스까지 하려면 즉석카메라로 하더라도... 즉석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아서 오래 못 갑니다.

○문현신 위원

그게 즉석카메라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인화를 하려고 하면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것 같이 그런 기계를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현신 위원

큰 기계가 아니어도...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게 가능합니까?

○문현신 위원

휴대용... 그게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내가 해 보니까 너무 화질이 좋습니다.

○문현신 위원

잠시만요. (웃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휴대용이 있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그런 데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제 휴대폰으로 찍어주고 거기에서 바로 인화를 해 주는데, 큰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대용... 즉석 카메라처럼 그런 조그마한 휴대용이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인화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한번 검토를...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적극...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아까 호적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기본증명서가 있고, 출생, 입양이 있고, 9가지로 발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알아보기에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은 따로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호적관계가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료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문현신 위원

민원실에서 업무 처리하는 그런 증명서 부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6번, 73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근무시간 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야간민원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주 1회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처리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통합증명 부분은 1년 360일 통틀어봐야 20~30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모두 여권입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으니까 수치가 더 늘어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문현신 위원

이렇게 야간민원이 여권 처리 부분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여권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본인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통합증명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무인 발급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현신 위원

여권 부분은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전화 상담도 많이 해 드립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문현신 위원

전화 상담까지...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전화 상담도 하고, 여권과 관련해서 방문할 경우에는 상담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존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존치 여부를 떠나서 저는 혹시 시스템적으로 다른 효율적인 강구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면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업무 때문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됩니다. 지문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탄생 축하기념 증서와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무료 제공을 한다는데, 9개 종류를 떼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짜로 다 줍니까? 9개를...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9개 다 안 하고, 기본증명서 하나만...

○박기훈 위원

하나만 공짜로 주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웃음)

○박기훈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인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한 건당 1,000원씩입니다.

○박기훈 위원

1,000원인데, 제 말은 이것을 떼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사용은 안 하지요. 우리가 주는 것은 탄생 축하기념으로 주는 것이고...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나중에 필요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태어났다고 꿀랑 그것 하나 주면서... 그때만 무료가 아니라 1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월 줘야지, 태어날 때 한 번 무료로 1,000원짜리를 주면서 그것을 기념으로 준다는데... 제가 하는 말은 기간을 정해서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언제든지 사용권을 쓰시라고,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해운대구의 동에 가서 이 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한 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공짜입니다.’ 하면서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할 때 그런 것을 떠나서 아기의 탄생을...

○박기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등록하고 그 기분을 좀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주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박기훈 위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아이가 탄생했는데,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1,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구에 들어오면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좀 외람된 말이지만... 입구에 안내하는 분은 무기직 근로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그분 빼놓고는 민원여권과에 가면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인상을 팍... 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뚝뚝한 그런 행동이 아직도 보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해운 대구의 얼굴인데, 민원이 갔을 때 ‘안녕하세요.’부터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안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보다는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해 주면 그 민원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도 한번 입구에... 제가 한 번씩 몰래 싹 지나가면 전부 다 불만이 많은가 인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제가요?

(장내 웃음)

○박기훈 위원

아니요. 안에 사람을 지켜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민원 모니터단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무보수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40명인데, 이 예산에 보면 ‘민원 모니터단 활동 운영비’라고 해서 30명이 있는데, 이것은 뭘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매주 화, 목요일에 이분들이 두 분씩 오셔서 인허가 민원이 있지요? 건축, 식품위생,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간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다 합니다.

○박기훈 위원

전화를?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할 여유가 없어서요. 이분들이 와서 ‘구청의 건축과에 무슨 민원을 발급받으셨지요?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전부 물어보고...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명이거든요. 여기에는 40명이라서 물어보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아~ 참여하는 분들한테만 줍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지금 '민원 모니터단 운영 현황'에 보면 구성인원에 40명이잖아요? 예산서는 30명에 곱하기 3을 해서 27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서...

○박기훈 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 3만 원씩 곱하기 3회 해서 27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0명인데, 1인당...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기훈 위원

그러면 40명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예산 책정할 때 30명 정도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 지금 여기에는 40명으로 해 놓고, 30명...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30명으로 하지, 뭐하러 40명으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은...

○박기훈 위원

아~ 예산서에는 30명으로 올리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웃음) 전부 다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주거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박기훈 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40명을 올려놓아도 30명밖에 안 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연간 계획을 하다 보면 실제 활동하는 게 30명 정도면 되기 때문에...

○박기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화 친절도 조사는 외부 기관에서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이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부 기관에다가... 이분들이 못 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것은 전화 친절도를 위탁해서 합니다.

○박기훈 위원

누구한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리서치 회사에다가...

○박기훈 위원

아니, 누구한테 전화를... 직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직원한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한 번 할 때 800건을 4~5월에 한 번 하고, 9~10월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을...

○박기훈 위원

아~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그분의 친절도를 본다, 이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직원들한테 알려줍니까? 언제 한다고...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기간은 알려줍니다.

○박기훈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언제부터 한다는 기간은 알려줍니다.

○박기훈 위원

아~ 직원한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직원들은 그분들이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지...

○박기훈 위원

언제 하는지 날은 정해 준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보통 3월부터 2~3달을 정해놓고 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 달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달을 정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의 과장님만 알든지 집행기관에서만 알면 되지, 전 직원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시에 이분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려고 하면 이 리서치 조사를 언제 하는지를... ‘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전화가 온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달을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달을 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할 때는 그렇게...

○박기훈 위원

아~ 몇 월에 한다거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내 도서 확보 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185권에 15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다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120만 원을 삭감했는데, 30만 원을 가지고 책을 다 샀습니까? 그 이후에...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2016년도에 저희들이 185권을 구입하고, 2017년도에는 민원실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책은 2016년도 책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책을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런데 지금 책 185권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서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하는, 추천하는 도서도 없고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끝으로 제가 하는 말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슈퍼를 가든가, 아니면 편의점을 가든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글쎄요. 민원을 대하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슈퍼에 손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해운대구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민원여권과에서 들어오는 고객한테 어떻게 말하라는 매뉴얼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 매뉴얼은 아까 말씀하신 안내하는 직원이 기본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어느 부서를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것 말고, 제 말은 민원이 번호표를 뽑고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번호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 사유가... 주민등록 창구로 오시잖아요?

○박기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은 번호표를 뽑아오면 당연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왔겠지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말은 처음에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해운대의 얼굴인데, 해운대구 민을 상대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만드셔서 처음에 번호표가 땁니다 하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들어오면 처음에 그 고객한테 ‘뭐가 필요합니까?’보다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주면 듣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시행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친절도 좋은 해운대구를 만드는 데 주역이 되면 어떨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민원과에 연락을 해서 그 매뉴얼을 붙여서 스마일을 그려놓고, 첫째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전 민원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장성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끝냅시다.

○김성군 위원

또 오시기 불편하니까, 그냥...

○장성철 위원

밥 먹고 하기는 그렇고...

○위원장 조영진

저도 생각할 때 내일...

김상수 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김상수 위원

저는 한 30분...

○위원장 조영진

30분요?

○장성철 위원

저는 5분도 안 됩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혹시 감사중지가 저녁식사를 하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영진

그렇지요. 30분 같으면 이래저래 하면 7시가 되어 버리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가신다는데 편의를 봐 드려야지요.

○장성철 위원

저도 2분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왜냐하면 재무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안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늦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도 마치는 것이 낫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조영진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전화 친절 및 고객 만족도 증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전화 친절 하는 것은 조사를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이것은 외부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 직원의 업무에 맞게 질문을 해서...

○장성철 위원

아~ 직원들한테 한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들에게 하면... 민원 처리를 잘 받았는지 민원인한테, 민원을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할 것이고, 잘 안 해주면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거꾸로네요? 직원들에게 질의한다니까...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직원이 잘하더냐고 이렇게 묻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고객 만족도 증진’ 이게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고객 만족도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 모니터단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데, 이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이것은 우리 직원...

○장성철 위원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전화를 해서 세무1과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세무1과로 어떻게 안내를 잘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물었을 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

○장성철 위원

만족도는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장성철 위원

결과가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

○김상수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평균 94%...

(장내 웃음)

○장성철 위원

94%?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장성철 위원

예, 정말 친절히 잘하시는가 보네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그 뒷장을 보십시오.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및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이 있는데, 탄생 축하기념 증서 발급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발급을 안 하면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행사는 좀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벤트? 좀 그런 게 안 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보기에 따라서...

○장성철 위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와 연계해서 하는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것은 보면 너무 전시행정 같은 그런 게 보이고, 앞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되었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국내 민원 견학을 몇 번 정도 가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민원 직원들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힐링캠프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시나 중앙부서의 교육이 있는 경우에 가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김상수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꽃이고, 얼굴이고, 관문입니다. 민원여권과가... 관문에 가장 스마일상인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말 잘된 곳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점을 뒤서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점을 뒤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쪽은 전혀 없는 것으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부서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까 홍보 자료에 보면 ‘행복민원실 견학 안내’라고 해서 해남시청 공무원 외 45회, 1,315명이 다녀갔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저희들의 시설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45회, 1,315명이나 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한 번도 안 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도 이 시설을 할 때 여러 곳을 안 보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로 보서는 저희 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시설을 보고 향후에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열정적으로... 이 안에만 갇혀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항상 그 내에서만 보고, 내에서만 느끼고 하기 때문에 관문도 넓히고, 또 힐링도 되고,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주심으로써 직원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안에 내부적인 것만 찾아내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구립사점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 친절도보다는 주민이 와서 느꼈을 때 보는 각도가 정말 해운대구가 친절하고 느낌이 좋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절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가보면 정말 잘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보다 더 잘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에 걸맞은 민원실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해운대구청에 딱 들어오면 제 개인으로서는 가장 잘된 데가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상쾌하고 느낌이 좋고 음악이 흐르고 이런 게 해운대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일반 주민들의 느낌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구에 들어오면 ‘구청 민원실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깊게 정말 잘되어 있네.’ 이런 것보다는 좀 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도 개선하듯이 다른 분야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항상 입구에서부터 꽃이 있고 음악이 있고 살아나는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청렴도 1위가... 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고, 발전적이고, 주민과 와 닿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주민하고 바로 직접 닿는 데는 저희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경찰서의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 파출소 어디든 가면, 딱 들어가면 인사부터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친절합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박기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이나 구청에 서류를 떼러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이 되기 전에... 해보면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하지, 갔을 때 먼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누구나 그런 공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여권 무료등기 송달이 지난해 214건이 있었습니다. 무료 송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등기 비용입니다. 한 건당 2,700원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2,700원 곱하기 214건... 큰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58만 원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적은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사회적 약자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김상수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다음에 수급자가 주 대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쪽으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17대가 설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와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계는 나오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현재 통계 자료는 동별로 수치만 나와 있지, 무인발급기하고 그것은... 우리 구 민원만 봤을 때는 전체 한 2:1로 무인발급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 전체로 해버리면 무인발급기가 그 수치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2:1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집계상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무인발급기가 11만 3,000건이거든요. 무인발급기로 발급된 건수가... 그다음에 통합증명, 우리 구하고 별관하고 들어간 접수가 6만 4,000~5,000건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무인발급기로 발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간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한테 가면 신속하게 바로 땔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아직까지 작동법이랄까 이런 게 미숙해서 상당히 그렸더라고요. 저도 한번 떼러갔다가 안 돼서 직원한테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2:1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무인발급기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 누구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가서 땔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무인발급기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 가면 밤에도 돈을 인출할 수 있듯이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점차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구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동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좌1동 같은 경우는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하고, CCTV 카메라하고, 세콤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 시에 즉시 사람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 내년부터 진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동 안에 설치해서 직원의 근무시간이 마치면 같이 셔터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예,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13페이지입니다. 다 됐습니까? 동사무소별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백 원이라도 다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지금 18개동에 몇 대를 설치... 1대당 보니까 한 25만 원...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동마다 1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동별로?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민원 창구에 카드 설치기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 민간인 위원들이 왜 2명, 3명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조영진

그 조례상...

○김상수 위원

다른 부서에는 30명, 50명 이런데, 민원여권과는 할 거리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은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규칙상에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같이 그런 위원회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최소화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에 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기타 등등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느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 1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연 2회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땡입니다. 두 사람... 이게 과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 기록물의 보존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물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의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개가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했을 때 그분한테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고, 민원조정위원회 역시 민원 간의 조정이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3회,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로 끝나는...

○김상수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인원을 많이 늘려보시지요. 간부 회의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들어갔습니다.

○김상수 위원

간부 회의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라고 안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일단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조례를 다 개정하는데, 왜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야 긴급도 빨리 하시지요.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올해 보면 전체 예산은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1-27의 포상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 결과 기관 표창에 관한 사항이고, 이 예산의 포상금은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재 실적을 봤을 때 포상금 책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체 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정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김상수 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거기에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년에 대폭 인상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일단 내년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해놓았고, 특별히 내

년에는 민원 사례를 위해서 시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민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대회를 하나 개최합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포상금을 높게 설정해 놓았는데, 그때 예산 검토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슴을 펴면 얼굴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전부 다 가슴을 펴고 하면 인상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지난해 포상금처럼 예산을 560만 원으로 잡아놓으면 똑같이 그 얼굴이 그 얼굴로 갑니다. 조금 더 높여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한 만큼 혜택도 받고...

올해 포상 제도 휴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해당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글쎄요. (웃음)

○김상수 위원

그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좀 찾아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배려 창구 운영...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무슨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일단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휠체어를 비치해서 탈 수 있게 준비해 놓았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화장실 맞은편에 충전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기동 옆의 창구에서 직원이 전담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그것은 기본으로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갖춰야 될 게,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무료주차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임산부들 주차 라인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안내를 합니다. 옆에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국기게양대 앞에 보면... 어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말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옆으로 바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초소에서 바로 우측으로 빠지는 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엘리베이터 쪽에...

○김상수 위원

저 안쪽에?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그게 맨 안쪽에, 구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문에 딱 들어오면 위치 표시가 없어요. 임산부나 노약자 그런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다른 데는 가면 대부분 입구에 해놓아서 바로 보이니까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파킹(parking)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맨 안쪽 코너(corner)에다가, 구석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차가 꼭 차면 모릅니다. 차를 대놓고 하면... 그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재무과의 청사 관리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 설치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은행이든, 관이든 어디를 가면 여름철에 안락하고 정말 시원하게 여건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여름철에 더워요. 일반인들도 오면 덥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도 저희 청사 시설이 한 40년이 되었습니다. 냉난방 시설 또한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을 위해서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더위를 안 느낄 정도로 냉방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불편하셨다면 내년에는...

○김상수 위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 외부에서 왔을 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면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고... 낮에 뜨거울 때 2~3시는 정말 덥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실 안에 휴대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셀프 민원실 있지요? PC 3대가 놓여있는 데, 거기 옆에 가면 충전기가 3대 정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아이폰부터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셀프 민원실 그 앞에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그 안쪽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휴대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실이 이쪽 창구, 저쪽 창구가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그 정도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찾으려면 직원에게 물어서 이쪽,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큰돈이 들지 않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그것은 민원 차원에서 양쪽에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아까 욕도 많이 듣고 하시는데, 그나마 우리 해운대의 얼굴이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개선될 점은 개선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우리 해운대구의 민원여권과가 됐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인해서... 사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할 때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적 사항보다 앞으로 요망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의 중점 추진 사업이나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이 있었고요. 특히 탄생 축하기념 증서라든지 기본증명서 즉시 발급, 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께서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시대적으로 요새는 스마일, 상냥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망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의 근태에 대해서 항상 상냥하고 웃음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서는 잘 숙지하셔서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 ○박기훈 위원

위원장님,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것을...

#### ○위원장 조영진

아~ 예, 여기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매뉴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예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가는 길로 친절 해운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가 1층에 현재 위치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항상 소통합시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인문학도서관, 재무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창 현
일 자 리 산 업 국 장	백 종 기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상 희
감 사 담 당 관	박 성 웅
도 시 재 생 추 진 단 장	권 영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윤 정
재 무 과 장	임 외 현
교 육 협 력 과 장	김 유 성
세 무 2 과 장	김 병 수
민 원 여 권 과 장	김 현 관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숙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류 영
경 제 진 흥 과 장	변 수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태 승
늘 푸 른 과 장	김 성 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인 철
문 화 회 관 장	권 창 오
인 문 학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전 문 위 원	유 창 희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
속 기 사	이 동 수

【 감사 제2일차 2018. 11. 22. (목) 】

마. 인문학도서관

○위원장 조영진

(10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도서관, 재무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반갑습니다.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문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 영 팀 장 권 소 영

사 서 팀 장 최 문 희

지금부터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201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5분 전후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인문학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운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 이거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 성과평가위원회는 해운대도서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운대도서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임대료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박기훈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 측에 두 명이 가입돼 있네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원래 위원회를 하면서 만든 겁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당초 시행사가 상주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박기훈 위원

그러면 시행사는 계속적으로 늘 같이 회의를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해운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는 1년에 4번을 했고요. 다른 데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한 번을 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부분도 해운대도서관은 연 2회로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마는 올해 한 번을 한 이유는 3월 16일에 인문학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에 보면 2017년도에는 공무원 2명, 민간인이 11명으로 해서 13명이었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김삼수 시의원님하고 이문환 전 의장님이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뒤 페이지에 2018년도를 보면 공무원이 1명에 민간인이 10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영진 위원장님하고 정순세 위원님하고 이분들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공무원인데 위에는 보면 공무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직이고, 위원은 전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김삼수 시의원님하고 이문환 전 의원님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영진 위원장님하고 정순세 위원님은... 지금 위에 (공무원) 1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예. 그 부분은 당초에 김삼수 시의원님하고 이문환 전 의원님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위원으로 위원회에 소속을 시켰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올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추천을 받아서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저희 위원회에 위촉을 했고요.

○박기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2명이 돼야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때 2017년 당시에는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이 통합되면서 인문학도서관에서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까, 지금 이미경 관장이 빠진 부분이라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래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지금 보면 10-18에 보면 독서 통장 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식 그 통장이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제가 이거를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를 보니까 다 옛날식 통장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에 통장이라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지났잖아요? 아이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종이를 쓴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인문학도서관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스마트한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셔서... 요즘 아이들이 통장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이거를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스마트하게 바코드를 찍는 방법, 안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셔서...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도 안 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해운대구에서 한번,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다 들고 다니고...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바코드를 찍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요즘에는 컴퓨터도 필요 없고, 다 그렇잖아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만 특징이 아니라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스마트한 독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해운대가 크게, 아마 인문학도서관장님이 클 것 같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통장으로 해서 10개를 찍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10번이 지나면 무슨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대출 건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정해진 건수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장기 대출자라든지 실적이 높은 회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든지 예산을 한번 넣어서 해운대구가 주도적인 독서 인프라가 많이 뜨는, 그런 것을 관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셔서 해운대구가 잘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꼭 개발하십시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예, 김성군입니다.

사립도서관은 우리 구에 두 개밖에 없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추리문학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한국문화교육진흥회라고 영어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지만 지원금 같은 것은 받지 않

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느티나무도서관이랑 추리문학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거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성군 위원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올해는 9,000만 원입니다.

○김성군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작년에도 9,000만 원이었고 그전에는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무늬만 도서관이지, 사실 도서관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원래 도서관의 주목적이 뭘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의 주목적은 일단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도서를 비치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독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거는 갖다 붙이는 거고, 사실 도서관의 주목적은 책을 많이 읽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이 독서 함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은 모든 도서관이 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책을 위주로 해서 모든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각종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든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은



데, 굳이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야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성격이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강좌하고, 독서진흥강좌하고, 독서문화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서문화행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4월 도서관 주간이 1주간 있습니다. 그때에는 도서관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9월 한 달은 독서의 달입니다. 그 때는 또 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책만 있다기보다는 요즘에는 다양하게 문화행사도 같이...

○김성군 위원

아무리 다양하고 행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참여인원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참여인원은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성군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명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이나 지금 반여도서관은 분관이라서 강좌 운영을 안 합니다. 다마는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서 부산의 유일한 특화 도서관입니다.

강좌를 하면 요즘에는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3~5분 만에 접수가 다 됩니다. 그 현황을, 어떤 강좌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에서도 책은 2만 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용자 수는 8,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시면 여기에도 강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성군 위원

연간 말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성군 위원

제가 바로 그 옆에 삽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다마는 실제로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이 꽤 많은데... 동주민센터 문고도 있고, 찾아가

는 이동도서관도 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이, 올해 자치단체 청장님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세 군데 정도의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을 더 짓는 게 나올 정도로 도서관은 계속해서 확산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의 업무가 물론 책도 많이 비치할 해야 되지만 강좌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많이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추리문학관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가봤는데 역수로 을씨년스럽던데...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추리문학관은 김상수 위원께서 제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셔서 일단 저도 다녀왔었고요. 이 부분은 개인이 설립해서 하는 문화시설로서 한국 최초의 문학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학관이, 김성중 작가님이 추리소설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추리문학 분야의 희귀 책들도 많이 비치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청과 연계해서 각종 포럼(forum)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성과는...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김성군 위원

세금이 9,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김성중 추리문학관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9,000만 원. 이 지원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일단 지도점검은 하지만 매년 시에서 1월에서 2월 초가 되면 공문이 시달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지만 2개소에서 그해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그 부분을 「도서관법」 제32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알아서 다 맞춰왔을 테니까... 그 도서관 목적 자체가 너무 중복되고,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목적에 어긋나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안 돼서 행사 프로그램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도서관에 한번 와보시면 강좌는 주중에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책을 대출하러 와서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 각종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마는 있는 도서관이라도... 해운대구의 도서관을 인문학도서관에서 다 관할합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화시스템을 구입한 게 해운대구에 총 몇 대가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자동대출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정순세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과 인문학도서관, 다 포함해서 7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할 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습니다.

○정순세 위원

한 대 구입비는 얼마 정도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740만 원입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구입을 하실 때 입찰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은 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서관 기계 부분이라든지, 업체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업체에서 조달등록을 하면 저희들은 전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조달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정순세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임기가, 위촉이 2016년 12월 21일로 돼 있던데, 보통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년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12월 21일쯤이 되면...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2018년 12월 21일 정도가 되면 거의 임기가 끝나서 내년에 다시 위촉할 때는 도서관 업무하고 맞게끔 안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장님과 도서관과 연계된 문헌정보학과 교수 분들하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문고 쪽에도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복지관에서도 한 분 정도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현재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재위촉이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년이기 때문에, 일단 해촉을 하고...

○정순세 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2년을 하고, 또 2년을 재위촉 안 하시는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의향에 따라서 다시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 인문학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걸고, 내년도에 위촉을 할 때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104페이지를 보면 10-19, 지역별 이용자 현황에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9만 8,850명으로 이용하시는 고객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렇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거는 이용하는 숫자는 더 많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독서회원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책이음 서비스라고, 이 도서관 회원증을 저희 도서관에서 19만 8,850명이라는 인원이 등록해서, 지금 이 숫자가 회원 수입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밑에 각 구별로 다 나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다 회원입니다.

○정순세 위원

해운대구에 등록이 돼 있어서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몇 년 전부터 책이음 서비스라고, 저희 도서관에서 카드를 만들어도 부산시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회원이 다 통일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서 회원증을 발급해서 저희 해운대구에 와서 책을 빌려도 대출이 됩니다.

이게 통합시스템이고, 이 숫자는 우리 구에 와서 등록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정순세 위원

등록이 돼 있는 분이 부산시내 도서관 어디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네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 시스템이 책이음 서비스라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자치구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27개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데 밑에 우리 구 현황에 보면 재송동 같은 경우는 7만 명 정도가 되고, 반여동 같은 경우는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재송동과 반여동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인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재송동이고 반여동이다 보니까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1·2동만 해도 6만 명... 지금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1·4동을 합쳐도 8만 5,000명이 안 되거든요? 인구 수보다 회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집계가 똑바로 된 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 부분은 우리 구 현황만 이 숫자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하구나 동래에 가서도 회원증을 발급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많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정순세 위원

아니, 그래도 인구 수보다 많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게 반여동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세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업체의 직원들, 이런 분들이 반여동에 와서 책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구 수 대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웃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웃음) 이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순세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감사를 연간 몇 번 정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 103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순세 위원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 됐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하고 책 대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책을 보는 것도 경제가 조금 먹고 살만해야 책을 많이 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좀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조금 힘들지만 책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읽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 구축은 돼 있다, 그렇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리고 주로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엄마와 자녀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장성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물론 아까 전에 하시는 말씀이 책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인문학도서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사건이 흉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강좌로 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청소년들이 정말 책을 안 읽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청소년 1일 인문학캠프를 했습니다. 인문학캠프를 했을 때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7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일단 청소년들한테 도서관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물론 프로그램들이 한정돼 있지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은 사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장성철 위원

관장님, 짧게 하십시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예.

○장성철 위원

제가 아니더라도 뒤에도 많이 있으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효[孝]나, 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사성어나 고전,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시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장성철 위원

또 보면 책이 지금 보유돼 있는 게 27만 권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장성철 위원

그리고 비도서가 1만 권이 있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자꾸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계속 한 군데에다가, 창고에다가 자꾸 켜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해마다 신간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계속적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짧게 답을 하겠습니다. (웃음)

○장성철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지하 1층에 보존서고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좀 없고 오래된 책들은,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인문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전부 보존서고실에 비치해서... 그리고 저희들 책은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를 못 합니다. 해마다 전체 장서의 100분의 1 정도를 장서 점검을 해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를 해놨다가 폐기를 합니다.

○장성철 위원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이용 가치가 없고 낡은 도서는 스캐너로 목록을 다 저장하고, 재기증을 하기에 조금 낡은 책들은 하기는 힘들고, 그중에서 괜찮은 책들은 재기증을 하기도 합니다.

○장성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로 들어가는 책들 중에 주민들이 찾는 책들이 있습니까? 시기가 덜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폐기를 못 하는 책들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문서고를 만들었고, 아직까지 그 밑에 책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찾는 책은 각 도서관 실에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장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찾을 경우에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주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오래된 책을 찾는 횟수가,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다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사실 지나간 책들은...

○장성철 위원

거의 베스트셀러만 찾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웃음)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지나간 책들도 다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장성철 위원



그런 책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도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오래된 책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물론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지역의 동네 서점을 이용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알라딘하고 영광도서, 이런 데는 이제 안 합니까?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해운대구는 유일하게 부산서점협동조합하고 2014년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구비로 사는 도서의 70%가 우리한테 환원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11개의 동네 서점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올해 다이렉트(direct)로 동네 서점에 200만 원씩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네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200만 원씩 지원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 좀 더 금액을 상향시켜서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운영은 어떻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 장애인과 해운대경찰서 유치장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 대출을 해 드리고요. 그 외에 무인반납시스템이라고 반여1·2동 재송1동, 아시아선수촌에 함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회수를 해오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래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장성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관장님,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굉장히... 요즘에는 자주 못 가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동네 서점에 직접 200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동네 서점에 바로 ‘우리가 어떤 도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목록을 보내면 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줍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니까 인문학도서관에서 어떤 서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동네 서점에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러니까 그 목록을, 목록은 이용자 비치 희망도서라든지,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목록을 작성해서 주면 동네 서점에서는 부산에 있는 한성서적이라고 도매상에서 구매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 주는 겁니다.

○문현신 위원

한마디로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네 서점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네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 사업을 할 때는 문화 사업에만 동네 서점이 참여를 했지 사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10%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일단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현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200만 원을 직접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여쭙봤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문현신 위원

반여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인문학도서관하고 시너지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지금 반여도서관은, 제가 인문학도서관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반여도서관장으로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반여동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했고, 인문학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반여도서관은 실 위주보다 열람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린이실하고 제1, 2자료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열람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은 그 외에 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열람실 기능으로 거의...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열람실 기능도 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실 하고 제1, 2자료실을 합쳐서 자료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도 비치해 놔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반여도서관 안에 주차면이 6면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오전에, 그러니까 18시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크게 관여를 안 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주변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노상 주차를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 개최 현황하고 인문학 도시 사업 현황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보면 동네 서점 살리기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한양서적하고 영재서적, 주문서점, 그런 동네 서점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문화놀이터 같은 것을 운영했는데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문현신 위원

서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서점은 11개소가, 일단 동네 서점하고 저희들하고 다 협약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하는 데도 있고, 참여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사실 업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서점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은 서점을 활성화도 하지만 일단 서점 홍보 정도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업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달지 않는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서점 위주로, 반여1동에 있는 한양서적이라든지 좌동에 있는 영재서적이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참여인원수는 명시가 돼 있는데, 참여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까? 낮 시간에 운영을 해서, 토요일 이기도 하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인문학 강좌를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인문학도서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에 강좌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집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다양하게, 어린이 인문강좌도 있고 주부들을 위한 인문강좌도 있기 때문에... 분포도는 그래도 약간 어린이 인문강좌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집계를 내볼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좌를 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문현신 위원

아, 내용에 따라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니, 강좌 횟수라든지 참여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다 받아놓고 운영하는 일지하고 다 있기 때문에 낼 수는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주로 낮 시간의 운영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참여에 제한이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돼서 여쭙봤는데,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직장인들이 도서관을 낮에 이용하기는 힘들어서, 가족단위의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한때 인문학이 당연상식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교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만학의 기초로 대접받으면서 철학적 대화가 낫설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출세나 처세 위주의 그런 주요 서적들을 위주로 열광을 하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듯이 인문학이 각광을 받고 부흥하게 됐는데요. 이에 발맞추어서 인문학 도시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신 것은 아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인문학은 인간과 인류문화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문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문학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인간 중심의 학문과 또 인문강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식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갑자기 속도를 말씀하시니까, 인문학 강좌를 하셨던 김경직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속도를 얻으면 풍경을 잃고, 속도를 잃으면 풍경을 얻는다.’ 요즘처럼 경쟁하듯 쫓기는 그런 시절에, 아까 ‘인문학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 사업 추진’, 이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문현신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 위원님, 50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네요. 어떤 말씀이나 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계속 연장을 해서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남으셨는데, 오후에 재무과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문현신 위원

일단 속기하시는 분께 여쭙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위원장 조영진

어떨습니까? 두 분이 남으셨는데, 속기하시는 분은 제가 바꿀 겁니다.

○문현신 위원

아~

○박기훈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원영숙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 간단합니까?

○원영숙 위원

예, 간단합니다.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문현신 위원

그 다음이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원영숙 위원

저까지만 하고 감사중지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니, 감사중지를 하려면 지금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어차피 감사중지를 할 거면 지금 하고, 50분이 됐으니까 저는 칼같이 50분을 지켰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중지를 하십시오.

○원영숙 위원

앞에서 다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감사중지를 하죠. 김상수 위원도 감사중지를 하자는데...

○문현신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이어서 하죠.

○원영숙 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하죠.

○위원장 조영진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함께 얘기하며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활발한 사람 중심의 해운대를 꿈꾸는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질의 요지가 '신간 구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입하고, 지역 서점을 이용 구입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바람.' 이런 겁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답변에서 우리 구는 지역 서점 도서를 100% 구입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지역의 소규모 서점을 이용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긍정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2018년도 신간 구입 예산이 5억 6,500만 원이고, 서적 4만 5,349권을 구입하셨지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예. 그것은 개관 도서 3억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6,150만 원입니다.

○원영숙 위원

2억 6,150만 원은 뭘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것은 구비입니다. 구비, 시비... 개관 도서는 교육협력과에서 지원해 주는 3억 원이었고요.

○원영숙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돈은 2억 6,150만 원입니다.

○원영숙 위원

예, 어쨌든 신간도서 구입을 5억 6,500만 원으로 서적을 구입하셨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인문학도서관장님이 볼 때 이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올해는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3억 원 정도 지원했었고, 구비가 인문학도서관에 1억 원, 시비가 6,125만 원, 그 외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구비이고, 시비가 2,000만 원, 반여도서관은 2,000만 원이 구비이고, 시비도 2,000만 원...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이 지원되면 더 많이 구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을 과다하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은 분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000만 원과 6,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인문학도서관은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서 구입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싶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조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영숙 위원**

예,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 시 어떤 기준으로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신간은 저희들이 서적을 구입할 때... 수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단 수서 담당자께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신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신청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용률이 높은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구 도서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 반여와 재송 쪽에 위치해 있고, 좌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도서관이...

**○원영숙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아까 아파트 7개소 등 38개에 있다고 하셨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31개하고...

**○원영숙 위원**

주민들이 걸어서 5분이나 10분 거리 안에 책을 빌릴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 저희 도서관이 메인(main) 도서관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31개 도서관 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되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센터에 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18개 문고가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새마을문고가 운영 시간이 오후 5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요일도 특정 요일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새마을문고 자체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실 의향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위치와 장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구



역별로 소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나아가서 정말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우리 도서관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모든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좋은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에도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자동대출기기를 조달로 구입하고 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수의로 하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수의로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조달에 등록된 것은 바로 조달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7대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1대 2,740만 원 기준이니까 7대면 1억 4,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1억 4,400만 원이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수의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대출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기계를 비교 평가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선정하고요. 주로 부산 업체에서 보면 도서관

제품을 제일 많이 비치하고 있는 곳이 에스지라이유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일단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이 고가이니까 제품을 선정할 때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느 도서관에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또 이 제품에 대해서 기능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또 다른 회사도 2~3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원영숙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비교평가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 제품이 나와 있는 회사는 나와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비교평가표, 어떤 기기의 성능이라든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원영숙 위원

그런 비교평가표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있다가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017년 10월 1일 자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업무가 다 온 것은 아니고요. 인문학도서관 관련 업무와 사립도서관 지원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도 2017년 10월 1일부로 전입되어서 오셨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니, 저는 반여도서관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반여도서관장님도 2017년도 10월 1일부로 이쪽에... 전입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직제 개편은 10월 1일 자고요. 그때 사서 5급이 정원에 되었고, 제가 실제로 교육을 갔다 와서 승진한 날은...

○김상수 위원

12월 18일...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18일 자로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전입은 10월 1일이고, 승급은 12월 18일이고,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오셔가지고 느낀 점이... 어떤 일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인문학도서관장으로 오기 전에 도서관 건립을 주관한 교육협력과와 같이 건립을 주관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이 지역에 건립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흐뭇해하고, 또한 저 역시 인문학도서관으로 인해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잘되어 있다고...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좀 짧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지금 현재... 10월 1일에 오셔서 진행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시설 부분은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리모델링 이후 시설은 잘되고 있고요. 딱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사실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제일 부족합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고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올해는 반복 지적이 안 되도록 하셨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회라든가 원래 운영위원회 규정에 몇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열 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김상수 위원

열 분 내외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열 분 내외인데, 2017년도하고 이런 데 보면 전문가 3명, 그렇지요? 평가위원회에...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3명을 갖고 평가가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 해운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요?

○김상수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게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6페이지를 보면요. 인문학 강좌가 올해 9회 감소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감소 원인이 뭐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작년에 저희들이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좌를 좀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도서관도 3월 16일 자로 하다 보니까 1~2개월 정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좌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인문학캠프’가 있습니다. 2016년, 2107년... 2018년도에는 안 한 모양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올해는... 이게 2017년 자료라서...

○김상수 위원

2018년 10월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018년 8월 10일에 청소년인문학캠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청소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53명, 60명 이럴텐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를 예정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저희들이 하겠다는 공문은 전부 다 보내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전부 다 전화상 민원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전화상도 있고요. 또 바로 와서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간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오픈 예정일 문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민원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홈페이지로 게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선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인문학도서관이 언제 오픈합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민원이면 앞으로 업무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과연 민원으로 보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분은...

○김상수 위원

이것을 건수로 보니까? 안 그러면 실적으로 보니까? 왜 이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실적이 없으면 더 좋은데... (웃음) 일단은 이분이 전화로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제일 밑에 보면 ‘반여도서관 소음 관련 문의’라고 해서 ‘해당 근무자에게 주의 및 개선 요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결과는 일단 그 근무자가 주의 있게 하지 못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13페이지부터 이렇게 쪽 보시면 관련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쪽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이 내용은 왜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 부분은 지금 11월, 12월에 도서...

○김상수 위원

아니, 11월, 12월 집행 예정 말고, 2차 추경에서 삭감 예정이라고 명시된 이런 것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

○김상수 위원

13~14페이지를 보시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대작은도서관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이용자도 줄고 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된 관계로 8월 27일자로 폐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폐관과 관련해서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예산과목을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1,500만 원을... 전용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 부분이 인문학도서관으로 이전할 때 이전에 따른 청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도서보관용 이런 부분이 좀 빠졌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전용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성인문학기행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 41명과 함께 경북 청송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갔더라고요.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주민을 말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면 일단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지역 주민들...

○김상수 위원

이게 지역 주민... 아까 전에 그 도서회원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안 그러면 일반 주민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일반 주민입니다.

○김상수 위원

일반 주민이... 타이틀은 성인문학기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간 데를 보면 객주문학관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행이다, 그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고택도 한번 가보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객주문학관에 가면 일반인들이 무엇을 봅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 작가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그 소설 집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상수 위원

이게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가신 분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40~50대가 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연 그럴까요? 40~50대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외로... 저희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청을 받는 날이 되면 한 30분 만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런 행사 부분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김상수 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의 선정 사업이... 2017년도에는 무지개마을연구회가, 2018년도는 장산마루작은도서관이 선정되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000 씨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벽화마을조성, 인문프리마켓’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인문학골목길을 조성하는데, 올해는 재송동에 있는 사업명 ‘별 따러 가자, 꿈 따러 가자’라고 해서 장산마루작은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자료의 사진 제시)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프리마켓도 하고, 이 사업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다만 사업성이 제일 괜찮은 장산마루작은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작가초청 강연회 운영’이라고 해서 5회를 하셨더라고요? 운영 내용에...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집행 예산은 1,100만 원인가 투입되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1회당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위원님, 이게 작가한테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비도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작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수 위원

작가 비용이 최저 얼마, 최고 얼마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작가를 섭외할 때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김상수 위원

최고 200만 원...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죄송합니다. 김경집이 최고 3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금액이 1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하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작가를 섭외할 때 인지도가 있으신 분을 하고자... 제가 담당자하고 같이 하는데, 시간적으로 되면 수락을 해서 결정은 제가 계획을 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작가하고 일반 전문 강사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이 다 다르다,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강사 수당은 좀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작가 수당도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수당이요?

○김상수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수당은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2시간에, 그리고 추가는 5만 원이고...

○김상수 위원

2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가 얼마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추가는 5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것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중에 참고 자료로 작가초청 강사료 기준이라든가 현재 집행된 내역이 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봤을 때 예산이... 시비, 구비가 50%씩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그럴습니까? 시비는 받아내야 하는데,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2017년도와 비교해서... 21페이지를 보시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1페이지요?

○김상수 위원

예, 시비를 2017년도에는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그 대신 저희들이 인문학도서관 안에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학도서관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인문학도서관 쪽으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에 보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40만 원, 이것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서 그럴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딱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미집행된 것은 아직까지 달수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두 달 분...

○김상수 위원

두 달이 남아서... 그게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가 2017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회가 열렸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2017년도 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4회가 열렸는데, 우리 성과평가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참석해서도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4회 열렸는데, 수당이 나간 것은 49만 원이 나갔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김상수 위원

당연직 빼고, 일반 전문가 위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전문가 위원들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0 씨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해야 되는데, 1번밖에 참석을 안 해서 7만 원만 지급이 되었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해 4번 회의를 했는데, 전체 온 것은 7명밖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뉘었을 때 한 번 할 때 2명도 안 되는 꼴이 되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닙니다. 여기에 개최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 10일에는 총 5명...

○김상수 위원

5명은 당연직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당연직 2~3명이...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많아요. 4명이거든요? 4명을 빼고 나면 1명, 1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외부 인원이 적다, 그 말씀이지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무슨 성과평가위원회가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데...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웃음)

○김상수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재위촉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일반 위원들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016년도에 위촉을 했고요.

○김상수 위원

2016년 7월 1일에 최초 위촉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임기가 아까 2년이라고 하셨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계속 재위촉이 된 겁니까? 2018년 7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재위촉...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재위촉이 언제 되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 재위촉은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재위촉을 했고요. 일단 임기는 거의 2018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재위촉을 하셨냐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2018년이에요?

○김상수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여기 뒤쪽에 보면...

○김상수 위원

2018년도 성과평가위원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성과평가위원회요?

○김상수 위원

예, 위원이 위촉되었으면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성과평가위원회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있는 분을 그대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분들은 위촉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김상수 위원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게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협약서에 2년 연임을 한다든가... 그 규정대로 하셨냐는 것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규정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김상수 의원, 이문환 의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민간인입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민간인 자격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 2016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구의원이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구의원인데... 일단은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위촉을 해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구성에 보면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 정도는 해운대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위촉한다는 내용이...

○김상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의원들을 위원으로, 성과평가위원회이라든가 각 부서별 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냥 구의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의원이고, 민간인은... 구의원을 갖다가 왜 민간인에다가 같이 잡아넣어놨어요? 우리가 민간 인입니까? 선출 공무원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위촉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타 감사도 그렇고, 전부 다... 구의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민간인과 동급으로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28페이지에 보니까 조영진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도 전부 다 일반 민간인으로 다 포함시켜 놓았어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해운대도서관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32페이지,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인문학도서관장을 누가 하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은 교육청에...

○김상수 위원

시 교육청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은 협약되어 있는 부분만 관리를 하고, 전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비라든가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있습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두 군데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반여도서관보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왜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시설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의 시설 부분에서 반여도서관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을 보면 67% 정도밖에 만족도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송어

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의 만족도가 85%로 나타나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조사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018년도에는 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말에 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 현황’인데, 2017년, 2018년도 출장을 보시면 ‘해외공무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다녀오시고, 2018년도는 제주도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게 되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는 게 1년에 한 번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교육협력과와 같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전국도서관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참여해서 대한민국 전체 도서관들이 소통과 교류의 장에서 자료도 교류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설치해 놓은 부스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잘된 부분들은 저희들 도서관에 도입하기 위해서...

○김상수 위원

해외공무원연수 000...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 부분은요. 퇴직자가 개인적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퇴직한 분입니다. 도서관하고 상관이 없이...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000 씨가 퇴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것은 퇴직자 개인으로 간 겁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개인으로 간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퇴직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퇴사했다고, 직원 명단을 보니까 이분 이름이 없어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분은 청경 분이었고요. 2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인문학도서관장님은 해외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는 1997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시 소속이었습니다. 독일하고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1997년도에 다녀오시고, 지금 한 번도 안 가셨네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갈 기회가 좀... (웃음)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은 많이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회가 아니고, 도서관든가 인문학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인데, 인문학도서관장님이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도서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시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녀오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63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이 잡혔던데요. 성과가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2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200만 원... 하긴 200만 원을 가지고는 별로 할 것이 없다,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웃음)

(장내 웃음)

○김상수 위원

86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힐링여행’이 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소외계층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그런 내용으로...

○김상수 위원

다문화 가정의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저희 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예, 해운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김상수 위원

대충...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체험)교육’을 보니까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에 4회, 174명,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것은요. 학생들, 어린이들이 하는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174명이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김상수 위원

1회에 평균 44명 정도...?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원봉사자가 있던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마일리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봉사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일단은 마일리지보다는 대출 권수를 높여준다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봉사하신 분들에게 봉사마일리지는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니까 밑에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체험)교육’이 4회, 34회... 전부 다 똑같아요. 한 명도 다르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럴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몇 페이지를 말씀...?

○김상수 위원

86페이지하고 88페이지 밑에...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체험)교육’ 4회, 34회, 90회가 있지요? 밑에, 가운데 우측에...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 아~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어떻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인원수가 한 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용자를 많이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숫자이고요.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초등학생이 34회를 하는데, 34회를 하는 동안 인원수가 똑같습니까? 한 명도 다르지 않고? 894명, 894명 똑같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 ‘1일 독서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등학생...

○김상수 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 독서교실은 4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참여율이...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김상수 위원

밑에 90회를 하는데, 2,197명인데, 어떻게 2,197명이 2017년도, 2018년도가 똑같습니까? 한 명도 다르지 않고, 이것은 그냥 짜깁기한 부분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면밀히 살펴본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것은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물었을 때 해마다 반복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오타가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 사항이 뒤에 많이 있거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지금 30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91~92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유아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도서관에는 왜 없지요? 유아실이...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그동안에 유아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유아실을 만들었고요. 반여도서관은 유아실 자체는 없고, 그냥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를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앞에 정순세 위원님도 말씀하신 ‘무인도서 반납함 운영 실태’를 보니까 1회 평균 50권이 회수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하루 평균 10권 정도, 2018년도에는 14권 정도 되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무인자동반납기가 1회 평균 얼마 정도...?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아까 그 자동시스템이 아니고요. 무인도서 반납함 운영 실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여1동, 반여2동, 재송1동에 설치한 도서 반납함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 내용’이 있는데, 혹시 휴대폰 충전기는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휴대폰 충전기는 저희들이 따로 콘센트를 마련은 안 했고, 곳곳에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꽂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급하게 오다 보면 항상 일이라는 게... 지금 어느 기관이나 심지어 식당가에도 충전기를 다 설치해 놓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기관마다 충전기는 기본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각 도서관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78%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2% 미집행은 11월, 12월 때문에 그럴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도서관입이라든지 남은 행사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상수 위원

그때 다 집행하실 것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연해변작은도서관 현판식’이 2008년 1월 31일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8월 28일부로 폐관이 되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폐관된 게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이용자가 줄어서 폐관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폐관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관한 겁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시재생추진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용률도 저조했고, 이 작은도서관이 있음으로써 근무할 직원이... 계속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씩 근무를 하는데 여기까지 지원을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인문학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인문학도서관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폐관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췄다,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폐관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추진단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금 더 도서관을 활성화해 보지, 신경을 덜 썼나 보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게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게 더 활성화되었을 텐데, 그렇지요?

(장내 웃음)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웃음) 좀 아쉬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를 보면 ‘독서 통장 발급 건수’가 갈수록 감소가 되는데, 왜 그럴습니까?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스마트시스템도 아니고, 2017년보다 2018년에 115건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이 뭘니까? 밑에 보니까 ‘독서회 운영 실적’도 2017년하고 2018년을 봤을 때 주부독서회도 그렇고, 어린이독서회도 그렇고 반 수도 줄고, 인원도 줄고 왜 그럴지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자꾸 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게 아니고요. 독서 통장은 시행한 지가 5~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독서 통장 발급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저조했고, 아까 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제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립도서관입니다.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추리문학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감상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지요. 감사증지를 하고...

○박기훈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50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영진

아까 30분이라고 해서... 한 분한테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김상수 위원

아직 할 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 30분이라고 해서... 저도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박기훈 위원도 긴급사항이 하나 있다고 해서...

○원영숙 위원

감사증지를 하시지요.

○김성군 위원

밥 먹고 합시다.

○김상수 위원

감사증지를 하지요.

○위원장 조영진

감사증지를 하시는데, 오후에 재무과하고 일자리창출과 양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후부터 회의 진행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

○김상수 위원

계속 진행하지요. 내가 보니까...

○위원장 조영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이것 10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 조영진

10분이요?

○김상수 위원

아, 15분...

○위원장 조영진

10분 내로 정리해 주세요. 12시가 넘기 때문에 10분 내로 정리해 주시고, 박기훈 위원님 간단한 긴급사항이 들어와서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고 오전 중으로 인문학도서관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오후 일정을 소화하니깐요.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끝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김상수 위원

혹시 인문학도서관장님, 부산시의 사립도서관 담당 이규호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 담당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우리 담당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추리문학관은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원은 시비로 하고, 관리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김상수 위원

제가 부산시 교육협력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담당자가 이규호 씨라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모든 사립도서관의 관리 감독은 해운대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먼저 위원님,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10월 1일 자로 이 업무가 소관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2017년 말부터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두 군대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느티나무도서관은 시행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잘되고 있더라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혀 시행도 되지 않고 있고, 문제가 심각할 정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만,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 해도 됩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자료를 살펴보니깐요. 2017년도에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강사료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물품 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세 군데가 체크카드를 안 쓰고 계좌이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올해 초에 제가 직접 작가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 자료를 보면 이것은 시비로 지급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체를 공무원이 묵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시나 구에 지원 요청을 했을 때, 돈을 쓸 때 10원이라도 다르면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자료를 안 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자료도 미비하고, 지적 사항이 한두 번도 아니고 누차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9,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협력과에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면 카드 사용뿐만 아니고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대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주관, 편법대로 변경해서 쓰고, 연말에 회식하고, 송년회하고, 비품 사고 별별 내용이... 우리 위원들도 보시겠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시에다가 확인한 결과, 시의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이 시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회계서류를 현장 확인하고, 보완 조치시키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자금 집행을 못 한다, 분명히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고요.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려면 자금은 올해까지만 잡겠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자금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시정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자금 집행을 안 하는 것으



로... 내가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메모를 다 해놓았고요.

단, 기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학관으로 갈 것이냐, 도서관으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 문학관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선정 기준을 문학관이면 문학관 기준,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준 편법적이거나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잘못됐다고 해서 끊기는 그렇고, 시정을 해서 내년에 어떤 기준에 선정되어서 이게 전부 다 수정·보완이 된다면 다시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몇 번 시정 조치를 했는데도 안 된다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하고 같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하고...

그 대신 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을 때 시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구에서 시로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문제점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정산 보고를 합니다. 정산 보고를 시에다가 보내줬습니다.

○김상수 위원

정산 보고를... 지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정산 보고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정산 보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서하고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파일로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결과를...

○김상수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사업 목적이나 사업 추진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돈을 주잖아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추리문학관을 보면 사업계획서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월별로 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실적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좌측은 계획이고, 우측은 실적... 그런데 실적이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집계를 다 해봤거든요? 창작 교실 12회, 도서 토론 12회, 글쓰기 3회, 추리영화와 소설 1회, 세계의 동화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에 보면 창작 및 수필쓰기를 아주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서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것은 인문학도서관장님도 그렇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안 그러면 집계 현황을 파악하신 겁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일단 이번 연도는 저희들이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장님, 한성서적에서 도서를 1,100만 원 구입하셨던데, 한성서적이 어디에 있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한성서적이 부산에 책을 판매하는 도매서점입니다. 사상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아까 우리가 11개 서점에 지역 100%...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것은 지역이 아닌데... 왜 사상까지 하지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작가님께서 그쪽으로 하신 것 같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사상까지 가서 한성서적에서 1,1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 시킬뿐더러... 이렇게 도서 구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월별로 필요한 도서를 사게 되어 있는데, 굳이 사상까지 가서 책을 1,100만 원어치를 카드로도 안 하고 계좌이체를 시키는 게, 과연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의 도서를 구매했는지 목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추리문학과 관련해서 책을 샀는지 어떤 내용인지 인

문학도서관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를 구입할 때 시비 30% 정도는 자기들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자가 자료를 이것까지는 너무 많아서 다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거래명세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에서 시행되는 자금 지출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 앞으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재차 누적된다면 큰 모순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문학도서관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김상수 위원

앞으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개선할 점, 그다음에 지적됐던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수시로 분기별로 하든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셔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박기훈 위원

아까 독서 통장 발급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인문학도서관장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스마트앱을 만드는 것을 추경에 빨리 올리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어떨습니까? 만들어서 또 이것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 이번 예산을 올릴 때 삭감하겠습니다. 아시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 이게 그동안에도 독서 통장을 만들어왔고, 저희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만큼

만 조금 반영해 주시고...

○박기훈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내년에 스마트하게...

○박기훈 위원

스마트한 기법을 만들어서 내년 1월에 가져오세요. 삭감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웃음) 할 수 있도록...

○박기훈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박기훈 위원

준비하세요.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박기훈 위원

아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굳이 삭감을 하신다면 내년 추경에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400만 원 꼭 올려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일단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오늘 감사 지적 사항보다는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종이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독서 통장은 구 시대적 방식이므로 휴대폰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한 독서 권장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셨고, 그리고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인성 함양을 위해 고어 또는 고사성어를 주제로 하는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뛰어난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도서관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시 민간 전문가들의 미참석으로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도서관의 관리 감독 권한은 우리 구에 있으나 관

리 소홀로 보조금 집행 기준을 지키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께서 업무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차질 없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위원장 조영진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은 자동대출기기 비교견적서를 아까 요청했구요. 초청 강사로 기준 및 집행 내역서, 세 번째 해운대도서관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 서류 그렇게 인문학도서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오늘 우리 인문학도서관장님 답변하실 때 또박또박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앞에서 잘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 2) 재무과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재무과 알쓸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알쓸팀장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계 약 경 리 팀 장 정 용 현

청 사 팀 장 허 옥 여

재 산 관 리 팀 장 임 영 옥  
통 신 팀 장 백 길 호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재무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총 3과목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인문학도서관만 마친 상태입니다. 오후에 재무과하고 일자리창출과, 2과가 시작되는데요. 한 위원님당 질의 소요시간을 15~20분 사이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이 되게 되면 제가 종료를 하더라도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군 위원

토털(total)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조영진

그런데 하시다가 나중에 또 제가 봐가지고 기회를 드릴 때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계신 임외현 과장님과 재무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수의 1인 견적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수의계약이 1인 견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하는 방법 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수의계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검증된 업체 선정으로 공사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되겠고,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단점은 저희 관과, 즉, 말하면 공사감독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타 구군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서 경쟁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지역 제한이 따릅니다. 부산시에 있는 업체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현재 관내 수의계약률이 23~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중기적으로 해서 50%까지 끌어올려 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업체와 연간 3~5회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구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내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장군의 경우에 소액 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거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거기에 보면 기장군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서, 지역 참여 비율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지금 부산시교육청도 그렇고 부산시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전자입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여기에 위원님으로부터 받은 소액 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으로 우리 구도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재무과장 임외현

이거는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76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미만 계약 현황, 여기에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많은 의혹이 발견되고 있던데,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액 수의 공사 견적제출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원영숙 위원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줄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투명하다고 하겠지만 결탁 의혹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결탁 부분하고 청렴도, 만약에 결탁을 해서 뇌물을 받았거나 돈을 받게 되면 청렴도가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동등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법령에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 공사 수의계약을 한, 몰아주기를 한 내역서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 도중에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장님의 답변에 공무원의 재량권과 사기 저하라는 말만 듣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최근 부산시가, 11월 14일 자 부산일보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LCT 비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셨습니까? ‘LCT 비리는 부산의 낡은 과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민선 7기 새로운 부산시정



을 방해하고 있다. 재산을 깎는 마음으로 감사실을 통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보셨죠?

○재무과장 임외현

...

○원영숙 위원

우리 구도 직원들에게 포상 제도를 좀 확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포상하고요. 부정하게 하는 것은 징계를 확실히 해서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게 어떤 파트에, 만약에 감사계 파트의 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파트의 시스템, 저희들이 계약하는 파트의 시스템이라면 그런 점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때 공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수의계약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수의계약 공사 견적제출하고...

○원영숙 위원

예,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데, 나라장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나라장터에서 그대로 다 공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나라장터에 하면 거의 대부분이 볼 수 있는, 다수가 볼 수 있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법령에 정해진 사항, 2,000만 원 이하이라든지...

○원영숙 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차례 내지 수십 차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업체를 찾지 못해서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장단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원영숙 위원

그 장단점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신속하고 이미 검증된 업체에...

○원영숙 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청렴도 쫄쫄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 부분하고 청렴도하고는 매칭(matching) 시키기가...

○원영숙 위원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원영숙 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위원장 조영진

자, 원영숙 위원님 15분 경과입니다.

○원영숙 위원

연번 10번, 그리고 101페이지의 연번 114번을 보면 ‘문화복합센터 진입로변 LED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는 1월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8월에 수의계약한 ‘문화복합센터 LED 실내조명 등 교체공사’가 있죠? 올해 1월 수의계약한 거하고, 올해 8월에 수의계약한 거하고...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이게 공사를 분리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94페이지에 연번 10번하고...

○원영숙 위원

101페이지에 114번, 태경전력 건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이거는 문화복합센터 내의 시설에 대한 LED이고, 앞에 연번 10번은 진입로 들어오는 가로등에 관한 것 같은데요?

○원영숙 위원

그렇죠? 공사금액도 1,9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또, 1,6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000만 원 이

하를 맞추기 위해서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꺼번에 묶으면 되는 것을 쪼개기 한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이거는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화복합센터 공사가 긴급한 재해 사항입니까? 분리를 해서 계약하게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원영숙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구나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시설관리사업소 등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액 수의계약 건적제출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실 의향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실하게 있는 거죠?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공통사항은 지금 11월부터 준비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관한 파트는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시책사업으로...

○원영숙 위원

입찰 제한을 해운대구 내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저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산시로 제한을 풀어야 되는데 기장만 하다 보면 기장에 있는 사람들만 되고, 특히 전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기장은 자기네 파트만 제한해놓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막는데 보통 전기 같은 사업은 기장, 강서, 이쪽에 많습니다. 그 외에는...

○원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로 푸세요. 태경전력이나 다 수영구에 소재하고 있던데...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장에서 안 푸니까 다른 기타의 업체들이 기장이 안 풀면,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시 구군은 기장을 제한하자, 역제한을 하자고 들어옵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일부터 당장 소액 수의 공사 건적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공고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원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행하더라도 공무원이 법에 정해져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미 업체가 검증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속하고, 나중에 A/S,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각 부서마다 공사감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한 곳에 몰아주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는 1년에 들어오는 업체 수, 안 그러면 계약건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주신 소액 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이니까 지금 11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거하고 공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과 공사는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자, 원영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고문은 11월 5일, 우리 구 입찰공고입니다. 금액이 2,651만 원인데 2,327만 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이거는 2,000만 원 이상이니깐 당연히 전자입찰을 해야 되죠. 그러면 320만 원 정도, 12%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전자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의 업체가 이 전자입찰에 참가했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원영숙 위원

85군데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거든요. 뭐 업체가 한정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님,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임외현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이나 문화복합센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거는 우리 구청은 없고 바로 옆에 중1동사 앞에 있고, 문화복합센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그

총괄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받아서... 우리 사업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올린 곳은 지하주차장인데...

○박기훈 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현재는 없고, 내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설치를 할 겁니다.

○박기훈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주차라고 했는데, 해운대구청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 우리 부설주차장 안에...

○박기훈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 안에...

○재무과장 임외현

예,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연못 청소 있지 않습니까? 연 1회를 하던데, 언제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연 1회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박기훈 위원

날짜를 모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지금 연못에 가봤습니까? 이끼가 파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이것을 좀 예산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연못다운 연못이 돼야 되는데... 잉어를 보면 잉어가 자세히 안 보이고 안에 이끼가 너무 많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민원실 바닥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올렸던데... 320만 원이 올라왔고, 전년도도 320만 원인데, 그 바닥청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웍싱 처리를 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것도 청소용역 자체는 1년에 한 번 돼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고 많은 게 청사의 주차면 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아  
까 부설주차장에 30분 무료주차를 한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민원인들에게는 30분 무료 주차, 장애인에게는 1시간.

○박기훈 위원

법적 주차면수가 몇 대가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그것이 열린정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주차구획이 그어진 것은...

○박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정주차면수에 몇 대가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법적으로 15대입니다.

○박기훈 위원

알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라고 해서 2010년 10월에 구성돼 있  
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임외현

예.

○박기훈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이거는 2010년도 11월 중인가에 하고 그 이후에는 회의 개최가 안 됐고 유명무실[有名無實]  
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훈 위원

언제 회의를 끝으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10월 26일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회칙이라든지 수칙,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대의원 명  
단만 제출해 주고?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대의원의 역할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박기훈 위원

임기 같은 것도 없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때 당시에는 임기를 안 정해놨을 겁니다.

○박기훈 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회의한 내용이라든지, 회의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이 바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때 회의 내용은 그냥 지금까지 신청사의 추진 사항하고 위원장 선출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000 씨로 돼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임기가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이 위원회는 현재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 말은 지금 대의원 명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위촉이 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추천을 받았는데 위촉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분들은 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단은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외현

이분들 자체는 추천을 받아서 됐는데...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8년이나 지났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사 간 사람도 계실 건데, 다시 한다고 하면 다시 위촉을 하든지 임기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법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박기훈 위원

아니,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 이 점에 대해서 이분들은...

○박기훈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든지, 여기에 짓든지, 청사를 짓는 것은 확보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박기훈 위원

되고 있으면 재무과에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지 명단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부터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명시가 있어야지, 명시도 없이 그냥 해놓고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됐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으로서 말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

○박기훈 위원

이거는 해촉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하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구의원 5명도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하든지... 동별로 추천됐는데 동별로 다 추천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때 당시에는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를 다시 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지금이라도 짜서, 어차피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청사를 여기에 짓든지 저기에 짓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 현 청사에 대한 TF팀이 구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F팀 구성도를 봤습니다. 이 구성도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 위원이 구청 직원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단장님이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는 그런 건데, 전문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면 전문위원과...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여기에 짓든지 저기에 짓든지, 짓는 것은 확보가 됐



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려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딱 중점이 되는 게 손에 잡혀져야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

○박기훈 위원

잡히면 그때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임외현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전문가를 투입하고...

○박기훈 위원

제 말은 부구청장님이 단장을 하더라도 TF팀이 제대로 구성되려면 진짜 외부 쪽에서 말을 듣는 사람,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진정한 TF팀이 돼야지,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유명무실 [有名無實]하다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일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 만약에 신청사추진건립위원회라는 게 중앙에서 통제만 안 했더라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훈 위원

그전에는 없어진 거고, 이제부터라도 하려고 하면 재무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야죠.

○재무과장 임외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훈 위원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재무과장 임외현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조사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기술심사,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재무과장으로서 생각해놓은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청사에 대한 것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다가 2010년에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옛날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 조직대로 조직을 하든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장 임외현

동별 전문가 그룹, 주민의 의사도 잘 들어야 될 거니까 동별로 다 모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원을 1,000명 내에서 50명, 100명, 이렇게 동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다음에 어떠한 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동별로 순회,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다 할 겁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자문을 잘 구하고 우리 구의회에도 통보를 하셔서 보편타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잘 좀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이 10여 분 남았습니다마는...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순세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임외현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5-21, 열린죽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죽옥을 시설하신 데에 혹시 주차면적이 그전에 몇 면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89면 조금...

○정순세 위원

89면 중에, 그러면 현재는 몇 면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74면.

○정순세 위원

74면 같으면 아까 법정주차면수에 15면적이 딱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주차면적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가지고 말씀이 또 오갈 것인데, 주차능력을 보면 지금 태극기 앞에 그 동상 앞을 다 하면, 규정에 맞도록 하면 한두 대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의 주차는 저희 관용차량은 송림공원에 120면 정도

를 마련해 있고, 그다음에 좌동 이마트 쪽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받거나 하려고 지금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은 차를 송림공원 거기에다가 대고 일단은 통근버스 식으로 그 차가 운행하면서 출퇴근을...?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송림공원까지는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버스 한 대는 한 달 운행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버스 한 대에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렌탈(rental)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연간 4,500만 원이죠?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정순세 위원

그러면 열린죽옥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정도로 나가야 됩니까?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낭비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주변에, 직원 차량 말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만 빠져도 민원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정순세 위원

보통 출퇴근을 하려고 해도 조금만 늦게 오면 1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열린죽옥장으로 만드는 데 혹시나 불법적인 형질 변경,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때 당시에 열린정원 죽옥장을 만들면서 아울러 주차장을 짓자고 의회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직선거리로 200m 또는, 도보로 400m 이내에 주차장을 저희 구 소유로 확보하면 부설주차장이 법적으로 완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 주변으로 해서 평당 5,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만한 땅을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1동주민센터 부지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현재 죽옥장을 운영하는 데는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죽옥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임외현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체로 우리 청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열린죽옥장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순세 위원

그러면 관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거네요? 단속을 해야 할 관에서...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구획이 된 그 선만 보느냐, 안 그러면 우리 부설주차장의 부설 능력을 보느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89면을 넘어서면 위법이 아닌데, 지금 구획선상으로 따지면 15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인데, 불법인 관에서 바깥에 단속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무래도 약간은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정순세 위원

(웃음) 약간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42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언론 보도사항 청사팀, '2017. 1. 11 ~ 2017. 2. 1' 해 가지고 내용에 '강추위 및 설날연휴를 맞아 온천죽옥장에서 족욕' 이라고 돼 있는데, 명절쯤이 되면 그분들이 족욕을 하러 오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의외로 명절에, 명절 당일은 말고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오시는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저희들이 한때는 홍보를 했으니까요.

○정순세 위원

관찰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명절 내내 열어놓는 게 아니고 3일 휴일이라고 하면 하루 정도를 열어놓거든요. 개장을 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정순세 위원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 '2017. 2. 14' 해 가지고 제목에 '해운대구청, 공원 만드느라 주차장은 불법?' 이렇게 부산MBC-TV 외에서도 났었는데, 이 당시 적정 부지 확보 노력 중이었는데 아직도 적정 부지 확보는 안 하신 거다, 그렇지?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 부분이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을 2단, 3단 철골구조로 하자고 올렸는데 의회로부터 퇴짜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공유재산 심의를 주차타워 형태로 만들고자 했을

때, 그것은 공유재산 자체가 보류돼서 있었습니다.

○정순세 위원

또 ‘2018. 1. 8’ 해 가지고 ‘부산 해운대엔 짬조름 해수온천... 열린족욕장에서 퇴근길 피로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 피로를 풀고 가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구청 공무원은 거기에 발을 담그기가 참 힘들겠죠.

(장내 웃음)

○정순세 위원

(웃음) 가까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먼저 좀 활용을 하시고...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순세 위원

극소수죠?

○재무과장 임외현

우리 직원들이... (웃음)

○정순세 위원

그러면서 그 옆에 내용에도 보면 ‘2015년에 생긴 해운대구청 앞 열린온천족욕장 명물로 자리매김’,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의 명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저것도 개장을 안 해놓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르신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자녀들이 왜 이거를 안 열어주느냐, 사실상 운영시간도 좀 줄이고, 운영하는 횟수도 토요일, 그 운영을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항의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연간으로 따지면 2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연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3만 명이고, 2018년도에는 현재 15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한 여름에도 족욕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정순세 위원

(웃음) 올해같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20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7, 8월 전기요금 같은 경우 다른 달하고 별 다름없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전기를 틀고 족욕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방금 말씀드린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사실 저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잠깐의 즐거움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

나 싶은데, 단지 저 주차장 문제와 신청사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순세 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사하고 연루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주차면적에 대해서 관에서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15만 명이 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임외현

1년에 한두 번은 관광공사 쪽에서 콘택트(contact)가 와서 일부 휴장을 할 때는 개장을 해 달라고 추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해운대바닷가도 역시 제가 여름에 두 달 동안 근무를 해보면 7~8월에는 (족욕장)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족욕장을 찾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열린족욕장을 보면 여기의 열린족욕장이 활용 빈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출퇴근을 하면서 자주 보면 그분이 그분인 것 같고, 이 부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오시지, 먼 외지에서 일부러 족욕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극소수로 몇 분이 오시긴 하시겠죠. 온 김에 족욕도 즐기고 가시는 것도 있고,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도 수족을 하는 것도 예산에 올려서 수족도 하기로 했는데...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70% 정도, 해운대구를 벗어난 지역에, 부산시내입니다. 그렇다고 저기 경남에서 여기까지 잘 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 7:3 정도로, 해운대구민과 해운대구민이 아닌 어르신들이 오는 분포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정순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

예. 주민들의 이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외지인 등 이분들의 대단위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외현

아, 족욕장 활성화를 위해서요?

○정순세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그 부분은 계속... 아마 구전[口傳]으로 많이 통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뜸하면 언론에서 터뜨려 주니까...

○정순세 위원

(웃음) 해마다 방문하는 상급기관 내지 유관기관, 자매결연 단체의 방문 시 족욕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정례 코스 방안 등이 이용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족욕장 이용과 1층의 통합관제센터 견학은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되는데, 잘 검토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감사합니다.

○정순세 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이라든가 아까 서두에서 봤는데, 우리 위원회 위촉 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는 제대로 지키실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전문가로 인해서... 저도 다른 부서의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위촉을 할 때 심도 있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현재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계약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명단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셨지요? 명단.

○재무과장 임외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것은 재위촉을 한 겁니까? 2016년도로 다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임외현

8월에 재위촉을 해서 전문가 세 분을 별도로 더 영입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중에서도 여성 두 분을, 세 명 중에 여성 두 분을 더 총원시켰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38페이지, 고액 체납자... 이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고액 체납자가 오션타워 원풍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해월정사 이 두 군데인데, 해월정사는 일주문하고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부료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아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뒤부터는 변상금 부과로 갔는데, 지금 건물 한 동을 압류를 해서 있습니다만 뒤에 법당하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는지 자금 사정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풍개발은 오션타워를 이야기하는데, 오션타워에 들어가면 화단 부분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는 오션타워가 건립될 당시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고 무단점유가 되어서... 현재 그 원풍개발은 폐업된 상태입니다. 폐업되기 전에 소유가 저희들이 압류해서 있는 게 오션타워 401호 외 24건이 있는데, 현재 공매도 진행 중이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있는데, 원채 체납이 많아서 저희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김상수 위원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 시작은 구십몇 년도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구십몇 년도에 일찍이 시작했으면 체납과 관련해서 그때 조치를 안 취했던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1999년, 2000년도 같은데...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어느 만큼 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느냐 이 하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체납과 관련된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되는데, 체납 순서가 많이 밀려버렸네요.

그러면 원풍개발이나 해월정사에 대해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원풍개발은 거의 폐업, 청산만 안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산을 하면 저희들도 화단 문제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되겠지만, 청산 단계가 아닌 폐업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해월정사에 대해서는 주지스님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했어야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재무과장 임외현

해월정사도 아시다시피 앞에 일주문 말고, 본관 건물 말고 뒤에...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뒤에 건물을 지으면서 서로 그 문제가 소송화되어서 소유권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지 당시 대부료를 잘 내어오다가 아마 그런 자금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설치한 것...

○재무과장 임외현

예.

○김상수 위원

이것을 언제 설치했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금번 10월... 와이파이를 9월 추경에 들어가서... 9월경에 거의 다, 21대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제가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31번을 타러 가면 그게 구[舊] 해운대역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쪽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면... 유심히 한번 바라보니까 거의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와이파이 이것은 누구 제안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무료 와이파이 문제는 정보통신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쪽이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공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022년 정도 되면 여하튼 부산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해운대구는 우선적으로 잘사는 쪽보다는 조금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쪽부터 순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할 때 그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오자...

○김상수 위원

예. 과장님, 마을버스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낮은 지역, 안 좋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의 주민들에게는 진작 했어야 한다, 낮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를 보면 관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원들 포상적인 출장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업무 내용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업무 성격을 많이 띠고요. 그다음에 직원 해외 배낭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원경찰의 공로연수라는 것은 퇴직을 앞둔 그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요. '1,000만 원 미만 물품 중 10건 이상 중복업체 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새송동의 동남시스템이 독점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이것은 왜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 중에서 10건 이상 중복된 업체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애드컴과 너구리인쇄소, 그다음에 동남시스템인데, 전부 다 해운대 관내 업체로 한쪽은 반송동, 한쪽은 중동 이쪽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하고, 유지 보수가 빠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시스템은 장애인 기업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장애인 기업은 수의계약 5,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 매년 계약하는 빈도수를 지원해 주도록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도 비교 견적을 받으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수의계약을 받게 되면 비교 견적은 안 받는데, 대충 시장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는 상당히... 서비스는 좋고, 금액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장 조사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의계약이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 조사를 하더라도 타인견적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교를 해서...

○재무과장 임외현

예, 비교...

○김상수 위원

그렇게 시장 조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 시장 조사를 해서 금액면이라든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조사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자복합기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4,900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비교 견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것은 각 부서에서 비교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물론 장애인 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남시스템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한번...

○재무과장 임외현

이런 부분의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하는... 해운대 기업에 다른 기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1년에 건수 내지 안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 사업으로...

○김상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2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의 명단이 쪽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현재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포장공사나...

○김상수 위원

아니,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데, 3,000만 원...

○재무과장 임외현

예.

○김상수 위원

이 명단을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선발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재무과장 임외현

예, 2017년도 2월에 위촉을 할 때 전체를 모아서 상견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동의 추천을 받는데, 기존에 기술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대부분이 통장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무슨 감독을 하지요? 현장에 나와서...

○재무과장 임외현

현장에 나와서... 우선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감독으로부터... 그다음에 설계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떤 점을 공사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교육을 받고,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네이버상에 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서 사진을, ‘아~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수당은 1회 할 때... 저희 공무원 외근비 수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만 원 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재무과장 임외현

관내 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상수 위원

관내 외근이라도... 이것은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그 공사에 준해서 시방서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맞게 들어오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공사하고 있네, 몇 명이 하고 있네, 저렇게 하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사와 관련해서 시방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월 확인을... 어떤 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람들이 압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 내역을 다 봐야 하는데,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렇게 깊이 있는 공사 감독보다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감독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전부 다 문고, 부녀회 기타 등등... 집의 공사도 하나 못 하는데,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마다 다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구 행정이...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두께 3cm 정도로 파야 되는데, 2cm만 파고 싹 덮어버린다는지 그런 것은 중요한 감독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감독이 할 일이 있고, 주민 입장에서 보는 공사... 감시겠지요. 그런 감시들을 감독한테, 우리 공무원 감독한테 보내면 그 감독이 그런 부분의 사진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정을 하라.’는...

○김상수 위원

그것도 과장님, 포장도 기본 3cm 두께로 포장을 하게 되면 지형에 따라서 5cm를 해야 할 때가 있고, 2cm가 들어갈 때도 있고, 포장이 일률적으로 3cm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사람들 감독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잣대를 들고 가서 이렇게 썰 겁니까? 못 합니다. 솔직하게

딱 깨놓고...

○재무과장 임외현

사실은 그런 전문적인 감독은 힘들다고 보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만약에 개선을 한다 하면 각 동에 있는 전문가 그룹, 즉 건축사면 건축사, 토목...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안 그러면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위주로... 내년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솔직히 동에서 추천받아서 올라오는 명단치고 우리 구에 구성된 위원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동에서야 추천하려면 그 사람, 그 사람의 인맥, 그 단체에서 한 사람, 서로 안 하려고 하면 그중에 시간이 많은 사람을 엮어서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딱 깨놓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명단에 올려주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꼭꼭 집어넣어서 ‘동네에 한번 가봐라.’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럴까요? 이런 모순점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1월에 새로 구성할 때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당도 2만 원에서 약간 인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수당도요.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도 안 하고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밥 먹고 가는데, 7만 원씩 주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7만 원을 줘도 안 아깝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예, 공감을 하면 내년부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웨딩홀 운영 현황이 있던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0건 인데...?

○재무과장 임외현

올해 0건이 맞는데, 그래서 웨딩홀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왜냐하면 접근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편은 괜찮은데, 식당이 주변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은혼식이라든지 소규모로 아이들 재롱잔치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의 묘를 좀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구청에 보면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전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식당도 그렇고, 주위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구청은 왜 거기서 가려고 합니까? 여기에 있으면 주위에 식당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푸드트럭, 운영이 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취업애로청년으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지금 현재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금액적으로 보면 한 사람 월급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운영은 이전에 있던 그 푸드트럭 영업자보다는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청에 보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근무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청소 관련해서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4층까지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창문틀에 거미줄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끼어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창문틀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계단을 한번 보십시오. 거미줄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청사 관리에 사소한 것이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 구청 공사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 설명한 수의계약 형태에 대해서...

○김성군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소액 수의 공사 견적은 기장군이 부산시 계약행위에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을 제외한, 그러니까 15개 나머지 구에서는 ‘기장군을 제외하자.’, 제외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견적을 받을 때 1인 견적으로 가는 것이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2인 견적이라는 것은 2,000~5,000만 원 미만 사이에는 저희들도 조달청에...

○원영숙 위원

2,000~5,000만 원이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지금 주신 것도 뭐냐 하면 공사 예정 금액이 4,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별로 약간 다른데, 종합건설부터 해서 일반건설, 그다음에 소방 이렇게 하면 거의 2,000~8,000만 원 사이는... 지금 여기의 제목을 읽어드리면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안’이거든요. 견적을 하면 입찰이나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원영숙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그렇듯이 저희들도 물품뿐만 아니고, 소액 수의 물품구입 견적 제출안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2,000~5,000만 원 사이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아무래도 2,000만 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는 사실상... 데이터를 내보니까 2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정적으로 50%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단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다음에 그 물품이 들어올 때 품질이 나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해운대에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찾아내어서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한 업체에다가 만약에 10번을 준다든지, 금액적으로 1년에 5,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다시 거기와 거래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님이 주신 공사나 물품 이것은 전 구가 공통사항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2,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것은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전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우리 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장이 왜 나쁘냐 하면... 구하고 군이 다릅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액...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물품을 하고 있고...

○원영숙 위원

물품은 하고 있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됩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까 2,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것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김성군 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령이나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저한테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안’이라고 해서 주신 것은... 기장군은 가능한데, 나머지 부산시 전체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협회로부터... 군은 기업체를 자기네 군의 것만 하라고 지역 제한을 하는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김성군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기장군을 제외한 구는 기장도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아예 그러면 기장을 막아버리자, 15개 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청사 내 LED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체 현황을 보면 작년에 292개를 교체했고, 올해 52개를 교체했는데, 아직 교체를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우리 구 본청의 총 조명등은 2,32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17년, 2018년도 올해 52개로 완전히 종료가 되었고요.

○김성군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LED 이 자체가 2년 반에서 3년, 4년 그 사이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LED 등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본청은 올해로 끝이 났고요. 100%이고, 문화복합센터는 등이 1,407개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한 것을 보면 1,020개를 했으니까 72%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2020년도까지 거기도 100%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군 위원

동도? 아까 동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임외현

문화복합센터...

○김성군 위원

동은요?

○재무과장 임외현

동은 아무래도 그 관리 주체가 동이다 보니까 동에서... 그런데 그게 전 동이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수립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일부 등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아마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군 위원

전기하고 수도 등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절수기는 2012년도에 아예 수도꼭지를 달 때 절수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감기라는 건, 전기를 절감하는 내용은 거의 2013년도에 완료를 다 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절수기 자체를 꼭지에다가 달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나올 때 그 자체에 절수기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새벽까지 다 봤던 자료들을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짚었고...

원영숙 위원님도 아까 마무리가 덜 되셨지요? 그 질문...

○원영숙 위원

예.

○문현신 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마무리를 해 주실 거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좀 여쭙겠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관리번호 5-1번.

○재무과장 임외현

몇 페이지입니까?

○문현신 위원

75페이지부터인데요. 81페이지를 보면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가, 금액이 2,000만 원까지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2,000만 원 미만...

○문현신 위원

예,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문현신 위원

많이 보이는데,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장애인...

○문현신 위원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재무과장 임외현

사회적기업...

○문현신 위원

예, 사회적기업이나... 제가 지금 액면상으로 보면 대표자 명이 여성으로 된 것은 웬만큼 제가 그런 가 보다 하겠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81페이지에 보면 연번 65번, 68번, 69번, 72번 이게 다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된 부분인데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여성 기업...

○문현신 위원

이 중에서 69번, 72번 같은 경우에는 액면상으로 봤을 때 여성 기업인 것 같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문현신 위원

65번하고 68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임외현

그것도 여성 기업...

○문현신 위원

000, 000이 여성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같이... 여성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면 000 외... 대표자가 공동대표입니까? 000...

○재무과장 임외현

000 씨는 여성분...

○문현신 위원

여성분?

○재무과장 임외현

예, 거기도 여성 기업입니다.

○문현신 위원

000도 여성이십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여성 기업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82번, 85번, 88번이 2,000만 원이 넘는 게 있는데, 산림조합이랑 000 님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임외현

예, 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경우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그러면 000 님도 여성 기업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 거기는 당초에 2,000만 원 미만이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3,000만 원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의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금액이 안 뛴것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 원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일부 금액, 그러니까 공사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계약심의를, 시공 감사를 받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 미만 같으면 당초에 수의계약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별도로 계약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만이고... 대부분 공사 금액이, 애초부터 원 금액이 3,000만 원이 되면 여성 기업도 아니고 산림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장애인 기업도 아니고 하면 입찰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할 때 2,000만 원 미만이었던다가...

○문현신 위원

당초 계약을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문현신 위원

그 이후에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재무과장 임외현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더 오버(over)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임외현

가끔씩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합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감사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현신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 건의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할 당시에... 뭐냐 하면 내가 70% 정도로 생각했는데,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토털(total)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별도로 시공 감사인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받게 되면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다른 데서도 보면 설계변경 그런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저도 한번 봤는데 4~5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75페이지를 보면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하고도 비슷한 것인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합공사는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 정보, 소방은 2,000~8,000만 원 사이, 용역·물품은 2,000~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소액 물품 구입 이런 사항이 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1인 견적에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은 그냥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의 공사가 87.745%, 용역·물품은 88%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견적서인데, 2,000~5,000만 원이 해당이고, 밑에는 2,000만 원 이하만...

○문현신 위원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87.745%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생각지 못했던 설계변경을 말씀하셔서... 다른 것들도 보면 87.745%를 기준으로 낙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무과장 임외현

예, 입찰을...

○문현신 위원

계약을 한 다음에 향후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 금액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공사의 경우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갑자기 설계변경이 나오길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하어튼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았습시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특히 거의 대부분이 여성 기업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문현신 위원

이렇게 여성 기업하고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이유가 경제 영역에서 남녀 간의 실질적인 평등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그런 취지로 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전체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많이 구매해 줘라.’,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구매해 줘라.’ 여성 기업도 아마 거기에 준하는... 또 하나 사회적기업도 그런 명칭을 달고 있는 데를 많이...

○문현신 위원

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허용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악용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합당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문현신 위원

나머지는 아마 원영숙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겁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제가 팁(tip)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공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당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감독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책임을 부여해 주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업체에서 이 사람이 왔을 때... 물론 집을 몇 채 지어보고, 공사 감독을 선정 과정에서 정말 잘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감독을 맡겼으면 업체에서 그 사람 말에 모든 것을 따르고, 결제 방법이나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그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언제면 언제, 중간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밴드도 물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밴드에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금액이 2만 원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말씀하시니까... 한 건에 2만 원인지, 몇 회에 2만 원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이 그 사람들에게 안 먹힙니다. 내가 해보니까... ‘옥상에 물이 계단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왜 물이 계단으로 내려오느냐, 물받이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턱을 다시 지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자꾸 그러니까 공사 감독을 만약에 내년에도 하시려면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업체에서 이 사람들의 말에 모션(motion)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욕장에 대해서... 1년에 구비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족욕장 운영에...

○재무과장 임외현

...

○장성철 위원

족욕장을 운영하는 데 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전체 보면 2017년도에는 8,3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금액도 맨 처음 2015년도에 만들어서 2016년도보다는 상당히... 지금 갈수록 대폭 줄어드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장성철 위원

여기에 이용자들이... 물론 아까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광으로 버스로도 오고 하면... 이왕만 들어 놓은 거 널리 홍보를 더 하셔서 부산시에다가... 우리 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오니까 시비를 당겨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것을 정말 범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정말로 그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이것을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앓는 데라도 좀 더 따뜻하게... 열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장성철 위원

영당이에 그런 것도 좀 해서 획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장성철 위원

아니, 구비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에다가... 시민 전체가 온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시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라는데... 구비도 물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울 때는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고 했거든요. 일단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재무과장 임외현

예, 공부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한 5여 분 남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잠시만요. 어떨습니까? 원영숙 위원, 지금 남았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남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남았어요? 내가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했는데...

○원영숙 위원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니, 지금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못 해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합시다.

○위원장 조영진

이제부터 50분, 10분 그것을 지킬 겁니다.

한 5분 내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안 됩니다.

○김성군 위원

쉬었다 합시다.

○문현신 위원

제가 그랬지요. 마무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박기훈 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합시다.

○위원장 조영진

10분 내로 정리하세요.

○원영숙 위원

일단....

○위원장 조영진

예, 10분 내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아까 2,000만 원 이하 공사 건에 대해서 법령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니요. 내년부터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뭐냐 하면 수의계약, 한 업체가 특히 해운대구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터줘 보자는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원영숙 위원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공사 계약 건을 보니까 현재 관행과 같이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쪼개기...

○재무과장 임외현

쪼개기 공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원영숙 위원

쪼개기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매의 눈으로...

○원영숙 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있습니다! 한 업체가 22건 정도 공사한 사례도 있고요. 또 2,000만 원에 근접하게 부풀려서 계약한 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시스템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꼭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반여3 동주민센터 공사에 1건이 있고, 올해는 하자 보수가 0건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다른 공사의 경우도 하자 보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여하튼 동사 관련만 저희들 부서가 되니까...

○원영숙 위원

다른 부서는 잘 모르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저희가 동사 파트인데, 동사 파트는 하자 보증 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에 이행보증금이 3% 정도 되는데, 동사를 지을 때까지는 그렇고, 짓고 나서는 입주... 즉 동에 직원들, 동장이 있고 하면 그 관리는 동장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동에서 발견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동에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그러니까 건설한 업자에게 ‘여기가 고장 났다.’, 수시로 부르니까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분기별 내지는 단기별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었던, 최소한 5~6년 정도 하

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그 동사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아무래도 전체 구에서 공문을 보내어서 ‘그런 부분의 하자를 보증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곳에 계속 빗물이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반여3동, 중2동, 송정동, 우3동 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동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업자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오는데, 그런 부분을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서, 아무래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 업체에다가 ‘해내라.’ 하는 형태가 더 강력하지 않겠느냐...

○원영숙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영숙 위원

우리 우3동주민센터의 경우도 환풍기를 타고, 틈새를 타고 빗물이 스며들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우3동주민센터에 비가 올 때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 덮개가 없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서 비가 올 때마다 펌프로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아마 그런 부분은 설계 당시에 설치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안 했다면 저희들이 돈을 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설계 부분에 당초 없었으면... 설계 부분에 있는데 설치를 안 했다가, 안 할 리는 없는데... 안 그러면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 설치해 놓은 부분에 하자가 일어난 부분인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 부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업체에 회시를 해서 보강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애초부터 설계 부분에 빠져있었다면 저희들이 돈을 대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보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임외현

하여튼 정식으로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펌핑을 하고 있지만, 나뭇잎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강제 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사실 제가 지난 밤 2시까지 의회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재무과장 임외현

여하튼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꼬박 한숨도 못 자고 자료를 봤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저도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제가 오후에 회의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너무 독촉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죄송한데...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잠 한숨 못 주무셨어요. 원영숙 위원님하고 문현신 위원님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계신 것 같은데, 한 10분만 시간을 더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한 10분만 수고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10분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를 알기 때문에... 너무 시간제한을 준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과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구가 투명하고 의혹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청렴도 꼴찌도 원인이 LCT라고 외부적인 요인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여하튼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장내 웃음)

○원영숙 위원

어쨌든 내부적인 요인도 3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사 부서에 있는 직원이 1순위로 진급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그 부분은 제 역량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향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부정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행정지원과에서 재무과가 분리되었는데, 지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원영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님, 시간을 더 드렸는데도... (웃음)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문을 다 빼버렸어요.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어제는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회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질의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촉박하게...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서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여덟 분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나중에 서류 제출을 할 때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2010년도 것이다 보니 8년이 지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물론 서류 보존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오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임외현

만약에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신청사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외부 유관기관 방문 시에 우리 열린 족욕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변상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안 제시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징수 관계가 금액이 좀 되던데, 빠른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공사감독제에 대한 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과 시간의 허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꼭 참조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하자보수 건이 마지막에 나왔지요? 우리 구에서 일괄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우3동주민센터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반여3동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간에 완공된 건물이 벌써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되면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든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물론 법적 범위 내에서, 기간 내 하자 보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루면 계속 우리 주민만 불편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각별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

○원영숙 위원

아까 2,000만 원...

○재무과장 임외현

수의계약에 대한 파트는, 저희들 시책 사업인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고요.

○위원장 조영진

그 2,000~5,000만 원 사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그것은 다 하고 있는데, 기장군만....

○원영숙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러니까 우리 구만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시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임외현

예, 할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마련되어지면 의회에...

○재무과장 임외현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외현

예.

○위원장 조영진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위원장 조영진

아까 산림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더라도 우리가 법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000만 원 미만...

○재무과장 임외현

예, 미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지금 한 업체에 막 가는 부분을 최소한 정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위원장 조영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건수를 줄인다든지 한계점을 두고...

○재무과장 임외현

그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원영숙 위원

보고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주세요.

○재무과장 임외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하겠다는...

○원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외현

일단 보고는 아니고, 소통을...

○원영숙 위원

의견을 물어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칠 것입니다.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

## 2) 일자리창출과(도시재생추진단)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숙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되어서 일자리창출과의 일부 업무가 도시재생 추진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자리창출과장과 도시재생추진단장을 함께 배석 하도록 하였으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추진단 소 관 업무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할 때는 도시재생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자 리 창 출 팀 장 이 혜 정

기 업 일 자 리 팀 장 강 혜 주

노 인 일 자 리 팀 장 박 미 연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창출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조영진

일자리창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 론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실 때는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라든지 격려도 아낌없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12-4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8년 현재]’에 보면 사회적기업 말고 밑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기업인데, 7개의 요건을 다 충족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는 인 증기업이 되는 거고요. 7개의 요건에 못 미치지만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신청내역이 있거든요. 2017년도와 2018년이 있고, 거 기에도 보면 지정이 있고 미지정이 있는데, 그러면 미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됐다가 미지정이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 이거는 타이틀이 신청내역이기 때문에 전체 신청한 내역 중에서, 8개가 신청되어서 5개가 지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기업이 지정 안 된 겁니다.

○정순세 위원

쉽게 말하면 자격 미달로 안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요건 불충족으로 해서, 시에서 심사하는데 되지 않은 겁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할 수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내년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지역형이 있고 중앙부처형이 있습니다. 지역형은 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기업이고, 각종 환경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다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해도 122페이지에 보면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으면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인증기업인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록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정하는 상황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재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여기에서 재투자라는 것은 사회 공헌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위한 공장의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2018년, 20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내역’해 가지고 지원이 쪽 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정순세 위원

어떤 데는 2,000만 원도 되고, 어떤 데는 4,000만 원도 되고, 3,000만 원도 되고, 1억 원이 가까

이 되는 데도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거는 재정 지원 내역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보험료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기업과 인증기업이 차등이 되고요. 연차별로 또 차등 지원이 되어서 30~90%까지 차등 지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쭈더소나무에 보면 9,800만 원이 돼 있는데,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쭈더소나무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1억 원 정도가 되면... 지원금액이 1억 원인데 매출이 1억 원 같으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매출이라는 것은 기술교육이나 제품을 판매한 수익이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매출이 1억 원이니까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정순세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원 취지가 지금 당장은 타 기업과 비교해서 경쟁력은 없지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우 그 돈을 받아서 8명의 인건비를 주고 나면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쭈더소나무 같은 경우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쭈더소나무 같은 경우는 유어마켓(Your-Market)을 할 때도 그렇고, 시의 사회적 경제마당 같은 데를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세 위원

여기가 반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과를 드셔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제가 유어마켓하고 또 다른 행사에서 몇 번 먹어봤습니다.

○정순세 위원

맛은 어땠습니까? 권장할만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사회적기업이니까 특정업체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 주변에 있는 유명제과점에 비해서는 퀄리티

(quality)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쭈더소나무 같은 경우는 매출을 더 올리고 사업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노니라든지 이런 거를 섞어서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한 모든 주민이 먹을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무슨 행사 때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많이 하는 방도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정순세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이 있는데, 보통 몇 번을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와 인증으로 해서 현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4회로 25%씩 나눠서 분기별로 1회를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라고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업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1회 고용부처하고 부산시하고 타 구로 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재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 위에 보면 점검한 실적, 그러니까 점검한 횟수는 있는데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거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위원님,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정순세 위원

점검 결과.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 점검 결과는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자체 감사와 합동점검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언론도 그렇고 해운대구가 좋은 일자리를 9,500개 만든다고 돼 있는데, 만들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9,800개가 목표였는데 9,500개 이상, 97%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여기에서 구천몇 개라는 것은 공공일자리가 4,500개 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워크넷’이라고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해서 매칭이 된 게 5,000건 정도가 돼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성군 위원

160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실적에서 2018년까지 총 6개의 행복마을이 만들어졌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복마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주민이 행복하려면 행복마을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행복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 행복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 잘 운영하시려고 하면...

○장성철 위원

안 행복한 분? (웃음)

(장내 웃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웃음) 그 말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성군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니요. 많은 노력들을 해서 힘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처음보다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또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주)더소나무를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 (주)더소나무도 반송 뽕사랑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랜드화되고 있거든요.

○김성군 위원

예, 잘 압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문현신 위원

‘행복마을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김성군 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런데 이게 마을의 자원도 좀 그렇고 주민들의 동력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타 기업체랑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본도 떨어지니까 참여하시는 주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군 위원

노인일자리 하는 데가 반송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윗반송, 아랫반송...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거기가 참 좋던데, 알고 계시죠? 인기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특히 반송1동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일감 수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급이 요즘 많이, 경기가 불경기라 그렇습니까? 조달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급격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일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송 2동이 일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 우리 구와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에서도 여타 다른 일감 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군 위원

일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문제는 아닐 테고, 우리 구에서, 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일감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이 원거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거리 기장이나 김해 쪽에서, 주로 기장 쪽의 업체랑 많이 연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던데,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저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12월 23일에 위촉 기간이 다 돼서 해제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기업 위주로 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요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전부터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려운가 봅니다, 그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김성군 위원

반송에 (도시재생)센터장하고 그 밑에... 이력서 다 끝났죠? 마감했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끝났습니다.

○김성군 위원

벌써 선택했습니까? 뽑았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요. 지금 임기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스펙(specification)이 굉장히 관촬죠? 석사, 박사, 그럴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고요. 실제로 대구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해본 분이 오시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하고 많이 다르죠? 동네에서는 뭐 누가 간다, 누가 간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동네 지역에서는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엔 3명 정도 모집할 생각이거든요. 그거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많이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김성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히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나도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많이 표시한 것 같아요.

○김성군 위원

그거하고 많이 다르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완전히 다릅니다.

○김성군 위원

그분들은 나중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 세 분은 언제 뽑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일단 1월에 센터가 정상적으로 개소가 되고 나면 1월 중으로 바로 뽑을 계획입니다.

○김성군 위원

아직 이력서를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아직 공고도 안 나갔습니다.

○김성군 위원

모든 것은 다 공개 채용이죠?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다음 플랜(plan)이 어떻게 됩니까? 제 지역구가 반송이라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나서 10월 초에 새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12월에...

○김성군 위원

내년 하반기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물량으로 봐서 180억 원이 결정된 것은 맞지만 사업의 추진경과를 봐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원 같으면 20억 원, 40억 원짜리 같으면 40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내

려오지 180억 원의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성군 위원

여하튼 뭐든지 개발이 되니, 건설이 되니 하면 소문도 많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위원님들이 더 수고 많으셨죠.

○문현신 위원

그래도 표정은 밝으셔서 좋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160페이지의 관리번호 12-7번 인데요. 반여4동의 삼어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을 봤을 때 110% 정도 증가한 4,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립형 사업 재료·생산물 보관 냉장시설 설치’, 이런 탓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류나 들기름, 참기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냉장시설도 설치하고요. 태양광시설도 설치하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현신 위원

예. 반여1동 필봉오름마을이나 반송2동 담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각각 23%, 4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 사업비는 왜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지정된 이후에 3년간만 시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지원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이거는 2회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일단 수익금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행복마을 지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전체 보조금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운영 상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거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라든지 관리 실태, 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원래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수익금 배분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을 25%씩 나눠서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합동점검이 감사 개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말 그대로 점검인 거죠.

○문현신 위원

혹시 감사는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동에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정기감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동 정기감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동 행정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18개 동을 3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면 재반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두 번 정도는 받았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감사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점검이라든지 지도감독 같은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감사나 점검, 지도감독을 해서 결과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집행을 실제로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 않겠죠. (웃음)

○문현신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게 예산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수익금 관리 부분,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문현신 위원

특히나 아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요즘 동력도 떨어져서 주민참여도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57페이지의 관리번호 1-23번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을 보면 송정 갈포행복마을센터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1차 변경이 승강기 6층 추가 및 전실 설치, 그리고 1층 화장실 및 창고 추가, 실내 인테리어 추가에 따른 변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총 몇 층짜리 건물이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총 4층입니다.

○문현신 위원

4층인데 승강기를 6층까지 추가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5층 건물인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4층이 아니라 5층 건물입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5층 건물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런 엘리베이터 부분이나 1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에 설계부터 제대로 했으면 됐을 것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결국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보면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은데, 딱히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후에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갈포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총 5층인데, 6층에 옥상정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용하시는 분이, 또 작업장도 있고 하니까 옥상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그 수요가 발생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세워졌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부터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웠으면 이런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세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구 단위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부구청장,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창출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관존민비[官尊民卑] 아닙니까? 과장까지 위에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까지는 넣어도 과장은 제일 밑에, 예의 차원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명단을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각 과장들은 그래도... 좀 마지막에 표시하는 게 예의 아니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외부 인사들은 예우 차원에 중간에 넣어주는 게 맞고, 딱 올려 모셔야지, 무슨 과장이 위에 딱하니 올라가서... 좀 그런 게 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러면 의원님과 함께 제일 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장성철 위원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박기훈? 박기훈은 내가 모르겠고, 그렇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의원님까지 당연직인데... (웃음)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자리가 9,800개나 창출에 나서는데, 해운대형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9,800개 가까이 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러니까 일자리공시제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의 목표가 9,800개고요. 이게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가 있고 민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창출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치고, 또 구인 등록을 해서 기업체에 매칭이 되는 것까지 다 토털(total)해서 9,800개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아까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11,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무지개길’ 해 가지고 32억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해 가지고 6억 원이 나갔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예.

○장성철 위원

예. ‘무지개길’ 해서 32억 원이고, ‘커뮤니티’ 해서 6억 원이고... 그러면 ‘커뮤니티’는 맞는데 ‘무지개길’ 32억 원은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니, 무지개길 조성에 3억 4,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39억 3,000만 원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반여2·3동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 단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지금 4개년 차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올해 전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올해? 10억 원이 다른 데로 간 걸 모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2017년도이기 때문에 3억 4,200만 원이 남은 것은 2018년도에 다 명시이월이 됐고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도 올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중에서 10억 원은 행복나눔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그쪽으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42억 3,000만 원 중예요.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용을 다 안 하고, 그거를 명시이월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사실 사업 구성이 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것도 반여동 지역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돈을 들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도화에 써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런데 주민들께서 노인복합시설을 굉장히 원하신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항목을 바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래도 되네요? 하기가 시장 부지에 청소년수련관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반여23동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마을 위원장을 몇 년간 했는데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행복마을에 정말 감사가 아닌, 물론 행복마을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수익성이 있어서 자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복마을을 만들었을 때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일같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여기 재반무지개마을에 2,7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2011년도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장성철 위원

161페이지에 보니까 2011년도에 2,700만 원입니까?

○문현신 위원

2011년도에 선정이 됐고, 사업비는 중간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거기에도 보면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사용하는 게 없고, 전부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다 하는 건데, 위원들 자체를 보면 위원들이 전부 자기들이 손수 조금씩... 인건비도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만들 때는 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만들고도 참... 사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주고 있는 실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때는 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만들어서 정말로 자기네들의 자립성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앞으로 자기들이 5년 만에, 끝났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의존을 하고 이러면 사실 안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래서 아까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안 행복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겁니

다. 굉장히 힘이 들고, 마을마다 다르지만 실비조차, 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장성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으로 청년에서 노인까지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영 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추진단... 제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권영구 단장님입니다.

○원영숙 위원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앞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특히나 우리 구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힘써주셔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어제 밤늦게라도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은 주신 자료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보충하여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 모집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

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니, 원영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사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 것은 처음 보는데...

○문현신 위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의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 조영진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가 아닌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영숙 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꽃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대안 제시와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해주시는 게 이 자리입니다. 꼭 잘못을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좀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원영숙 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질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잠깐 감사중지 시간에 9,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 상에 읽어본 게 있는데,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70% 이상은 다시 퇴직을 한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이나 5년 안에 지속 근무하는 공무원은 극히 드물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9,500개의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3개월간 계속 근무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9,500여개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직 신청을 하시는 분이 단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결과론을 보고 몇 개를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젊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이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그것은 구청이 할 일이 아니지만,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어서 담당한 사람이 그런 과를 만들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불편한 것이 없냐.’ 다른 데 일 자리를 구해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9,500개를 만들면 뭐 합니까? 한 달 했다가, 하루 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3개월 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일을 만드시려고 하면 해운대구가 계속 9,500개, 1만 개를 만드는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운대구청에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만큼 관리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분들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더라도 ‘나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조금 형편이 안 맞더라도 자기가 맞춰가는 게 이치라고 봅니다.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발굴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후관리나 피드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것을 기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만 일자리창출과가 진짜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으로 9,500개, 1만 개 만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과를,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그게 해운대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가장 쉽게 한 게...

○위원장 조영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기훈 위원

28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구민 일자리창출 사업 업무 협약’이라고 해서 센텀호텔에만 70명이 채용되었어요. 정규직 30명, 계약직 40명, 70명이 되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센텀호텔에 있는 직원도 70명이 안 되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70명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센텀호텔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그 직원을 다 채용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센텀호텔 이것을 보고 나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센텀호텔을 다 먹여 살리는구나,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너무 결과로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일 자리를 만드셨으면 관리입니다. 아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런 과를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25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 일자리창출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든 그 과하고 매칭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지금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으로 격상을 하면서 위원도 다시 구성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위촉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것은 7월 1일 자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좋아서 불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인원수도 다 바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인원수는 15명으로...

○박기훈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2016년 12월 23일에 (위촉)됐으면 2018년도까지 12월까지 임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올해...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보다 실질적으로 창업 현장에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을 하려고 인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인선 작업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좀 잘하셔서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95페이지를 보면요. ‘기업 유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기업을 우리 과장님이 다 영입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영입을 했다가보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를 해서 입주계약을 하고 사업 개시를 신고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과장님이 부릅니까? 이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잖아요? 과장님이 한 것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

○박기훈 위원

유치 실적인데, 유치한 게 없잖아요?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훈 위원

안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몇 군데 전화해 봐도 해운대구청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저희 구에 있는 기업...

○박기훈 위원

과장님이 있는 기업을 그냥 적어온 것이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유치 방안에 보면 말입니다. ‘해운대구 산업단지 및 기업우수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배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200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20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책자 배부하고 500부를 만드는 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560만 원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죄송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좀 잘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이것을 어디에 배부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것은 각종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하고, 각 동의 일자리센터하고 각 주민들이...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산업단지 기업도 소개되어 있지만, 우수기업들의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나 일자리센터에...

○박기훈 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관심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올해 예산에는 올라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올해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450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약 11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

스가 적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은 꼭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자 조금 줄이고요.

○박기훈 위원

아~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 사업을 또 다른 데로 조금 돌리고, 또 홍보 부스를 별관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관내 우수 생산품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과장님이 보실 때 ‘내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까 홍보 책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관을 별관뿐만 아니라 순회를 해서 백화점 같은 데, 어떤 행사 같은 곳에 갔을 때도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하고요. 벅스코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도 그분들과 연결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박기훈 위원

구청의 직원도 같이 나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일자리취업상담사와 함께 직원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주 잘하시네요. 그것은 잘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박기훈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해운대신문 광고란에 광고를 이 업체에 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원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하단 광고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

○박기훈 위원

무료로?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잘하시네요.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업 안전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될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지금 산업 쪽에 안전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에 경각심도 고취시키고자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한국산업공단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연 2회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훈 위원

그분들을... 기업을 불러서?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기업의 책임자, 방화 책임자라든지, 안전 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분들이 바쁘데 오겠습니까? 아예 구청 과장님이나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기업 근처 중간에... 그분들이 바쁘신데 구청까지 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왕이면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것을 맞춰서... 부르면 전부 다 오기 싫어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안전 책임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공단과 함께 교육을 하면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나는 참 의아한 게 이런 것을 유치를 잘했다... 이 기업들은 오고 싶으면, 세가 싸고 자기가 좋으면 다 옵니다. 이런 것을 자랑 삼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와서 잘할 수 있는 것, 기업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을 해야지 기업이 있는 것을 쪽 적어서 하는 것은 나도 합니다. 기업이 와서 잘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물건을 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해운대구청의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을 사랑하고 있다,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유치뿐만 아니라 오래 여기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번에 제2센텀도 그런 기업이 들어올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목적이고, 또한 일자리 수량만,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이 절대 안 떠나게, 일을 안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매도 조금씩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위원님. 부가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센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보시면 ‘센텀스카이라이프’라고 현장 민원실 운영 같은 경우 원래 저분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개시 신고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한 기업에 4개 정도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석 달 정도 나가서 2,000여건의 민원을 직접 처리해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해운대구청으로 부르지 말고, 관에서 나가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내년에 예산이 180억 원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박기훈 위원

예산이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좀 그럴지만...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하고 싶은,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그쪽 지역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인구정책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박기훈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하면 건물이 현대화가 되어야 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도시 계획 자체를 반송 지역을 흔들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담 안골행복마을처럼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4~5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몇 년 전의 예산을 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월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을 만들고, 아스팔트를 만들고 이렇게 다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박기훈 위원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180억 원을 가지고 금액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하는데, 활용도를 가장 잘 높여서 인구정책과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9,500개의 일자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 준비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렇게 상호 신뢰하면 되니까요.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그 건은 아까 김성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반려하는 부분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제 말은 이참에 9,500개니까 전화를 일일이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 안 하셨지요?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우리 바닷가 경치가 아름다우시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일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김상수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반여 쪽으로 담아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은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라고 누차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닷가에만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 아니고 그 지역도 우리가 잘 가꾸어서 정말 멋진 도시로 재생활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김상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쪽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바운더리(boundary) 안에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시범 지역이라든가 잘 된 지역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견학 쪽을 말씀하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견학...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잘 된 지역에 대해서 견학은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그 예산을 초기에는 많이 잡아서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및 직원들이 많이 견학을 해서 정말 제대로 도시가 가꾸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지금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반송, 반여 지역은 좀 특수합니다. 사군하고는 비교할 자체가 없고, 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데 감천문화마을이라든가 이바구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자주 가봤습니다. 부산에... 가보면 지금 크게, 1년에 200만 명이 온다는 감천문화마을도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송, 반여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단위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라든가 가보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초창기에 전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멋지게 짜서 지역에 멋진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 중에 있고요. 관련 용역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를 보면 ‘(주)엘티알 해운대구민 우선채용을 위한 일자리 협약’이라고 해서 130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23일에 협약 체결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주)엘티알하고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엘티알을 보니까 주로 식당이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주)엘티알은 외식1번가와 식당상선이라는 외식업체, 법인 사업체입니다.

○김상수 위원

주로 식당 채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리고 홀 관리하고 주차라든지 매니저 이런 분들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있지요? 10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인들의 하루 일당이 4만 2,06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인 임금이...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공공근로 말씀이지요?

○김상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공공근로는 7시간 근무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7시간 근무에 4만 2,000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시급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시급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7,530원인데, 공공근로는 팔천 얼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이것 말고, 또 하는 게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공공근로는 여러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데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게 일주일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주 5일제 근무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5일제?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5일제 근무에 7시간이면, 해운대구 전체 바운더리에... 몇 분이나 있지요? 지금 세 분이 다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지금 이 페이지는 2017년도를...

○김상수 위원

2018년에 몇 분이 하시지요? 2017년도에 보면 3명이 해운대 전역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전체 공공근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요. 불법 광고물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

○김상수 위원

보면 2018년도도 3명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단계마다 3명씩, 큰 변동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3명을 가지고 해운대 전역이 커버되겠습니까? 보니까 연세도 좀 있으시고, 활동력도 많이... 기동력도 떨어지시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서 2~3명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을기업발굴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떨습니까? 만나보면 전부 다 죽는 소리밖에 안 하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다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데, 이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달라서 마을 주민이 고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 5개 기업이 있고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예를 들면 해마을협동조합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해마을협동조합은 지금 하는 데가... 청사포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거기에 판매장이 있고요. 사업장은 좌동이고, 재배도 좌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영풍프라자, 사업장은 거기 있는데... 판매를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다릿돌전망대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릿돌전망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수익성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뭘 팔지요? 꽃차 말고는 파는 게 없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직접 재배 가공한 꽃차를 팔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꽃차 그게 수입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하루에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김상수 위원

평균치가, 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연 매출은 7,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상수 위원

연 매출이 7,5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이것은 판매장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전부 다 판촉을 하고 있는... 그래서 7,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년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되면 1,000만 원을 먼저 받고요. 2년 동안 최대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비마을기업이었다가 올해 처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것은 출자자 5인 이상만 되면 구를 거쳐서 시로 제출을 하고요. 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주로 일자리 창출이 국비, 시비가 많지요?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78~80%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거기는 시비 보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괄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2018년도에 구비로 1,860만 원인데,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요?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직업상담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율은 얼마나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실제 취업률은 제가 파악을...

○김상수 위원

거의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구비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업을 시킨다는 것보다 구인·구직 상담을 하러 오는 분, 민원을 받고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특화구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해운대구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전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것은 센텀산업단지 안에 디자인특화구역이라고 디자인 업체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분들이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공동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에 파생해서 디자인 업체에서 45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45명?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부산디자인센터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예산에 1억 8,000만 원... 이것도 시비, 구비가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3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내년까지... 이것은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중앙 부처에 공모를 해서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대행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2억 5,5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부처가 그 두 군데라고 할 수 있고요. 공모사업 신청이 내려 올 때 신청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감안을 해서 반드시 수행기관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산업과 결부를 시켜야만 가점과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결부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아까 디자인특화구역 비즈니스 사업처럼 센텀산업단지에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특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청년 일자리 특화 사업이...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3억 7,100만 원이 맞지요? 국비 2억 200만 원하고, 구비 1억 6,000만 원하고 그렇지요? 청년 일자리...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가 국비와 구비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디자인과 관련해서 주가 어느 쪽이지요? 청년 일자리의 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청년 일자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특화 일자리 무한도전’이라고 해서 디자인센터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센터 안에 있는 30개 디자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이라고 해서 특급호텔에 취업을 시키는, 호텔리어를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이런 맞춤형 사업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청년체험공간’이라고 해서 재송동 선하부지에 저희들이 내년에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임대 사무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피스(office)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재송동 선하부지, 어디를 얘기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해운대경찰서 맞은편...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씨름장을 만들어 놓은 데 거기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 다음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복합센터 맞은편의 선하부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씨름장은 안 되고, 그것은 된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여기는 청년 특화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씨름장을 이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웃음)

○김상수 위원

근래에 들어서 ‘부산 특화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있지요?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200만 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시니어클럽...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 그러면 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70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90억 원 정도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게 다 공동작업장 사업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든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추세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것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작업장 부분을 말씀드리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중·장년층 조금 더 젊은 어르신들, 50~59세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동작업장을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려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해운대를 보면 갈포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행복마을이 가장 중요한 게 자립입니다. 자립이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개 다 아주 힘든 상황이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도 부족하고, 아주 영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그 지역에서, 동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운영 주체는 5인 이상의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에 재배정이 되어서 동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재평가라든가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제대로 관리가...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그러니까 행복마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전국에 잘 되고 있는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보내기도 하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이라는 게 제가 몇 달 업무를 맡아본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표되는 농작물이라든가, 특산물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그 마을의 브랜드를 개발하기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이 벤치마킹하고, 주민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김상수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막상 해 보니까 문제점도 드러나고, 아직까지 해운대 브랜드라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브랜드 가치가 없잖아요? 해운대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행복마을이 특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뚜렷하게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님, 조만간 시간이 되면 우리가 행복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가서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마을센터를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상임위 전체적으로 정례회 전에 제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례회를 마치고 전체 흐름을 알고 난 후에 전체 계획을 가지고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진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네요, 오늘...

○김상수 위원

눈치를... 레이저를 뽕뽕 쏜다, 아닙니까? (웃음)

○위원장 조영진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수고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장성철 위원

한 번 더 할까요? 시간 됩니까?

○위원장 조영진

예, 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3억 1,000만 원이 하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그렇지요? 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물론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있는 반여2동을 봤을 때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10명을 월 60만 원씩 해서 4개월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년에 8개월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이게 상·하반기 나눠서...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8개월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하반기에 4개월을 해서 2,400만 원이 지급됐단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저번에도 왔을 때 내가 분명히 보라고 그랬지요? 현장이나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 보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다 다녀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

○장성철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요건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률을 본다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장성철 위원

한 쪽만 보면 또 그런데... 거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마을도 관리하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반무지개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주

거환경개선지역에는 행복마을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송동을 넣어서, 그래서 재반이 되었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반여동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김영수 시의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가져올 방법이 없나 해서 그러면 재반으로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시비가 9억 원 이상이 되고, 구비 1억 얼마 해서 10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민방위교육청에 1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최초에...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는 자기 건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초에 선행 행복마을이 건물 하나 없이 남의 집 덧방살이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거리를 제가 하나 드릴게... 아까 전에 공모 사업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갈포행복마을도 자기 건물을 마지막으로 지었는데, 제일 먼저 지은 행복마을이 건물이 하나 없어서... 그 돈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민방위교육장에 다 발라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그리고 바깥에 보면 도로 다 붙여놓았어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이런 데는 건물을 하나 지을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공모 사업을 하든지...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돌아보고요. 빈 땅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고민이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팀이 구성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시에다가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으로...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지금 공동체지원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활동을 보일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장성철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정리하기 전에 우리 권영구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위원장 조영진

아까 말씀 중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블록단위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안이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반여, 반송 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 위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거예요.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혹시 진행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게 되면 그때그때 협의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별이라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가져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되면 도시재생추진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산업단지 및 기업 우수생산물 홍보 책자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9부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다시 말해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자체 및 합동점검 결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히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9부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보면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보조금 및 수익금 운영 사항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송정 행복마을센터 공사 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에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혹자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처음보다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더 활력을 낼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9,500개의 일자리에 직업상담사를 활용하시겠다는데, 과장님 이것은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예.

○위원장 조영진

관리 부분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사후 관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가 다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우리 일자리창출과, 또 앞으로 도시재생추진단입니다. 두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시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활력을 증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도 시 재 생 추 진 단 장 권 영 구  
재 무 과 장 임 외 현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류 영  
인 문 학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전 문 위 원 천 미 경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  
속 기 사 이 동 수



【 감사 제3일차 2018. 11. 23. (금) 】

사. 문화회관

○위원장 조영진

(10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2018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 영 팀 장 김 용 무

공 연 팀 장 구 본 수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 제시와 함께,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잘하시는 것 같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성군 위원

만족도가 97%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856명인데, 몇 명을 상대로 한 겁니까? 몇 퍼센트의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공연이 끝나면 그때그때 나가실 때 설문지를 다 배부하는데 사실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실제로 회수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나갈 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나가시고 제출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김성군 위원

조사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온라인으로는 하지 않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 방법으로 별도로는 안 합니다.

○김성군 위원

보니까 8개의 공연을 다 인기 있는 공연 위주로 하셨던데요? 특별공연도 그렇고, 그렇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기획공연, 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가 보니까 다 인기 있는, 인기 없는 것은 빼버리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공연은 큰 거는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군 위원

혹시 공연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간혹 있습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부분이나 음향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엔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지적사항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까?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사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거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좋은 것만 소지하고 계시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우리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만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을 합니다.

○김성군 위원

그 반영사항이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어요? 컴플레인(complain) 같은 거 말입니다.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자료를 한번 쭉보십시오. 관람객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만족 같은 거, 건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만족도가 97.3%라고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아무리 그럴지만 공연이... 잘 된 공연만 선별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 공연을 위해서, 본인이 택해서 왔고, 또 일반적으로 음향이나 조명 부분은 제가 옆에나 주위에서 듣기로도 어디에 가도 안 빠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족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 특별기획 우수공연, 이런 기획공연이 인기 있는 공연 위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순수한 기획공연들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일단 관리번호 1-5번, 10페이지의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특별기획 우수공연 유치 부분’을 보면 저는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을 쭉 훑어보면 ‘부코비안 피아노트리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양 전통음악 위주로,

소위 클래식 위주로 편향이 돼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여기에 보면 가곡, 국악,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회관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장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 부분은 사실 뒤에 17-2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여러 가지 기관을 초대해서 하는 뮤지컬 복순이할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뮤지컬 복순이할배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다 연극이나 그런 거거든요. 연극,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전통음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한국 전통음악, 일명 국악이나 무용 같은 것도, 고루 다양성을 확보해서... 아시아 음악 같은 것도 넣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다양성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중점사업에서 보면 '구름 위를 걷는 자', 기획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2017년은 8회 공연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맞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4회 공연에 지금 1억 원 맞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1억 3,000만 원은, 혹시 2019년 편성이 얼마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201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문현신 위원

몇 회 정도 하는 거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횟수가요?

○문현신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2019년도에도 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4회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저도 작품은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작품의 퀄리티(quality)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2017년, 2018년 작품을 봤을 때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저는 솔직히 올해는 보고 작년에는 안 봤는데, 연속해서 봤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업그레이드(upgrade)가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무대라든지 의상, 내용, 그리고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배우는 저희 상주단체 레볼루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 그 외의 주요인물들은 별도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주요인물은 외부에서?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번 같은 경우에 최치원 역 같은 분들은 중앙에서 섭외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봤느냐 하면 지금 두 번째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올해 세 번째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맞네요.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본료나 음악 창작료나, 안무 창작료 같은 창작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더 군다나 횟수가 줄어서 4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면에서 살짝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쭙봤습니다.

그러면 무대나 의상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8회이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회 공연을 했었고요. 그 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시나리오라든지 처음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는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분들이 약 한 달 전부터 사실상 리허설을 시작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늘고, 초창기하고 별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초창기 1회 때에는, 첫 해에는 몇 회 공연에 얼마가 들어갔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4회에 1억 원입니다.

○문현신 위원

첫 해에도 아까 말씀하신 한 달 전부터 연습기간이 있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런 셈이죠.

○문현신 위원

언제든 연습 기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연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차원이면 몰라도...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당연히 그렇죠.

○문현신 위원

그 차원인 거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연습 기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습 기간은 해마다 있는 부분이니깐...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렇죠.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7-9번에 137페이지를 보면 ‘예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 강좌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대로 유지됐던 게 맞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유아 포함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의 수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사실상 여기에는 초등 발레, 유아 발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성인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여쭙았던 이유가 어린이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 그전에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이게 아마도 10여 년 이상이 됐고,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죠, 많이 겹치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래서 일부는 문화회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문화회관에서는 이미 시작한 거고, 또 주민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하고 중복이 되고, 요즘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피카소가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나도 아이처럼 그리기까지 8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작한 거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와 이왕이면 가족까지도, 거기 문화회관이 있는 데가 좌동 신시가지 중심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도 많고, 아이들이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위주로도,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도 복합인형극이나 체험 그림자극, 뭐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몸으로 토크한다.’고 해 가지고 즉흥 움직임극,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례도 많이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7-10번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해운대문화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아까 업무 성과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44곳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하고 43개를 보수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무대장치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도 지금 시설도 노후화 된 만큼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요. 많은 공연들이 인프라가 좋은 센텀 쪽으로 빼앗겼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우리 문화회관도 아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연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을 모색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박기훈 위원

방문했을 때를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자면 그때, 활동보조원입니까? 안내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던데, 몇 분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자원봉사자가 전부 10여 명이 등록돼 있고 그중에서 그때그때 공연 규모에 따라서 쓰는데, 보통



한 공연에 4명 정도입니다.

○박기훈 위원

갔다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활동보조원이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250회로 해서 1인당 주는 금액이 2만 원, 그래 가지고 올 한해 1,5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2만 원을 받고 그렇게 친절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참, 공연을 하는 분들이... 그 직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활동보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죠?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 문화회관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카페가 있잖아요? 전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카페 문을 닫았더라고요.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운영을 안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일반적으로 저녁 8시 반 정도가 되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 공연 시작이 6시인 경우가 있고, 7시도 있고, 8시가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 공연 특성상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일체 반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8시가 되면...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 커피 한 잔을 먹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갈 때가 저녁 7시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때는 합니다.

○박기훈 위원

했어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저녁 8시까지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 시간은 지켜집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박기훈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갈 때 문이 닫혀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첫 페이지를 보니까 예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여성위원 비율이 낮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2017년 2월에 위촉됐으면 2019년 2월에 해촉이 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우리 문화회관 조례는 2년 임기에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연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는 보면 50%까지는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2018년도에 여성이 5명, 남성이 12명입니다. 그러면 관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면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거보다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17명입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11명인데 이중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분이 6명이고, 지난 2015년도에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님은 현재 네 분인데, 비율로 치면 23.5% 정도가 되는데, 한 분은 교체를 하게 되면 30%는 됩니다.

그리고 연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이 되는 거고, 우리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한다든지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전문분야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게 그렇고요. 또 보니까 지적사항에 나왔더라고요. 3페이지에 보니까 ‘무대, 조명, 음향, 영상, 4개 각 분야 장비 구매 및 운영 문제점 발생 시...’, 이렇게 해서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제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월에는 해촉을 하든지 위촉을 하든지 떠나서 좋은 분을 많이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티켓을 구입할 때,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얼마가 올라온 지 아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티켓은 공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기훈 위원

예산서에는 보니까 22원에 10만 장, 그게 무슨 티켓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아, 그거는 홍보물 발송료죠.

○박기훈 위원

22원짜리를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거는 티켓 용지 인쇄비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 인쇄비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KTX라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 티켓을 안 받습니다. 바코드를 주든지 안 그러면 휴대폰에 찍어서 주잖아요? 인식 코드를 딱 찍으면 몇 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티켓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에 그런 것도... 이번에 고속버스를 타니까 고속버스도 기계에서 바코드를 딱 찍으니까 표가 필요 없더라고요. 요즘이 그런 세상인데 굳이 표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생산해서 다른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는지 접목을 시켜서, 요즘 종이쪼가리를 누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영화표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바코드 딱 찍어서 보여주면 ‘여기로 가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 하는데 문화회관도 티켓이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 다른 데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죠?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초기에 일정한 예산은 들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거를 내년에도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예산절감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11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지적하신 구름 위를 걷는 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날 예정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해놨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무대

라든지 의상 부분, 분장, 이런 부분도 올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내년에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계속 그렇지 않고 단지 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이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하죠? 금액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 부분은 사실 일정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출연자들, 핵심 주인공이나 조연급 대여섯 분, 비중이 큰 분들은 사실상 예산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비례를 하는데...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산이 좀 많으면 조금 더 지명도가 높고 유명한 배우도 섭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 문제에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결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문화회관 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장님이 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거는 문화회관에서 일정 부분 초안을 잡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거론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거론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죠? 그러면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쪽 쪽 늘어나는 최종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 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관장님이시다,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결정의 기준을,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연이 매년 금액이 2,000만 원씩,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선정 과정에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우리 행사 공연료가 1억 3,000만 원이고,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행사 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수입이 1,400만 원이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116페이지 연번 41번에 보면 공연료 1억 3,000만 원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대관 수입이 1,400만 원이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공연료는 자꾸 늘어나는데 수입료는 일률적으로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해운대문화회관 전체 세입이 1년에 3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세출은 13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은 늘어날 기미가 없잖아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사실 대관 같은 경우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세출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세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연 직접 관련, 이 부분은 세입이 약 4억 원에 기획공연까지 다 합하더라도 순수하게 창작공연, 콘텐츠 예산으로 치면 3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청사관리, 용역비, 시설 유지비, 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13억 8,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에서 사실상 일정 기준으로 하면 300석의 객석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김상수 위원

아니, 맞춘다는 게 아니고 세입은 앞으로도 거의 변동이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세출은 앞으로 공연료라든지 이런 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올라가다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투자라든지 세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에 이런 이야

기도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나이트클럽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문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공연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증액해 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의 ‘관리 실태’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231만 원씩 잡혔는데, 이 예산은 적정 예산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17페이지요?

○김상수 위원

예. 17페이지에 231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던데...

○문화회관장 권창오

아~ 이거는 운영위원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소집을 하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산편성은 1년에 3번 회의를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올해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12월에 한 번 할 예정이고,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1회분 77만 원을 삭감해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회관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의 민간위탁 현황’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주)아이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현재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이거는 입찰을 언제 하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거는 내년 1월부터 다시 다른 업체로...

○김상수 위원

1월부터 다른 업체로 하면 이미 선정됐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언제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거 공개입찰이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12월에 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서 1월부터?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아이가드 입찰금액이 얼마죠?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7,300만 원이잖아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300만 원이라는 게 입찰가격이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10월까지의 집행액이라는 거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 금액은 얼마죠? 1억 9,205만 7,400원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은 1억 7,300만 원이고요. 잔액은 4,652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32페이지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보면 전체 공개입찰 계약 금액이 1억 9,205만

7,400원이거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잔금이라는 것은 기준이 예산액의 잔금입니까, 안 그러면 계약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금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전체 예산의 잔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 예산 기준으로?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잘 알겠고요.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평균 몇 분 정도가 출장을 가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벤치마킹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문예회관 연합회 워크숍이 매년 1회 있고, 그 외에 부울경 회의라든지 지회 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출장을 갑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대로, 2017년에 했던 것을 또 2018년에 하고...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발전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해서 다른 곳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페이지 54페이지의 ‘2018년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 내역’을 보니까 김성모님이 서울의 예술의전당을 한 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주도 문예회관 워크숍, 2018년도 1년에 딱 두 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벤치마킹을 할 게 뭘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focus)를 잡아야 우리 문화회관이 발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반임기제는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쉽게 말해서 계약제의 성격인데,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적을 고려해서 갱신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팀에 2명, 공연팀에 2명, 4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니까 부서에 전입한 사람이 일반임기제로 오신 분들은 장기근무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2018년 7월에 저희들하고 같이 임기가 시작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과 관련돼서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20시간 내외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반임기제라고 한다, 하루 평균 4시간, 주 20시간 내외로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거는...

○김상수 위원

시간선택임기제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거는 시간선택제이고, 일반임기제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똑같은지?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근무시간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서 5년 사이에, 5년 기간 내의 실적을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문화회관에 있는 임기제 네 분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전부 우수하기 때문에 5년 계약을 해서 계속 갱신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임기제들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핵심요원들은 일반임기제 직원분들이 핵심요원이더라고요? 문화회관의 가장 핵심인 공연, 전시, 기획,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하신 분들이 김성모 님하고 박진현 님, 그다음에 공연팀의 전성환, 이재철, 이런 분들은 우리 문화회관의 산 증인이더라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5년 계약직을 하다 보면 항상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 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내가 5년 후에, 근무를 하다 보면 관장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보면 직원들이 업무 편성해놓은 거하고 밑에 임기제 직원 업무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은 임기제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공연도 그렇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거는 우리 문화회관의 특성상 공연기획, 그리고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 부분에서 두 분이 공연 팀에 있고요. 나머지 운영팀에 청사시설 방호 안전에 대해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사실상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우리 일반 행정직은 사실상 일반 구청 직원으로서 1년 반 이후가 되면 전보 대상이고 그럴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격차는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김상수 위원**

일반임기제하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사실 경력에 비해서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조금 못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임기제 네 분 중에서 한 명은 7급 상당이고, 나머지 3명은 8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인사파트에 한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근무능력이나 경력이나 담당업무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대관 가동률이 몇 퍼센트였죠? 67%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70%입니다.

**○김상수 위원**

70%, 부산에서 제일 높은 가동률과 관리라든지, 우리가 엇그제 가봤을 때 시설관리도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급여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회관장 권창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임기제 계약기간을 5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반임기제 8급 상당 대우를 받고 있는 2명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하고 딱 일치하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인사부서에 어필(appeal)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지금 정리를 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는데,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님 진행하시고,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중지 시간은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마치고 나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의 질의를 마치고 오전에 마칠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원영숙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조영진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원영숙 위원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죠.

○위원장 조영진

예,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판단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철저하게 챙겨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생긴 지가 2006년도에 생겼어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200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이나 됐는데, 문화회관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제가 일곱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12년 안에 일곱 번째, 몇 년 만이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평균 1년 반 정도...

○장성철 위원

1년 6개월 정도면 2년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결국 그런 셈입니다.

○장성철 위원

전보 대상이... 그러면 잠깐 머물다가 가시네요? 지금 2년째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저요?

○장성철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5개월째...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7월 1일 자로...

○장성철 위원

아~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계셨나... 제가 묻는 것은 인문학도서관도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전보를 안 하고, 그래야 해외를 가든지 교육을 받고...

이번에 어디 멀리 갔다 오셨던데,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여기에 벤치마킹하시러 갔다 온 줄 알았더니 퇴직 때문에 다녀왔어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런 셈입니다.

○장성철 위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10일 동안 갔다오셔가지고 나는 그것을 우리 문화회관에 접목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나 모든 것을... 한 달에 1억 원이 넘게 손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막나, 그런 생각을 하셨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전문성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면 거기의 전문가가 있어서... 내가 알아야, 아까처럼 공연이나 전시나 홍보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어야 문화회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것은 제가...

○장성철 위원

그것은 너무 지겹습니까?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것은 제가 그 이상 판단할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장은 구청의 다른 부서장과 동일한 인사, 동일한 패턴으로 되고 있는데...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것을 전문직으로 할지 그 여부는 인사 파트에서 판단할 것이고...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이때까지하고를 평가했을 때...

○문화회관장 권창오

저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관장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한 자리에 관장이 오래 있다 보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장성철 위원

(웃음)

○문화회관장 권창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예, 말씀 고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문학도서관도 전문성이고, 기왕이면... 물론 어떻게 생각하든지 직원들끼리도 그쪽에 가신다고 하면 자리 자체가, 선호 자리도 있고 그런 데가 안 있습니까? 조금 쉰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직원들끼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전문성이 있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도서관은 원래 직책이 사서직이고요. 우리 문화회관은...

○장성철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부산시, 전국에...

○장성철 위원

잠시 한 말씀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려개발에서 아이가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아이가드는 올해 12월 31일에 마지막인데, 용역 체결 서류나 이런 것을... 고려개발은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장사 수단이고, 해운대에 거주하는데... 왜 사상 쪽이 이번에 입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역을 떠나서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2017년도에는 47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고, 2018년도에는 38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낙찰률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경비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청소, 방호, 경비 그리고 하우스매니저가 지금 현재 1명,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영숙 위원

87.745%인가 그것을 적용 안 합니까? 가장 낮은 저가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영진

아니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입찰을 좀 저가로 해서 이게 됐네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낙찰률은 2017년도에는 88.2%, 2018년도 88.1%...

○장성철 위원

체결 서류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것은...

○장성철 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좀 봅시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장성철 위원

낙찰된... 업체들이 와서 아이가드가 된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관련 서류 말씀입니까?

○장성철 위원

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카페아리아’를 보세요. ‘해운대 지역 자활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주민복지과...?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우리가 자활센터에 무상 임대를 해서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무상임대 요건이 되고, 단 3년 동안 임대를 하고 나면 독립해서 자립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여건을 갖추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장성철 위원

아~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3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12월 중에 입찰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업체... 물론 자활센터도 응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내년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장성철 위원

아~ 내년부터는 수익 사업이 되네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3년만 하는 거네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계속적으로 하는가 했더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14억 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전체 세출 예산은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문화 강좌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한다면 공연이 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수익성을 올려가면서 지출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사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점은 어려움도 있고,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권창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관리번호 17-2입니다. 그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회원 총계 1만 799명 중에 무료회원이 1만 81명인데, 이 무료회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문화회원...?

○정순세 위원

예, 문화회원 무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 옆에 보면 누림회원이 유료회원인데,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은 누림회원, 유료회원이고, 그 외에 회비를 안 내고 문화회관에 등록된 사람이 무료회원입니다.

○정순세 위원

이분들은 1년에 1만 원씩 정액제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정순세 위원

1년에 1만 원씩 해서 정액제로...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유료회원, 누림회원은 1년에 1만 원, 2년에 1만 8,000원, 3년 연속하려면 2만 5,000원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누림회원은 유료회원이지만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주민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누림회원으로 관리를 하지만 회비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분들은 왜 회비를 면제하고 계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회비는 면제입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단체회원들은 많이 관람을 안 하십니까? 해운대구에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화회관장 권창오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티켓을 끊으면 20~90%까지 공연별로 다른데, 감액이 됩니다. 감액 혜택을 받고, 그 외에 각 동에서 단체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집, 반송' 창작공연이 있었는데, 반송1동 주민 열다섯 분이 단체로 오셨습니다. 티켓을 끊고 관람을 했는데 그런 부분,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정 부분, 이런 부분은 동에서나 지역에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문화교실 이런 것을 보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런 연극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번씩 18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동에 순회하는 식으로 말씀...

○정순세 위원

아니, 동에서 문화회관을 참가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재송 1동 같으면 재송 1동에서 뭔가 한 개를 만들어서 재송 1동의 최소한 단체원이라도 50명 정도 참석을 시켜서 연극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좀 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든지 하면...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하나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물론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한 번 시도해 볼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혹시 오시는 분의 연령층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을 구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문화회관의 공연 관람자를 말씀이지요?

○정순세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된 것은 없는데, 사실상 저도 관람을 직접 해 보고 하면서 느낀 것인데, 관람 성격에 따라서 연령층도 많이 구분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랑별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를 드신 분이 많이 관람을 했고,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 많고, 그 외에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든 주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공연요금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공연요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고요.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공연 같은 경우 여태까지는 최상급 VIP석, 그리고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J석을 최고로 보는데, 최고는 4만 원이고, 그 외에 3만 원, 2만 원, 1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일부 공연은 VIP석이 2만 원인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그쪽에서 기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공연별로 금액이 다 다르게 됩니다.

○정순세 위원

단체에서 요금을 책정할 때 혹시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계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비율로 50:5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연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 세입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주관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순세 위원

기획공연 개최에... 지난해에 지정한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정기부 사업’으로 한 공연은 몇 회나 있었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 환원...

○문화회관장 권창오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공연에, 전반적인 공연 운영에 다 포함되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재정 기부는 얼마나 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정순세 위원

재정 기부...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 부분도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세 위원

별도로... 특별한 방법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하시는 것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정순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공연 개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 고정 상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기획 공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공연료와 관련해 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정순세 위원

공연료와 관련해 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창작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순세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런 부분은 ‘해운대연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집반송’ 이런 것은 순수한 창작공연입니다.

○문현신 위원

‘우리집반송’이 아니라 ‘아빠집반송’입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아~ (웃음)

○정순세 위원

지역 주민의 문화공연 욕구 충족을 위해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원영숙 위원

아~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조영진

예, 시간이 됩니다. (웃음)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원영숙 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문화적 인격을 높인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56~57 페이지, ‘부서별 직원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임기제가 2006년 12월 14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2008년 2월 1일, 또 2006년 12월 14일, 2011년 4월 1일 보통 10년이 넘은 직원들이 일반임기제 직원이 많은데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에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기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은 이렇게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고용 불안한 이런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사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이상 깊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

사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모든 채용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모 직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시작을 같이 했는데, 현 직급일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직급일이 2018년 2월 1 일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급 상당에서 올해 2월에 7급 상당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현 직원하고, 전성한 직원은 12년이 됐지만 8급 상당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사 부서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문화회관장님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곱 번이나 관장님이 바뀌었고, 1년 반도 채 근무를 안 하는 근무 형태로는 문화회관의 비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도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구가 현재 무기직이나 이렇게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문화회관만 유독 일반임기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것은 문화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종종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회관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무기직으로 전환할 뜻이 있으면 인사 부서에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제가 알기로는 무기직, 공무원보다는 일반임기제가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여건도 낫고 훨씬 더 낫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시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영숙 위원

아니,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현재 인사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하고는... 참고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해를 도모하고...

○장성철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다른 분 없지요?

○문현신 위원

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문현신 위원님?

○문현신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문화회관장님, 공연 제작과 외부공연 유치는 어느 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주로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창작공연이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회관과의 정보 교류, 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우리 문화회관 내에서는 공연 제작과 외부공연 유치를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년간의 큰 틀로 봐서 비슷하고 단조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혹시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혹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아마 전문성 확보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업무를 같은 스타일로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해 오셨다면 이런 공연 제작이나 외부공연 유치 같은 이런 담당 분야야 말로 선진지 견학이나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에게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문현신 위원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주민들이 접하게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공공기관의 문화행정 정책의 큰 기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저도...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에게) 양해되었지요?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아까 설문지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성군 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성군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분명히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우리 문화회관 내에서 말이지요?

○김성군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것하고 같이 요구합니다. 같이 주세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요구 사항하고... 자료에는 좋은 것만 해놓았는데, 나쁜 것도... 그래야 개선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 청사방호 및 청소구역의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문화회관장님,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물 대관 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징수하고 미납액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미납액이 왜 있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것은 대관신청을... 지금 11월, 12월도 대관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 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12월 공연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회관장님, 혹시 대관료 현황 있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예를 들어 해운홀, 고운홀, 전시실, 연습실, 회의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대관료가 얼마인지, 하루에 얼마인지, 시간당 얼마인지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운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일은 13~25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똑같이 30만 원, 고운홀은 평일에는 6~10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12만 원, 그리고 전시실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제1전시실 4만 원, 제2전시실 3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1전시실 5만 원, 제2전시실 4만 원이고, 그리고 연습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전, 오후가 3만 원, 야간에는 4만 원, 그리고 연습실, 회의실은 각 2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예를 들면 해운홀을 보면 13~25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이 기준은 뭘니까? 어떤 때는 13만 원이고, 어떤 때는 25만 원입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오전은 13만 원, 오후 18만 원, 야간은 25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오전 13만 원, 오후 18만 원, 야간 25만 원...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1시부터 행사를 한다, 1시부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무대장비라든가 기타...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만약에 1시 행사이면 장비가 몇 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오전에 들어와야지 되지요?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러면 그것도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도 시간에 포함됩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아~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팅하는 시간도?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것은 정해진 시간... 오전, 오후, 야간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50%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관료의 50%?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리고 세부적으로 덧붙여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공연하는 과정에서 피아노를 사용한다고 하면 피아노 수수료, 그리고 특별한 음향 수수료, 그리고 에어컨, 히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반영합니다.

○김상수 위원

구체적인 대관료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쪽 말씀하시던 거...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하면 1시에 행사를 하는데 12시쯤 되어서 장비를 들고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갖다놓아야 하고, 물건도 옮겨야 하는데, 오전 대관료를 지불해야 된다, 조금 전에 문화회관장님의 말씀대로...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김상수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러면 1시에 공연하러 온 사람, 입장하는 사람은 1시에 들어오지만 무대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까지 다 내라고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문화회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시간에 비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편리상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 부분은... (웃음) 앞에서 말씀드린 일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글썄 그 규정이 없으면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이 10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 활성화 방안의 취지 목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활성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부산에서 제일가는 문화회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원영숙 위원이 지금 질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전시실 같은 경우 있지요. 제가 미술 작품전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문화회관이 전시 공간으로서 는 접근성이라든지 여타 조건으로 볼 때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기 때문에 작가들이 엄청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이지요?

○원영숙 위원

예.

○문화회관장 권창오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일단 그러면 선착순으로 봐야지요. 먼저 접수하고, 그것이 특별히 하자가 있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주는 셈이지요.

○원영숙 위원

그 전시실이 비는 경우도 있는가 보지요? 너무 좋던데...

○문화회관장 권창오

연중 계속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간혹 비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몰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청이 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빈 일정을 봐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지요.

○원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안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느 지역이든 다 우리 문화회관의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원영숙 위원

몰릴 경우... 저는 선정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시실에 제가 가보 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가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공연 후에 설문조사 시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해서 김성군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방호 용역업체 입찰 시 응찰 업체 현황을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장님, 9부를 같이...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특별기획 공연 프로그램 및 주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래식 쪽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한국 및 아시아 전통 음악이나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유지하며 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가 성인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좌동 지역의 성향상 어린이강좌나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 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연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이 많으므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적극 권장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최고의 가동률을 자랑하는 문화회관의 성공적 운영에는 묵묵히 일하는 전문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 상향 등... 아마 무기계약직이 해당이 되겠지요?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 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켓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 티켓을 병행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3)경제진흥과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 제 진 흥 팀 장 김 청 실

동 물 보 호 팀 장 강 영 속

산 업 자 원 팀 장 오 금 식

해 양 수 산 팀 장 강 현 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이 있으시게 되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 제시와, 또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우리 구가 매년 도시농업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이거는 예산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군 위원

왜 줄었습니까? 잘 되면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도시농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 배정을 적게 하면 시에 오는 예산이 적고, 따라서 구에도 배정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하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게 자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당사자들은 보면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습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내년에도 합니다.

○김성군 위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올해보다 많이, 아니면 적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거 좀 확인해보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 그런 것도 있고요. 친환경 먹거리 제공도 있고, 여가선용도 있고, 특히나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데는 교육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세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런 측면 같으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있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이거 1년에 한 번 나간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게 단속이라는 게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석유관리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저희 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데,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올라오면, 고발이 되면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런 것들은 위에서, 다른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겁니다.

○김성군 위원

아니, 행정업무도 그렇고 구의 업무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 같은데, 발품을 많이 팔지 그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주유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사실 저희보다는 석유관리원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면 업소에서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산도 11만 원하고, 10만 9,000원인가...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석유 시료 채취입니다. 가짜 석유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김성군 위원

아, 돈을 주고 사온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채취해서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제 생각에는 유류비도 많이 내리고 이러는데, 그리고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 같은데 단속을 좀 강화해서 자주 나가서, 가짜고 이러면 어차피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 권한이 저희에게 일임돼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석유관리원하고 소방서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업소에 두 번을 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랜덤(random)으로 돌려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보통 한 번을 하면 몇 군데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보통 8~9군데, 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니, 반송만 걸려있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마 이때가 반송지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구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성군 위원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 고발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고발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건수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여기 문 달은 거 같은데, 문 달았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지금 영업정지 중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성군 위원

여하튼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가 생활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으니까, 발로 많이 뛰세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해운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徹晝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진흥과 변수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10~16쪽까지에 있는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민원 중에 지금 ‘불법 대부광고물 배포’, 이 민원이 수십 차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오토바이로 불법 대부 업체 광고물을 길거리에 마구 뿌려서 길거리가 쓰레기더미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경우에는 이 민원접수가 99건 중에서 31건이 불법 대부광고물 배포 민원 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이 민원이 34%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게 대부 업체가 홍보를 하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보통 명함형 전단을 배포하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연락을 주면 대부를 해 주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조사해보고 불법업체 같으면 통신사 같은 곳에 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번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대부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 업체를 찾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화번호만 있는 업체라서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민원처리결과가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 대부광고물 투기, 이 민원을 막을 방법이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일반 대부 업체로 등록이 돼서 사무실이 있다거나 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지만 이 불법 대부 업체는 전화번호로만 영업하는 거라서, 글자 그대로 불법이라서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하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그 업체가 어디냐고 즉각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현장을 봐서 그거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영숙 위원

밑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의 34%가 이 민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해 달라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는 CCTV가 저희 업무로는 조회가 안 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영숙 위원

요청을 해봤습니까? 민원의 34%가 이 민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수사 요청을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 광고물을 배포해서, 우리 해운대가 관광도시인데... 온 데에 이 광고물로 쓰레기더미가 뒹굴면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출근을 하는 길에 그런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사실 이 불법 대부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쪽에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9, 20페이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 사업 집행현황’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이게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4개가 지금, ‘반여시장 비가리개 설치공사’ 9,700만 원, ‘구남로 거리조성(해운대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 원,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공사’ 10억 7,000만 원, 그리고 ‘해운대시장 주차장 조성’은 27억 원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경쟁입찰입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경쟁입찰의 경우 13%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왜 잔액이 ‘0’, ‘0’, ‘2,393만 8,000원’, ‘0’... 이렇게 잔액이 떨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2,393만 8,000원은 잔액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13% 정도 계산해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거는 2017년도 자료라서 제가 조금...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예.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다 쓰고...

○원영숙 위원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국·시비 집행을, 다 쓴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구비는 남아있고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낙찰률 13%를 구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자료를 작성할 때 잔액은 구비로 남기고, 국·시비의 집행을 다 한 걸로 처리한 겁니다.

○원영숙 위원

이 4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122~124쪽을 보겠습니다.

‘고압, LPG, 도시가스 사용 시설 정기검사 결과’, 이 건에 대해서 2017년도는 불합격이 36건, 2018년도도 불합격이 24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잠깐만요, 어디에...

○원영숙 위원

12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검사불능’, ‘부적합’, 아, 예.

○원영숙 위원

예, 그렇게 나오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할 때 오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적합은 처음 1차 때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2차로 검사를 받아서 적합이 됐는데, 1차 때의 부적합 부분을 명기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아니고 적합으로 가야 될 숫자인데...

○원영숙 위원

‘통보 후 개선 완료’가 적합으로 개선되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안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 직원한테 제가 이 숫자를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부적합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 부적합은 전부 적합으로 넘어와야 될 숫자입니다.

○원영숙 위원

126페이지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석유류 품질검사를 매년 1회에 한해서 8개소만 한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저희가 한 거를 표기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여기에 보면 8개 업소의 예산 집행액이 시료 채취이기 때문에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11만 원은 부담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44개 업소이고, 2018년도에 43개 업소인데, 이 위반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반내용이거든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정량미달 판매를 했고,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했고, 품질기준을 위반했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43개, 아까 과장님께서 석유관리원과 소방서가 주 검사기관이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랜덤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 하세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랜덤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래야만이 우리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석유에 대한 주 감독은 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고요. 석유관리원에서 매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전수를 다 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원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안 받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하는 업소도 지금 43개소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석유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에너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감독의 전수에 매달리기에는 직원 한 명이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료 채취를 하는 건데, 업체가 100군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43개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한테 불편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석유관리원의 자료를 안 봤지만 석유관리원이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정감사 때 자료를 내고 있을 거거든요.

○원영숙 위원

석유관리원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거 좀 시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제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영숙 위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라도 석유관리원이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해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구 자체 역량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일단 석유관리원하고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재송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도와준 거 감사드리고, 이번에 발 빠르게 행동하신 모든 경제진흥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를 볼 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재송시장 말씀이시죠?

○박기훈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통시장에 대한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 소유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박기훈 위원

의견이야 모아져 있고, 토지 소유주는 지금 팔려는 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팔려는 마음이 있을 때 뭐라도 하나, 서류라도 적어놔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서 그때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그때 감정가대로 팔면 되는데 이번에 반여3동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할 때 실컷 작업 다 하다가 끝에 가서 토지의 주인이 안 팔아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일단 매매 계약서 말고 그런 약정서라도 하나 받아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차피 산 넘어 산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재송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담회를 이번에는 재송한마음시장에 상인회가 구성됐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한마음시장 상인회와 미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돼야 할지의 방향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심할까 싶은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는 의회가 끝나고 상인회에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박기훈 위원

과장님도 나오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장소가 마련되면 가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한번 자리를 만들 테니까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제 첫 질의는 41페이지에 보면 각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 2018년에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예산집행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수산조정위원회랑 FTA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이 세 군데는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박기훈 위원

어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수산조정위원회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하고,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 이 세 군데는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회의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것은 회의를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받았 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서면심의를 받은 이유는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단순한 거라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필요 없으면 뭉치든지,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폐기를 시키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폐기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법상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에 에너지위원회에 보면 오타가 난 게 있어 가지고... ‘구의원 1명, 구 9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죄송합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 오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 다음으로 많은 게 개 목줄 관련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박기훈 위원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 목줄을 안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왔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단속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어른들이 계시고, 동물명예감시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원이라 든지 다니면서 그런...

○박기훈 위원

아니, 계도 말고 단속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사건화가 됐을 때 저희가 단속을...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개 목줄을 안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20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2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이고, 공원에서 안 했을 때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법상에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10만 원, 공원에서 20만 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게 20만 원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맞습니까? 도로이든지, 공원이든지 관계없이 2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이 과를 만들어서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 목줄을 안 해서 잡았을 때 바로 거기에서 벌금을 20만 원을 매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벌금을 매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는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지는 않고요. 민원이 생겼을 때 경찰이랑 같이 출동을 해서...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구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렀을 때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시간적인 게 있습니다.

요즘에 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얼마 전에 개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큰 개가 뛰어 다니는데... 신고를 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40분이 걸렸어요. 40분 동안 그 개가 험악하게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12에 전화하면 구청에 또 연락한단 말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바로 뛰어나가서 개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사살을 하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계도를 해서 경찰서에 넘길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박기훈 위원

나가기도 하는데, 제 말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구청에서 벌금을 매겨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다른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구도 있겠지만, 그거를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기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대부업 말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박기훈 위원

117페이지를 보면 이게 짜라시를 날리는 그런 대부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대부중개업 과태료 및 영업정지’ 이래 가지고 보면 2017년도에는 380만 원의 벌금과...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이거는 짜라시 말고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입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짜라시를 뿌려서, 그런 업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짜라시를 뿌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규정에 안 맞았을 때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실태조사서 미제출’, ‘계약서 보관 미비 등’ 이래 가지고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그거를 아까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짜라시 종이 그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단속할 방안이 있는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개와 고양이 관련해서 있는데, 누리동물보호센터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2회 입찰을 하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누리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수의계약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바뀔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에 동물보호병원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누리동물보호센터는 병원이 아니고 보호센터의 면적이 있는 거고, 이 보호센터는 부산시 전역에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누리동물보호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이 집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성화라든지 다 맡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중성화는 누리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같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동물병원이 해운대구에 많이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호센터는 한 군데밖에 없어도 병원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에 중성화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입찰을 이행해서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리동물보호센터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 집을 수의계약 한 이유가 이 집에는 포획팀이 딸려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포획팀이...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포획팀이 없으면 포획팀 따로, 중성화 사업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훈 위원

그러면 포획 비용은 따로 추가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한다면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박기훈 위원

만약에 이 업체에서 포획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중복으로 되네요?

그러면 포획팀이 따로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다른 병원은 포획팀이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다른 병원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포획팀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밖에 줄 수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입찰을 해서 부산시에 있는 다른 팀이 오면 가능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업체밖에 없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입찰을 해운대구로 제한한 게 아니고 부산시로 제한한 건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한데...

○박기훈 위원

부산시로 제한하는데 (개, 고양이를) 데리고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수의를 이 집만 줄 수밖에 없죠.

○박기훈 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꼭 여기에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왕이면 요즘에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도 경쟁을 시켜봐야 되는데, 입찰을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거, 그거는 업무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다른 병원에서도 포획팀이 있다고 하면...

○박기훈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주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그러니까... 조금 알려 가지고, 여기가 신시가지에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송정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반여, 반송, 재송에도, 두 군데를 뒀 가지고 여기에도 할 테니까 너희도 입찰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포획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느 병원을 보고 포획팀을 운영하라고는 못 하거든요.

○박기훈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포획팀을 운영하고 입찰을 했을 때 그 집이 들어오면 경쟁입찰을 하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요즘에 포획을 해 가지고 송정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두 군데를 해도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웃음) 팀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래 경쟁입찰을 했는데 응찰팀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왕이면 요즘 그런 시대가 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송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신설될 수 있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게 돼야만 재송동의 발전, 또 해운대구의 발전이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얼마만큼의 노력 의지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상인회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 안 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번에 사업자 변경만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거를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바로바로, 제가 모르니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밑에 계장님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송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도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 때문에 공통적인 사안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부지가 어느 정도 만약에 (조성)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고 약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런데 하나의 운영의 묘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 검토는 별도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반여3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소유주가 매각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막상 내려오니까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민법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겠습니까마는 현재 재송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비슷한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사전에 단서를 붙여서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가계약식으로라도 약속을 해놓고 사업 진행을 하되 모든 예산이 수반됐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등의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계약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 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안인데, 그런 방법은 저희가 옛날에도 검토를 해봤을 거고,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가계약은...

○위원장 조영진

제안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굳이 맞다, 아니다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조영진

이분들한테 의뢰를 한번 하셔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예산 확보까지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차질도 많이 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고문 변호사 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판례가 있는지, 동시에 같이 검토하셔서 되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처음에 보통 할 때는 토지 소유주한테 사전 매수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문변호사를 거치더라도 똑같은 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지역적인 효력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땅을 팔겠다고 말하면 그게 공론화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땅을 안 팔고 다른 개발을 했을 때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그 사람 본인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 사람이 지금처럼, 저희가 주차장이든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매수를 해서 감정을 했을 때 소문은 그 동네에 다 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구청하고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저기에 복지관이 들어오는구나, 주차장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주가 감정을 받아보니까 자기는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에서 9,000만 원이 나왔다고 1,000만 원을 더 줘야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자기는 여론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도를 고문 변호사와 의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 부분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박기훈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자문을 구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또 담당 부서 과장님도 구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거는 저희 고문 변호사와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114페이지, 박기훈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이런 공사 입찰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입찰공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소수이고 해서 정보를 몰라서 입찰에 참가를 못할 개연성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아까 포획팀이 이 업체밖에 없다, 이 병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포획팀이라는 것은 응찰 조건에 ‘포획팀’이라고 하면, 정보만 충분하다면 포획팀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입찰을 올렸다고 하는데, 입찰공고를 어디에 올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전자입찰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나라장터에 올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그 나라장터가 병원을 하는 원장님들이 볼 리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누리동물병원을 2017년 1월 1일 자에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시 전체에 대해 부산시 수의사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누리동물병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내년 말까지입니다.

○원영숙 위원

2019년 12월까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 전에 이 집에 하기 전에는 부산의 수의사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예요.

○원영숙 위원

어차피 계약을 맺은 건이니까, 2019년 12월까지 계약을 하셨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저는 일단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문 자료 요청을 하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두 번 입찰을 했다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진

예,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시간을 부여해 드리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50분 회의, 10분 휴식을 지키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잠시지만 잘 쉬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웃음)

○문현신 위원

살짝 화기애애[和氣霏霏]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웃음)

○문현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서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는 혹시 누가 체크를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내년도 본예산서?

○문현신 위원

아니, 어떤 예산서든... 항상 예산서 담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형식 이런 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그 틀은 기획조정실에서 주고요. 예산팀에서...

○문현신 위원

아~ 틀을 기획조정실에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기본 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 틀이...

○문현신 위원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내용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부서에서 내려오는 서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매년 예산서를 낼 때마다 쓰는 서식입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까지 틀렸는데, 이번에 하나 바로 잡힌 게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바르게 정정했다는 얘기도 들요. 그래서 그분을 좀 칭찬해 드리려고 여쭙았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우리 서무님이 했을 겁니다. (웃음)

○문현신 위원

몹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이랑 2018년 예산서에는 정책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 니, 세부 사업이 어항 및 해안 폐기물처리,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런 게 원래 정책 사업이 해양환경보전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예산서에는 그게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으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우리 서무님이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잘하셨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19, 64페이지를 보면요. 제 지역구입니다. 해리단길 기사가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옛 해운대역사 뒤편 부산판 경리단길로 뚫다.’ 이렇게 해서 해리단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아기자기하게 특색 있는 카페나 맛집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낯은 동네 특유의 정겨움이 있는 데다가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더해져 그 느낌에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되고, 젊은 층도 유입되고, 커플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가보셨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아시다시피 그전에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동지내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흔히들... 지금 보면 65페이지에 ‘해운대 영세상인 보호 켄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런 동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켄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하시고, 이번에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가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기사로 나왔는데, 상가협의체도 구성해 주시고... 아마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그래서 아직은 형식적인 것에 그쳐있기는 하지만 이런 동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제안 비슷한 부락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전포동에 전리단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전포동 카페거리...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거기도 해리단길처럼 아기자기하게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되다가 요즘은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같은 생각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문현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비슷하게 부락을 하나 드리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대규모 프랜차이즈 입점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가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가봤습니다.

○문현신 위원

거기에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설빙 같이 약간 고풍스러운, 거기에 어울리는 것만 입점해 있고, 나머지는 전주 전통의 고유 음식, 그런 전주 상권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해리단길 같은 경우도... 물론 자유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법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주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한데, 소규모 점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프랜차이즈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 해리단길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국가하고 전주에서 지역에 고시를 해서 다른 건물이 못 들어오게 지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리단길 쪽에는 그런 지역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저도 무리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자구책으로라도 협의체 쪽이나 상가 건물주들이 이런 허가를 해 주거나 할 때... 개축해서 신고할 때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가 알고 있기로 신축은 건축과에서 규제를 하지만, 약간의 리모델링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터치(touch)를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해리단길 상가협의회 측하고 가끔씩 미팅을 해서 건물 임대료 상승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건물주들한테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답이 없어서 과장님은 좀 현명한 답이 나올까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똑같습니다. (웃음)

○문현신 위원

일단 그것을 같이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 22~23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으로 나와 있는 예산 현액 이랑 집행액이 있고요. 그 옆에 예산 전용 내역에도 '어항 및 해양 폐기물 처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산서에 해양환경보전 정책 부분에 있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과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잠시만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의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부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만 하면 그것은 인건비하고 작업용품 구입, 대형 폐기물 처리... 세부 사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게 해양환경보전의 세부 사업으로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는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저희 구비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항 및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항구 밑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문현신 위원

이것도 구비가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지금 연평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8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연 평균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13-2,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항 및 주변해안 환경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2017년 35톤, 2018년 47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평균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것은 주변에... 인력을 써서 할 수 있는 폐기물이고요. 바다 밑에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해저쓰레기도...?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해저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수거한다는 게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어항 및 해양 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여기서는 (바다)밑에 업체를 이용하는 물량은 빠진 겁니다.

○문현신 위원

아~ 알겠습니다.

폐어구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이런 게 해양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생각으로는 어구 실명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소유자를 표기해서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어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어촌계와 계속 의논하는 중인데, 조율 점을 찾지 못해서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자율적인 개선을 희망하시되 그쪽에서 따라주지 않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 일대는 치우는 양보다 현재 많아서 치워도 계속해서 쌓이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요.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자제나 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게 결국 해양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강에서부터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 부분이나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만 치울 것이 아니라, 아까 해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바닥에 깔려있는,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도... 그런 데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매년 수시로 어촌계 사람들을 모아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촌계에 서... 그리고 저희도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나가서 어촌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촌계 이야기는 어구는 버리는 것을 안 하고 있는데, 바다에 떠다니는 페 트병이라든지 이런 생활쓰레기가 많은 부분이 있다...

○문현신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것을 우리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문현신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큰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촌계만을 닦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 니다. (웃음) 너무 어촌계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부터 먼저 바뀌고 일상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 국민운동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환경정비를 할 때 어촌계 쪽으로 대대적으로 해보고, 주민 교육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또 침전쓰레기까지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 모든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한계가 있을 텐데, 결국은 재원이지만 않습니까?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일단 저희 수산 쪽 비용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생각이구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주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년처럼 구비 편성도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끝까지 어촌계 자체적으로... (웃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요즘 공기업 평가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나 공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은 이미 다수의 공기업이 진행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 초반에 기획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 중의 하나인데요. 게다가 지역 사회 기여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최근 2~3년간 집중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어서 해운대에 자리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번 결산 추경 했을 때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늘푸른과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물론 그 경우는 공기업 측에서 먼저 제의해 온 부분이긴 한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회의 때 각종 현안이나... 과장님과 상반된 의견이나 때로는 다른 견해가 약간 있으면 제가 고성이 좀 오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니까 발언이...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날을 이렇게 쪽 보면 공무원님들이 저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현재 공무원 여러분의 정말 높은 전문지식과 의욕,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부 무사안일[無事安逸]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기회주의적인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역의 구의원이 되다 보니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이요?

○장성철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같은 말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헛갈려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쪽 나왔다가 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쪽 나오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다가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가 싶어서... 똑같은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통일을 시켜서 한 가지로 가야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전통시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바꿔주세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서 전통 시장에... 일방적으로 좌동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 혜택은 건물 주인, 임차인...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건물주한테 전부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세 사람이 다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안 갈 사람, 마트에 가는 사람도 시장에 갈 수 있거든요. 지붕이 덮이고 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싸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좋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매출이 증가하니까 상인도 좋아진다고, 세 사람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데... 장사가 잘되니까 건물주는 또 임대료를 바짝 올려버리고, 그렇지요? 임차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상인 보호법 이런 것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

○장성철 위원

현대화로 만들어 놓고 장사가 잘되니까 건물주가 세를 바짝 올려버리면... 그런 예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법적으로 규제는 좀 어렵고요. 사유재산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률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게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현대화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 말고는 법적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어디...?

○장성철 위원

39페이지를 보십시오. 제목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2017년도는 680만 원 돈을 썼는데, 2018년도에는 금액이 완전히 줄어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아직 남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아~ 나는 정말 잘 썼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장내 웃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겁니다.

○장성철 위원

금액은 800만 원 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 정도 선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맞춘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5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 제가 듣기로는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했을 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친인척들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많이 도는데, 한 번 위탁을 줘버리면 그 뒤에는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독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그런 게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위탁해 가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나는 장성철 위원이 되게 뭐라 할 줄 알고...

(장내 웃음)

○장성철 위원

아니, 제가 앞에 좀 하니까 악수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고 공갈협박을 해서...

(장내 웃음)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님, 앞으로 너무...

○장성철 위원

쫓았어요. 아까 앞에 사람들한테... 서류를 좀 제출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번에 왜 그러느냐고...

○위원장 조영진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간이 많이 졸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앞에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111페이지를 보면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정순세 위원

‘전통시장 현황’이라고 해서 쪽 명단이 13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빈 점포가 250, 운영 중 점포가 58, 또 등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등록은 무엇이며, 빈 점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재송시장은 상가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등록시장하고 인증시장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록시장은 70~80년도에 생겼던 상가형 건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점포로 등록된 것을 등록시장이라고 하고요. 인증시장은 현대에 와서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요건에 맞춘 그런 시장을 인증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시장에 지금 빈 점포가 250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건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상인회 회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재송시장을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셔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주변 환경 정비...

○정순세 위원

예, 그 앞에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상가 안에...

○정순세 위원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마찬가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상가 안은 사실 상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상가 안이든 바깥이든 간에 그 인근의 환경 정비는 상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청소행정과에도 주변에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한 주차장 부지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건물이 오래되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옆이 너무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도 막 쌓아놓고, 버려놓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청결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정순세 위원

그래도 재송시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크게 변화도 없지만...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요. ‘중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세 군데를 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66페이지를 보면은요. ‘연합뉴스 등 9개사’라고 해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찾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것은 저희가... 3월 5일 자를 말씀하십니까?

○정순세 위원

‘연합뉴스 등 9개사’라고 해서 66페이지에 보면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이것은 저희가 대천공원에서 수의사를 모시고 한 겁니다.

○정순세 위원

아~ 대천공원에서 수의사를 모셔서 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님들이 현장에, 일일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일정 장소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찾아간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나 동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올해 2번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4회로 바꾸었고, 지역도 권역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순세 위원

고양이 중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 동안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올해를 대비해 볼 때 동에서 1,500마리 정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예산은 850마리 정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현재 한 마리의 수술비가 12만 5,000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12만 원입니다.

○정순세 위원

아, 12만 원...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9,600만 원이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때는 800마리 정도 됐고요.

○정순세 위원

예, 800마리 정도 했고, 올해는 1억 300만 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85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정순세 위원

850마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570두의 실적이 있으시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정순세 위원

혹시 해당 병원에서 이 예산하고 고양이 숫자하고 맞춰서 수술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어떤...?

○정순세 위원

12만 원에 800마리를 하면 9,600만 원이 나오니까 혹시 거기에 맞춰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주는 예산만큼... 각 동에서 1,500마리를 신청했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럴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오늘은 여기에 가 달라.’ 요청을 하고, ‘몇 마리 정도 포획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순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올해 예산이...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유기묘들이, 길고양이가 너무 번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 구비를 96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가로 더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세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 분 남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상수 위원에게) 두 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김상수 위원

마지막에 하면 시간을 많이 줄 겁니까?

○장성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 좀 당황하신 느낌을 받습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당황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볼이 빨개지시는 게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당황했습니다.(웃음)

○김상수 위원

저하고는 편안하게 대화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배우는 차원에서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지역구가 송정, 구덕포, 청사포... 과장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한 우리 송정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송정 지역을 발전시켜 주신다고 입양센터도 만들어 주시고, 씨름장도 옮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앞으로 전통시장으로 살린다고 하셨는데, 송정동은

그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재래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동네시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옛날에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장이 없어지고, 근처의 민박집이라든지 일반 상가가 영업을 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장의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아침에 가면 미역이라든가 송정 지역의 해녀들이 갖고 온 것을 팔고, 상가 코너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식당도 그렇고 대중 열 집 정도가 형성되어서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시장으로 부르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이나 관심이나 구청에서 송정은 아예 열외입니다.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어서... 반여, 재송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 송정동은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 주십니까? 작다고 해서 그럴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가 되든지, 아니면 도소매업 50개 점포가 영업을 하든지...

○김상수 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지요. 아예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하나의 동네인데, 송정이라는 동을 갖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모 재래시장에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래시장을... 멀쩡한 간판, 기타 등등을 새로 교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것을 다 철거하고, 그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멀쩡한 간판을... 깔끔하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몇 개라도 우리 송정 지역 상가에, 간판이라도 통일되게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간판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정도 좀 포함시켜서 옛날 시장 그 지역에 어떤 것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우리 송정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있습니다. 맨 밑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어업지도선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직원이 어떤 식으로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매일 출항을 합니다. 연안에...

○김상수 위원

직원이 매일 출항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출항을 해서 어떤 점검을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불법 어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일 출항을 하면 출항일지라든가, 불법 조업을 지정하는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일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지가 다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근자에 와서는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이 성행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민들 상황도 좋아졌고 해서 불법 어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거의 없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낙시어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것은 기존 어선이... 63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지요?

○김상수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기존 어선이 현대화를 하면서... 은행이자를 받아서 개선했을 때 그 은행이자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구에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선 이런 쪽에 보험료라든가 안전보험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네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어선재해보상보험도 주고요. 어업인안전보험도 주고... 일부를 줍니다.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 때 거기에서 일부 요율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상수 위원

보험에 들면 일부 요율에 의해서 그것만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전액이 아니고...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정 구덕포에 가보면 어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거기의 어항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덕포, 우리가 전에 한번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거기는 저희가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김상수 위원

공유수면으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전용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24페이지요?

○김상수 위원

23페이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예산 전용 내역’ 이렇게 해서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폐기물 처리로 245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예산 전용을 할 시에는 ‘세출 예산의 세부 항목이나 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예산을 전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 등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 배경과 사유, 변동 내용 등 이용,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결재를 받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결재를 받았다면 21페이지를... 다시 앞장을 보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이 남았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상수 위원

21페이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밑에 연안어장 환경개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전용은 작년 것이고요.

○김상수 위원

아~ 이것은 작년 것...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2017년도하고 중복되는 것이라서... 2017년도 자료가, 1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자료는 있는데, 2017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출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출 기준이... 원래 2017~2018년 이렇게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2017~2018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2017~2018년을 하고요. 없는 것은 한 해만 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없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없어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7~2018년... 그런데 2017년분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것만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문현신 위원

예산 집행 내역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집행이 없었다는 것인데...

○김상수 위원

그래, 예산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공통은 2018년 것만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라고 빛축제’에 보면 ‘인근 상인 빛축제 협찬 등 참여 여부:희망 42.1%’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 업체가 현재 수영로교회하고 상인회하고 두 군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 참여는 애항길의 상가하고요. 구남로의 상가하고 해운대시장의 상가 전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 전체 통틀어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현재 빛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어디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올해 말입니까?

○김상수 위원

예, 올해.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올해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구남로 상가라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해운대라고 빛축제의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시비가 1억 9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4,100만 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시설부대비 포함... 어디를 봐야 되지요?

○김상수 위원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9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3억 5,900만 원이거든요. 이것하고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하고 조금 상반되게 숫자가 나와서...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사업 자료를 내다보면 숫자를 일치시키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만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다 보면 금액이 포함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순수하게 시설비만 3억 5,000만 원이고요. 900만 원이 더 붙은 것은 다른 비용, 일반운영비가 좀 붙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95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의 수지 내역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이 수지 내역서를 보면 임대료 빼고,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수익금 발생은 자체 소화입니까?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체 운영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수지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료를 받아서 수지를 확인했을 때 이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속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김상수 위원

시간 한 15분... 할까요?

○위원장 조영진

15분이요?

그러면 두 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장성철 위원

저는 얼마 안 걸립니다.

○문현신 위원

저도 얼마 안 걸립니다.

○위원장 조영진

얼마 안 걸립니까? 지금 속기사 분이... 50분이 넘었는데...

○김성군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김상수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조영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된 게 약간 있는데요. 저는 약간 벗어나서 이야기하면,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업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부산시 전체에서 4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구에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면 이 4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 구가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유기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개 업체가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입찰을 해봐야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게 아마 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부산 전역의 18개 구·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대충 어바웃(about)으로 잡아보니까, 한 개 구에 1억 5,000만 원을 잡았을 때 18을 곱하면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4개 업체에서 나눠 가지면 1년에 평균치로 봤을 때 6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한 수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입찰을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탄 거 안 하시면 이 사업을 하면 개도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것을 첫째로 느꼈고요.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짓는 것도 해운대구 아 아닙니까? 부산시를 빼놓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이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중성화 사업하는 것을 해운대구의 입양센터를 조성할 때 이거를 곁들여서 시설을 하면 어떨습니까? 1년에 1억 5,000만 원이면, 이 시설이 초기 투자는 좀 들지만 앞으로 굉장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누리보호동물센터하고 누리동물병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처럼 보이는 건데, 위탁관리비는 5,400만 원이고, 중성화 사업은 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나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누리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게 된 거고, 그전에는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부산시 전역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동물병원에 중성화 사업을 위탁했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두 개의 예산을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수 위원

물론 5,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유기 동물의 처리 절차가 보니까 구청에 신고를 하면 업체가 포획을 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한 마리당 10만 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중성화는 12만 원, 보호는 10만 원.

○김상수 위원

이게 전부 그 사람들이 포획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럴습니까? 중성화도 그럴습니까? 그분들이 포획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고양이도 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포획팀의 3~4명 따로, 그런 인건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병원 수술비도 들어가고, 포획팀에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12만 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부산시 전체로 지금 12만 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는 15만 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금액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서 올려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부산시에서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중성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재 보니까 예산이 850마리로 12만 원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입양센터를 지을 때 곁들이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지금 입양센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누리동물보호센터에 가보시면 면적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보호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입양센터에는 면적이 좁아서 보호소로서의 역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마감하라는 바람에...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7개 분야에 77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경제진흥과에는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5개입니다.

○김상수 위원

5개 중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5개 다입니까? 안 그러면 공약이기 때문에 5개를 다 넣어 놓은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해서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발상을 안 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행정이라는 게 해가 갈수록 변화를 하거든요. 인구가 늘듯이 사업도 계속 늘어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옛날 청장이었으면 생각을 못했던 사업도 더러, 지금 새로 나온 사업들은 옛날하고 연관성이 없는 신규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지금 5개의 사업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라고는... 제가 5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의 공약사항하고 같이 다 맞물려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발상이, 우리 청장님 한 사람하고 부서의 공무원하고 맞닿을 때 청장님 한 사람의 머리가 더 앞서간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말이 되면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열 가지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가지 내고, 내년도에 한 가지 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왔던 게 올해 나와서 됐고, 공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을 좀 행정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텃밭 있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김상수 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세 군데입니다.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동주민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잘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저희가 키워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일부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텃밭을 가꾸어서 가을철에 관변 단체들이 모여서 그냥 삼겹살 파티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구워서 오이, 고추, 상추, 가지를 심어서 삼겹살을 사 가지고 파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고기 몇 번 구워 먹을 바에 삼겹살집에 가서 구워 먹지, 구워서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한 게,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삼겹살을 먹는 데 들어가는 부산물이 거기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채소를 거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고 나면 키우고 거둬서 상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걷는 날 자기들이 고생했다고 작업을 다 마치고 밥을 먹자는 의미에서 아마 자기들 비용을 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투자한 만큼, 상추를 뽑아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갖다 주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에 5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100만 원도 안 될 걸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보통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키울 때 들어간 돈으로 물건을 샀으면 10개도 더 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농약을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리고 저소득층은 사실 신선한 채소도 먹기 힘듭니다. 우리가 농약을 안 치고 키운 채소를 거둬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때, 꼭 투자 대비를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11월 중순 아닙니까? 혹시 지금 들어와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부산시나 정부 상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다른 부서는 저희가 모르겠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시장 쪽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시나 정부의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진행대로 지금 있는 돈을 쓸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직원의 몫이고, 또 직원이 그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어쨌든 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해운대는 해양관광 쪽이 유망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가 앞으로 좀 더 타 부서보다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따로 없는 내용인데요.

2016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해운대시장에 고객지원센터하고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소유권은 해운대구한테 있고, 관리는 상인회에 위탁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이 고객지원센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위탁을 하고 있고, 화장실은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고, 맞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초기에 의회에서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해운대시장 측에서 음주 후에 문 달은 상가 앞에서, 안 그러면 구석진 데 그런 곳에서 노상방뇨를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인회 측에서 꼭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만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24시간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24시간 많이 움직이는, 구남로 광장이나 그런 특성도 있고요. 해운대바닷가는 공중화장실을 가기가 가깝고, 해운대지하철역 쪽도 가깝기는 하지만 해운대시장 근처와 구남로 일대에는 화장실을 가기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밤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다고, 개방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밤 10시나 12시 넘어서 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저녁 8시 정도에 갔을 때도 몇 번이나 닫혀있었고, 저녁 7시에 가도 닫혀있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상인분께 여쭙보니까 시장 상인회장님이 퇴근하시면서 달는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월 8만 원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 상인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재논의를 해 주셔서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마저 못 드려서... 54페이지에 보면 위·수탁을 할 때 계약 같은 거 있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장성철 위원

관련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잠시만요. 54페이지요?

○장성철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위탁 계약서를 말씀하십니까?

○장성철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는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집행부석에서 「96페이지」 하는 이 있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96페이지...

○장성철 위원

그거는 해운대시장 공영주차장, 그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자는데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석 달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한테) ‘잡아놨습니까? 가워놔놨습니까?’ 오만 가지를 다 물어보고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석 달이나 그 고양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노...

정말로 그거를 석 달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바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혼자 독점 하니까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즉시 출동이 되겠지만...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수요 대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 쪽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장성철 위원

지금 신청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위원님, 저희가 일단 보고... (웃음)

○장성철 위원

(웃음) 아니, 그래서 제가 잡아서 저기 옹촌에 갖다버렸어요.

(장내 웃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웃음)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성철 위원

좌우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영숙 위원

1분 정도면 됩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전통재래시장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원영숙 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료가 다 금액이 적어요. 이 대부료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토지공시지가입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장 조영진

원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원영숙 위원

아니, 좀 더 답변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법인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서 80% 감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율을 5/100로 산정합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서를 9부를 같이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서, 세 번째로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중점이 되겠죠. 네 번째로 민간위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좌동재래시장, 반송골목시장, 우동종합상가시장, 해운대시장, 4개 시장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히 9부로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조영진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대부광고물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으므로 현실적 한계만 내세우지 말고,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석유관리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조사자료를 받아 자체점검을 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되겠죠. 특정업체로 한정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찰 시 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정보 부재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이 두 번 공개입찰을 해서 응찰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법상 세 번째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입찰공고문을 좀...

○위원장 조영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아니, 이 나라장터에 띄우는 거하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모든 공사 입찰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안 띄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장 조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물품, 용역,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1년에 상당한 건수가 있거든요.

○원영숙 위원

예, 많죠.

○위원장 조영진

이 한 건만 본다면 그 말씀이 해당될지 모르나...

○원영숙 위원

아니...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예를 들어 안 된 것을 건건이 다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원영숙 위원

아니, 이게 입찰공고인데...

○위원장 조영진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두 번 띄웠는데...

○원영숙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진

일단 그 관계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더라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문을 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진

그거는 과장님, 관련 규정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모든 공사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니까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규정상 두 번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웠단 말이에요. 응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죠.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그 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영숙 위원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공사 건도 아니고, 나라장터의 이 부분을 병원 관계자가 바라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지, 구청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깐 모든 계약 관계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 물품,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제 재무과장님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고, 나라장터에 공지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구청 홈페이지 란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구청 홈페이지에 넣겠습니다. 나라장터에도 올리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장 조영진

현재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원영숙 위원

안 올린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위원장 조영진

용역, 공사, 물품, 사전에 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제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재무과장님이 분명히 나라장터에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모든 구군 중에서 자기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는 곳은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비를 위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공기업의 지역밀착형 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2018년도에 (해운대구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 내몰림으로 해리단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가 건축주와 임대료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고, 영세 상인을 도울 수 있다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요.

○박기훈 위원

위원장님, 동물보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그거 만든다는 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 동물보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과장님! 그거는 아까 숙지하셨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3) 교육협력과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2018년 업무성과보고 전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순

구민협력팀장 이경옥

평생학습팀장 김명자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그러면 교육협력과 2018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반송중학교 활용방안 구상 용역, 이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용역 결과로는 첫 번째로 진로체험사관학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용역 결과로 나왔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 시설, 운동장, 생태학습장,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데 용역은 꼭 주민 의견보다도 과연 무엇을 할지 더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성군 위원

불가하다고 나왔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석대동 162번지 일원 1만 5,310㎡ 부지에 반송동 실외체육시설(워터피아) 조성 사업을 위한 반송동 실외 체육시설(워터피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용역(2014년 10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전체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2015년 12월)’, 이것도 용역입니다.

‘센텀2지구 산단진입로가 사업부지 내 통과 예정으로 부지 활용도가 낮고 워터피아 시설 조성 제한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방향과 연계 등 재검토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추진 중단’, 들어보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래서 그거는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광역시 차원의 개발계획에 의한 자치구 실외 체육시설 추진사업 중단으로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이렇게 생각하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거기에 석대 산단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성군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 남발을 하고, 그래서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모르고 추진한 거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측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예측도 필요합니다.

○김성군 위원

전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그 사람들의 선거 선심용 아닙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제2센텀을 들여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린벨트는 손도 못 대고 그런 것만 남발해서 주민들을 현혹한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것도 안 됐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 됩니까? 그린벨트를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좀 재고하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다음 2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6:4로 돼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40%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6:4로 돼 있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66:34로 나오는데, 약간 부족하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부족합니다.

○김성군 위원

문제는 동별 연령분포도를 보면 50대 미만이 16.4%밖에 안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바쁜 분들이 많고,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본인의 성격 취향상 이런 곳에 들어오는 걸 꺼려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젊은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안의 하나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군 위원

내년에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인원도 20명에서 50명, 이렇게 확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인원을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세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분기별로 1만 원이 나가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월 1만 원, 분기에 3만 원입니다.

○김성군 위원

참석수당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이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너무 적나? 1만 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을 주던데, 개념이 다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김성군 위원

오히려 동네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다른 협의회, 이런 데는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른 분야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1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의 중요성과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기회 제공,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을 실천으로 학생들과의 화합하는 시간 마련, 민·관·학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결론적으로 학교가 언어폭력이 심하고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높을 수도 있지만...

○김성군 위원

아니, 이 교육 자체를 보면 말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군 위원

학교명을 한번 보십시오.

‘반송여중, 센텀중, 반송중, 재송여중, 신도중, 운송중...’, 8개 중에 3개가 반송에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거는 학교에서...

○김성군 위원

신청을 했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줬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데, 신청하는 학교들이 이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군 위원

아니, 교육협력과에서 반송에 너무 편중된 걸 보면 알지, 결국 반송이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좋은 교육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9개 중학교, 1,600명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에 보세요. ‘동백중, 반송중...’ 여기에 반송은 하나밖에 없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것도 역시 신청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의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신청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봅니다.

○김성군 위원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물론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은 교육협력과잖아요? 확정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 교육협력과는 학교와 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점검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김성군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교육 말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어떤 교육 말입니까?

○김성군 위원

제가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교육을 한 거, 언어폭력하고 이거하고... 어쨌든지 간에 교육협력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환경개선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과장님을 가르치거나 잘난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곡해는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갈매기를 잘 데리고 노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그러면 네가 갈매기를 잘 데리고 노니까 다음 날 한 마리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갈매가가 한 마리도 안 내려오고 공중에 떠 있었다는 말 들어봤죠? 그거는 자기 얼굴에서 마음이 다 읽혔다는 거죠?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반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성군 위원

반송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꼭 반송보다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편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낙후된 곳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지원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게 생각합니다.

○김성군 위원

교육의 질이나 콘텐츠가 문제이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 구민협력, 평생학습, 생활체육 등 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유성 과장님과 교육협력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 공부를 하다가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시간은 15~20분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그 뒤에 또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기본현황에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 5명, 구민협력팀 4명, 평생학습팀 4명, 생활체육팀 4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다섯 분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교육이 중요하고 할 일도 많아서 인원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과장 포함해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지원팀에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3번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위원회가 협의회 하나, 위원회 네 곳이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제일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위원 수는 13명, 주요 기능은 학교급식, 교육경비 지원 심의 의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282, 28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해운대구는 11억 8,300만 원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지방세 수입 대비 0.95%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2018년도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해운대구가 21억 3,900만 원이라고 돼 있던데, 이거는 본 위원이 2018년도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다 뒤져봐도 18억 3,700만 원이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21억 3,000만 원의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보조금 3억 원을 빼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 18억 3,700만 원 안에 학교급식보조금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3억 원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근거를...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 도서구입비 3억 원은 해운대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원영숙 위원

3억 원이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거기에 도서구입비, 난방비, 교육급여 같은 게 한꺼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우리 구 예산입니다.

○원영숙 위원

해운대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어쨌든 주체는 부산시에서 해운대도서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21억 3,9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 도서구입비는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원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는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게 여기에는 빠져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 거 플러스 해운대구 전체로 해서 행복나눔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다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3억 원을 찾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협력과 예산서에 3억 원이 없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전부 쪽 뽑아 가지고...

○원영숙 위원

다른 과를 다 합쳐서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해운대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그런 도서를 구입했을 건데, 이 부분이 그냥 보이기 위해서 업(up)을 시켜놨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구마다 실적을 내다보니까 저희들도 한 것은... 각 구군 다 공통사항입니다.

○원영숙 위원

언론에 보도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빼거든요. 2017년도에 11억 8,000만 원일 때도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도서구입비로 3억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이게 우리 자료가 아니고 시의 자료입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21억 3,900만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치면 1,210억 원이 우리 구의 지방세거든요? 이게 1.76%가 됩니다. 맞습니까? 1,210억 원, 우리 구 지방세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외수입하고 플러스된 거 말입니까?

○원영숙 위원

세외수입 빼고, 우리 구는 조례가 세외수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빼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까지 반영해서 1,210억 원이 됩니다.

예산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가 교육기관 보조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2017년도에 0.95%, 1%도 안 됐는데 2018년도에 1.76%...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영숙 위원

1.76%도 좀 부풀어져 있지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사 내용을 인용할 건데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서구, 교육예산 절반이상 투입해 아이들 밥 먹인다’, 기사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자체의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세 3% 이내 교육경비 규정, 투자 확대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 ‘부산 교육경비 지원 전반적으로 저조’, ‘인천은 미추홀구(남구)가 11.88%이고, 중구가 3.25%로 3.75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부산 14개 자치구는 인천에서 가장 낮은 중구의 3.25%보다 비율이 낮았다.’, ‘서울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을 부산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도 차이가 크게 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 대다수의 자치구는 교육예산을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컸다.’, ‘반면 부산의 자치구들은 급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았다. 올해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74.9%, 부산시가 25.1%를 분담한다. 기장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101억 원을, 해운대구가 고등학교 저소득층의 급식비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큰 투자가 없다.’, ‘3% 조례로 제한... 그마저도 더 낮춰’,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높이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부산 14개 기초지자체(기장군, 연제구는 제외)의 조례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로 규정한다. 부산의 교육경비 지원 평균 비율이 2.35%에 그친 결정적인 이유다. 기장군 조례는 전전년도 군세 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11.23%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해 129억 원을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 세수가 많은 편이지만 비율이 적었다면 불가능한 규모다.’, ‘조례 개정을 통해 비율을 높이면 교육에 관심이 적었던 구·군도 교육 정책과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우선 규정 비율이라도 최대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제구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비율은 1.19%에 불과하다. 3% 범위로 규정된 14개의 자치구 중에서도 1% 이내가 3곳, 1% 이상 2% 이내가 6곳이나 됐다. 반면, 3%로 묶인 사하구가 실제로는 3.55%를 지원하는 것에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 개정이나 의지를 기반으로 예산을 높인다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예산이 더해지면 각종 동아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교 시설 개선 등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이게 올해 8월 1일 자 부산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지자체의 인식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도 초창기인 불과 2~3년 전에는 교육청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그 정도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희들의 생각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육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예산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30% 이상을 증액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30%를 계속 앞으로 증액시켜서 3%에 근접하게, 2~3년 내에는 30억 원까지 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해운대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는 알고 계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조례 제4조(보조기준액 등)를 보면 구세의 3%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는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위 언론기사에서 보면 3%로 조례에 제한돼 있고 그것마저 더 낮춘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도 2017년도에 0.95%, 2018년도는 이 자료에 의하면 1.76%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3% 조례 제한을 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재량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30억 원까지 예산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가 필요하다면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영숙 위원

참고로 서울 금천구 등 많은 지자체가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을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당 연도 예산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넣고 우리 구 재정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3% 되어 있었지만 0.95%, 1.76%,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조례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

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고요. 제3항을 봐 주십시오.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그 조례 확인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교육투자 안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저녁 석식비, 중등 우수 농산물 구입비, 친환경 쌀 구입비, 이런 영양적인, 학생들의 음식에 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제정될 때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가능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의도는 교육경비 지원에 왜 학교급식이 들어가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영숙 위원

교육경비 지원 안에 학교급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육경비에 관한 전문인으로 좀 더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제1조...

○위원장 조영진

자, 원영숙 위원님, 한 5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진

아니면 복사를 해 가지고...

○원영숙 위원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

○위원장 조영진

자, 원 위원님 말씀 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범위 내에서, 행감을 할 때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원영숙 위원

위원장님, 다 돼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 설치)를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또 4항에 보면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7항에 보면 ‘농·수·축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거든요.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 심사를 하는 위원이 영양사, 농·수·축산물 관련자로 돼 있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여기에는 영양사하고 농·수·축산물 관련자, 사실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군데는 그래도 정상적인 범위라서, 이분 중에 한 분 정도만이라도 영양사라든지 농·수·축산물 관련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원영숙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꼭 개정해야 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국가의 중점과제이고요. 우리 구가 교육하기

참 좋은 도시가 된다면 젊은 부부가 해운대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가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지방세 대비 2017년도에는 0.95%였으나 현재 지방세 대비 1.76%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21억 3,900만 원, 이거는 해운대도서관의 도서지원비로 지원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학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또 학교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원영숙 위원

교육서비스도 최고인 해운대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있죠? 그거를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는 현재 원 위원님 혼자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3,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협력과의 예산안하고 다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하고 조례 부분하고는 조금 언밸런스(unbalance) 난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모르겠습니 다마는...

○원영숙 위원

이런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3억 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람을 좀 해 주세요. 혼자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영숙 위원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위원장 조영진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요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영숙 위원

다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가급적이면 15~20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본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는데, 다 공립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다 공립입니다.

○박기훈 위원

부산시의 사립은 몇 개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부산시 말입니까?

○박기훈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

○박기훈 위원

모르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냥 궁금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원래 사립이 없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해운대구는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해운대특목여름영어캠프, 방과후영어교실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33개 학교를 다 하던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다 합니다.

○박기훈 위원

올해 보면요. 방과 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5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5개 학교는 어느 학교에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5개 학교는 인지중학교, 해운대중학교, 반송중학교, 상당중학교, 부흥중학교 이렇게 5개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 신청을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개로 늘었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 학교가 신청을 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나중에 18개 신청한 것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밑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을 보면 말입니다. 보통 수영을 할 때 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생존 수영은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좌동 교육청에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 두 군데에서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박기훈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하는 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닙니다. 학년별로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3~6학년인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번에 예산이 9,400만 원이고, 내년에 금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학년 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기훈 위원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다가 알립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 우리 구비로 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구비 지원 사업인데, 제 말은 그것을 알릴 때 학교마다 우리 구에서 알리니까? 교육청에서 알리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교육청에서 알립니다.

○박기훈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알려져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다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지금 센텀2지구의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땅 부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박기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신청은 했는데, 또 아마 반려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 지역구가 재송동이다 보니까... 송수초등학교에서 내후년부터는 센텀중학교로 60% 입학을 하는데, 센텀중학교를 증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증축을 한다고 하면 송수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다는 그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민원 사항을 내어서 센텀중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송수초등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전원 다 갈 수 있도록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불법 체육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키즈 스피클래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키즈 스피클래시 업체가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 3층 주차장 상부의 보 8개에 대해서 대수선을 한 경우입니다. 그 대수선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했으면 인가가 났을 것인데, 다하고 나서 하니까 저희들은 안 되는 경우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 대수선을 했다고 고발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훈 위원

이행강제금을 먹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4,000만 원까지 고발이 되었습니다.

○박기훈 위원

강제금만 먹이면 끝나는 겁니까? 안에 수질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건축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21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말입니다. 이게 50명이 넘어가면 참석수당도 1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5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주민자치위원회의 늘어나는 그 사항 말입니까?

○박기훈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요즘에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한다는 것은 행정의 좋은 묘미도 있겠지만 단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구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또 거기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구의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람을 자꾸 모아서 일을 편리성 위주로 하다 보면 구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냥 50명을 늘려서는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일단 50만 원씩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고, 또 연령 또한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60세 이상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60세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60세 이상이 먼저 들어와서 그분들이 안 나가니까 40~50세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제도적 방안을 해서 먼저 젊은 사람이 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셔야지...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78페이지에 ‘구·동 체육회 조직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이번에 말로는 000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뭘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을 때 그분의 자격이 약간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자격을 바로 찾자는 뜻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박기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파란색, 빨간색을 따지다 보면 파란색도 빨간색으로 넘어오고, 빨간색도 파란색으로 넘어가니까 행정의 묘를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편이 아니라고 자르고, 자기편이라고 흡수하는 그런 방식은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좀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만두게 했다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임명자는 정해졌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기훈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어떻게 정할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상 자격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격 조건부터 바로 만들어 놓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것은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임명권은 회장한테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자기 사람을 넣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 사람도 좀 틀려도 봐주고 넘어가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새로 자격을 다 맞춰놓으면...

○박기훈 위원

자격은 회장이 맞추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행정의 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위원회를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입맛에 맞다고 법을 만들면 다음에 그 입맛은 독이 되어서 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청년회 주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9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던데 1인당 90여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이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성과는 고령인 동포에게 한복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니까 아주 반가워하고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계속 같이 다니고...

○박기훈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말입니다. 1인당 경비가 90여만 원으로 됩니까? 5박 6일을 갔던데, 90여만 원의 경비로 충분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여기에 구비도 어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다른 게 지원되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올해를 끝으로 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기훈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많이 갔고...

○박기훈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여섯 군데의 나라에 갔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한복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복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한복은 별로이고, 책을 원하더라고요.

○박기훈 위원

책은 더 좋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래서 책을 보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러시아로?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간에...

○박기훈 위원

아~ 러시아하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민족이 많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안 바라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책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박기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을 듯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 교육의 선봉에 안 있습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딱 중립을 지키셔서 진정한 법, 진정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휘돌리고 저기에 휘돌린다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리번호 6-12,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 및 관리운영 실적’ 그 부분에서요. 이게 결국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단독법인으로 사단법인화를 진행 중이라고 거의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시에다가 법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준비를 다 하고 법인 신청...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12월 초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사단법인화가 되면 대표가 누구로 되시는 것이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 이사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구 직영이라는 의미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법인 위탁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직영이라기보다 법인인데...

○문현신 위원

법인인데, 직영법인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단독법인 직영으로...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 되면 아무래도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빨리 강화되고, 전달 사항도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강화되고, 전문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예, 민간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조직도 강화되고, 전문성이 좋아지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의 공신력과 책임감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현신 위원

공신력과 책임감도 강화되고... 제가 직영이라는 말은 금방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전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요. 혼자 생각해 봤었는데, 직영일 경우에는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민간법인으로 했을 때는 기부금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받을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같은 데서 받은 기부금들을 저희한테, 직영법인에 주려면 저희를 특정지어서 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영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기부를 해도 되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지정 기부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기부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절차상으로 복잡하게... 그러면 그것은 일편적인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도 있고, 구에서 책임지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직원들도 신분보장이 되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부금 부분에서도 지정 기부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만약에 민간법인이면 뭐가 필요할 때 기부금을 바로 받아서 즉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정 기부금을 받으려면 그런 데 있어서 절차상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무리한 예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밥 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특정하게 원하는 지역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내어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리한 예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으로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종파성, 비종파성 그리고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방점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가 방점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건...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봐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순수성을 확보해서 관 주도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센터장을 임명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안 할 것이라면 이런 민간들이 모여서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적인 성격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볼 수 있었을 법한데,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방안 제시를 한 번 정도는 건의를 드려보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런 정책적 결정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9, 그전에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김백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의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공공 체육시설 사용 현황...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예, 거기 2번에 '2017년도 사용 내역'을 보면 좌동 테니스장의 경우에 30% 감면, 50% 감면, 대학생, 일반 요금의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제가 그때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듣다가 이 부분을 듣고 그때도 말씀을 바로 드렸지만,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30% 감면이나 대학생 요금이나 일반 요금이 전혀 없이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50% 감면 부분만 있거든요. 금액이...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50%에 가까운 게... '1일 해당 이용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문현신 위원

월 회원 이용료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래서 20일을 곱하니깐... 30일인데 벌써 거기에서 30% 정도는 다운된 가격이고요. 그 금액 또한 70%이니깐 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즉 전체가 월 회원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거의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1일 해당 이용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하루 몇 시간을 잡아서 1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코트 1면당 2시간일 때 기본 사용료가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인, 개인이 사용할 때는 2시간일 때 2,000원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1일 해당 이용료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1일 전체로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문현신 위원

그냥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만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클럽이라는 것인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개인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개인은...

○문현신 위원

클럽 월 회원이라는 말이지요? 월 회원도 개인...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들어오기는 사실 힘듭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클럽 월 회원이면 단체 사용 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단체인데, 월 회원 이용료는 20일을 곱해서 계산하니까...

○문현신 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하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순세

문현신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게 대천공원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무대나 이런 게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전에 언제 저쪽에 문화복합센터인가 그런 데서 하니까 사람이 별로 안 왔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교통이 불편해서...

○장성철 위원

저는 저쪽에도 한 번씩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함으로써 사람을 많이 끌어와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반여 강변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씩 해서... 전에 강변에서 한 번 했었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강변에는 안 했고, 문화복합센터에서 한 번...

○장성철 위원

반여농산물시장 앞에 강변에서... 내가 한번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거기는 아마 자원봉사 축제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을 보면 배수지 위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농구대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농구대... 현장에 가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에 쪽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공모사업을 안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학생들 공모사업을 말입니까?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빌리지, 또는 행복학습센터 그렇게 해서 반여동 쪽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보드게임이라든지 비즈공예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것은 정말 잘 하시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보면 배달강좌를 이번에 우리 거기에 보니까 하나 하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반기 20시간을 하고 후반기 20시간을 하는데, 전반기에 그것을 다 못 하니까 후반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내보고 교육협력과 김유성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배달강좌 말입니까?

○장성철 위원

예, 배달강좌... 전반기 20시간, 후반기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 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전반기 한 번 하면 후반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한 분야만 너무 치우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장성철 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자녀 장학금의 자격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회원이면 됩니다.

○장성철 위원

아~ 2년 이상?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1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보니까 해운대인문학도서관에 2억 5,20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증가되었는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이것은 처음 할 때는 타워크레인이 계획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많이 나고, 옆에 반여고등학교에서도 불편한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소음을 줄이려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그 가격이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웃음) 그렇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것을 그냥 들고 옮기면 아무래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사업체에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타워크레인을 안 하면 그냥 광 떨어뜨리고, 타워크레인을 하면 자기네들 편하게... 인부가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 공사금액에... 과장님,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타워크레인이 5억 원이나 되는 것에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자기네들도 절반을 내고 이렇게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게 설계를 할 때 우리만 부담하면 너무 손해를 보니까...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업체 너희도 반을 부담해라고 해서 반씩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데 5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게 5억 원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다른 관련 사항도 같이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고요. 순수하게 타워크레인은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장성철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세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계산도 아무리 해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사용 요금으로 해서 이 횡수하고 20일을 곱해서 70% 징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처음에,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듣자마자 귀를 의심하면서 이게 귀에 딱 꽂혔던 게요. 좌동 테니스장이 원래 신도시 조성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전에 의원을 하셨던 분한테 들었을 때 중간에도 이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동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소위 입김이 세다고 합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말들과 겹쳐서 오버랩(over lap)이 되면서 이 50%가 귀에 꽂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왜 꽂혔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계산을 해서 정말 부정한 그런 게 있다면 향후에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 테니스협회에서 입김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 시설을 짓는 데 막는 듯한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에서는 좌동 테니스장 부지를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비워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현신 위원

그것을 꼭 막았다는 것보다는 소위 입김이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요금 50% 감면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필(feel)이 꽂혔던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그것에 제가 필이 꽂혀서 체육 시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번호 6-9, 200페이지요. 거기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좌동 테니스장은 지금 해운대구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장산인조잔디구장이랑,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좌동 테니스장은 연 1,000만 원, 그리고 장산인조잔디구장은 2,000만 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센텀운동장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이 세 군데는 해운대구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센텀운동장은 연 사용료가 300만 원,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반송3동테니스장은 반송에이스클럽에서 연 840만 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84만 원...

○문현신 위원

아, 84만 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다음에 센텀테니스장하고 좌동1배수지테니스장은 해운대구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려서 주신 자료에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센텀테니스장은 위수탁 협약 체결 상의 읍이 ‘해운대구생활체육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동1배수지테니스장은 ‘해운대구테니스협회장’으로 되어 있던데, 둘 다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계약 주체가 다른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해운대구테니스협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협약서 상의 오타... 그러면 이게 원본이 아닙니까? 관인도 찍혀있는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작성할 시점에 아마 작성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으실 때 그냥 막 찍으셨네요? 양쪽 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 모양입니다.

○문현신 위원

이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오타를 인정합니다.

○문현신 위원

이게 단순 오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계약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런 부분은,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좌동1배수지테니스장, 위탁 사용료를 보면 연 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주신 협약서 상에 보면 연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 논의)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

○문현신 위원

맞는 거지요? 계약서가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아까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도 계약서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올해부터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신경 쓰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한숨을 한 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조례 별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과 주고받던 것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단체 사용하고 개인 사용이 있는데, 단체 사용은 기준이 코트 1면당으로 되어 있고, 개인 사용은 그냥 1인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단체 사용 같은 경우 코트 1면당...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8명 이상으로 할 때 단체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1명 이상?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1면 코트에 8명 이상...

○문현신 위원

아~ 8명 이상으로... 예, 그것은 밑에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코트 1면당 2만 원이면... 저는 이 가격을, 사용료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코트 1면당 개인은 2,000원이고, 또 여기는 8명이니까 그 수만큼, 그리고 시간도...

○문현신 위원

8명이 2만 원을 낸다는 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더 비싸네요? 단체인데... 2 곱하기 8은 16...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시간...

○문현신 위원

둘 다 2시간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단체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것도 기준이... 이 금액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용하고 개인 사용의 기준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전면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전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광역시 자체를 보면 실내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개인 같은 경우예요. 주중, 주말 구분이 있는데, 단체는 2만 8,000원, 3만 5,000 원, 4만 2,000원... 단체면 할인혜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싼데... 부산시에서 하는 강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8,000원이고, 단체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 강서구는 체육경기하고 행사 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너뛰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 체육경기를 할 때는 2만 원이고, 일반 체육행사를 할 때는 4만 원이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체 모두 한 시간에 5,000원,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 단체 모두 평일 2시간에 1만 5,000원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1인당 이런 게 아니라 다 코트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고요. 요금도 전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짝... 거기도 1시간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조금 비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조건이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비해서 시설면으로 형평성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운대는 그만큼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를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현실에 맞게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19, 279페이지를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보면 장산인조잔디구장도 야간조명 정비 공사로 사업비가 7,700만 원 이상 들어갔고요. 좌동테니스장도 테니스장 바닥 정비로 3,000만 원, 반송1동테니스장도 용수 시설 정비로 450만 원, 센텀운동장도 279만 원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협약서상으로 보면 시설·유지·보수에서 제9조1항을 보면 ‘을은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의 부담 요인이 발생할 때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 강풍 및 거

울철 폭설, 동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이 심각한 경우 및 근본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값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을은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이게 저희 예산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위원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을에서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곳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경미한 사항, 그 정도는 수탁을 받은 곳에서 하고,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라든지 500만 원 단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수탁 업체를 보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낸 금액이라든지 또 1년의 수익, 지출을 보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항 말고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현신 위원

협약서상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협약서를 고치셔야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리는 그냥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위원

얼마나 양이 많은지 물어보세요.

○정순세 위원

저는 별로 없어요.

○박기훈 위원

조금 쉬었다가 다 하고 밥을 먹지요.

○김상수 위원

포스트잇을 많이 떼서... 한 30분만 하면 돼요.

○박기훈 위원

감사증지를 했다가 끝내지요.

○문현신 위원

집행부나 속기하시는 분의 의견도 여쭙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일단 감사증지는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나서 바로 속개를 하느냐, 식사 후에 하느냐 그것만 정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하고 돌이 남았나요? 시간이 얼마나...

○정순세 위원

나는 잠시...

○원영숙 위원

바로 속개하세요. 과장님도 그게 낫지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좋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 두 분 마무리하고... 나중에 식사하시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뒤에 속개를 해서 식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김유성 과장님, 밤늦게 수고 진짜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동행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사실은 아까 216페이지의 6-16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중복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특화사업비가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정순세 위원

왜 차이가 있는지, 채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동별로 특화사업을 공모할 때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한정해서 딱 지정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서류를 심사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참여도,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심사해서 A~C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때 득점순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혹시 등급이 조금 높아도 상대적으로 적으면 신청금액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정순세 위원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른 데 비해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재송동에서는 특화사업이 재송주라고 있습니다. 그 재송주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재송주를 드셔보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먹어봤는데 맛이 독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정순세 위원

(웃음) 저도 사실은 좀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고 담가봤거든요? 그전에 하는 방식은 집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오양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맛은 또 좀 독한 것 같고, 가격 면에서도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소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럴 것 같아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텃밭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다 다르게 사업이 올라옵니다.

○정순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018년도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 개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40만 원 정도에서 최대한 88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합니다.

○정순세 위원

그것도 그러면 기준이 있어 가지고 등급이 1, 2, 3등급으로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정순세 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지역하고 안 되는 지역하고 차이를 두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정순세 위원

혹시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운영비 보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수라든지 수강료,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에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데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 교부금은 시에서 우리 구에 주는 건데, 사실 작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교부됐고, 올해는 1억 6,000만 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시에서 동별 특화사업에, 매칭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돈입니다.

○정순세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장학금이 있는데, 혹시 새마을장학금을 고등학교만 하고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

옛날에 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때는 중학교도 회비를 냈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라서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지금은 많이 인상이 안 된 것 같던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고등학교가요?

○정순세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우리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인당 17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1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172만 원 중에... 다 책정이 된 거다, 그렇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정순세 위원

알겠습니다.

또 136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바우처 사업 말입니까?

○정순세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본 체육활동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8만 원 이내에서 6~10개월 정도 지원되는데, 미사용 탈락 자격상실로 인한 예산 잔여분은 신규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 우수자에게 남은 1~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다가정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다문화 가족 말이죠?

○정순세 위원

아니요, 다자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다자녀는 지금 없고요. 저소득자...

○정순세 위원

앞으로 다자녀 가족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럴습니까?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원방법은 대상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를 가려내서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확인을 시켜줘서 우선순위로 통보가 되면 대상자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한카드로 통보해 주고, 신한카드에서는 카드를 발급해서 이 대상자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종목을 신청하면 바로 그 안에서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정순세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2019년부터 동 체육회가 해체된다는 이야기를 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청장님께서 동 체육회를,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동 체육회를 해산하려고 하면 동 체육회 회원들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산만 지원 못 할 뿐이지,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전에는 보면 동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고, 관에서 주로 관리를 다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도 현재 동장이 회장으로 된 데는 우1동만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만 안 할 뿐이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그때 체육회 회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선발기준이라기보다도 가능하면 전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단체에 가입된 분들은 안 하려고, 좀 새로운 분들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체육회에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체육활동을 시작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맨날 모이기만 모여서 회비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왜냐하면 명단에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올라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래서 여쭙봤고, 작년 같은 경우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안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안 했습니다.

○정순세 위원

작년에 가서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상당히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행사에 가서 회원권 추첨을 해서 선물도, 물론 전부 기부를 받으셨겠지만 상품권 추첨으로 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상품권을 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그런 운영경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동 체육회 예산이 1,600만 원 잡혀있었고요. 그리고 각 이사님들의 숫자가 좀 돼서 그 이사님들이 경품 같은 것은 좀 지원을 하고, 또 체육회 경비로 좀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세 위원

상품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상품권은 찬조를 해 주시니까 되는데,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1등은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서 이거는 진짜로 무슨 선심성인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것도 이사님들이, 자기들이 내준 겁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셨는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내년부터 안 할 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각종 물품이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사실상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단체원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그러합니다.

○정순세 위원

예, 체력은 국력입니다. 모든 구민들의 체력을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요즘 행사를 가보니까 다음 주에 전부 교육협력과 행사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좀 바쁩니다.

○김상수 위원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갈 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테니스파크, 한국철도공단예다가 행위허가를 받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저번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번 주 금요일에 받았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언제부터 하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행위를 받은 날 바로 업체에다가 전달을 해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공기가 1월 말까지인데 행위허가가 1달 반, 늦어서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3월이면 공사는 완료된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전에 혹시 진행된 공사가 있습니까?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전에 KT 쪽에 전선이 지나가는 거, 그거를 좀 옮기고 컨테이너가 앞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 치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혹시 공사를 할 때 씨름장하고 같이 공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어차피 장소는 저희들이 정했는데, 같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설계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는 안 들어갑니다. 장소는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씨름장 예산이 8,000만 원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8,000만 원인데 전에도 문현신 위원님이 그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여 명 정도 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8,000만 원을 가지고 천막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너무, 우리 해운대구에 외부에서도 올 건데, 참 보기 싫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8,000만 원을 올려놨지만, 추경에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패널(panel)로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옛날 청장님이 계실 때 재송동 선하부지 밑에 했을 때 8,000만

원이고요. 이제 송정동으로 옮겼으면 그 부지가 언덕위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씨름하기도, 모래도 날릴뿐더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왕 씨름장을 옮겼으면 재송동에 안 하는 것을 송정에서 받아들였으면 제대로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한번 상정할까 하고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누구나 하기 힘든 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잘 해 주리라 보고 있고요. 재송동처럼 선하부지에 그냥 모래만 깔아놓고 하면 개 똥 누는 장밖에 안 되거든요. 입양센터를 지어놓으면 전부 똥 누러 와서 입양센터에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지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체육회 지원금, 동마다 그전에는 100만 원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중단이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올해 100만 원 받은 동이 있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6개 동이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부터 그 자체가 중단되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장기근무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장기근무자는 평생교육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저희 부서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만 오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송정환, 이분이 2012년도에 와서 6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직원은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만 있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전문직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오니까 빨간딱지가 많이 날아가 버렸어...

(장내 웃음)

3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도 기부금품이 있던데 운영위원회에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다음 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일정이 잡혀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다음 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식사하고 오면서 카톡에 들어왔는데 구청장 일정에 보니까 다음 주에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의 일정이 나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10월 11일?

○김상수 위원

아니요, 11월. 카톡에 보면 구청장님 일정이 조금 전에 들어왔던데,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일정이 잡혀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 예. 장산에 안전 계단 설치 1억 5,000만 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처음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이게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쓸 수 있는 게 장산 안전 계단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김상수 위원

지정해서 한 거다, 그렇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2017년도 3월, 닥터피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족욕장에 보면 튜브 같이 해 가지고 닥터피쉬(doctor fish)를 족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금은 안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옆에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기증한 TV 55인치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족욕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설치돼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000만 원, 이거는 전부 장난감입니까? 운영보조금으로 들어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장난감을 구입한 구입비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그쪽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업무성과보고서에 보면 국적별 등록 외국인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국적외국인 3,998명, 이 속에 다문화가정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다문화가정이...

○김상수 위원

여기에 지금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다문화가정은 포함 안 됐어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별도고요. 다문화가정은 제가 알기로 4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국적별 외국인 등록에서 빠졌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으로 안 치고 한국인으로 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결혼 이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로 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우리나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2018년 10월에 확인해보니까 다문화가정이 53개국에 1,342명이더라고요. 전체적인 가족으로 치면 3,600명 정도가 되고, 한 가구에 아기고 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일단 다문화가정이 빠진다 이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인생 제2막 자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주신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인생 제2막은 지금 반송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반송 말고도 우리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다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퇴직 주민들에게 우수한 강좌를 적용해서 평생학습의 동기도 고취하고, 50대라든지 60대, 이런 분들이 어디를 가기도 참 그런데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반송지역으로만 내년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반송지역의 영산대, 거기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산대하고 동부산대학교하고, 거기의 강의실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그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되고요. 그 외에는 문화복합센터로 와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심해서 다른 사·도도 일단 검색을 하고 이거 때문에 견학을 며칠간 갈 겁니다. 알차게 보완해서, 그냥 돈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인생 제2막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시행해보지도 않고, 지금 반송 쪽에만 치우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비해서 8,000만 원이라는 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저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라든지 거의 6개월씩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도 한 달에 75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750만 원 이게 강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강사료가 3,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강사가 있지만 보조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라든지 재료비에 1,7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인생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기 전에 하는 수업에 1,800만 원 정도, 당초에는 8,000만 원보다도 1억 5,000만 원까지 예상했었는데, 안 그래도 스스로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상·하반기 다 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했을 건데 하반기만 하는 바람에 좀 단가를 낮춘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너무 짜깁기에 얹매이다 보면 내용이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공약사항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공약사항을 3개 실어놨더라고요. 3개 다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이거는 내년부터 하고요. 스포츠 문화공간은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김상수 위원

축구 족구 배드민턴 확충,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100% 다 하셨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직 해운대 미래대학이...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면 100% 다 하시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상수 위원

(웃음) 다음에 진급 빨리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초기 시행이라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과연 반송 주민들이 인생 제2막을 즐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반송주민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 전체가, 그리고 실속 있게 하려고...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느낌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올해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이라고, ‘육성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하고 야외생활 체력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이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2017년도에는 없던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017년도에는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7330 스포츠클럽’은 있던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해운대구스포츠클럽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2017년도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제가 질문한 건 164페이지를 보면 22번, 23번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나간 내역을 보게 되면 페이지 2018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는 이게 없더라고요. 2018년도는 나와 있는데, 164쪽에 22번, 23번입니다.

아, 이거는 기획조정실 자료입니다.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 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7330 스포츠클럽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됐는데, 2017년도는 없는데 2018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2017년도에 3,000만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가 조금 늦게 상반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못 한 거죠.

○김상수 위원

혹시 답변할 거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없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클럽에, 해운대구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의 체육 진흥도 되고, 또 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가 인프라도 되고 또 U-15라고 청소년축구단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공모사업인데 체육회에 3년 동안 9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실상 건강증진센터도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U-15에 지원도 되고, 일거양득[一舉兩得]으로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협력과가 굉장히 바쁘시고, 지역 활동도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협력과가 날로 더 빛나고 멋진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불금인데 저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마무리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서 협약서상에서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갑인 해운대구에서 부담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요. 그때 부담 비용이 커서 그랬다는 말씀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수익 상황하고...

○문현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협약서를 수정하자고 했는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문현신 위원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에 거듭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협약서를 수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익이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내는 임대비가 1,000만 원, 사실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문현신 위원

이 요금 부분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수익성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현신 위원

그러면 수익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하면...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볼 때 계약서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만약에 보고 수익이 확실히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고찰 여력이 있다는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이것을 놔두고 그대로 하는 걸로...

○문현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수익이랑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잠들지 않았으니까 불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드는 그때가 불금이 끝나는 시간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체육회 지원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동 체육회 말이죠?

○박기훈 위원

예, 동 체육회. 그 근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한다는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거를 굳이 지원 안 하면 되지, 동 체육회를 깨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할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없어지도록 놔두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깨려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원이 없으니 체육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민간인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려면...

○박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예산 지원은 불법이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불법은 아니고 해운대구 체육회에서 했는데, 그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박기훈 위원

명확한 게 없으면 돈 수거해야죠. 다시 받아야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박기훈 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비영리단체가 3개나 있죠? 2개인가 3개인데,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체육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체육회는 연간 500만 원입니까? 그렇고 다 비영리단체인데...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으로 무료로 하게 돼 있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무료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박기훈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구 체육회는 500만 원을 줬다가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에 올립니까? 주고받는 거를,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는 안 받는 그런 규정으로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다른 수익사업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료를 500만 원을 주고, 다시 500만 원을 받고, 그런 행정은...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려고 편성을 해서 주고받고 하노? 놔둬버리지...’, 했는데 그게 안 그런 모양입니다.

○박기훈 위원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두 군데는 안 받아도 되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장내 소란)

아직 회의 중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18개 학교의 신청 리스트(list),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 건립 시 증액 내역, 이것을 9부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회 재정비 시 젊은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선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체육회 등 단체 임원 선발 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도록 바란

다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에서 주로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를 반여·반송지역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동테니스장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일반요금 없이 50% 감면으로 이용이 될 경우 지속적, 정기적으로 정확한 관리 감독을 요망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테니스장 단체 사용 및 개인 사용의 기본 사용료 책정 기준 검토와 불합리한 기본 사용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 시에 시설 면으로 다소 열악하지만 해운대 지가가 높은 점도 고려해서 사용료를 현실성에 맞게 상향 조정해 주기를 요망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서, 즉 센텀테니스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탁자 기재 오류, 재협약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완벽하게 서류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유지 보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현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니 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바라며, 계약사항 수정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3항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투자 안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심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숙기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협력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행정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문화회관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전	문	위	원	유	창	희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속		기		사	이	동

【 감사 제4일차 2018. 11. 26. (월) 】

4) 교통행정과

○위원장 조영진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차 질 서 팀 장 추 교 윤

교 통 과 징 팀 장 김 연 진

주 차 시 설 팀 장 우 진 호

자 동 차 관 리 팀 장 박 재 문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CJ 방송에서 촬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CJ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먼저 20억 원이라는 국·시비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고맙습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내년부터는 지금의 안전도시국 주무 부서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지금의 일자리산업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옮겨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교통 행위는 교통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축이 같이 맞게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교통행정과가 안전도시국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그 위에 교통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세 개를 묶어서 안전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호 연결된 세 부서가 서로 원활하게 업무가 연결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그만큼 교통행정 자체가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을 일단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PT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미포오거리, 여기가 우리 구청 앞 해운대온천사거리,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LCT 공사 현장입니다. 그중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동해남부선 철길이었던 것으로 기차가 다니는 길이었습시다.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통해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지요. 그린레일웨이 산책길은 이렇게 곳곳에 벤치와 운동기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산책로 간은 이렇듯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PT 자료를 가리키며) 이곳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곳의 해당 부분인 LCT 부분 산책로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지요. 사진상으로 보시는 이곳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미포오거리에서 해운대온천사거리로 내려가는 방향의 LCT 공사장 부근입니다.

이곳이 예전에 기차가 다니던 곳, 현재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 도로 부분은 현재 횡단보도가 없어서 산책로와 산책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예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관할 경찰서는 조금 더 아래쪽, LCT 공사현장 정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산책로를 걸어온 중년의 커플이 건너려다가 일단 멈춥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의 통행량도 꽤 많고, 속도도 좀 있는 편입니다. 결국 무단횡단을 하지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커플이 산책로를 걸어와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마땅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차들의 흐름을 보면서 건너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때를 봐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다른 날, 맞은편에서 젊은 친구 3명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이곳 산책로는 자전거이용객도 꽤 있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종종 다니는데요. 자전거 역시 무단횡단을 합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산책로이니 만큼 워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깅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무단횡단을 합니다.

제가 9월부터 어제까지 한 번 갈 때면 20~30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수일에 걸쳐 지켜봤는데, 모두가 어김없이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이곳에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LCT 공사현장 정문 앞 횡단보도와 너무 근접한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며칠 동안 LCT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곳의 무단횡단은 아주 횡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정문 경비아저씨의 말씀도 현장 인부들의 출퇴근 외에는 거의 이용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이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이곳이 곡각지여서 시야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것과 LCT가 준공이 완료되면, 2019년 말이면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PT 자료를 보여주며) 자, 이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송동 유창맨션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곳 역시 곡각지이고, 게다가 여기는 경사도 굉장히 급해서 아까 그곳보다 시야성이 훨씬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이렇게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함으로써 현재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도 횡단보도 예고 표시인 다이아몬드 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알리는 추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흰색 실선으로 그리는 정지선도 평균보다 두껍게 그리고, 전방에 신호등도 하나 더 설치해 주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말에 설치 예정이라면 지금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뻔한 현 상황을 보고도 1년 이상 방치한 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이곳 산책길은 향후 더 많은 주민이 걷게 될 것이고요. 추운 날이 지나고 내년 봄이 오면 새로운 명소답게 산책객들로 넘쳐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LCT 준공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설, 도시, 교통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위의 교통 시설물, 자그마한 선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하나, 안 그러면 신호등, CCTV 설치 장소라든지 모든 제어는 사실 경찰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승낙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사항도 우리가 경찰에 이미 설치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향후에 그 밑에 건널목이 들어서니까 거기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시킨 사항이고...

또 아까 유창맨션을 말씀하셨는데, 유창맨션 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실은 거기가 너무 곡각지가 되어서 위쪽으로 건널목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르신들이 그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골목으로 바로 내려와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사람 중심 체계로, 기존에 있던 그 건널목에다가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곡각지를 올라오는 차들이 서더라도 어르신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널목을 내렸는데,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경찰과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사람 중심 체계로 한다면 그린레일웨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신 위원

저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일정시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현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 역시도 그렇고, 담당자분도 그렇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것하고 일정시간 체류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거기도 역시 현실에 맞춰서 옮겨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끊임없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경찰서 담당자분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정시간 체류를 하면서, 며칠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아래쪽에 있는 LCT 공사현장 출입구 앞의 횡단보도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여기의 횡단보도는 LCT 공사 시작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초반에 건물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횡단보도 없이 그저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알리는 2구짜리 황색 전열등을 설치했었고요. 그것은 공사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현대아쿠아펠리스 아파트 때문에...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공사가 본격 진행되어서 건물이 올라갔던 바로 그때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현대아쿠아펠리스 주민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공사가 한창이어서 공사차량 진·출입이 많을 때에는 신호등이 꺼져있거나 전열등이 바뀌어 있곤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호등이 작동을 안 하던 그 시점이 LCT 공사가 한창일 때와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차량이 진·출입할 때는 본인들의 공사차량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전열등으로 바꿔놓거나 꺼놓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LCT 공사 진행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이 또한 LCT만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대아쿠아펠리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유지한 채로 아까 산책로 간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가까운 곳 몇 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동영상을 봤지만 주민들이 향후에도 밑에 내려가서 건널목을 건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문현신 위원

예, 아닙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한 번 더 심도 있게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 내년 말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LCT가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공사 중단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완공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 횡단보도 설치도 더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내년 봄에 많은 산책객이 올 텐데 만약 설치가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고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현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위약한 방법으로는, 위약한 그런 홍보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서 담당자분하고 현장에 꼭 나가셔서 실태를 보면서 진정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해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때 위원님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충분히 같이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101명, 같은 기간 유럽연합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1일 평균 8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OECD 국가 중 교

통사고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문현신 위원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인 바로 우리 해운대, 해운대만큼은 주민들의 어떤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예방 안전정책을 펼쳐서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중심의 그런 안전한 삶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것에 따른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든 누구든 간에 그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위치에, 저희 위원회의 전체적인 안은 LCT가 완공되기 전에 건널목이 설치되는 것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차장 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김성군 위원

자료를 보면 2012~2015년도에는 30~4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2016~2018년도에 보면 2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매도 의사를 펼치는 소규모 주차장 그 자체가 대폭 축소된 겁니다.

○김성군 위원

매물이 없다는 애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매몰이 많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성군 위원

주차장이 필요한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매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보통 공가나 폐가, 저층이거나, 도로 6m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면수가 3~4면이 나와야 하는데, 1면이 나온다거나, 도로가 이상해서 넓지만 진입로 확보가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의지보다 돈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반송동이나 반여2·3동이나 재송1동 같은 데는 소규모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일 민원도 많고... 혹시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보고 대상이 많다면 사업비는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 관계인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면 1면을 조성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매도하는 집이 있겠지만 그 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런 주차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주차장은 없고, 범칙금은 많이 발부하고 이걸 모순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늘리든지, 범칙금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반송동이나 반여동 이런 데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저희가 범칙금을 많이 받기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면 하루에 1,000대 이상도 끊어올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김성군 위원

좀 늘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면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참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것으로 크고 작은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김성군 위원

해운대구만이라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지금 현재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수영강변도로밖에 없습니다. 인도 옆에 있는 겸용 도로가 57k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들이 인도를 거의 다 침범하고 있고,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기 산책로도 자전거가 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적게 타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자전거가 늘어나는 것은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신시가 지에 있던 자전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결국은 수요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것은 정책이나 그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의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이나 환승센터라든지 가서 그 주변에 자전거를 정차해 놓고 기차라든지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서 그 자체가 불과 얼마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김성군 위원

「도로교통법」 13조2항에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차선 가운데 부분으로 운행해야 되고, 자전거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길로 통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유럽 등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우리나라 같이 인도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도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유럽에 저도 한번 가봤지만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군 위원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보다 차도 쪽 가장자리로 붙여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람도 보호하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지금 해운대구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차선에 있으면 좋겠지만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렇지요? 전자에 그 정책도 실용적이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보면 개별 업체 ofo ‘오포’라는 자전거 임대 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폐기 수준에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것은 임대 사업이고요. 본인들이 요즘 자전거를 비싼 거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임대 사업이라도 자전거가 활성화되었다면 그 사업 자체도 활성화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자체도 기업이 망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일부를 위해서 도로를 자전거에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다닌다는 얘가지, 임대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내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즘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도 옆으로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없어서 거의 인도 한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게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도로라고 해서 57km가 뻗어져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 수영강변도로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성군 위원

유럽은 어떻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유럽하고 비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고,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향후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 환승 체계가 그렇게 잘되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다 자가용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도로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정책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참 이게 마음 아픈 것인데, 반송여중 통학로가 지금 언론에 막 집중 보도가 되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피켓도 들고, 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선행운동을 진행 중이고 학생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다 알고 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게 부산시에서 화물차고지를 그쪽에 만들어서 그 도로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매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홍순헌 구청장께서도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동부산대학에 갔습니다. 동부산대학의 총장을 만나서 동부산대학의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났지만, 저희는 조금 아쉬운 게 문제의 발단 계기가 화물차고지 때문인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나저러나 언론에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엇그제 청장님하고 동부산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동부산대학 후문에 있는 소방도로를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 거기에 주차를 10대 정도 할 수 있고요. 반송여중에 가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학교 주차장도 일부 할애해 달라,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밑에 주택 매매를 하자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폭 꺼진 데가 되어서 그것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매입비용보다 공사비용이 23억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계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소음이 너무 심하고,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차라리 반송여중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동부산대학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법면 위예다가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동부산대학하고 협의 중에 있고, 동부산대학 이사회의 결정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결정이 나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아이들이 위험 지역에 몰려야 하는데, 당장 급한 것은 반송여중이지 않습니까? 저도 반송여중을 잘 아는데, 주차장을 오후 6시부터 익일 7시까지 개방하면 안 됩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대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제일 먼저가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하니까 주차 장소를 먼저 제공해 주는 게 선례라고 생각하고, 반송여중에도 ‘운동장을 개방하든지 선생님들이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분 주차장을 할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고, 그게 된다면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지금 현재처럼 통학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제...

○김성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것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반송여중 교장 선생님을 얼마 전에 청장님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같이 만났습니다.

○김성군 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반송여중에서는 찬성을 안 한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거기에 가서 두 가지 안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을 할애해 주십시오.’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학교 부지를 통과하도록 잔·출입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협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니까 협의할 필요 없이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어차피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차장이나... 민과 관, 학교와 잘 협의해서 서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이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간사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순세 위원

잠시 쉬고 할까요?

○위원장 조영진

아니요. 시간됩니다.

○정순세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 ‘2017년도 홍순헌 구청장님 동 순방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중 ‘해운대 우회도로 장산터널 등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속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장산제2터널이 언제쯤 개통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동안 장산제2터널을 끊임없이 부산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6밖에 안 나와서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덕에서 센텀으로 가는 대심도 때문에 저희들이 ‘대심도를 센텀으로 나오면서 장산제2터널하고 연결시켜 주시오.’라고 부산시에 계속 건의해서 최근에 장산제2터널하고 대심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심도와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대심도하고 연관은 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좀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세 위원

장산제2터널의 기점과 종점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건설 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시 파트에 관리를 하고, 교통 파트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게 교통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산제2터널의 기점으로 만든 게 사실은 재송동의 센텀누리 옆에 숲속유치원 쪽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경제성 분석 자체가 너무 안 나와서 얼마 전에 대심도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더라도 과정교를 지나서 해운대경찰서 인근 그쪽으로 연결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경제성 분석

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부산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덕~센텀 간 대심도 관련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센텀파크 입주민들은 대심도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긴급하게 재송 지역 사·구의원 긴급대책 회의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심도를 하면 대형쇼핑센터, 컨벤션 센터, 해수욕장, 영화의전당, 호텔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심도 건설 과정에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대심도는 이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심도의 센텀 지역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있는 그 옆 지하 차도 옆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1차 교통영향평가... 이 대심도를 추진하는 기업은 GS건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S건설에서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현 도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에 진입로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면 도로가 엇갈림이, 엇갈림이라는 것은 우측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12번이 반복되어서 발언권도 없는데 제가 강력하게 발언해서 못 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도 모르게 살짝 부산시에서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때 그 정보를 알아서 사실 박기훈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정순세 위원님하고 다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에도 그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해서 부산시에 요청한 게 ‘센텀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없애주십시오.’

○정순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없애고, 만약에 요금소를 조치시키려고 하면 들어가는 지하 안에다가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스마트톨링’ 형식으로 요금소 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알려졌는데,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2022년부터 광안대교 요금을 안 받는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부산시에서 센텀에 있는 광안대교 요금소를 철거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얼마 전에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1차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점수가 0점이었다면, 이번에 요금소를 없애는 것에 점수를 준다면 80~9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되었고요.

또 부산시 자체적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시설공단하고 도로계획과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1년 예산이 한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GS건설에서 최근에 임시안하고 영구안을 가져왔는데, 저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임시안은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영구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저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현재 광안대교 요금이 1,000원이고, 출·퇴근시간에 500원씩 받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정순세 위원

그 기준이... 아침 출근시간만 500원씩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퇴근시간에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출·퇴근시간에...

○정순세 위원

아~ 출·퇴근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로 정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정순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완전히 폐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서고가도로를 갓다가 요금을 폐지하고 나니까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듯이 광안대교도 그렇게 폐지해 버리면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출·퇴근시간에 무료로 하고 평소에는 500원 정도라도 받아서 유지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정순세 위원

예. 그리고 재송동에 보면 작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인데, 해운대시외버스 정류소가 하이마트 앞에 정차했었거든요. 2017년도까지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정순세 위원

그런데 현재는 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정차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재송동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너무 진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차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이것은 우리 구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시 버스운영과장하고 구청장실에서 면담까지 했는데... 지금 해운대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소가 기계공고 밑에 있고, 경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해운대고속하고 거제현대고속이 있는데, 특히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들이 BRT 버스전용도로를 하기 전에는 센텀에 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남으

로 가는 모든 시외버스는 관리권하고 감독권을 싹 다 경남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남도청에서 신평 쪽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설치했는데, 부산시에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 권한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경남도청하고 부산시하고 아마...

○위원장 조영진

과장님,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예 버스 정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부산시 입장은 우리 부산시는 환승 체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센텀에서 해운대역까지 와서 직접 타고 가고, 또 창원에서 오는 길에 여기에 내려줘도 되는데, 교통 정체가 되니까 중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정책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 승용차가 운행되면 부산 시내 자체가 정체되니까 차라리 그게 버스처럼 그냥 벅스코에서도 세워주고, 센텀에도 세워주면 참 관촬을 것 같은데... 엇그제도 부산시하고 의논을 했지만 너무 입장이 강력해서 이것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왜냐하면 김해공항에서 오는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센텀에 많이 대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강력히 재송동에 재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꼭 해결하실 겁니다. 정무적으로라도... (웃음)

○정순세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PD

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한 분당 10분, 길게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해운대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퇴근을 하는데 신세계백화점하고 수비교차로인가 그쪽은 (교통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때가 교대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순경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꼬리 물기가 수없이 이어지는데 단속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해운대경찰서에 질의하셔서, 평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많이 밀리더라고요. 단속을 좀 해 주셔서 꼬리 물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부지 매입 검토의견서를 올렸는데, 재송동 210번지를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210번지면 재송시장 쪽입니까?

○박기훈 위원

예. (자료를 보여주며) 이쪽입니다. 저번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 주셨던 곳, 여기가 검토의견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가, 다섯 면의 주차조성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나, 입구가 사유지라 추가매입 비용이 들어감’, ‘다,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4m 미만 도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안 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박기훈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먼저 여기에는 재송1동 재반로 제2호 주차장입니다. 제가 거리도 잴고요. 이게 얼마냐면 2m 90cm입니다. 이게 시장 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시장 안에...

○박기훈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에는 거리가 2m 80cm이고, 주차장이 허가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는 재송2동에 있는 그린 주차장, 여기에는 주차 면이 총 3면이 있고, 밑에 1호에는 7대가 주차해 있고, 2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이 도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어제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입구에 차를 대고 위에도 차를 대니까, 위에 있는 3면의 주차장, 여기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차 실적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박기훈 위원

여기에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주차장 3면을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210번지 현황도입니다. 여기에는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3m 10cm이고,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설치를 했다, 안 했다가보다 210번지 같은 경우에는 7대 가량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빌라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17면수의 주차장으로 허가받아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7대의 차량이 다시 불법주차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2018년도에 22억 원인가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8억 원을 넘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기준으로 삼는 4m 이상 도로가 아니다, 물론 그런 도로도 있겠죠. 그런 도로 때문에 아까, 주차장을 놔두고도 밑에 입구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가는데 사유지인 진출입로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박기훈 위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은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17면의 주차 허가가 났다고 답이 왔습니다.

과장님, 저는 주차장을 하라, 마라를 떠나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한 과장님의 말씀대로 자꾸 소규모 주차장을 늘린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적지만 지금은 24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좋은데 지금 재송, 반영, 반송은 소규모 주차장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전에 재반로에 있는 그린 주차장, 그 위에 3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현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재송2동주민센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재송2동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박기훈 위원**

그거를 여기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다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일임시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주민들이 (원하



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기훈 위원

과장님, 재송동 2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 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이거는 현황도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는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도로가, 지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박기훈 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 도로를 신축빌라 현장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게 허가가 되려면 일단 지주의 동의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기훈 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허가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허가가 돼서 주통행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송, 반여, 반송에 주출입구가 4m 이하인 도로만 있지, 4m 이상인 도로는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전년도에는 4m 이하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송, 반여, 반송에 4m 이상인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도로에, 그 법을 (적용)한다면 소규모 주차장은 매입 못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소규모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법을 다 따진다면 절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연구하고 생각하셔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인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면을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박기훈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인데 저희가 사실 재송동 시장통 옆에, 예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 주인이 개인 사도라면서 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길까지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개인 도로는 함부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210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소규모 주차장을 꼭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건축과의 현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교통정체지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량의 흐름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에 속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의 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 관내의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 우리 해운대구에 고정식 CCTV가 99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이 현재 4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는 중소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CCTV의 설치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CCTV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없으니까 교통흐름이 잘 된다는 거고, 단점은 CCTV가 있는 곳이 거의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원성이 심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CCTV라든지 불법주차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이 항상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2018년 8월 13일 언론의 연합뉴스라든지 KNN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최초로 점심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지역을 해운대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는 반여, 반송, 재송동 지역에 한해 점심시간 때의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활동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기 침체와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제공 차원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의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상인들과 구민 모두가 환영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지금 어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마 호응도 자체로 따지면 해운대구 교통 시책 중에서 최고의 시책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점심시간 때 안심하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상인들은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줘서 좋다고 지금 평이 좋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시행 전하고 시행 후의 단속 건수라든지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8월 기준하고 9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월은 하루에 100대, 9월은 하루에 140대 정도 주차단속을 적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단속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횡단보도에 한다거나, 곡각지역에 한다거나, 인도 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넣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서 인도 위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자분들도 우리한테 조사를 오고 그랬는데,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게,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각 동을 통해서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된 덕분에 해운대구 때문에 부산시의 전 구가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교통행정과를 선두로 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김상수 위원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안산시라든지 그다음에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모델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점은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구로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4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식사 및 야간시간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 야간시간대에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시간대는 사실... 출퇴근 시간 쪽으로는 사실 확대를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내년부터는 현재 CCTV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밤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일부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간선도로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도 하고, 주민의 불편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주차단속 완화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사실은 그렇습니다. 1월 1일에 보면 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관광객들을 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1월 1일에 해 보러 와서 주차단속을 당하면 아무도 해운대를 안 올 것 같아서 올해 1월 1일은 아무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석이나 명절 때 해운대 고향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했지만 사실 CCTV 단속도 안 하고 주차단속도 안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도 위주로 했고,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부산 연제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부산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석, 명절 때 보니까 전부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주차단속을 1월 1일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는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혹시 9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주차단속 시간은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주차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7분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분이고, 7분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7분과 15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김상수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라든지 밀양시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 승용차는 5분에서 10분, 관광버스와 학원차량 승·하차를 대기하는 버스는 5분에서

20분, 각각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을,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광명시나 밀양시하고 해운대하고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불법주차를 없애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도 사실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오버(over)돼 있는 상황인데, 광명시나 밀양시처럼 하는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흐름은 해운대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께서는 아주 잘한 정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대다수 주민 민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더욱 더 힘을 내셔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삼익아파트,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우회전 차들이 밀려서 센텀그린 아파트 쪽으로 보면 거기까지 차가,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만큼 정체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센텀그린 아파트가 내년 2월이 되면 입주가 되는데, 물론 저희 동네 자체도 사실 보면 놀이터나 주차장, 이런 게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꺼려하지만 또 출퇴근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이 갑자기 한 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지만... 우회전 차선에서 버스가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타려고 원동에서 오면서 반여2·3동으로 올라가기 위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버스가 같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계속 오

면 버스가 BRT선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선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더욱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회전 차선을, (자료를 가리키며) 얼마든지 이쪽에서 차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한 차선을 더, 한 50m라도... 버스가 대기하는 바람에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 축대가 있는 이쪽으로 해서 한 차선만이라도, 100m가 안 되더라도, 50m만이라도 승용차는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그 좌회전의 허용은 사실 2006년도부터 반영 발전을 위해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차선까지 물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하든지,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정말 부락을 드리고요.

내년에 2월이 되면 거기 아파트에 48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동네에 산다는 게 그렇지만... 출근시간만이라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지역에 보면 일몰제가... 그 주차장 부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거기가 2020년 6월 말이 되면 끝이 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주차장은 사실 일신여객 주차장이었고, 부산시에서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보상을 40%까지 완료했었는데, 제2센텀이 들어선다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런 과정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일신여객에서는 그 부지를 매도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무산되니까 현재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그분한테 임대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제2센텀 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더라도 2023년이 돼야 조성이 되는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일신여객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일몰제 이전에는 못 하고, 만약에 일몰제 이전에 조성을 해서 한 업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향후에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그 두 가지의 방안을...

○장성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인한테 매매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일몰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허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몰제가 풀리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몰제가 풀리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든지, 그거는 개인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이고, 안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일몰제가 되기 전에 어떻게라도 행정적인...

○장성철 위원

그전에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000이라는 분이 샀던데, 일몰제가 되기 전에 구청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일몰제가 풀려도, 그런 게 끝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5년을 일신여객에 임대를 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그 땅을 매입하면 공사비하고 한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시비가 70%,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만약에 일몰제 이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신여객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매입을 해놓고, 일신여객이 끝날 때까지 5년은 기다려줬다가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영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장성철 위원

바로 건축을 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한 주차장을 한 업체를 위해서 임대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아~ 계약을 해놓으니까 5년 동안 임대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매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하여튼 어찌든지 현재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진흥과하고 합동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너무 재촉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하여튼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문제의 전반을 책임지면서 민원인들의 온갖 니즈(needs)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유태승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 미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후속 추진사항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고[故]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저도 작은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음주운전자가 아마 달맞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턴(turn)을 해서, 제 생각에는 술에 취해서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턴을 해서 건널목에 있는 윤창호 군을 친 것 같은데, 일단 볼라드(bollard)를 설치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컬러 레인(color lane)이 있습니다. 유도선인데, 올림픽교차로에도 돼 있는 그 선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1차선, 2차선에는 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선을 설치하면 혹시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유도선을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미포오거리 가구점 앞하고 스타벅스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설치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 지점에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저도 아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턴을 해서...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칠 수 있을까...

○원영숙 위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것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한 것에 대해, 볼라드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구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볼라드, 그런 것도 건널목마다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혹시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점을 찾아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미포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주유소 앞쪽에는 현재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차후에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일단 그 현장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사고를 당한 그런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거기보다는 동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게 우회전 차선인데 사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 지점은 찾아서 볼라드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사고가 난 미포오거리는 이번에는 음주운전사고이지만 사실은 거기의 차량통행량이 지금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원영숙 위원

향후 LCT 입주와 101층 전망대가 들어오면 현재의 교통 시스템으로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한데,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어차피 LCT나 그 주변은 LCT가 만약에 들어서면, 어떤 특혜를 받고 LCT가 들어섰는지, 그거는 예전의 일이고, 사실상 LCT가 들어서면 우리 해운대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블루라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요는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어차피 우리 해운대에서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교통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블루라인파크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찾던 과정에 LCT에서 잘못된 부분이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전망대의 그 법적 면적만큼만 산정해서 34대밖에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시해서 청장님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CT 측에서는 60억 원을 추가로 자기네들이 내서 현재 미포 주유소 밑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는 버스주차장까지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오케이만 된다면 LCT 측에서 60억 원을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미포오거리는 달맞이, 또 로데오거리로 상권들이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구간인데, 현재 차량속도가 60km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원영숙 위원

이거는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이거는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5030'입니다.

현재 시내도로가 썩 다 60km인데, 처음에 50km로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가 70%, 찬성이 30%였고, 최근에 또 하니까 반대가 51%, 찬성이 4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정책 자체는 현재 부산시 전역을 5030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미포오거리는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지역이니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올해 2월과 3월에 우3동 문화여고 앞과 바로 그 옆에 동백역 BRT에서 한 달간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원영숙 위원

시아가 확보 안 되는 새벽시간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망사고인데요. 우리 구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무단횡단보다는 사실 건널목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건널목에 투광기 6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전에 부산시에서 연제구하고 해운대구를 시범으로 해서 투광기를 설치해본 결과 그 지점에서는 사고가 35%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 차들이 서야 된다고 해서 투광기를 120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개소를 선정한 것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이 5개소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설치됐다면 또 다른 지역에 할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투광기 120개 설치만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사고 난 지점에서 사고가 재발될 확률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원영숙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BRT 구간의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화여고 앞과 동백역 사고 건에 대해서는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새벽 시간과 자정시간에 일어난 사고인데, 시야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를 7월 추경 때 요구한 것 같은데요. 아직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내년에는 120개소를 설치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데는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사망사고가 난 지 8~9달이 지났는데 투광기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흐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10분 이야기를 드리니까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시네요. (웃음)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53페이지를 보시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은 왜...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53페이지 어디 말입니까?

○장성철 위원

5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자’ 해냈는데, 송정 광어골인데 여기는 왜 수의계약입니까? 여기가 위치가 안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닙니다. 사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7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7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면수가 85면인데, 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입찰금액에서 7번 정도 유찰되고 나면 반으로 확 떨어져버립니다. 이 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부락을 했습니다. 이 자체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장성철 위원

위치적으로 안 좋은가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이분이 그 위에 송정호안도로에 하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저희가 부락을 해서 이거까지 맡아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반여동 해가지고 ‘노상’ 해가지고 A, B C, D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반여동 재반로를 말하는 겁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보면 B면이 17면이고, D면이 19면인데, 금액이 D면은 5,600만 원이고, B면은 17면이라도

2,500만 원이고, 배로 차이가 나니까... 같은 도로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제시를 하면 입찰자 자기네들이 금액을 써옵니다. 최고가로 해서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니까 이 세 개는 한 사람이 다 가졌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C만 빼고는 나머지 A, B, D는 혼자서 다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조금 그런데... 세부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이 자료는 별첨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공청회를 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4~5년 전에 그때 새로 만들었는데, 이 도로가 저희들 동네에 올라오면 양쪽에 차를 대면 갑갑해서 정말로, 안 그래도 재송동 거기에서부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 뒤를 줄줄 따라 올라오다 보면 끝까지, 신동아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반여동에 올라와서라도 양쪽에 차, 이게 오히려 구청 차원에서는 수입이나 이런 게 불리하죠? CCTV를 하면 얼마든지 좋을 건데, 그렇죠?

상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지만 상가 주민들이 저보고 난리입니다. 차를 그냥 대놓고, 저 위에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 집에 물건을 내리고 싶어도 이 차들 때문에 꿈쩍을 못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양쪽에 차를 다 대버리고, 버스도 뒤에 따라오니...

나가기 좋다고 그냥 걸쳐놓고, 그러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 동네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니까 정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님, 저는 지금 현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다 거쳐서 상인들한테 맡겼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면, 현황이 또 안 맞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최근에 저도 주민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은 항상 상충돼 있

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 지역의 상인들은 거의 80% 이상이 외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민들은 무조건 이 체계로 가는 것을 원하는...

○장성철 위원

그래요?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니, 그전에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웃음) 그러니까 과장님은 현장에 있는 저보다도, 제가 더 잘 알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저도 그 동네를 쭉 다니면서 전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원하는 대로, 현수막을 두 개 정도 걸어서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장성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장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현장 관리 감독이라면 혹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현신 위원

예를 들어서 22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아래 부분에 ‘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친환경차량 할인 미적용’, 거기에 처리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하여 현장 교육 실시 및 안내판 문구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안내판 문구 개선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구청 주변의 주차장은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현신 위원

제가 나가봤습니다. 안내판 문구 개선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 그래요?

○문현신 위원

예전 그대로, 이런 혜택사항에 대해서 안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외부 어디로 가더라도 ‘공영’이 붙어있으면 안심하고 주차하는 제도가 공영주차장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최고 금액을 적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돈을 자기가 들어간 돈만큼 수금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면자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경차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공영이면 공영답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입찰금액을 줄여서 추첨제를 통해서 하면 우리말을 안 들을 때 삼진 아웃제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입장인데,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최고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공영이면 공영답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안심하고 주차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감면 차량이나 경차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로 일례로 구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식당을 가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제 지인의 경우를 이야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소에는 밥을 먹고 나오면 1,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4,500원이 나왔답니다. 그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께서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요금 체계가 다르다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마음대로 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이런 지역은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고를 해서 삼진 아웃 처리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문현신 위원

삼진 아웃까지 갈 것도 없이, 불친절 정도는 삼진 아웃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 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발견 시에는 바로 첫 번째부터 위탁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그거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에 한방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 가지고...

○문현신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여론화돼 있는 부분이라서 여쭙보는 말씀인데요.

해운대 BRT 공사 재개 관련 부분에 대해서 10월 10일 자로 BRT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오거돈 시장, 홍순헌 구청장께서 재개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개가 됐을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BRT가 처음에 동백역까지 하고, 중동지하차도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BRT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우동 3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저기에 한 3,600세대가 들어오는데, 현재도 기계공고를 조금 지나서 좌회전 차선이 70m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동 3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하고 현재 기존스펀지 지역하고, 중동차도 지나서 들어가는 그 세 구역밖에 없는데... 그러면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주게 되는데, 두 개를 주고, BRT를 하나 주면 직진 차로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백역에서 여기까지는 밀리는 게 없으니까 BRT를 하지 마시라고까지 부산시에다가 건의했는데,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재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뽑아보자고 해서 엇그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동지하차도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BRT가 되면 좌회전을 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정류소를 구[舊] 스펀지 앞으로 당기자, 그다음에 현재 우동으로 올라가는, 구[舊] 스펀지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선을 야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31번 종점에서 구[舊] 해운대역으로 나가는 거기에 도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만 만들자는 안하고, 여러 안을 부산시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제도 개선에 있어 가지고 손님이 탄 택시에 대해서는 버스 전용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현재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봤을 때 LCT가 내년 11월 준공이 되고, 또 동원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위원장 조영진

현재만 보더라도 교통 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BRT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의한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해운대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서로 이어지는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산2터널이라든지, 산복도로라든지,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많은데 사실 남북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해운대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남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하나 만들어지면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셨던 분들이, 현재 계획을 하는 게 동백역 부근 그쪽인데, 그쪽에서 제2센텀을 거쳐서 도로가 뚫어진다면 해운대의 교통 체증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센텀시티 쪽에서 기장 쪽으로 터널 하나하고, 제2센텀이 들어왔을 때 장산터널하고... 터널이 뚫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대대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 공개경쟁입찰 세부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위원장님, 그거는 이미 별책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아, 계약서요?

○장성철 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조영진

예, 그렇게 좀 이해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중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LCT 주변 그린레일웨이 산책로길에 단절된 무단횡단, 아까 문현신 위원께서 PT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내년 봄철 같은 경우에 더 위험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군 위원께서 반송여중 화물차 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

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노력하신 걸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송동 210번지의 소규모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미포 음주운전 사고,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도 아마 인지를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삼익아파트 좌회전 신호체제로 출퇴근 시에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속기록으로 대체를 하고, 아무튼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 라. 일자리산업국

### 1) 관광문화과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 광 팀 장 김철우

문 화 축 제 팀 장 최수목

영상해양레저팀장 정의석

홍 보 팀 장 이용현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청사포, 송정, 수영강 등 관광 자원이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가 많이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광문화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안 제시와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가 우리 서말숙 과장님 덕분에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 또한 올해는 제가 볼 때 관광문화과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관광 상품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광문화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해운대구가 부산의 해운대구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해운대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6~7월에 추경을 하면서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버크루즈가 있습니다. 리버크루즈를 처음에 할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해운대도 바다가 아닌 강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하고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수영만에서 좌수영교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 떴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여주며)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부산도 수영강 리버크루즈 추진, APEC나루공원 수변전망데크에서 좌수영교까지 올라간 뒤 방향을 틀어 수영교, 수영2호교, 민락수변공원, 광안대교, 동백섬 등을 거쳐...’ 동백섬까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문 끝머리에 보면...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 때 배우들이 수영강에서 크루즈를 타고 APEC나루공원에 내려 영화의전당까지 깔린 레드카펫을 걸어간다면 수영강 리버크루즈가 엄청 유명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강 리버크루즈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18년도 1차 추경 때 한다고 해놓고는 사업자의 준비 부족으로 내년 말까

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먼저 리버크루즈 사업을 사실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7월 말에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승선했을 수 있는 계류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신청을 할 때와 지금 여건이 조금 달라져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신청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영만 재개발 관련 때문에 그게 추진을 하다가 소송에 제의가 되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부산시 패소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대였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계류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만요트경기장을... 그래서 저희들이 리버크루즈 사업을 하려면 계류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 8월에 수영강 LED 경관조명...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선정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선정했는데 왜 작업을 안 합니까? 리버크루즈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지요. 예산은 12억 800만 원인데, 그게 크게 리버크루즈 사업하고 경관조명 조성 사업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통과를 했고요. 그 부분은 곧 추진할 겁니다.

○박기훈 위원

업체를 다시 선정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리버크루즈를 실시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백섬에서 좌수영교까지가 아니라... 원동역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가 관광특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우리가 받은 그 예산으로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없고, 단순히 리버크루즈 배만 운항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박기훈 위원

만약에 좌수영교까지 간다고 하면 수영강의 리버크루즈가 아니라 또 해운대를 발전시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동역사까지...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리버크루즈를 편도 운행한다면... 왕복도 되고, 편도로 운행한다면 일단은 울산, 저 멀리 서울에서 오기도 편하고, 접안이 좋아서 리버크루즈 사업이 꼭 성공하리라고 보고, 또한 해외에서도 원동역사에서 동백섬으로 간다고 하면 여행 패키지 상품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꼭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원동역사를 이번에 개발하실 때 코레일에 연락을 해서 경관조명과 계류장을 만들어서 크루즈 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계류장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원동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강폭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2019년에 원동역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승선 계류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기훈 위원

2019년이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2019년에...

○박기훈 위원

2019년 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2019년 말에 원동역사가...

○박기훈 위원

예, 리버크루즈하고 비슷하게 사업이 시작되는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산시 철도물류과하고 의견을 협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원동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표소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철도공사로 넘어가면 협의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승·하선 계류장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에 가장자리가 수심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서말숙 과장님께 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원동역사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일단 리버크루즈 사업의 성패는 제가 볼 때 좌수영교가 아니라 원동역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좌수영교까지 해 보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업은 사업자가 시작할 때 수익성을 보거든요. 수익성을 볼 때 수익이 많이 난다면 더더욱 (원동역사까지) 안 갈 것이고, 수익이 안 난다면 자금난을 따져서 더 안 갈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원동역사까지 가서 거기에 계류장을 만들어서 편도로 하든지 왕복을 하면 할인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접할 수 있고, 해운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영강을 알려서 수영강의 모든 경관조명이라든지 동해남부선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꼭 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왔는데, 앨커트래즈(Alcatraz)크루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벤치마킹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가면 배를 탈 때 각자에게 이어폰을 다 줍니다. 타는 사람한테 주고, 거기 입구에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나라별로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딱 누르면 크루즈가 움직여서 그 지점에 가면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을 해서 안내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안내자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크루즈를 실시하면 크루즈가 갈 때마다 이어폰을 딱 끼고 그 지점에 가면 관광안내도 해주고, 이왕이면 어느 국가든 몇 개의 국가를 선정해서 한다면 리버크루즈 사업은 정말 해운대바닷가가 아닌 수영강을 알리는, 부산을 알리는, 해운대를 알리는, 반여, 반송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꼭 되리라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의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해양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 말은 그런 이어폰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꼭 해서 해운대 바다가 아닌 재송, 반여에도... 반송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리버크루즈가 안 된다면 좀 아쉽지만... 반여, 반송 주민들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잘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계류장 문제라든가 등등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업 범위를 잡으실 때... 사실 우리 해운대구로 봤을 때 앞으로 관광 사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산시하고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동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이어서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김상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해운대구의회에 들어오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정말 부산 어느 구보다 열정이고, 열심히... 또 행사도 제일 많고, 차질 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가끔 늦게 남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독 해운대구청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부서는 매일 늦게까지 저렇게 불을 켜놓고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까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하고 낮에는 전 현장에 다 나가계시고, 밤에 구청에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희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해운대구청에 야간에 도대체 어느 부서가 일을 가장 늦게까지 하고 불을 켜놓고 일을 하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찍어봤습니다. 유독 체크가 많이 된 부서가 관광문화과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업무 분할을 하시든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가 세 개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지, 관광특구, 지역특구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해운대구는 전국의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조차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시면서 관광 상품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기념품에 관한 개발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 조례라든지 관광기념품 개발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말 해운대다운 관광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수 위원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게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관심을 가져서 사이트 활용을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사이트에 보니까 유일하게 ‘해운대 관광특구’라고 나와 있는 게 해운대달맞이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달맞이빵, 해운대 관광특구 빵, 맛있는 빵, 명인이 만든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해운대 관광특구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직접 달맞이빵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빵을 꺼내 보이며) 달맞이언덕에 가서 제가 어저께 직접 구매를 해왔는데요. 8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달맞이빵이라고 해서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개당 1,500원입니다. 달맞이 형상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유일한 게 달맞이빵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브랜드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이 과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매장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설면에서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달맞이에 올라가 보면... (사진을 제시하며) 달맞이빵이라고 해서 옆에 관광안내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맞이빵도 안에 배치된 것을 보게 되면 빵이라고는 종류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빵 가격이 1만 2,000원, 1만 4,000원인데, 이 빵을 가지고는 우리 해운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쇼케이스(showcase)에 보면 날개로 파는데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2개, 7개, 6개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시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해운대 브랜드라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한 번이라도 점검하고 가서 체크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와 가까운 울산을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울산에는 울산의 명가라고 해서 울산의 12경 전병이라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종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습도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전시해 놓을 것을 보게 되면... 공업도시인 울산조차도 이런 브랜드 상품을 굉장히 잘해놓았는데,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이런 시설이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먼저 해운대달맞이빵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해운대구에서 2014년도에 경주빵, 그다음에 통영의 꿀빵, 그리고 천안의 호두과자 이런 브랜드빵을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제과점이라든지 호텔 업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하이빵, 그다음에 달맞이빵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어떤 관리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금화푸드라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판매 자체는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길의 해운대관광안내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은 관광안내소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그런데 달맞이길 관광안내소가 실제로는 봄 말고는 크게 실용도가 떨어집니다. 관광객들이 한 달에 1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과 협약을 한 거예요.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에서는 공과금을 내는 것이지요. 연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에서 하지 못



한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저렇게 달맞이빵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정에 보면 달맞이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광안내소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하신 송정의 달맞이빵집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게 관광특구로서 브랜드 빵을 다양하게 만드는 곳입니까? 안 그러면 달맞이빵집 체인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달맞이빵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가 ‘송정동 달맞이빵집’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역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쪽으로 치우쳐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설면이라든가... 아까 제가 울산에 비교했는데 울산에는 숨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된 숨을 갖추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송정은 그냥 허름한 창고 비슷한 건물입니다. 도로가에... 거기에도 가면 빵이 없어요. 그냥 몇 개만 쪽 해 놓고, 거기는 체인 비슷하게 해서 납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같이 노력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공모사업을 몇 번 하셨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한 번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24개 작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 해서 저희들이 4점을 선정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최우수 작품이 우리 해운대를 상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작품이 우리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부분인데, 해수욕장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는 무드캔들 종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에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여주

며) ‘춘향전초코릿’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8점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보령 같은 경우도 공모전을 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공모전을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정적인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한 번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안 그러면 시상금을 좀 높이든가 대안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해운대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알겠습니다.

####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서두에 달맞이빵 옆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관광안내소의 안내 간판은 옆의 벽에 조그마하게 붙어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 가야 보입니다. 그런데 달맞이빵은 간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오는 손님이 몇 팀 없다고 합니다.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지 않고, 저기가 빵을 파는 곳인지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 전에 관광사업 홍보물로 하나 만들어낸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근래에 만들어준 것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USB 16GB, 작든 크든 간에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열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장에 가서 머그잔을 직접 구매해 보았습니다. (머그잔을 보여주며) 머그잔 가격이 사진 찍어주고 다 붙여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머그잔에 ‘해운대 sun&fun’이라고 해서 컬러도 아주 예쁘게 해서 이쪽 반대편에 딱 넣고, 이쪽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넣든, 자기가 해운대바닷가에 와서 찍어서 넣든, 해운대 12경을 넣든, 이렇게 사람들이 늘 나와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해운대바다하고 달맞이언덕에 가서 민원인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관광을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 외에도 우리 해운대바다하고 몇 군데 인터뷰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유일하게 우리 해운대 관광 상품이 관광시설관리사무소 옆에 바다상점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도 신제품 병따개부터 관광 상품이 많습니다. 제대로 있나 싶어서 보니 우리 바다상점은 자기 자체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봤을 때 과연 이쪽에 효율성이 있을 만큼 되어 있나, 대표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준다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시설 또한 너무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를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에, 제대로 된 상품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나, 오히려 청사포다릿돌전망대

보다 더 못합니다. 해운대바다가... 청사포다릿돌전망대는 얼마 전에...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예. 얼마 전에 새로운 시설 속에 아주 정리 정돈도 잘되고, 지역 특산물을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바다에도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해운대 관광 상품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던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관광 상품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모를 일단 했고요. 일부는 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념품도 개발하고, 공모전도 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고... 어쨌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늘 낮에는 행사, 밤에는 업무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해운대구가 말은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어디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 이전에 아까 예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산도 제대로 하고, 뭔가 우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온천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작년에는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줄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더... 축제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연구개발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용역이 몇 년마다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보태어서 2억 원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고요. 용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해마다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때 용역 결과를 보면서... 온천이라는 게 다른 타 시·도하고 달리 저희들은 온천물로 한다는 것 뿐이지 목욕탕 수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온천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달라진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네요, 그렇지요? 그런 이유가 뭘니까? 온천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 협회 관계자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온천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목욕탕 내지는 호텔 안에 온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에서 개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17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실태 현황’...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김성군 위원

저희 해운대구에는 47곳이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2017년 운영 실태를 보면 단속과 행정처분이... 경찰서에서 고발된 건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해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무신고 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지도나 계도를 하지, 단속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런 것으로 처분한 건은 없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다고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지요. 도시민박 이것은 주 취지가 일반 가정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과 같이 거주를 하는 그런 가정집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군 위원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것은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사실은 도시민박 자체가 일반 가정집도 되지만 아파트도 법상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한다는 애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들은 만약에 일반 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의 거리 및 영상도시 조성 관련'에 보면 영화의 거리가 우동 마린시티 호안도로에 있는 것이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김성군 위원

영화의전당하고 미스매치(mismatch)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영화의전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의 거리는 저희 구에서 2013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800m에 대해서 조성을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태풍이 오면 물에 잠기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김성군 위원

이미지도 그렇고, 피해도 발생하고, 복구비도 들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옮길 생각은 없어요? 다른 데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차바(Chaba)’가 왔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아파트도 다 침수가 되고...

○김성군 위원

‘콩레이(Kong-Rey)’가 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이번에 콩레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가 옮기기에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고, 또 다른 데 수영강변 쪽에, 영화의전당 앞이 참 좋던데 그쪽에 해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적당한 공모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김성군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너지효과도 크고...

○김성군 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이 부분은 우리가 2015년도 20회 때 한 번 연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터존으로 해서 연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파크하얏트 거기에 있으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꼭 영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APEC나루공원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버크루즈와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제 얘기는 마린시티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태풍에 막 물에 쓸리고 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애인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방향에 대해서... 요즘 그게 좀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수영만요트경기장하고요. 운촌항 마리나항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이 부분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패소를 한 상태고요. 부산시가...

○김성군 위원

부산시가 패소했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리고 이 부분의 배치 관계 때문에 인근에 아이파크 주민이 한번 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게 민간투자해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인데 민간투자냐, 공공투자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수영만요트경기장 이게 주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산시의 대표적인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도 여기에서 다 치러졌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김성군 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노후화가 되어서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뿐만 아니고 일반 관광 숙박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김성군 위원

이게 전망도 좋고, 경관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접근성하고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지금 보면 한 500척 정도? 450척 넘게 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군 위원

민간인이 들어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 오로지 몇몇 분들만, 요트를 가진 그런 분들만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지요? 앞으로 개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개발 자체를 민간투자자로 했었는데,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공동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부산시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248페이지 11-28, 여기에 보니까 ‘구청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업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로서 해운대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방법과 예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우리 해운대구정 홍보방법에는 크게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홍보채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모래축제에 하고 나서 운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모래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알았다는 답변이 32%가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정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참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참 놀랐었거든요.

구청 홍보방법을 올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해운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에 행정의 치적 같은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 편의 지역 소식지로 바꾸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층을 위해서 SNS,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블로그,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기회가 된다면 이슈 같은 것에 대해 생방송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이슈거리가 되는 구정의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채널 부분인데 이게 연합뉴스하고 연계를 해서 KTX에 30초짜리 스팟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KTX 영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만 8,000회 이상 송출된답니다. KTX가 운행할 때, 왕복이니까 그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기자님들께서 잘못 적어주시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 때 통과시켜주신 홍보대사,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해운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우리 홍보영상물을 찍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순세 위원

광고 내용에 보니까 ‘소통으로 하나 되는 해운대’, ‘담배꽂초 없는 해운대’,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이것도 이번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저희 구청장님의 생각이 주민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부터 내 주변부터 청소하자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순세 위원

예, 194페이지 11-6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근거가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먼저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관광 안내를 통한 해운대만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또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데, 관광진흥법과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일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순세 위원

현재 봉사자들의 실비는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실비는 자원봉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실비로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

○정순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의 예산에서 1,353만 원이 집행되고, 447만 원이 남았는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실비 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이거는 저희들이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에서 그런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단체로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나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워킹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분이 참여하게 되면 보통 1회에 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역사관 해설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장소별 활동내역’을 보면 2017년은 동백섬, 역사관(문화복합센터) 두 군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고 계시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장소를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2인 1조로 네 분으로 운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큰 손님이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또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전에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하고 계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문화복합센터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원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러시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송정 죽도와 해월정, 해마루, 간비오산, 봉수대 등 문화 역사를 해설하고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증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좀 충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이분들에 대한 인원 증가나 수당 인상을 확대해 주시고, 지역을 탐방하는 많은 분들이 역사와 유례를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과장님의 넓은 계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KTX에서 월 2만 8,000회 정도 방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위원장 조영진

이게 예산에 얼마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왜 제가 여쭙보느냐 하면 사실 2만 8,000회라면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안 그럴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런 데에 효용성 있게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닙니다. 조금 더...

○위원장 조영진

내년에 얼마로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 내년에도 이거는 6,000만 원입니다. KTX의 홍보영상 광고는 올해와 같은 6,000만 원을 올려놨고요. 다른 지역방송, KNN하고 다른 부분에 돈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그쪽으로 현재 언론홍보예산이 토털(total) 얼마가 됩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총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토털 9,000만 원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 그 홍보예산이 작년 대비 6,000만 원 더 추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나서 본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보셔서 꼭 필요성이 있게 되면 이것을 별도로 의논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구의원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싶어서, 현안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반된 의견을 냄으로써 고성이가 오고가고,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으로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일념으로서 발언을 하니까, 우리 서말숙 과장님하고 조그마한 오해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제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또 지역에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지역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위원

91페이지에 보니까, 1-19부터 언론 보도사항이 나오죠?

더베이101에서 당초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게 더베이101, 그 부분이 해양레저사업장인데 음식점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을 보면 파트타임(part time)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보건증이나 위생,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을 잘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의 몇 시간을 노니까...

보건증하고 그 주위의 위생관리에도 좀 더 치우쳐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저는 한 10년 전인가 목표를 갖고었습니다. 전라도 목표를 가보니까 목포해양공원이라고 해놨는데, 평화의 광장이 있었습니다. 들립니까,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장성철 위원

거기에 해수분수라고 해서 일명 춤추는 분수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에 벌써... 그거를 봤을 때 우리 구남로에, 물론 잘하셨겠지만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는 사실 목포에 있는 음악분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춤추는 분수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춤추는 분수를 보지 못했고요. 저희 해운대구가 올해 1월에 착공을 해서 4월 말에 준공을 한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사실 10월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았고요. 홍보도 그만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 음악분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장성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있으시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음악분수, 체험분수, 그게 이번 여름에는 워낙 더워서 체험분수를 많이 운영했거든요. 굉장히 더우니까 물만 틀어놔도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부분에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인근의 경상남도에 문화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비전 발표한 거를 혹시 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보지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는 미래의 비전을 문화관광에 두고,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해서 드라마촬영영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발표해서 예산을 2,223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장성철 위원

이웃 도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신성장을 위해서 확보하려고 발표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해수욕장 하나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안일하고, 좀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항상 다니시면서, 물론 아까 전에 말씀대로 내 집 앞 내 주위 풀 뽑기, 담배꽂초 줍기, 그렇게 인터뷰를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배꽂초를 주우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이 그분들의 일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정에 참여를 하는, 내 집 앞부터 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이니깐...

○장성철 위원

그게 안 버리면 되죠. 안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안 버리면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서 하는 걸 보면 도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도시 전문가라고 말씀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맨날 풀 뽑기, 담배꽂초 줍기, 그렇게 하니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못 하면 도시 전문가인 자신이 철학과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나서서 하든지, 그거를 못 하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고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견해를 같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이 하는 대로 맡겨놓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맡겨놓고 따라가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지금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 핵심이 없으신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장성철 위원

아니,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위원장 조영진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여기에 보면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관광문화과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지역의 해운대해수욕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슨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해운대’라고 하면 정말 세계적인 해운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다른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예,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관광문화 1번지 해운대의 소관 부서장 뭣을 해내시느라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그 많은 문화행사장을 찾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잠깐 장성철 위원께서 동백섬 해양레저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설계변경 사유에 있어서 ‘당초 사업자의 경영 및 재정능력 부족으로 포기, 사업자 변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그 앞에 226, 227페이지를 보면 2011년 3월 9일 자 건축허가서하고, 그 옆에 2013년 2월 22일 자 건축허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 용도가 둘 다 수련시설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련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음식을 팔고...

(집행부 자료 찾음)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더 차지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허가를 받았을 때하고 수익시설 규모 변동 사항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뀐 것 같거든요. 수련시설이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 시설만 표기가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수익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의 구분이 60:40으로 됩니다.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의 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마 수익 부분도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문현신 위원

예. 용도 면적에 따라서 60:40으로 해서 수익시설이랑 그런 게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랑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관리번호 11-3번, 143페이지입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청하고 한국아쿠아리아21 협약 체결일은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체결일은 1999년 2월 10일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운영 개시일은 언제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운영 개시일은 2001년 11월 7일로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현재 아쿠아리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이거는 BOT 사업으로 인해서 영국업체인 멀린엔터테인먼트(Merlin Entertainment)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본 이유가,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운영도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운영 주체는 멀린엔터테인먼트인데 소유와 수익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운영은 멀린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소유도 멀린엔터테인먼트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쭙본 이유가 소유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부산아쿠아리아가 지금...

○문현신 위원

그렇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오는 이름들이 한국아쿠아리아21도 나오고, 부산아쿠아리아21도 나오고, 멀린엔터테인먼트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읽어봤을 때는 원래 협약을 한국아쿠아리아21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당초에는 협약을 한국아쿠아리아21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그때 소유와 운영을 하는 그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문현신 위원

그 중간이 언제쯤이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2006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006년도에, 그러면 중간에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와 운영이 분리됐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원래 협약서상으로 보면 갑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협약서 제18조제2항제1호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해약, 해지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해운대구가

동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약 만료 1년 전에 10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읍이 그렇게 제출하면 갑이 무조건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협약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협약 만료 1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2020년 11월 6일입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인수받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관 이후 16년이 지나고 17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 만료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 수익기간, 이 부분인데 이게 10년의 연장 의사를 표시하면 저희들이 해 주도록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이 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오는 건데, 저희가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시에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 소유가 되면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 외에도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시에는 정상 가동 상태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 상태라고 하면 기기라든지, 당초에 운영을 개시했을 때 물고기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이 되는 목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동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아쿠아리움, 이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영하게 되지만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협약서에 보면 제3자한테 임대를 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업체는 21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9업체만 하고 12개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연장을 해줬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연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20년간 임대조건으로 해서 해 준 것이기 때

문에 그 상가 업체들이 과연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서에도 있지만 입장료 결정권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쿠아리움 측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문현신 위원

예, 이거는 책정권이 을에게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실은 3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수익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투자한 시설비에 대해서 회수하라는 기간을 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을 연장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투자자가 투자한 그 금액의 회수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입장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입장료를 낮춰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3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그거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입장료를 조금 더 올려서 혜택을 줘야 되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인수 준비 TF팀 정도는 꾸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꾸려져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정상 가동 상태로 이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보면, 어중이라든지 시설물 목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55페이지의 협약서상에 보면 ‘정상 가동 상태라 함은 제19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시설별 정상 가동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개시 전에 아마 그게 3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1월에 가동했으니까 8월에 제출을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현신 위원

‘안 했겠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점검을 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문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명확한 목록을 확인하려면 좀 구체적인 환수 방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수수료는 잘 납입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아쿠아리움이 혹시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적자 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자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16년 치를 분석해보면 연간 100만 명의 입장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월 8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0만 명이 안 되고 있는 게 2016년과 2017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문현신 위원

입장객 수가 준 것은 저도 자료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혹시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자기네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삼일...

○문현신 위원

삼일회계법인 회사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봤습니다.

○문현신 위원

세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다른 데로 지급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수족관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투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협약서에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10년이 지나고 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앞에 리브랜딩(rebranding)으로 해서 47억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다른 부분, 존(zone) 같은 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3~4억 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빼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 정직원은 몇 명이 되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직원이 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는 10명 내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정직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도 저번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27% 정도이고, 그다음에는 부산시 거주자가 좀 많고...

○문현신 위원

관내 거주자가 27% 정도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아쿠아리움이 구민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혜택은 일반적으로 조조, 이런 부분인데 34~45%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해운대구민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대인들은 지금 2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현신 위원

구민의 주소를 보여주면 할인이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습니다. 1만 5,000원에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있고요.

○문현신 위원

아, 할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리고 1만 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2만 9,000원이면 1만 9,000원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현신 위원

아, 제가 그 할인 부분이 없는지 알고, 그냥 할인권이나 그런 것만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을 좀 말

씀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해운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이어지는 소음이나 극심한 교통체증 같은, 그런 관광지로서 앓고 있는 온갖 몸살들을 주민들도 같이 감내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그마한,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또한 아쿠아리움이 BOT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상, 아까 27%라고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관광문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중심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서말숙 과장님과 관광문화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단 철거 후에 고철로 처리돼 논란이 된 꽃의 내부, 일명 챔버(Chamber), 유족과 재설치 합의장소가 APEC나루공원이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요즘 달맞이에 재설치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던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2동의 일부 주민들이 달맞이언덕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챔버를 설치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자 상가협의체랑 이웃 주민이랑 그리고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데니스 오픈하임의 유작인 챔버가 7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설치 위치가 APEC나루공원 일원이고요.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챔버를 설치 및 준공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쳤고, 원안 가결해 드렸는데,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준공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관 상임위인데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아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10월에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고, 그게 사실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역구의원님들께는 일단 주민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챔버 폐기 후에 오픈하임의 유족 측에서 소송 제기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있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서 백선기 전 구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가 올 2월에 미국을 방문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희가 방문을 할 때, 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방문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들이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올 2월에 갔었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재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재설치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해 간 그 장소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언제쯤 책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치가 되면 준공식 때 유족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원영숙 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두 곳을 찍어갔는데요. 그때는 APEC나루공원이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APEC나루공원이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전임 구청장이 약속한 건 깨도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거는 약속을 깨는 부분은 아니고요. 챔버라는 작품을 설치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문화자원이 구비돼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의 생각에도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유족들의 동의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7월에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의결되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또 연말 안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럴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때 5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해져 있었고, 예산도 책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개월이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 건가, 민간 위탁을 줄 것인가,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개정 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일을 맞추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일정이 좀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영숙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APEC나루공원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구역이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수영구 일대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2억 원이 배정되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12억 800만 원.

○원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관광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거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라서 달맞이로 옮긴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수영강 일대를 관광특구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 지역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달맞이로 옮긴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하고, 또 수영강 일대의 APEC나루공원이 영화의전당과 인접해 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영화의전당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 시너지효과도 클 거고, 또 현재 APEC나루공원에 비엔날레 조각 작품이 몇 점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지금 40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곳에 오픈하임의 작품도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미 많은 조형물들이 APEC나루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픈하임의 다른 작품도 그곳에 있고요. 그러면 조형물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질 지역인데, 왜 작품과는 정체성과 연계성이 없는 달맞이에 이 작품을 굳이 설치하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꽃의 내부라는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문화자산으로 저희들이 여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철거, 재설치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현재 조금 문화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달맞이로, 이 앞에도 저희들이 3년 동안 달맞이, 청사포 문화예술촌 조성, 이런 부분에도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루공원에는 그 작품이 만약에 가지 않더라도 40점이라는 다른 작품이 있고, 영화의전당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리버크루즈가 다니면 경관 조성이라든지,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달맞이에 있는 해월정 옆 예정부지에 가봤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도로와 공원과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거기가 20m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그게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10m 정도가 되는데, 해월정자가 있는 부분하고 제일 끝에 새천년문, 거기까지를 보면 110m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하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안내소 있는 부분, 그리고 철구조물이 있는 조명열주가 있는 그 부분, 그리고 해월정자에 올라갈 수 있는 그쪽 화장실 바로 앞에 부분이 있는데, 폭이 좁게는 17m, 넓게는 23m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폭이 20m밖에 안 되는데 챔버는 지름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거는 폭은 8.5m입니다. 높이가 6.1m이고요.

○원영숙 위원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당초에 호안도로, 바닷가에 설치돼 있었을 때 가로와 세로가 1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영숙 위원

바닷가는 가로와 세로가 10m라도 확 띄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광장 옆에 화장실도 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더 심각한 건 그 광장이 도로와 바로 붙어있다는 겁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원영숙 위원

차량의 매연과 소음에 세계적인 작품이 그대로 노출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현재 그 여건에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변의 많은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펜스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빼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청사포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랑 의논을 해서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챔버 작품의 재질이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원영숙 위원

폴리카보네이트죠? 염분에 매우 약하죠? 부식이 쉽게 되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렇죠. 그 재질 자체가 염분이라든지 해풍...

○원영숙 위원

그래서 철거된 거죠? 그런데 달맞이는 일단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죠.

○원영숙 위원

또 차량 매연도 있고, 그러면 이곳이 과연 적절한 부지인지 본 위원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기관이 한 약속을 바꾼다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 또 다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요. 꽃의 내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구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우리 구가 어차피 서울 건대 부산시민들한테 자꾸 여기에 옮기겠다, 저기에 옮기겠다, 그러면서 ‘저 작품은 어떤 걸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그거를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영숙 위원

자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APEC나루공원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쪽 주민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행정에서 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위원장 조영진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올해 마무리하게 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되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최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족들과의 약속에 의한, 이거는 국제적인 신뢰 문제입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안을 다시 다른 장소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닌데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자꾸 말씀이 정통으로 안 가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상임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을, 물론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설치를 하겠죠. 그런데 결정된 사안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반송지역에 설치하자고 하면 반송에 또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장소까지 다 확정이 되고,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모든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재론해서 하게 되면 첫째 신뢰의 문제가, 유족과의 국제적인 신뢰 문제,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는 APEC나루공원으로 정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운대 전역의 여러 곳을 검토를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족들과 합의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거를 전혀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조영진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족들과 합의의 약속도 현재 나루공원에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된 걸로 알고,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까지, 그

위치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꾼 장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기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을 어떻게 다시 의논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줬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상의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상태인데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니, 제가 뭐 언쟁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현재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미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안을 가지고 재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사실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꼭 나루공원이어야 하고, 꼭 5억 원이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위치가 통과가 안 됐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예산 5억 원하고,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전제조건하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할 의무는 다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위치 선정이 안 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하시고, 상인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5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루공원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할 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문현신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외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얼마 전 문화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구만 빼고 모두 있고, 현재 있는 문화원 중에서 231번째, 전국 꼴찌로 생겼다던데, 그 사실을 알고 살짝 부끄러운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도 사실은... 문화원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뒤에서) 중구 다음으로 15번째로 된 거죠. 저는 부산에서만 살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231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저희가 230번째랍니다.

○문현신 위원

아, 230번째였습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올 2월에 충남의 웅진군인가, 거기에서 생겨서, 우리는 작년 11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문현신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에 치중을 하다 보니 문화 쪽에는 얼마든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설립이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의 다른 데 같은 경우 일찍 생긴 데는 1994년도, 1997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문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과장님과 같은 아쉬움을 갖고서, 그나마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문화원이 개관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등을 받아서 이를 검토 후에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절차대로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의견서는 제출하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들이 서류는 일단 받았습시다. 실적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았는데,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에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시다.

○문현신 위원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으셨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

○문현신 위원

일단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2017년 11월 17일 견적서에 의하면 결재방식이 홈페이지 제작 착수 시 50% 지급, 홈페이지 제작 완료 시 50% 지급’, 그렇게 돼 있는데, 2017년 12월 6일 체결된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착수 시 전액지급으로 변경되어서 2017년 12월 9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12월 9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불하면서도 제작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계약 이행 보증보험 등 채권 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감사 당일인 2018년 2월 12일 현재 계약 후 2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홈페이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봤습시다.

○문현신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받지도 않은 채로 돈을 미리 다 지급해 준 경우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만약 물품을 납품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금 같은 것도 없이,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물품을 그냥 못 받으면 그만인 셈이네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요. 이게 사실 작년 2017년 11월에 개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보통 내려간 돈은 그 해에 다 쓰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외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숙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게 다 제작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급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렇게 처리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화원 측의 조치를 제가 궁금해서 이사회의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회의록상에 1,500만 원이 제작비이고, 500만 원이 서버 관리 유지관리비 내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홈페이지가 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제작비는 둘째 치고, 서버 관리비까지, 유지비까지 미리 줬다는, 선 완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미숙한 부분이라고 유연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문화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청에서 떨어진 문화복합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시작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첫 출발부터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숙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향후에 보다 세심한 지도점검,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광문화

과에 한글과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각 과별로 조례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는데 한글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해 가지고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과장님이 국어책임관으로 돼 있으시던데... 그래서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 조례상에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 그러니까 제9조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5년 만에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는 4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자체를 저희들이 2014년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2018년도 각 부서의 활성화 계획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그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제14조에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디자인, 글짓기, 서예 등의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행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각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서예교실 부분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상을 하고 다문화가족의 시화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고 합니다.

○문현신 위원

구청장은 이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런 조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국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또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로 세계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한글이 씌 없는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끝으로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위원장 조영진

수영강 경관조명업체 선정 관련 입찰서, 입찰업체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를 9부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설계변경 자료도 9부로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와 감사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버크루즈 사업 추진 시에 운영 구간을 좌수영교에서 원동역사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APEC나루공원에서 수영강 경관조명 사업과 연계하여 수영강 일대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제일의 관광특구 해운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기념품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확대 시행하기 바라며, 기 개발된 관광 상품의 전시 및 홍보에 있어서도 개선방향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과 해설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장산 등의 역사,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사용 수익기간이 만료까지 3년이 남았다고 했죠? 인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TF팀도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별 정상 가동 기준치에 대한 명확한 기부채납 목록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관내 주민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의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된 데니스 오픈하임 ‘챔버’ 작품이 당초 설명한 APEC나루공원이 아닌 달맞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오픈하임 유족과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루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장소 변경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과 장소에 국한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드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숙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태 승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전 문 위 원 천 미 경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

속 기 사 이 동 수

【 감사 제5일차 2018. 11. 27. (화) 】

5) 늘푸른과

○위원장 조영진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 림 관 리 팀 장 김 경 진

산 림 생 태 팀 장 김 병 국

푸 른 도 시 팀 장 우 경 숙

공 원 팀 장 차 성 호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늘푸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른다고 고생이 많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가 조금 빨리 끝낸 게 있습니다. 오늘은 길게, 최대한 길게 가겠습니다. (웃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번에 2차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공사를 할 때 꼭 나무를 포클레인이나 장비로 자르지 말고, 최대한 가로수를 살리는 방향

으로 공사 감독을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장산에 올라가면요. 대천공원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재송, 반여, 반송에서 가는 것하고 차이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산에 재송, 반여로 가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대천공원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마다 전선으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하니까 대천공원은 공원법으로 적용되고, 재송, 반여는 공원이 아니라서 태양열 가로등으로 설치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대천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송 쪽에는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딱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박기훈 위원**

장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공원이라고 하지... 일단은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태양열 가로등 설치가 장산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재송, 반여, 반송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재송동이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그게 하나의 시설비가 얼마이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쌉니다.

○**박기훈 위원**

예, 그것을 들었습니다. 몇천만 원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것인데, 인터넷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꼭 해봤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가로등도 있고, 이렇게 된 가로등도 있고,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태양열 가로등... 가격이 보통 보면 100만 원 밑입니다. 재송동에 있는 가로등은 아주 비싸게 보이더라고요. 참조하려는 것인데 100만 원 미만짜리하고 4,000만 원짜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과대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등산객이라든지 여기에 가로등이 있는데 4,000만 원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싸고, 튼튼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안전기준법 그 기준법은 인터넷하고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야간 산행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대천공원에는 가로등이 많이 있고, 재송, 반여, 반송에는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신도시에 있는 사람은 등산을 하고, 재송, 반여, 반송 사람들은 밤에는 등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추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좋고 저렴한 상품을 찾아서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늘푸른과장으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대천공원은 산림욕장을 포함해서 평지로 되어 있고요. 접근이 상당히 근접하고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kye)가 워낙 하면 그 안에 장산사, 석태암, 폭포사 절이 있습니다. 절까지는 야간에도 신도들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쪽은 도로라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놓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재송동 쪽은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고요. 등산로로 되어...

○**박기훈 위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가파르거든요. 과연 그게 생태적인 측면에서 옳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대천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은 가로등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나무를 보호하지 않고, 재송, 반여, 반송은 나무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과장님이 혹 차량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요즘에 임도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설치를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위원님, 제가 야간 이용객들을 조사를 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박기훈 위원**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송동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한번...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장산이 우리 주 무대이니깐... 장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고씨제당약수터부터 해서 쪽 있는데, 그 위쪽에 올라가면 제일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약수가 부적합으로 떠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아예 안 먹어요.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했더니 살균기가 열을 받아서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적다, 그래서 시약을 떠보면 집진기가 그 역할을 못 하니까 부적합이 뜬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싹 해봤어요. 살균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어떤 고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동안 있어도 그게 돌아가는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 환경위원생과 함께 해서 장산의 약수터에 살균기가 설치된 곳을 모두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같이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고장이 났으면...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분명히 살균기가 있는데도 부적합이 뜨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집진기를 24시간을 못 트니까 시약을 뜰 때, 약수를 뜰 때 그게 안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24시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장산에 올라가면 예전에 민원이 많이 난 곳인데, 옥녀봉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봉이 있고, 옥녀봉이 있는데... 옥녀봉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안 보여요.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늘푸른과에서는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산림을 보호해서 그렇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전망을 가리는, 시야를 가리는 수목은 일부 전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기훈 위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옥녀봉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안 보여요. 장산에는 장군봉, 옥녀봉 많이 있는데, 거기가 안 보이니까 한번 가보시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가지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 과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재송동의 한빛공원도 관리를 늘푸른과에서 하십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저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주위의 민원이 어떠냐 하면 예전에는 공원 안에 파고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파고라가... 누가 훼손을 했든가 안 좋아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했겠지요. 철거를 하고 나서 다음에 파고라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 지금 담당자가 발주를 해놓았고요.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금주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설치되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네요.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설치할 때 저하고 같이 가서...

○**늘푸른과장 김성영**

설치할 때 꼭 같이 동행해서...

○**박기훈 위원**

저도 사진을 하나 찍어서 선거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공약 사항이 됐으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운동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더 설치해 줄 수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운동 시설을 추가로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가격 면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민이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여차피 우리 재송, 반여, 반송은 장산 없이는 못 먹고 삽니다. 장산이 가장 큰 우리의 힘이고, 또 장산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 장산을 많이 아껴주시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좌동, 중동에 있는 대천공원뿐만 아니라 재송, 반여, 반송에도 공원을 많이 확대시켜서 우리 재송, 반여, 반송 사람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고, 장산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내용은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

장산 태양열 가로등...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김성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요. 15-7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 및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 실태’이라고 있

는데, 혹시 여기에 불법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목이 뭐라고요?

○정순세 위원

불법 체육시설...

○늘푸른과장 김성영

불법 체육시설이요?

○정순세 위원

예. 여기 밑에 보면 ‘산림 및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 실태’에 ‘불법 체육시설 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불법 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순세 위원

222페이지.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 물어보는 자체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물어볼 때 제목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산림 내 체육시설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불법입니다. 산림 내에 체육시설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은 것 말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 내 배드민턴장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세 위원

아~ 현재 장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체육 시설은 불법이라는 말씀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렇지요. 사유지에... 동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안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 내 체육시설을 놓으면 안 되지요. 산림 내에는 체육시설을 놓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모두가 산에서 운동하기를 좋아하고요. 힐링을 좋아하니까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측에서 관리하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관에서 지금 불법을 하고 계시고, 묵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요.

○정순세 위원

불법인데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법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신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정순세 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늘푸른과장 김성영

조례 개정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이나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순세 위원

아~ 법 개정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는 또 응해 주지를 않아요. 토지 소유자들은 반대합니다. 국공유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쓸 수도 없고요. 그냥 묵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세 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국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손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정순세 위원

혹시 대천공원 입구에 운영 중인 각종 매점 현황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대천공원의 매점은 지금 푸드트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불법 점유 사례가 지금... 14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라고 해서 시유 재산 변상금에 체납된 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있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정순세 위원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 부분은 달맞이공원을 아시지요? 미포 육거리에서 보면 청사포공원에 가기 전에 연예인아파트인가, 그 외국인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세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거기 바로 옆에 보면 밭도 많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달맞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만 9,000㎡인데, 그 부분이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했거든요. 서병수 구청장 시절에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정을 했지만 그 당시부터 거기에,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으로 되는 바람에 계속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도시공원 점용료에 보면 2017년도에는 35건, 2018년도에는 33건 해서 수납 금액이 2017년도에는 748만 5,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16만 1,6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이 줄었는데, 2년 사이에 수납 금액이 크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부분적으로 내는 분도 있고요. 내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그 차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유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보시면 못 사시는 분이거든요. 영세민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돈을 낼 능력이 없고요. 돈을 낼 수 있으면 냈다가, 못 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래도 201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2018년도에는 너무 수납액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에서 이것도 그냥 묵인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묵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체납 통보를 하고, 받아 내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2년 뒤에는 세무 2과로 업무를 넘겨서 세무 2과에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 세무 2과에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세무 2과에서 하실 일이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정순세 위원

앞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양묘장 관리 및 초화생산 현황’을 보면 2016년 9월에 좌동에 철거를 했고, 올해 4월에 송정동에 철거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이나 2010년도까지는 인건비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노점을 사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투입해서 생산하면 단가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구입하는 게... 실제로 키워서 하는 것은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생산하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그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 가면 단가가 많이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 초화를 구입해서 동에다가 배분해 주는 게 훨씬 득이 되고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내년에는 없는 거네요, 사업이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액 구입을 해서 배분할 겁니다. 구입 예산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사업이 좀 바뀌는 거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렇지요. 초화 구입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생산이 아니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그 인력 대체로 관리 쪽으로 투입을 하고,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김성군 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공한지 등에, 양묘장에서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올해 겨울철에도 초화를 싹 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원하는 만큼 다 배분해 줬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사업의 형태만 바뀐 거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시스템만 바뀐 겁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예전하고 달라서 산이 꼭 힘이 있고,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임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반송은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가보면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이 길 같은데, 사업이 자꾸 더더지는 이유가 뭐니까? 작년에 1억 6,000만 원을 쓰고, 올해도 1억 6,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내년에도 임도 예산을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km를 가내시 받았고요.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성군 위원**

1km에 2억 5,000만 원...

○**늘푸른과장 김성영**

2억 3,000만 원인가 될 겁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이게 12km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 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니요. 지금 성불사 입구부터 반송 꽃다래공원까지 총 8.3km이고요.

○**김성군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리고 성불사에서 재송동 세명그린아파트까지 1.8km가 닦여져 있고...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12km 정도인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지금 미개설 구간이 세명그린아파트부터 반여동 풍산금속 뒤에까지 해서 한 5.5km가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시비 사업이 아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자고 해서 또 국비를 올렸더니만 이것도 균특회계인데, 산림청에서 이것을 내려줄 때 부산시로 일괄적으로 5km를 내려줬어요. 5km를 가지고 16개 구·군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1km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윤준호 국회의원님께 두 번은 찾아갔었습니다. 일단 답은 받지 못했구요. 저도 이것은 반송, 반여, 재송동 쪽에 임도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km를 빨리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임도라는 게 꼭 등산 이런 것보다는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이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밖에 못 간다는 애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총 12km 중에서 5.5km가 남았는데, 내년에 1km를 닦을 수 있고요. 4.5km가 남고요. 4.5km를 지금 아직까지 국회도 문이 안 달렸기 때문에 오늘 4시 반에 김은주 수석보좌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 그럴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군 위원

좀 읍소를 많이 해보세요. 해가지고 많이 받아오세요. 보니까 국비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정비 관련 계약 현황’을 보시면 담안골공원은 2017년 4월에 리모델링을 했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참 잘 해놓았습니다. 보행자 도로도 있고, 워킹하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글짐? (사진을 보여주며) 한번 보십시오. 놀이터에 그물망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왔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항상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할 때 거기에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이의도 이쪽에서 먼저 답을 가지고 가서 공청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하자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합니다.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위험해서, 높아서... 그물 폭이 내가 보니까 30~40cm 되는데, 아이들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저것은 도심 공원 놀이터에는 안 맞고, 청소년수련장이나 극기 체험하는 데에 맞는 것이지, 저것을 동네 놀이터에 그렇게 많이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이 행정력 낭비, 돈 낭비 지금 민원이 엄청 제기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



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설치한 지가 2017년이라서...

○김성군 위원

1년 됐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좋아했다가 이제 또 싫어하는데, 저도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정말 어린 아이부터,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저것을 부산시 내에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마을 안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일부는...

○김성군 위원

(웃음)아무리 좋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아이들이 한 명도 안 가요. 위험해서 못 올라간다니까요. 빠질까 봐... 완전히 미스매치라니까 이거...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좋아합니다. 7세 미만은 불안한 게 있는데, 초등학생은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김성군 위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봤거든요. 우리 집 앞이라... 부모들이 타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해서 다칠까 봐, 가다가 뒤집어지고 이러면...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민원도 많고 그럴텐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당장 뜯기는 그럴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김성군 위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어린이놀이터 정비할 때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김성군 위원

저도 공론화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길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몰아간 것 같다니까요. 보니까... 답을 갖고 계셨더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하고 멋도 모르고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해보니깐 이런 게 들어와서... 저게 반송만, 해운대구의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신시가지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성군 위원

동네 안에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신시가지에도 어린이공원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있고요.

○김성군 위원

저렇게 대량으로 많지는, 구석구석에 있지는...

○늘푸른과장 김성영

공원이 좀 넓어야 이런 시설을 설치합니다. 좁은 데는 하지 못하고요. 넓은 공원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혹시 반송만 시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절대 아닙니다.

○김성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물망 부분에 대해서 간격이 넓어서 좀 위험성이 따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저럴 경우에는...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016년도에 투자를 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물망 간격을, 좁은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통과가 되고 검증된 시설이거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조영진

아~ 관련 기준이 있구나...

○늘푸른과장 김성영

신체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그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도 한번 물어보고,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일단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니깐 별도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또 마지막 부분이라서,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관리번호 15-19, 246페이지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학교 내 공원관리 실태 학교(학교 공원화 사업부지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학교 공원화 사업부지 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 제목 자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목이 좀 안 맞는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이 의회에서 왔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답변 자료를 주는 것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냈는데,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칭 개정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좀 바꿔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혹시 이번에도 제출을 하셨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번에도 자료를 낼 때 ‘이런 것은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라고 저희들이 반문을 했거든요.

○문현신 위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니, 맞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갈래... 몇 개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물어본 것도 있어요.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것은 아니라고, 같은 것을 왜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조금 바꿔서 내지 이건 아니잖아요? 바꿔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안 됩니다.’...

○**문현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와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질문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쪽으로 끼우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된 부분이 몇 개 있고요. 저 역시도 자료를 보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이것도 중복된 것이다.’ 겹쳐지는 것이니까 삭제된 것도 있고 그럴거든요. 지금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목록을 정할 때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요구를 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향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늘푸른과 자체 목록은 특별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향후 논의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목록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부지 내라는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학교를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문현신 위원**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 편성은...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원도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문현신 위원

과장님, 이번 1차 추경에 교육협력과에서 3,00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매칭으로...?

○문현신 위원

예, 나머지 3,000만 원을 저희가 1차 추경 때 해줬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그게 바로 해운대관광고등학교의 학교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안 하니까...

○문현신 위원

예,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일편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서는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1차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명상 숲’ 조성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구에서 3,0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 당시 제시했던 조성 목적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명상 숲 조성’ 그렇게 밝혔거든요. 조성 목적을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이것의 조성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조성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25, 263페이지...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거나 도시 계획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만 합니다. 일명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죄다 비상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저희들이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쳐다볼 때 근린공원 이상은 부산시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근린공원 이상은 부산시에 모든 권한이 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수변공원, 그린공원, 문화공원 다 부산시의 권한이고요.

○문현신 위원

아~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리고 국가공원이라고 있는데, 국가공원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우리 해운대구에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 거의 조성되어 있고요. 미조성 공원은 8개소가 있거든요. 소공원하고요. 이런

부분이 보시면 재개발정비구역이라든지 조성되지 않은, 아직까지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데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시효소멸 기간이 2027년, 이렇습니다. 2025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주변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정동에 양묘장으로 쓰다가 지금 폐지한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 공원은 윤슬공원이라고 하는데...

○문현신 위원

아~ 윤슬공원, 송정동...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 부분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2020년에 해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은 가만히 두는 게 우리 구로 보서는 득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공원 조성을 안 하더라도 송정동 쪽에는 그린레일웨이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한 1km가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없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린공원 이상인 명장공원,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동래해운대근린공원, 장지공원, 달맞이공원, 송정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명장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업체가 하나 선정되어서 지금 설계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4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형 축구장, 수영장, 도서관이 막 들어서거든요. 30%를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는 일단 해결된 것 같고요.

해운대공원, 동백공원, 동래-해운대근린공원 여기는 요구 금액이 있지만, 100%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은 부산시에서 알 박기 형태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다는 매입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도로가를 먼저 매입하고, 뒤의 부분은 나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 난개발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2020년 이후에 보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맞이공원은, 이 부분이 가장 난제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에 해제되는데, 아직까지 보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2004년도인가 그때 결정을 해서 해제 기간이 2022년이라서 2020년에서 2년을 벗어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9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원일몰제에 크게 현재로서는 달맞이공원 빼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도시공원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린공원 이상은 문화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그런 것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만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 해당하는 것은 미조성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재개발 예정 지역도 있고, 나머지 송정동 윤슬공원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구유지라서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위 해결해야 하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근린공원 이상...

○**문현신 위원**

근린공원 이상의 경우, 지금 명장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70:30으로, 30%는 개발이 확정되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알기로는 22:78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2:78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그나마 78%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보면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다 30%를 난개발 형식으로 가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 8%라도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지금 달맞이공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맞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우리 구에서는 없고요. 시에다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에서도 지방채하고 토지은행제를 이용해서 4,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문현신 위원**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래서 달맞이공원이 가장 난제입니다. 사실은... 해제가 되면 거기는 바로.. 지구단위로 묶더라도 초고층은 아니지만, 또 상업용 시설보다는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원영숙 위원**



해운정사 이쪽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소문난대구탕 그쪽 주변 썩 다라고 보시면...

○**문현신 위원**

기와집대구탕인가 그쪽 부분, 맞지요? 그 밑에 부분...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좀 현명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정사에서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장지공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지공원도 해운정사에서 자기들이....

○**문현신 위원**

개발을 안 하겠다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으로 자기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2017년도에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런데 협약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이 해운정사 측에서 올해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2019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겠다, 부산시에서 매입비를 활용해서 매입하겠다고 우선적으로 공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정사에서 답변을 하기를, 해운정사에는 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제스님 땅이 있고요. 해운정사 땅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법인 땅이 있고 이 세 가지인데,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해운정사 소유인데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부산시에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문현신 위원**

장지공원은 작년에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이 마련되어서 현명하게 공원으로 조성되게끔 해결된 첫 번째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도 그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살짝 빼거덕거리는 상황이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운대공원이나 동백공원이나 부산시에서 소위 알 박기 형식으로 토지 매입을 할 것이라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우선 적으로 하고... 표현이 알 박기이지만, 그런 표현은... 도로가부터 먼저 사들이고, 뒤의 것은 해제된 이후에 사들이겠다는 게 부산시의 복안입니다.

○문현신 위원

평소에는 저도 ‘알 박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늘날만큼 애정이 가는 단어가 됐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감사합니다. (웃음)

○문현신 위원

그러면 말씀 잘 들었고요. 모쪼록 지혜롭고 현명한 대응으로 난개발을 잘 막고, 초록 초록하게 주변을 유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색 쉼터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네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몇 페이지죠?

○장성철 위원

88페이지입니다.

체험장 3개소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 3개소가 반여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 임도에 하나가 있고,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장성철 위원**

우동 임도?

○**늘푸른과장 김성영**

재송, 반여에 하나씩 있고요. 재송산림공원, 그리고 반여산림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좌동에 있는 장산생태숲, 산림욕장 그 안에 하나가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39개 반 해 가지고, 840회 해 가지고 2만 4,000명이나 참가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1억 4,000만 원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탁을 주고, 유아숲 지도사, 숲해설사가 있는 위탁대행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건 참 잘하시네요. 과장님, 유인물에 제가 봤을 때는 숲해설사에 2,000만 원, 또 숲해설 민간위탁 해 가지고 4,400만 원이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민간위탁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는 거고, 관리하고 있고, 숲해설 민간위탁 이거는 발주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숲해설사 2,000만 원, 이것도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숲해설사 3명이 사역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장성철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늘푸른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94페이지에 그린레일웨이를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린레일웨이를 걸어봤는데 거기에 난간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난간대라고 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 약한 것 같더라고요. 만져보니까 흔들거리고, 처음에 설치를 좀 튼튼하게 해놓

으면 차후에 관리가 용이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를 튼튼하게, 물론 비용이나 예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약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떨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2016년도부터 그린레일웨이 조성 공사를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진행했구요. 2017년도에 1차 구간을 올림포교차로부터 부산기계공고까지 저희들이 이관 받았고, 작년에 2차 구간인 기계공고부터 미포육거리까지를 이관 받았거든요. 송정 쪽 일부 1km하고요. 건설본부에서 받다 보니까 시공의 질이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의 관리비를 받았고요. 관리비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 설치를 할 때 튼튼하게 하면 뒤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장성철 위원**

보통 보면 도로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행나무 말고 다른 거를 할 수 없습니까? 은행나무 자체가 떨어지고 나면 냄새나고, 그럽다고 해서 법에 걸린다고 주민들한테 따가라고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전부 콧냄새가 나서 거리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거리의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버리든지...

○**늘푸른과장 김성영**

은행나무가 몇 그루냐 하면, 가로수가 1만 4,111주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1,970본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20%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암나무가 203본, 수나무가 1,767본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203본의 냄새나는 암나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는 화학적 방제, 약을 쳐서 하는데 그 약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하지 않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암나무는 교체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말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히 재송, 반여 부분이 보도 폭이 좁은데 나무가 크거든요.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암나무를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은행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까?

그게 위에 올라갈수록 가지치기를 안 하고 놔두면 상가들이 다 가려서, 또 저번에 저희들이 전주 쪽으로는 가보니까 밑에는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위에는 갈수록 가지가 없다 보니까 상가에 별로 피해를 안 주던데, 여기에는 무성히 자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푸른과에 자꾸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나무 자체를 그런 나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가로수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여름철에 지나갈 때 녹음이 있으면, 또 미세먼지 때문에 가로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늘푸른과는 또 나무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반송, 재송동 쪽에 저희들이 강전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전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강전정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할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제가 할게요.

○장성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푸른 해운대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영 과장님과 늘푸른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기부채납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제니스 소공원 쪽에 가지치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기부채납된 공원이 지금 여섯 군데네요,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2만 2,460㎡고요. 이 공원들은 어떤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대단위의 아파트를 지으면 그분들이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발면적의 몇 퍼센트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해운대구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죠? 이게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거니까 도심 속 쌈지공원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영숙 위원

기부채납된 공원은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는 안 되고 좀 느슨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집중 관리가 안 되고 느슨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령 집중 관리의 상·중·하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운대구만 해도 공원이 139개소에 329만 7,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42개소에 12만 5,818㎡가 있고요. 이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해운대구청 청사에 보시면 무기계약직들, 공무원 근무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관리라는 이야기는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이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42개소를 지나갑니다. 42개소를 돌아가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한 달 뒤에나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대처하러 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 관리가 안 됩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 애로점을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우리 구 자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해 준 아파트의 자산일 거라고 그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의 소유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요즘에 공동주택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까도, 박 위원님도 계시고, 장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존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비가 많다고 그러면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구수로 보면 그쪽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원영숙 위원

우리 구에 이 기부채납된 공원은 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그곳에 쌈지공원이나 이런 게 주민 여론들이, 제가 그때 주민자치회 연수를 갔더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네마다 이용하기 쉬운 쌈지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쌈지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특정 아파트의 공원인 것처럼,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지 않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기부채납된 제니스 소공원인 경우에 2013년도에 보니까 자기들이 풋말을 붙여놨던데, 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을 받은 공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곳에 가봤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가봤습니다.

○원영숙 위원

벤치도 부러져서 테이프로 둘러놓고 그렇게 있죠? 곳곳에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그리고 초화들은 다 죽은 상태이고... 그리고 물고기상, 분수, 엄청 화려하고 좋게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런 것은 일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갔을 텐데, 우리 구가 지금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파트 이쪽하고 서로가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 구의 의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가령 이 공

원 이름이 지금 제니스 소공원이고, 아이파크 공원이고, 그런 식으로 특정 아파트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름부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공원의 명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요.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명칭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 자체가 제니스에 사시는 분들,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의견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칭인 것 같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구의 예산이 허락하면 관리비를 투입해서 공원에다가 한 사람씩 배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영숙 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살았지만 이게 제니스의 자산이고, 아이파크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그 공원을 이용하면 실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혀 이용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원 명칭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앞으로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원에다가 ‘이 공원은 해운대구청 소유이고 주민들의 공간’이라는 풋말들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눈에 정말 잘 보이는 곳곳에 붙여주시면, ‘아, 이게 우리 주민의 공간이구나, 주민의 공원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이 풋말을 붙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런데 그게 너무 커버리면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크기라든지 그런 것은 상의해서...

○원영숙 위원

공원에 맞도록...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개수도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재라인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제니스 소공원 같은 경우는 마린시티 영화의거리하고 참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그 공원 배치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어렵게 기부채납된 공간이 행정의 소극적 개입으로 사적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주민들은 특정 아파트의 소유라고 인식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공간인 것을 인식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제안말씀을 하신 것 중에 물론 일정한 규모, 일정한 면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공원마다 구청 소유 뜻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조영진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 건설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거수)

잠깐만요. 안 하신 분이 계셔서, (김상수 위원에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그러면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자료 14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반송의 꽃다래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격장 바로 밑에...

○늘푸른과장 김성영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보도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군 위원

143페이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보도 자료가 5건이 있는데요?

○김성군 위원

위에 4건을 보십시오. 반송의 꽃다래공원을 이야기...

○늘푸른과장 김성영

반송근린공원입니다.

○김성군 위원

근린공원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이게 언론에서 잘 지적해놨는데, 좋은 점 두 가지하고 나쁜 점 두 가지가 그대로 있죠?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부산시에서 경찰특공대하고 우리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격장 이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그때 8억 원이 부족했었는데 ‘전액 구비로 하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또 ‘너희 구에서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주겠다.’고 했다가 지난 주 금요일에 8억 원을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 때 확보한 2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8억 원을 다 받았습시다.

그래서 추경 때 받은 2억 8,000만 원은 2019년 추경 때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속 못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니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8억 원을 받았으니까 빨리 끝내야죠.

○김성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특공대 사격장, 그거를 옮긴 상태에서 공사를 하셔야지, 언론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총 쏘고, 대포 쏘고 있고, 밑에는 공원이고... 이게 영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도 2017년 7월 8일에 이쪽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앞에 반송발전협의회에서도 공원 건에 대해서 엄청 찬반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성군 위원

예, 많았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결론은 공원을 들이자, 날자고 했던 분도 반송 주민들이고요. 그래서 공원이 왔고요. 그때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경찰특공대도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들은 이야기로는 주민들이 나중에 공원이 잘 되면 특공대를 다시 내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단 공원을 들이자고 한 것도 반송 주민들이고요. 제가 지금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경찰특공대를 빼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면 가능하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거는 반송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론을 가지고, 구에서 노력하겠지만 주민들도 같이 한목소리를 내면 언젠가는 옮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로서 부산시에서 특공대분들하고 만나서 사격장을 실내로 하든지, 아니면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자체가 특공대만 사격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특공대 사격장에서 부산시에 있는 경찰서 전체의 의무 사격이 있습니다. 경찰들은 1년에 한 번씩 총을 쏘야 돼요. 그 사격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먼저 1차로 빼라고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사격장 자체가 부산시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53사단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저게 위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차기에 할 문제이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공원사업을 시작하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올 연말까지도 하려고 하겠지만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이라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 한 1/4분기 때는 다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원 개장을 할 겁니다.

○김성군 위원

보니까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어떤 공해물질 말씀이십니까?

○김성군 위원

페타이어니 뭐니, 이런 게...

○늘푸른과장 김성영

페타이어는 저희들이 전량 다 없었습니다. 그거는 폐기물처리를 하면 돈이 4~5억 원 정도 드는데 페타이어를 재생해서 쓰는 데가 강원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운반비만 주고 우리 직원이 처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완공 목표는 언제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개장 말입니까?

○김성군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1/4분기에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어제 제가 가보고 왔는데... 그래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성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오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먼저 질문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늘푸른과에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쪽 보니까 타 부서보다도 늘푸른과가 개인 수상이나 이런 수상 경력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 성과 관련돼서도 수상을 3번 정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성과급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6만 원, 24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은 거하고, 또한 2018년에 사유지 사방사업지 토지보상비 절감 관련해서 격려금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또 2017년도에도 늘푸른과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김상수 위원

무인비행장치는 어떤 내용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드론을 말하는 겁니다. 드론은 사실 전국에서 구 단위로는 최초로 산불예방 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용목적 외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단위의 행사에 동원되고, 직원이 산불예방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장기 병가를 내 버리고요. 타 부서 전출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 안 맞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드론 업무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산불업무가 10%면 90%가 타 과의 행사, 이렇게 되면 홍보팀에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다 넘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사유지 사방사업지 토지보상비 절감해서 격려금을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거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사방사업을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못 받으면 토지를 보상해서 사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제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서 토지보상비 없이 했다는 것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성과급을 지급받으셨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A라는 것을 만들면 100원이 드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B라는 것을 해서 10원이 들어서 90원만큼 돈이 절감되면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기획조정실 자료에 의하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늘푸른과에서만 예산 절감 성과급을 지급받았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거는 업무 담당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의 능력은 아닐까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직원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1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부산시 기관 표창을 받으셔서 축하도 드렸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이분들이 근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개월간 근무하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수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중앙에 산불감시 기동순찰원 26명...

○늘푸른과장 김성영

산불감시 기동순찰원은 매해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15일까지 사역하고요. 마지막에 사역을 15일까지 하다가 시에서 좀 중하다 싶으면 5월 30일까지 연장 사역도 하고 그럴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하지만 저희들이 산불방화선 구축 때문에 조금 당겨서 할 때도 있고 그럴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무환경조건은 어떻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복장 지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차원에서 보험도 다 가입하고 있고, 저희들은 잘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장산 대천공원이라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여건이 열악한 것 같아요. 초소 하나 정도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몇 시간 근무하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거기에서 계셔야 되는데, 초소 자체가 조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현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디를 가나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산림청에 준하는 것,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지만 항상 예산이 따르거든요.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어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士氣振作] 차원에서 한 번씩 회식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좌3동 웃음누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좌동의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에 잡혀있는 데가, 이게 2018년도에 끝난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이거를 2018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김상수 위원

‘구 자체 예산 부족’이라고 돼 있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미반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계획이 잡힌 데가 어디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견우공원, 오산공원, 두 군데 잡혀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견우공원이 화목아파트 옆에 거기를 말하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지금 아파트 명칭을 모르겠는데... 아마 직녀공원 맞은편인데...

○김상수 위원

맞아요, 화목아파트. 그러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구비로 합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닙니다. 견우공원 같은 경우에는 김광모 시의원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내려줘서 한 3억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산공원은 이주환 시의원이 자자보 6억 원을 줘서... 구비를 더 확보해서 하면 총사업비가 오산공원은 10억 원 정도, 견우공원은 4억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견우공원에 4억 원이면 김광모 시의원이 3억 원, 우리 구에서 1억 원, 전체적으로 5~6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4억 원밖에 안 드는 모양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공원 조성이라는 게 부지 기반을 정리하고 닦다 보면, 시설을 빼버리면 사업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은가, 낮은가의 차이가 때문에 5억 원이면 정말 좋겠지만 4억 원이면 4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상수 위원**

앞으로 공원을 한 번 조성하게 되면 15~20년 가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조성을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기반은 기반대로 가고요. 시설을 하나 놓을 자리를 빼놓고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되면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소 1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된다면, 1억 원을 가지고 공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광모 시의원이 3억 원을 지원 안 해 준다면 1억 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못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못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원 조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왕 하실 때 제대로 좀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견우공원을 조성할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이제는 한 번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1997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댔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조성을 해서, 왜냐하면 지역 시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아파트는 노후화가 돼 가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혹시 신시가지에 장기적인 공원 계획은 가진 게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장기 플랜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1997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해왔고요. 이거는 현 구청장 시절이 아니고 앞으로부터 쪽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지 않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두 군데의 예산을 올려놨고요.

○김상수 위원

두 군데가 어디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까 말씀드렸던 와우공원하고 오산공원이고요.

아, 잠시만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건우공원, 오산공원, 와우공원, 이 세 개를 리모델링하고요. 2020년에는 또 다른 공원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신시가지가 노후가 된 아파트인데,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빠짐없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달맞이길 목재데크 정비 사업’, 1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달맞이길에 다녀보니까 목재데크가 손상된 게 참 많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목재데크가, 이것도 건설과에서 10년 전에 송정까지 데크를 연차별로 해서 다 났는데, 이 부분의 스타트 부분이 미포 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를 쪽 보면 늘푸른과 예산만 전부 ‘구 자체 예산 부족’(예산부서 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늘푸른과만...

○늘푸른과장 김성영

...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곳발에서 밀린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보면 도로로 가는 거고, 복지가 우선이라고 보면 복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늘푸른과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노후도로 정비’라든지 ‘제초작업’, ‘잡초제거 요청’, 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초, 잡초에 대해서 원활하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이 달려서 그렇습니까? 공원이나 노후 도로나 산책로를 가보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성향이 많이 있던데,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우리 집행부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큰 대로변이 있고, 소로변이 있고, 보도에 있는 잡초도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아닌 데도 있고, 이게 1/3이 늘푸른과로 넘어와 있는데요. 16개 구군을 봤을 때, 보도에 있는 잡초도 우리 과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다가 풀이 있으면 좀 뽑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딱 쓰레기만 치웁니다. 그리고 화단에 있는 쓰레기도 안 치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화단에 있는 쓰레기도 우리가 치워야 되고요. 보도에 있는 풀도 우리가 치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과부하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다 해결되겠다, 그렇지? 왜 해결되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집 앞 잡초제거는 무조건...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 정도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큰 도로변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동순방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잡초가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단 저희 과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우리 구 행정이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큰 대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나마 좀 낫고요. 특히 달맞이, 저런 데는 제초작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떨어지는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져서 깨끗하게, 왜냐하면 모기라든지 기타 방역은 계속하고 있던데, 그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단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또 기후와 관련되거든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리면 정말 무성하게 자라고요. 비가 안 오면 또 자라는 게 멈추고, 이러거든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피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화단 및 녹지대 제초작업 : 연 5~6회’ 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6회 하는 거 못 봤는데, 장산공원에 올라가면서 풀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렇게밖에 안 하던데...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런데 같은 식구끼리도 하루에 몇 번 못 보시는데, 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

○**김상수 위원**

(웃음) 아니, 풀을 보면 알거든요. 제초해놓은 걸 보면 알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5번을 다했다고 확신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대로변이나 그렇게 하고요. 조금 뒤편에는 2~3회 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횡수는 5~6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을 가져서 인력도 많이 배치를 하고, 예산도 많이 따고, 그렇게 하셔야죠. 왜 자꾸 양보합니까? 자꾸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 진급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과를 많이 이루어내야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올릴 테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부 자체 내에서 깎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주시면 진짜 풀 없는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청장님이 동마다 다니면서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그거입니다. 제초, 풀... 그런데에는 예산 팍팍 올리십시오. 청장님이 밀어주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제초작업을 할 때 제가 몇 번 본 적도 있고, 민원도 몇 번 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제초작업을 하실 때 보면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력들이 천막 같은 것을 들고 작업을 하는 것은 하는데 진입로 쪽이라든지, 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면 제초작업을 한다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입로에 갑자기 들어오면 제초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송정터널 입구에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브를 트는 곳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제초작업을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한 거 같아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 소홀이거나...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거는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를 보면 ‘송정에서 좌동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보도 설치’라고 돼 있는데, 좌동 주민이나 송정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좌동에서 송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아마 앞전, 그 앞전, 그 앞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전부의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송정에서 좌동까지 옛날의 애항길 찾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 부분이 송정터널 위쪽으로부터 해서 와우산 쪽으로 한 다음에 송정으로 넘어가는 길,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상수 위원

예.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에다가 저희들이 과업에 넣어서 옛길 복원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니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일단 용역보고가 12월에 중간보고가 있고요. 내년에 최종보고가 있거든요. 일단 용역보고를 보고, 그거는 위원님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상수 위원

혹시 과장님, 소각로 뒷길에 산책로 편백나무 사이로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가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정말 아름답죠? 멋지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아름답습니다.

○김상수 위원

빨리 준비돼야 되겠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챙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신시가지 주민들이 봄만 되면 가장 애로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흰불나방, 그걸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전 산책로, 아파트마다 흰불나방 때문에, 가장 골칫덩어리가 그건데,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매년 흰불나방 때문에 벚꽃나무 잎을 다 갉아먹고 문제가 심각하던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와서 두 번이나 더 줄었거든요. 올해는 58%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흰불나방이 없었던 것으로 위원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무분별로 방재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있으면 권역별로 9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쪽 권역을 칠 때는 아파트도 같이 하자, 그래야지 이 벌레들이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58%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잘한 아파트, 삼성래미안 아파트인가 그분들은 잘했다고 상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더라고요. 수간주사, 그런 수간주사도 내년에 꾸준히 하고요. 아파트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파트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산책로만 하고 아파트는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아름다운 벚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다릿돌전망대 일원 무단경작지 정비’라고 해서 왕벚나무 100주를 심었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거기만 심은 게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도 보면 다른 데도 150주, 50주, 다 심었거든요. 그렇지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심었는데, 다릿돌전망대에만 이 나무 100주가 다 죽었습니까? 다른 데 50주, 50주는 어떨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제가 실태조사를 100%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6개월마다 하자 조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도 다릿돌전망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이거든요.

○김상수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때 옹기골, 관음정사 주변, 이렇게 해서 왕벚나무를 심은 게 있네요. 같이 다 심었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이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다 죽었습니까? 현황이 어떨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마다 조사하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시점은 어떨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산속이라서 관찰고요. 다릿돌전망대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옆에 있는 경작자가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말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공원 화장실 관련되어서 너무 불결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늘푸른과에서 정말.... 19개 공원 화장실이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9개의 화장실에 청소를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얻었고요. ‘이제는 우리 구청 늘푸른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평도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정리 정돈도 잘됐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정기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계속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19개의 화장실 중에 안심벨은 100% 다 설치됐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올해 100% 다 설치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 다 완료됐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늘푸른과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이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늘푸른과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으면 대안책을 세워서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마지막으로 계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거수)

아,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상수 위원

30초만...

○위원장 조영진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연번 7번을 보면 ‘우동 산84-1번지 일원(해운정사 뒤) 체육시설의 산책로와 진입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옆에 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로 구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혹시 어느 학교의 소유이죠? 혹시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소유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부러진 거 보수 좀 하고,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나름 취하기는 취하셨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일단 부서진 것은 정비를 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 70명이 지난 9월에, 이게 지금 7월에 접수된 거잖아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지난 9월에 주민 70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사진이랑 다 첨부를 해서 보냈는데요. 사진에는 산책로는 여전히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진입로의 철문도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그 어떤 것도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진정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깐, 저도 그 안에 죄송하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진입하는 구간에 오르막이나 그런 데에도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이 부분이 장지공원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돼 있고...

○**문현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정사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정문 쪽에 유치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운정사와 싸우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부산시, 해운대구에다가 수십 번의 민원을 넣고, 그런데 거기에 몇 인이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연락을 해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넣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뒤에다가 붙여놓는데 진정성이 있는지도 저는 과연 의심이 되고요.

○**문현신 위원**

아, 그 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쭙볼게요. 그 뒤에 덧붙여진 서명을 받은 그분들이, 본인들은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진정성이 있는지, 처음에는 이게 맞는데, 계속 넣을 때는 자꾸 바뀌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민원입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받았거든요.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문현신 위원 자료 확인)

○**늘푸른과장 김성영**

계속 사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분들이 한 번은 동의를 해줬는데, 그거를 계속 이용을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문현신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서명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냥 흔히 길거리에서 가볍게 받는 주소의 첫, 무슨 동까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과장님도 확인 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체육시설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문현신 위원**

주민들의, 일상 속의 지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내 시설이 불법이라서... 동의를 해 주면, 또 묵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문현신 위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수 위원**

30초만요.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님은 겁니까?

○**박기훈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그러면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기획위 1차 추경 때 늘푸른과에서 차량이 3대가 올라와서 3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9대가 있고, 2018년도에도 9대인데, 이게 폐차하려고 3대가 늘어난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금 3대는 순증이 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럴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14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도 매스컴에 ‘해운대구 흰불나방 조기 박멸 나선다.’고 나왔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에 20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가격은 얼마입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흰불나방 방제하는 차량 말입니까?

○**박기훈 위원**

예. 지금 거기에는 차량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방제작업이 수관조사가 있고요. 화학방제, 뿌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가 있고요. 종류가 3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는 것은 산불방지 차량 2.5t이 있습니다. 이게 방제작

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서에는 보면 흰불나방 제거 차량 임대료라고 해서 1,000만 원에 20회로 있으면 한 번 qif리는 데 50만 원꼴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박기훈 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흰불나방 제거하는 거 이게 차를 임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아닙니다. 우리 차로 직접 합니다.

○박기훈 위원

우리 차로 직접 하는 겁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20회를 하는데, 지금 재송·반여도 흰불나방 때문에 많이 걱정인데, 아까 좌동에는 80% 해 주고, 재송·반여에는 20%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5:5로 해 주시든가 해야지...

○늘푸른과장 김성영

발생하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재송동에도 해운대구에 있는 장산인데 그쪽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80% 해 주고, 여기에는 20% 해 준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산을 관리할 때는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은 곳은 그렇게 가고, 민원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조금... 늘푸른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구정 같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5:5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박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예, 과장님! 시간 관계상... 해운대 전역에 보면 오페라 관련된 거, 기타 공사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늘푸른과하고 협의 없이 가로수를... 작업을 할 때 이식을 하고 절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일부는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도 있고요. 협의가 들어왔는데 담당자가 가지를 못해서, ‘잘하겠지’ 했는데 그거를 훼손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협의 없이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천공원에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공사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진입로 입구에 보면 전봇대 선이 짝 깔린 거 아시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김상수 위원

그거 혹시 매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면서 위에 전봇대가,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지중 매설할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주위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공원을 만들면서도 전선하고 이게 가로등이 쪽 나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그럴텐데, 우리 해운대구청에도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하는데, 심지어 장산인데 이번에 공사할 때 입구에 지중 매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그 매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반송근린공원에, 특공대까지 올라가는 그 전선을 지중화하려고 했는데, 그 부담금이 50:50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내는 포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쪽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50:50으

로 하다 보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설βολ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늘푸른과장 김성영

저도 지중화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도 찬성을 하시면 밀어봐 주십시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십시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산을 한번 뽑아보고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늘푸른과에서는 오후 2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원래 제 계획이 오후까지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더 질의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 30초가 몇 분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원영숙 위원

아니, 3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재 주세요.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세요.

○원영숙 위원

과장님, 마린시티에 기부채납된 공원이 지금 특정 아파트만 이용하고 있죠? 그 부지가 총 1만 518㎡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이게 3,182평이고요. 이곳 딱 한 평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 무시하게 비싸겠죠?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지금 5,500평 부지에도 77층 콘도 3개 동이 들어선다는 계획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있었는데... 이 쌈지공원이 바로 그 부지 앞에 있거든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5년이 넘고 해서 공원도 엉망이고, 그럴기 때문에 3,182평 부지의 가격을 생각하고 또 마린시티에 쌈지공원이 엄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이 공유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이 마린시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고민은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안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담당 부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늘푸른과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있는 그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조영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상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 두 분이 개인 수상을 하셨던데요? 김경진 계장님하고 황민지 직원분하고 기관표창까지 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상임위원들이 보실 때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의 업무 자체가 표가 안 나요. 전부 산 위주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산 등산로 중 반여~재송 구간은 가로등이 미설치되어서 야간산행 시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간 등산객 현황을 조사하신 후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악수터가 살균기 고장으로 부적합 시설이 있었다는 박기훈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살균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조하셔서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반여, 반송, 재송 간 등산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아까 5.5km에서 1km를 하고 4.5km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안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임도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 지원하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 중에 해운대관광고등학교에 조성하는 데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마 명상숲으로 완성되면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에 안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녹지시설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자료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시설에 즉각 조치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 조성 공사 구간에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된 대단지 아파트 내 공원이 아파트 주민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원의 명칭 변경도 검토해 주시고, 관내 모든 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간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좌동 신시가지가 노후가 돼가는 관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김상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안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정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좌동~송정 구간 옛길 복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겨져 있으니 오늘 감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늘푸른과의 행정에도 안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특구공원팀장 이효정

해수욕장시설팀장 한신영

그러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 올여름 고생 많으셨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올여름 해수욕장에 제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적은 인력으로, 16명이라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 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수영강변을 관리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토존 설치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문자형 포토 포인트를 설치한 것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언제 설치하셨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치하고 난 후에 평가가 어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SNS상에 포토 포인트가 활발하게 사진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해운대해수욕장에 여러 번 나가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나가봤는데, 문자 포토 포인트를 설치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안일하게 그냥 해운대라는 글구 하나가 SNS라든가 어디든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해운대를 갔다 온 사람은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일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또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는 명색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송정해수욕장에는 그런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예산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조금 더 나은 포토 포인트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혹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안은 아직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설계를 쥐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송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포토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보니까... 혹시 광안리해수욕장을 가보셨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광안리해수욕장에 가면 파라솔이라고 해야 되나? 벚짚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도 전에 보니까 장산 억새파라솔이라고 해서 6개를 바닷가에 설치한다고 그 때 나온 적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가보면 그게 인기가 참 좋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광안리해수욕장에는 젊은 층도 그렇고, 그 밑에서 휴식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차단이 되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장산 억새파라솔이 설치된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해운대 바다를 그냥 맛있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국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원래 올해 예산을 2,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조금 이국적인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건의하고, 장산 억새파라솔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정 시설물 설치하는 조금 자제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포토 포인트 같은 그런 경우가 엄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해수욕장하고 조금 달리 그런 부분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인근 해수욕장과 비교해서 뭐한데, 광안리해수욕장에 가보면 매년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느낌, 자꾸 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늘 볼 수가 있거든요. 광안리해수욕장의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롭게 아주 단장도 잘되고, 뭔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항상 그대로예요. 변화도 없고, 화장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다들 아시다시피 명성은 해운대해수욕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의 고급화, 또 관광 콘텐츠 이런 부분이 가미가 좀 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꿈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오히려 해운대해수욕장을 망친다는 그런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설불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동백섬과 관련해서 예산 4억 원이 확보되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와중에 보니까 우리 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시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동백섬 전체 정비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늦어져야 하는지, 또 추진 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얼마 전에 했더니 동백섬에 가면 동백꽃도 없고,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안내 간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이 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일단 감사합니다. 시비 2억 원을 확보했고요. 매칭비로 우리 구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총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동백섬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반갑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동백을 좀 식재할 생각이구요.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조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전체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대 있는 부분의 계단이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어두워서 가로등하고 계단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위의 팔각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참에 제대로 된 팔각정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를 가든 어떤 꽃이든 간에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동백섬에도 정말 이름에 걸맞게 동백꽃이 피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달맞이길,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달맞이길에 이번에 보니까 가지치기에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가지치기가 되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청사포 공원, 달맞이해월정이 있는 부분에 우리 국공유지, 우리 재산인 부분부터 먼저 가지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2020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되면서 매입이 된다면 그때 전반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달맞이길에 갔을 때 시야가 전혀 안 보여서...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가꾸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팔각정이 달맞이 팔각정도 있고, 청사포 내려가는 좌측에도 팔각정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팔각정에 올라가 보면 팔각정에서도 다 가려서 시야가 안 보여요. 팔각정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팔각정이라는 것은 언덕에 올라왔을 때 전망대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팔각정 높이가 낮으면 시설을 높이든가, 안 그러면 가지치기를 좀 하든가 하셔야 하는데, 시야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팔각정이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팔각정을 다 만들었을 때는 아마 전망이 좋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토 포인트가 되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 손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수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 참에 앞에 전망이 트여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소장님, 관광안내소 운영 건.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 해운대에 있고, 송정에 있고, 다릿돌전당대에 있고 현재 네 군데에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네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운영되는 데는 네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내원이 조금 부족해서... 시기적으로 관광객이 조금 적은 부분, 예를 들면 달맞이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격차로 운영한다든지,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엇그저께 달맞이길에 가보니까 관광안내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직원이 없어요.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간판이 한쪽으로 이렇게 벽면에 치우쳐서 조그마하게 목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관광안내소가 아니고 빵집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 자리의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월 1,000명 정도 오는데 조금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은 특산품 이런 부분이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을 것 같아서 거기의 일부를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했고요. 관광안내소는 그 옆에 자리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광안내소의 인력도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 정도의 기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저께 달맞이빵도 사오고 했지만, 우리 해운대가 명색이 관광특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빵을 보니까 전시된 것도 그렇고, 가지 수도 세 가지밖에 없고, 쇼케이스에도 보면 빵이 2개, 3개, 5개 이렇게 몇 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달맞이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맞이길을 찾아왔을 때 경계선이라든가 기타 관광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상주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상주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 상권에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달맞이빵을 사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 왜 저기에 달맞이빵이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관광안내소가 붙고, 빵이 붙어야 하는데...’ 안에도 들어가 보면 관광안내소는 우리 책상 하나만큼 있고, 전부 빵집이에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은 의아해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관광안내소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간판도 제대로 없고 빵집 간판만 커다랗게 붙어 있고, 관광안내소는 자투리에 붙어 있고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현재 해운대빵사랑협동조합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총 매출액이 연간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혀 안 사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1,000명 정도 오는 그 수요 가지고는 관광안내소가 그 정도면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간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저희들이...

○김상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희들이 그쪽에 임시로 없앤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송정관광안내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송정관광안내소에 혼자 근무를 시키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부득이 하게 어느 한 곳을 비우게 되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안내원을 더 확보해서 근무를 시킬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대로 빵집 연간 매출이 3,6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한 달에 300만 원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팝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파는데, 빵 한 개가 얼마나 하면 하나에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빵을 8개밖에 안 판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데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그쪽에 이익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빵을 사 먹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방문객을 늘리는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달맞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달맞이빵이라고 하는 것을 사 먹은 사람이 홍보를 한다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송정해수욕장에 모래 유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모래 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구비로 6,000만 원을 예산 편성에 올려놓았고요. 이런 말씀은 드려서 뭐 하지만 윤준호 국회의원께서 국회 해양수산위원입니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도 김광모 의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김광모 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송정 죽도공원에 체육 시설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처음으로 올해 죽도공원에 체육기구도 설치했고, 낡은 것은 교체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 공원에 너무 많은 산별적인 그런 설치를 하는 것보다 서두에 성과보고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을 그려서 죽도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인 명소 해운대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고생을 많

이 하시고 계신데, 특히 올해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자주 나가서 보니까 우리 계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바닷가 파라솔 대여하는 사람들 호객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구나.’라고 느꼈고, 또한 송정해수욕장에는 우리 팀장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면서 허리까지 다쳐가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잘하시는 구나.’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해 주고...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포상휴가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한 점은 잘한 대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해수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상 해수욕객이 22만 6,000명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차별화된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차별화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해수욕장의 차별화는 저는 결국은 관광 콘텐츠에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토 포인트를 한 개 설치함으로 해서 밋밋했던 해수욕장이...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차별화는 결국 관광 콘텐츠에 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도입하는 자체가 차별화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포토 포인트를 설치한 것은 아주 잘한 부분이에요. 아까 칭찬하셨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시설물 설치의 앞으로 최소화시켜 가겠다는 게 청장님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문화 콘텐츠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야간달빛수영하고 연계했던 특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년에는 해운대비치시네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해서 문화 프리즘을 넓혀나가는 게 차별화시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일단 해운대비치시네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백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산 4억 원을 투자해서...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해서 준비를 하시고,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설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차후에 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부분에 대해서, 달맞이해월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안내원을 더 모집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관광 콘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송정해수욕장에 며칠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안내원을 그쪽에 둘씩 세우다 보니까 거기가 비어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달맞이하고 청사포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안내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내원을 한두 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계속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안이 있으시게 되면 미리 상의해 주시면 또 상임위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덕분에 청사포다릿돌전망대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해운대 바다가 아닌 수영강을 기준점으로 하는 리버크루즈가 내년 말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닌 수영강도 문화 콘텐츠 개발에 중심을 두어서 많은 관광객이 바다가 아닌 수영강으로... 재송, 반여, 반송이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하얀색입니다. 다른과는 모르겠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이래도 되는지 나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6페이지

이지를 보면요. 작년도에는 13개가 있지만, 4번의 벤치마킹을 했고, 올해는 3번의... 울산 태화강, 일본, 해외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해서 3번의 벤치마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얀색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갔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쪽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해외여행을 가는 게 적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왜 이런 서류를 작성을 안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관외 출장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간 것이고요.

○박기훈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올해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할 때 ‘1~3월까지의 시간적인 여유가 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준비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외 출장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을 가는 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다음에 또 한 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해 못 간 이유가 ‘꽃의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갔던 겁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지역민한테 민원 사항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바닷가 사업입니다.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지역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서류입니다. 자기들이 통장을 받은 내역, 복사본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통장사본까지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해운대 바닷가 사업을 투명하게 하라는데, 어떻습니까? 투명하지 못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

○박기훈 위원

답변하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계산기를 하나 샀어요. 30개 단체 중에 금액이 딱 맞는 게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첫 번째, 343페이지를 보면 단체원 일당이라고 해서 15만 원 곱하기 40일 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계산해도 600만 원인데, 450만 원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파라솔 수입이 3,500만 원, 튜브 수입이 3,500만 원... 35 더하기 35는 70이 나오지요? 346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런데 수입 합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 됐나, 한참을 계산해도... 이것을 계산하면 9,2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해병전우회의 순수입을 보면 총 수입이 7,500만 원이고, 총 지출이 7,500만 원이면 이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9,247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입은 6,3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근의 공식인지, 알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봐도 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서 금액을 다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단체 중에 맞는 금액이, 틀린 게 태반이지만 그나마 맞는 게 딱 10개예요.

360페이지를 보면 송정동 새마을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맞고, 밑에다가 참고표를 해서 ‘잔여수익금 2018년도 사업계획안 대로 집행’이라고 해놓아서 이 단체가 조금 잘한 것 같고, 일단 금액이 맞는 것은 딱 10개입니다. 금액적으로 맞는 게... 또한 그 10개 중에 5개는요. 수입이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스마트비치에 들어온 금액하고... 그 금액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을 소장님, 안 봤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못 봤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것을 못 봤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이것을 안 보고 그냥 올립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런 수치까지는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는데, 단체별로 올리는 이것을 갖다가 검토해 보는 주무관이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우리 실무진에서 스마트비치에 금액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 상으로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하고, 파라솔 단체에서 결산서를 내는 것하고 이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일일이 맞춰보지 못하고 작성한 것 같거든요.

○박기훈 위원

안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단체별로 금액은 틀리다... 수입이고 지출이고 다 필요 없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래도 금액은 맞춰오는 게 예의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단체별로 어차피 수입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입 플러스 지출에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감독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또한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세 개 단체인데, 한 군데 단체가 어디냐 하면 장애인협회에 보면 단체원들 인건비에 92일... 이게 왜 92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석 달인데, 다른 데는 다 두 달인데, 이 단체만 석 달을 했더라고요. 단체원 임금을 보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이런 임금을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34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게 금액을 정하고 역순이지요? 줄 금액을 정해 놓고 단체원 임금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일당이 29만 3,478원이 나와요. 이것은 눈으로 봐도... 소장님,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말입니다. 여기 단체원들이, 장애인협회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한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2,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적자가 3,600만 원이 나왔어요. 단체원들한테 2,700만 원, 아르바이트에 2,000만 원이 나가서 적자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으면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단체는 장사를... 안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데, 3,60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수입 합계가 5,028만 1,000원이 나왔는데, 스마트비치에 임금된 것은 얼마라고 저한테 제보가 왔느냐 하면 3,696만 8,012원이 들어왔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적자가 났는데도 이만큼 수입이 된 것이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단체원들이 완전 무급이에요. 완전 무급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에 1,542만 원을 지급하고, 스마트비치로 돈을 받은 게 3,268만 4,661원이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단체도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처럼 계산한다면 여기에 26개 단체들은 다 적자예요. 흑자 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소장님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자가 난 부분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흑자가 난 곳만, 무급인 단체원들을 불러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단체를 좀 해주고, 만연 적자만 내는 단체를 계속하게 해 주면... 맨날 우리는 적자만 난다고 안 하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도대체 이런 부분이 왜 생겼을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재작성해서... 지금 회계 담당자를 다 불러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챙기도록 하고요. 다시 불러서 결산서를 보고, 만약에 어떤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반드시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심사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선정 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6년 때는 탈의장 운영, 파라솔... 제목이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배분 규정 및 현황’이라고 선정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전 18개 동으로 분포되어 있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더라고요. 선정 기준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줘야 하고요. 그 심사표를 보시면 이 부분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봤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심사표를 강화하면서 계속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금액이 틀리고, 서류에 글자가 잘못... 제가 볼 때는 글자가 잘못 기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시 단체를 불러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고요. 제가 이것을 본 이후에 저도 가만히 봐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를 불러놓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어느 회계 담당자 말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각 단체의 회계...

○박기훈 위원

각 단체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각 단체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놓았고요.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받고, 그것이 또 불비된다면 심사표를 바꾸어서라도 내년에 단체를 배제시켜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소장님이 이것을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든지, 안 그러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아예 안 봤다면 의지력 부족이고, 단체원들이 그냥 받아서 그냥 올렸다는 것은 소장님의 의지력이 강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해운대 바다가 푸른 바다가 아니고, 하얀색으로 변해서 청렴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고, 이런 제보가 저한테 안 오는 그런 해운대 바닷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회계 담당자를 불러놓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소장님이 칼을 뺐으면 그 칼로 무를 썰든지, 그냥 허공에 칼을 흔들지 마시고 꼭 하나를 썰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영숙 위원

받아야지요.

○위원장 조영진

소장님, 직원분들하고 밖으로 잠깐 좀 나가주세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정입니다마는 첫째로 지금 회계가 안 맞습니다.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계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일단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를 보고 많은 것을 바꿔가야 되는 과제들이 많다고 느끼면서 내년에는 더 나은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조금 전에 상임위원님들하고 전체 협의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현재 소장님, 내일까지 회계자료 부분이 불충분이 된 부분은 완비가 가능하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

○위원장 조영진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자료를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회계에,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개의 업체 중에서 20개의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해 주셔서, 내일 동주민센터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세무 1·2과죠? 그거를 마치는 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사업소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요. 이게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건은 별도로, 저희들도 회계담당자를 불러냈으니까 맞춰서, 다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일치로 협의가 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까지 서류 구비를 최대한 협조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세무1·2과가 마치는 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세무1·2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대로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동, 행정지원과,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늘 푸 른 과 장 김 성 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인 철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
속		기	사	이	동	수



【 감사 제6일차 2018. 11. 28. (수) 】

아. 동

1) 증인선서

○위원장 조영진

(10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우1동장 장현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 11. 28.

우1동장 장현규

우	1	동	장	장 현 규
우	2	동	장	이 두 영
우	3	동	장	장 재 균
중	1	동	장	윤 영 숙
중	2	동	장	문 병 국
좌	1	동	장	강 양 원
좌	2	동	장	전 미 경
좌	3	동	장	이 근 용
좌	4	동	장	조 권 선
송	정	동	장	김 용 환
반	여 1	동	장	강 경 옥
반	여 2	동	장	김 명 룡

반 여 4 동 장 이 은 호

반 송 1 동 장 김 용 민

반 송 2 동 장 김 성 동

재 송 1 동 장 김 상 욱

재 송 2 동 장 손 정 식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위원장 조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우1동부터 동 건제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행정관리국장 이창현입니다.

2018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1 동 장 장 현 규

우 2 동 장 이 두 영

우 3 동 장 장 재 균

중 1 동 장 윤 영 숙

중 2 동 장 문 병 국

좌 1 동 장 강 양 원

좌 2 동 장 전 미 경

좌 3 동 장 이 근 용

좌 4 동 장 조 권 선

송 정 동 장 김 용 환

반 여 1 동 장 강 경 욱

반 여 2 동 장 김 명 룡

반 여 4 동 장 이 은 호

반 송 1 동 장 김 용 민

반 송 2 동 장 김 성 동

재 송 1 동 장 김 상 욱

재 송 2 동 장 손 정 식

차동명 반여3동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진우 맞춤형복지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해당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께서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각 동의 동장님을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우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예.

**○정순세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될 시에는 입회비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입회비라는 게 있습니까?

**○우1동장 장현규**

아직까지도 입회를 하게 되면 입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입회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그거는 아마 각 동의 실정에 따라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려면 전부 입회비를 납부해야 됩니까?

**○우1동장 장현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기금 조성 목적으로 입회비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해촉될 시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1동장 장현규**

이 입회비는 동 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아니, 입회비가... 모임, 계의 성격 같은 경우는 입회비라든지... N분의 1로 해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하는데,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입회비가 있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처음에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 입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내면 그거를 동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서 동 단체의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조례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바뀔다고 하면 기금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1동장 장현규

구 조례에서 그런 규정을 못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세척을,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3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1동장 장현규

이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척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세척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가능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입회비가 다른 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만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리고 좌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1동의 주민자치위원 운영세칙에 보면 혹시 위원장의 임기가 있습니까?

○좌1동장 강양원

구 조례에는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예. 구 조례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보통 임기 1년에 두 번 연임을 해서 3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1동장 강양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입이 안 된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좌1동장 강양원

상위법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세칙에는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순세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한 번 연임이나, 두 번 연임이나, 해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꼭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1동장 강양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던데, 각 동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각 동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동 행정이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를 위해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동의 한 주민으로서 동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이나 동장님이나 함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몇 개의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동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해당 동의 관할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조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마다 주민자치 운영세칙을 보게 되면 전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그 동의 성격과 형평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틀조차도 삼입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이 운영세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 준해서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 동의 주민자치 운영세칙을 검토하셔서 상위법의 근접치에 안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수강하시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50% 미만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수강생이 2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70명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모집에 어떤 동은 보니까 ‘프로그램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 미달 시 폐강할 수 있다.’고 명기된 동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상위법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는 폐강하는’,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0%도 아니고 40%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미달 시에는 폐강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째 계속해오는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각 동별로 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18개 동의 프로그램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미달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당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위탁관리 수수료가 주간제 및

야간제의 경우 수익금의 65%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규 제178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를 우리가 동에 지급하면 이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 위탁수수료 관리에 보면 위탁관리 수수료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 주차장 시설 유지비, 동 단위 공익사업비, 여기에 80%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분기별 전체 위탁수수료 20%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역서를 보게 되면 동 자체 경비로 20% 이내를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버(over)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규칙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맞추어서 20%의 범위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하신 말씀은 전 동을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예,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 동장님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동장님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진급을 축하드리고 반송2동의 김성동 동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역구가 재송동이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재송동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송1동의 김상욱 동장님, 저는 재송동의 가장 자랑인 재송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재송주가 한 번씩 동 행사를 하면 그냥 무료로 먹더라고요. 시음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매 개척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송1동장 김상욱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동 단위에서 하기에는 까다롭고요. 우리 동의 평생학습축제나 송년의 밤 행사 때 즐겁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내 웃음)

그거를 많이 알리려고 하면 해운대구의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때 시음을 해서 재송주를 널리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재송1동장 김상욱

주민자치박람회 때 각동에 다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우리 해운대구의 재송주를 말하니까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동 주민들은 다 아는데 다른 데는... (웃음)

○박기훈 위원

그렇죠? 많이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송1동장 김상욱

예.

○박기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사 수선에 예산을 9,100만 원 올렸는데...

○위원장 조영진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기훈 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이게 헬스클럽이죠?

○재송1동장 김상욱

이거는 동사 1층 샤워실 수리하고 전기공사, 그 건인 것 같은데요. 샤워실 수리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샤워실이 너무 작던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올립니까?

○재송1동장 김상욱

예,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손정식 동장님!

○재송2동장 손정식

예, 재송2동장 손정식입니다.

○박기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언제나 재송2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재송2동장 손정식

예,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이번에 차량이 너무 좋아서 차량 수리비가 없더라고요. 차량 수리비가 없는 동이 딱 3개 동이 있는데, 차량수리를 잘해서 그렇죠?

○재송2동장 손정식

일단 저희동에 보유하고 있는 3대의 차량이 지난해에 구입하고 올해 구입하고 해서, 전부 새차들이 돼서 아직 고장이 없었습니다.

○박기훈 위원

수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재송2동장 손정식

사용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박기훈 위원

예, 그렇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재송동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이렇게 18개 동의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괜히 좀 벅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토요일에 옛 해운대역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1동장님!

○우1동장 장현규

예.

○문현신 위원

특별히 반갑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아, 예.

(장내 웃음)

○문현신 위원

마지막 행감이시네요?

○우1동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위원님께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웃음)

이번에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4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 사업’을 시행했죠?

○우1동장 장현규

예.

○문현신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사업을 접했는데요. 사실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1,000만 원이라는 재원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과정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1동장 장현규

우1동 204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은 작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올해 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자금 집행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2월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과정을 거쳐서 3월에 부산대학교 HR개발협력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구청에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동의 자체 발전 기금 500만 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으로 부산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9월 말에 완료를 했어요.

동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이런 것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동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은 아마 전국 면·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자체 마을 비전과 목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성과로는 이때까지 동을 운영하는 게 대부분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또 동장이 운영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마을에, 꿈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함으로써 동 주민단체 활동이나 운영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름대로 동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동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지역공동체가 지향하는 장기적 비전 정립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과적인 성패 여부를 떠나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1동장 장현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런데 동장님, 그 용역 결과가 우1동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접목이 될 것 같습니까?

○우1동장 장현규

비전은 아마 ‘새로움이 뽐뽐하는 앙트십 타운’으로 하고,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은 잘 쓰는 말 그

게 몇 가지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동백섬 마리나항만 조성,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앙트십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간비오산 일대 관광 인프라 조성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구나, 시나, 정부에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구의회나 시의회,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이 돼야 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 자체만으로도 이미 제몫을 충분히 해낸 것 같기는 하지만 동장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도 간비오산 등 우리 주민들의 설계가 내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많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예,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센터가 우리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주셔야 되고요.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 장현규 동장님과 직원들이 그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1동장 장현규

예,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 위원님! 우1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현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우리 18개 동 동장님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우리 우1동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애정을 담아드리고, 다음번에 18개 동 동장님 여러분께 모두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행감을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네요. 어느 자리보다도 뜻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각 동의 동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우1동이 선임 동이라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서예’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운영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데 ‘96회’ 해놨더라고요? 수요일마다 따져보니까 52회밖에 안 되는데...

○우1동장 장현규

그거는 주 1시간을 1회로 봐서, 2시간 아십니까? 2시간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장성철 위원

(웃음)

○우1동장 장현규

보통 1시간 단위로 운영하거든요. 연속으로...

○장성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시간입니까?

○우1동장 장현규

예.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으로 해서, 1시간을 1회로 해서...

○장성철 위원

1시간은 1회이고, 2시간은 2회네요?

○우1동장 장현규

예,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웃음)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 참. (웃음)

제가 그거는 또 몰랐네요. 그냥 1회로 생각했더니...

○우1동장 장현규

보통 1시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2시간 연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장성철 위원

예. 장현규 동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정말 물론 잘하는 동도 있으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게 임의적으로, 물론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각동에서 보시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다시 한 번 보셔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42페이지에 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장현규 사또님부터 해서 이두영 동장님으로 해서 꼭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1동장 장현규

각 동의 공통사항일 텐데 가장 주민들과 밀접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민원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구청의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에 없는데, 잘 되는 것은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지만,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의 공통사항이 되겠지만 골목길의 포장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 구청의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구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동의서를 받기가... 포장을 해도 되느냐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CCTV 무단투기나, 방범 CCTV나 이런 각종 민원이 왔을 때 설치가 되면 괜찮은데, 구청에서도 예산 문제라든지 현장을 봤을 때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1동장 장현규

예.

○장성철 위원

그런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1동장 장현규

(웃음)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두영 동장님.

○우2동장 이두영

예, 감사 자료에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76페이지에 있는 민원발급 건수가 18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데, 직원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도 일단 주민 수를 비례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2동장 이두영

예. 그런데 민원발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대에 한 명 정도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철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2동장 이두영

예.

○장성철 위원

동장님,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이 기회 아니면 말씀할...

○우3동장 장재균

반갑습니다. 우3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방금 우2동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제 작년엔 직원 1인당 민원발급

건수를 보면 우2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3동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2동이나 우3동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민원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은 더 이상 보충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사실 업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문제이고, 동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청의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여권과라든지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라든지 다른 동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2동도 그렇고 우3동도 같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증원의 필요성을 구청 관련 부서에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서류 한 장 떼러 와서 오래 기다리는 것 자체도 불친절입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우3동장 장재균

물론 직원이 부족하지만 직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방문 민원인들이 조금 더 빨리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화장실은 제대로 갖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요청할 생각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위치적으로 아무래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등본이나 초본이나 아무데나 가서 차를 편한 데 대고 떼다 보면 위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ATM 기계가 없습니까?

○우3동장 장재균

거기에 기계가 있어도, 저희들도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원24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등초본을 다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위원

예.

○우3동장 장재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특히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우1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1동주민센터에 주차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 동으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우1동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은 과부하가 팍팍 걸리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우1동주민센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요 사실 맞습니다. 일단 수고 많았습니다.

○중1동장 윤영숙

중1동장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부서에 온 지) 2주도 안 됐습니다마는 동 현황을 쪽 보니까, 물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사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 사실 몰랐습니다. 가옥대장을 떼 봤습니다. 옛날에는 가옥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돼 있지만... 1936년도 일제강점기 때 여관 건물로 지어졌더라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82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이러니컬(ironical) 하게 너무 단단하게 지어져서 안전진단을 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짓는 건물은 거의 약자를 위해서 다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동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물론 몇 년마다 하는 업무이지만 선거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2, 3층까지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에는 새마을단체도 들어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고, 어찌됐든 구의 입장에서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듣고 계시다면...

(장내 웃음)

저희 동이 빨리 깨끗하고 편리한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중1동, 여기에는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었는데, 이것은 너무 야물게 지어서 박물관으로 사용할 겁니다.

(장내 웃음)

그 뒤에, 중2동 문병국 동장님!

○박기훈 위원

전부 다 하려고?

○장성철 위원

전부 한마디씩 다 해야지.

○박기훈 위원

(웃음)

○장성철 위원

이 앞에 계신 분만 하면 되나? 반여2동도 들어보고, 반송도 다 들어보고, 계속하면 되지. 12시까지 하면 되는데... 계속해보십시오.

○김상수 위원

짧게 이야기합시다.

○장성철 위원

그래도 애로사항을 이럴 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도 알지,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중2동장 문병국

위원님께서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중2동은 동주민센터의 위치가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없이는 동주민센터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점심시간에는 식당 주변에서 주차단속을 안 하고 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가끔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한테는 주차단속을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성철 위원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끊습니다.

○중2동장 문병국

그때는 안 끊는데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심지어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주민들한테도 자주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중2동의 주차장에는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중2동장 문병국

16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16대면 많이 대는데...

위원장님, 좀 끊을까요?

○위원장 조영진

진행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아니 나는 한마디씩만 다 듣고 싶어서, 저쪽에 반송2동까지 가고 싶은데... 중간에 끊으라고 해서 미안한데...

○좌1동장 강양원

좌1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문제점은 NC백화점 옆에 보면 조그마한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NC백화점 주위가 거의 상업빌딩이 많은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인부들을 돌리긴 돌리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인원들도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 인력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 단속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거는 청장님이 잘하십니다.

(장내 웃음)

담배꽂초 줍기하고 풀 뽑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식이 강화될 겁니다.

○좌2동장 전미경

좌2동장 전미경입니다. 저희 동사는 2003년도에 지어져서, 문화센터가 새로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원래 동사 지하 1층에 습기가 많이 차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계속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물하고 탁구 프로그램을 하는데 습기가 배어나온다든지 냄새가 너무 나서 대형 제습기 두 대를 돌려도 안 되고, 지하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복도 쪽으로 비가 계속 올 때는 비가 새어나와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8,000만 원 올려놨는데, 중1동주민센터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비가 새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그런 것은 정말 올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좌2동장 전미경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동에서 올리는 것은 절대 안 깎습니다.

○좌3동장 이근용

감사합니다. 좌3동장 이근용입니다.

우리 동도 건물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 스피커, 앰프,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4동장 조권선

연일 수고 많습니다. 좌4동장 조권선입니다.

저는 우리 동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8개 동장님들, 사무장님들하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서울의 성동구하고 도봉구 방학3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행정지원과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의 입장에서 한 세 가지가 역시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우2동장하고 우3동장이 이야기하시던데 직원 숫자가, 우리 해운대가 보통 보면 2명의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고,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좌3동과 우3동은 사무장이 한 분입니다.

직원이 10명에서 반송2동을 제외하고 17명 정도가 되는데, 도봉구 방학3동에 가니까 최소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25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벌써 직원의 숫자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주민 특화사업을 한다고 내려주는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와 구비가 우리의 3배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좌4동만 해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3개이고, 동아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대천공원 두산아파트 입구에 좌4동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짓는 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료 강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방학3동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가 1층이고, 지하에는 아동시설과 방송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2층에는 사랑방에 카페와 도서관이 돼 있어서 정말로 주민 자체가 그 동의 중심이 돼 있는 걸 보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부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발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3년을 계셨던데, 모르겠습니다. 도봉구청장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의 업무를 보는 직원을 3년 정도 묶어놓는 것으로,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직원 숫자, 주민자치 공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원영숙 위원

예, 좋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의 주민 수는 여기하고 비례해서 어떨습니까?

○좌4동장 조권선

우리가 적은데, 방학3동은 1만 5,000명 정도에 25명입니다.

우리 좌4동 같은 경우 2만 6,000명에 13명인데...

○장성철 위원

그거는 정말 좀 서울하고 부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좌4동장 조권선

아, 방학3동이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3만 명 정도...

○장성철 위원

3만 명에 25명이고, 여기는 3만 명에 13명이고?

○좌4동장 조권선

예, 13명입니다.

○장성철 위원

이야...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장내 웃음)

이 문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좌4동장 조권선

말만 지방자치이지...

○장성철 위원

예, 조권선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장내 웃음)

○송정동장 김용환

반갑습니다. 송정동장 김용환입니다.

저희 동은 송정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해수욕장, 물론 서핑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볼 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송정을 찾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든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반여1동장 강경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반여1동장 강경옥입니다.

저희 동은 2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문화센터하고 동사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센터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앞에 동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도 관리해야 되고, 뒤에 업무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0명 중에서 4명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시간선택제 직원들도 사실... 위원님한테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나누어서 업무적으로 일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배려해서 직원 배치를 좀 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다 일이 많습니다.

○반여2동장 김명룡

반여2동장 김명룡입니다.

장성철 구의원님께서 전 동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복지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복지 인구가 5,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분들이 우리 동에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에서 사례관리사 한 명을 파견 받았는데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 있듯이 우리 동에도 그런 분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례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들어갔다가, 그 수급자 가족들이 칼을 들고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하루에 2~3건 이상의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루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파출소와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파출소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 부분, 특히 우리 동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이런 데에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나눠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데 복지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입니다. 어떤 때는 쌀 20포대, 30포대가 매일 들어옵니다.

그 여자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들고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장성철 위원

동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칼을 들고 오는 그런 건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반여2동장 김명룡

며칠 전에 그 직원이 한 달 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장성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런 민원인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찾아오느냐고요.

○반여2동장 김명룡

칼을 든다는 게 꼭 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면 가족들이 못 들어오도록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장성철 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정말 많으시네요.

○반여2동장 김명룡

그런 부분에서 저희 반여2동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동장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반여2동장 김명룡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장성철 위원

알았습니다. 반여3동 차동명 동장님은 안 계시고, 반여4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지금 감사중지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동장님들은 그동안 7대에서도 마찬가지로, 1시간 내로 다 마쳤었는데,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성철 위원님이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계속하시면 되겠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영숙 위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성군 위원

저는 30초만 할게요.

○장성철 위원

아니, 한 말씀만 마저 하고...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속기사분도 힘들고 한데, 감사중지를 하고 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할까요?

○문현신 위원

다른 하실 말씀 남으신 분도 계시는데 감사중지를 잠시 하셨다가 말씀하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어차피 이거를 오늘 오전에 다 해야 돼요.

○위원장 조영진

오전에는 다 하는데...

○문현신 위원

그래도 남은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조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반여4동장님, 했습니까? 하십시오.

○반여4동장 이은호

반여4동장 이은호입니다.

저희 동은 여러 가지가 다 여건이 좋아서 아무 할 얘기가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말을 하라고 하니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수영강 건너에 있는 동입니다. 지금 개발을 한창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고, 또 내년이 되면 재건축도 한다고 하고, 또 옥봉산도 개발되면 발전을 많이 할 곳인데, 문제가 우리 동에서 해운대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하물며 마을버스라도 해달라고 예전부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동에서 구청에 오려고 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동에도 해운대로 올 수 있는 버스,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요새 잘되어 있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반송에...

○반송1동장 김용민

예, 반송1동장 김용민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

○반송1동장 김용민

저희 동의 문제점은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24%의 노인 인구비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4% 정도 되는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좀 많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동에는 영산대가 있어서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 학생들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애네들은 아직까지 분리수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동에 보면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반송1동장 김용민

자활로 해서 저희 동에서 치울 수 있는 만큼은 치우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용 봉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결은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반송2동장님.

○반송2동장 김성동

반송2동장 김성동입니다.

저는 발령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되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봉마을에 반송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너머에 화물 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면 꼭 좀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동에는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반석종합복지관은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건물이 4층인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방안을 내면 그 부분도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반송2동에는 노인분들만 6,500명이 사시고요. 장애인분들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서 건의하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송...

○재송1동장 김상욱

반갑습니다. 재송1동장 김상욱입니다.

저희 동은 작년 2월에 반여1동의 2개 아파트가 재송1동으로 편입되면서 해운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3만 9,000명 정도 되고, 또 관내도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지금 정원이 16명인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은 센텀에 잘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주택까지 다양한 층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다양합니다. 움직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갔는데, 통장님들이 작년에도 아무 대가 없이 고지서가 나가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고지서가 나가니까 전부 다 저를 보고 원망을 하는데, 이게 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포장 하는 데 사도가 있어서 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나 그런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 (방송) 마이크는 청사에 다 안 퍼집니다. 안 퍼지지요?

(「퍼집니다」 하는 이 있음)

○장성철 위원

재송2동...

○재송2동장 손정식

예, 반갑습니다. 제일 마지막 재송2동장 손정식입니다.

다른 동들은 여기 자료에는 건의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장성철 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2동만 딱 있는데...

○재송2동장 손정식

저희 동도 그냥 자료에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인데, 제가 어제 밤에 센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왕복 6차선, 8차선이 되는 도로에 불법 주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 대놓으려고 해도 부담이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한데, 저희 재송2동 같은 경우는 40~50년 이상 된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골목, 골목마다 불법 주차가 난무를 하는데,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저희 동의 박기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구 의원님들과 고민, 고민을 해도 주차장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땅도 구하기 힘들고... 하여튼 저희들 동에서도 발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혹시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송1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관내를 돌아보면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동네가... 저 위쪽으로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단투기가 많고, 치워도, 치워도 그다음 날이 되면 또 쓰레기장이고, 쓰레기장이고...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5개월 동안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냥 치우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주민자치회 견학도 갔다 오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의제로 쓰레기 없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저희 반송이나 반여, 재송동 이런 구시가지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버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 동장님,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동에 애로가 다 많습니다. 그래도 동장님들의 능력을 우리 구의원들은 믿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동장님이 동장실에만 계시지 말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주민이 들어가서... 물론 요즘은 전부 다 번호표를 뽑지요? 번호표가 다 있지요? 너무 기다리면, 지겨우면 밖에 무인발급기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이 많은 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서 퇴임해서 고문이나 자문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좀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각 단체의 봉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봉사한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다라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만, 새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지역의 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동네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정말 총체적인 역할이 동장입니다. 동장님께서 그 동의 총체적인 역할을, 사토로서 책임감이 막중입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동이 잘 돌아가야 구가 잘 돌아가니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다 많은데, 그래도 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보다는 내가 좀 낫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해운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43분을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웃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 동장님께서 각 일선 동의 애로점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메모를 일일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서 말씀만 듣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행정에, 동 행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이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

위 차원에서 한번 이 관계는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구정에, 각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부서들이 많아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쫓기는데,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가...

○김성군 위원

제가...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김성군 위원 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게다가 반송은 길도 멀 텐데, 자리를 비우고 오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격려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람 면전에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당선되고 아직까지 조상님 묘에도 한 번 못 갔다고 하는데, 또 혹은 하나 더 붙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송을 제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직접 들어와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에 태풍 ‘콩레이(Kong-Rey)’가 왔을 때 참 놀랐습니다. 반송의 동장님하고 주무관들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반송에 원래 가로수가 많습니다. 은행나무하고 가로수가 많아서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가 막힙니다. 왜 막히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수 맨홀입니까? 그것을 은행나무 같은 가로수가 떨어져서 막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범람을 하더라고요. 도로로...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와서 위험한데도 비를 맞고 걷어내더라고요. 저도 가서 동참을 했지만, 누구를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목민관으로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동이 있어야 구가 있는 것이니까 최고 일선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선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된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와 규칙이 있음에도 제각각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지켜 운영세칙을 개정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까 동시에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20% 내에서 동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20%가 상회하는 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25~30%까지 육박하는 동도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춰서 동 발전기금을 집행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1동 같은 경우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영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적립하고자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 남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이 필히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 다. 행정관리국

### 1) 행정지원과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무	팀	장	류	태	호		
행	정	팀	장	안	정	순		
단	체	복	지	팀	장	심	연	숙

전 산 정 보 팀 장 최 승 혜

그러면 올 한해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앞서 업무성과를 말씀하실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서요. 우선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1, 151페이지이고요.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 내역’...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 동일 기간 내에 부서 이동을 제한하는 전보제한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이고요. 그전에는 1년 6개월이었는데, 특정 부서 몇 개는 임용령에 따라서 2년인 경우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그런 업무들이 다 2년인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에 33명, 2018년에 30명이나 되던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현신 위원

예, 필수 보직 기간 미경과자...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저희가 2년 이내 전보제한이 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1월 6개월이 전보제한이었는데, 승진이라든지 직제개편 또 시보 해제라든지 징계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힌 것들은 승진으로 인한 그런 전보는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기관장이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보한 내역들입니다.

○문현신 위원

‘승진으로 인한 보직 관리’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부서 이동을 한 경우도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런 경우는 가령 신규가 동으로 가면 누군가가 또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 동 순환전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또 고충 상담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특정한 부서에 책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관장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문현신 위원

금방 고충 상담, 책임자 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고충 상담이 들어오면 부서 이동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보 배치를 해주신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희가 접수 관리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고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고충은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모성보호, 육아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거주지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또 부서 내에서 간혹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분야가 다,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문현신 위원

책임자 배치라는 경우는 아까 청장님께서... 물론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한데, 책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어떤 자리에 누군가를 발령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승진을 언제 했느냐,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적임자 배치 역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적임자 배치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물론 그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러나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느 부서에 간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다 보면 인사를 할 때 그 틀이 광범위하지 않고, 굉장히 축약됩니다. 그중에서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현신 위원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필수 보직기간 심의를 거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전보제한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쪼록 인사는 규정대로,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규정대로 단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제가 앞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11월 14일 자 부산일보에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하반기에 몰려 대란’이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봤습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드리기 전에 이미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를 위해서 주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 부산진구, 강서구, 서구 등 4개 구의 공무원 29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받지 못해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마지막 교육대상이 10월 2일 이전 승인 의결을 받은 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교육인 11회 차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승진 대란은 올해 지방선거로 인해 승진 의결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몰린 데

다 내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승진 인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올해 지방선거 이전에 승진 예정자 인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급적 승진을 미루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인 1959년 6월~12월 출생 공무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승진 인원이 늘기도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 한해 부산에 승진 의결 대상자는 33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323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 여파로 하반기 승진 인원이 몰렸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도 마지막 3회 차 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승진에 민감한 공무원 사회는 들썩이고 있다. 사무관 승진이 늦어지면 이어지는 6급, 7급, 8급의 승진도 연달아 늦어지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강서구지부는 지난 6일 사전에 준비되고 예견된 인사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한 단락은 안 읽어도 무방하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6주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데, 그 교육의 올해 마지막 기회인 11회 차가 11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월 2일 이전에 승진 의결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 보면 해운대구는 10월 4일에 의결을 했는데요. 따라서 10월 4일에 승진 의결을 받은 우리 해운대구 해당 공무원들은 교육대상 자격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승진의 필수 사항인 6주 과정의 교육을 결국 이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원래 기대하고 있던 1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 승진이 늦어지면 이어지는 6급, 7급, 8급의 승진도 연달아 늦어지게 된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번 사태로...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이번 사태로 사무관 승진이 지연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지금 10명입니다.

○문현신 위원

부산시 4개 구 공무원 29명 중에 10명이면 3분의 1이 해당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지금 여기 기사에는 4개 구인데, 6개 구입니다.

○문현신 위원

아~ 6개 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래도 10명에 6개 구면 더 퍼센트가 늘어나네요? 저희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니지요. 줄어드지요.

○문현신 위원

아~ 예. 그래도 29명 중에... 총 29명인 것이지요? 부산시 전체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두 개 구가 더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29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마 더 있겠지요. 2개 구가 더 있으니까...

○문현신 위원

아~ 지금 이 29명의 집계는 그 2개 구를 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신문에는 4개 구만 나와 있네요.

○문현신 위원

2개 구의 집계가 빠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일단 기사 내용상으로 봤을 때 10명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문현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까지 의결을 하면 12월 안에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이 나 하반기에 교육원하고 통화를 했었고, '10월까지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조사를, 그다음해의 수요조사를 전 해에 이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몇 명이 퇴직을 할 것인가는 교육원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의 교육 수요뿐만 아니고,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교육 의결을 언제 할 것이냐는 수요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행정안전부 쪽으로, 교육원에 공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원에서는 연간 교육생 숫자를 추측... 추측이 아니지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상 10월까지의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위원님께서 신문 기사를 읽으셨지만,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승진 의결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몰렸지요. 저희도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조금 지나서 승진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문현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통상 10월까지 의결을 받은 분들은 승진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게 통상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취임 후에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월에 의결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그 부분도 있고, 하반기로 많이 몰려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정말 수시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웃음) 말씀이 좀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을 교육원에 확인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것도 10월 12일 자까지 의결한 것을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10월 중순까지는...

○문현신 위원

이 공문은 언제 왔었지요? 최종 10월 12일 자까지 의결한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9월에 온 공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0월 12일까지는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과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많이 힘이 되어 주셨는데, 같이 완주 교육원에 가서 각 구청과 함께 저희가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자꾸만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월 2일까지 끊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현재까지는... 원래는 내년 2월에 교육이 시작되는데, 1월 초로 교육을 당겨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또 10명의 의결자들도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과에서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금방 말씀하신... ‘10명의 의결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열 분의 의결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줄줄이 연  
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직원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5급 의결이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6급, 7급, 8급 각 직급 당 10명씩 승진이 누락되어서  
수십 명의 승진이 늦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각 직급 당 정원이 다르고 또 연말에 복직자들이 대  
거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은 바로는 승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15  
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열다섯 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  
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도록 저희가 지  
금 노력 중이라는 것, 조금만 너그럽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1월 1일 자로는 결국 승진을 못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승진 진행이 안 되고, 1월 초에... 원래는 2월에 교육이 있는데, 최대한 1월 초로 당겨서 하실 것  
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교육원에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랬을 때 1월 초에 당겨서 교육을 받으면 6주가 경과해야 가능한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지요. 2월 중순경 승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네요. 최대 앞당겼을 때가 2월 중순...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노조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공식적으로 노조를 통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것을 왜 여쭙봤느냐 하면 이 기사를 제가 접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해운대구공무원노조 게시판  
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급 의결 교육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  
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어제까지 조회 수도 이미 2만 5,000건이... 그전에 저도 한두 번 클릭했지만, 어제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2,500건...

○문현신 위원

아, 2,500건이 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 사태로 행정지원과에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답답해하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거  
든요.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게시판상에서는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어떠한 답변이  
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 통감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살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명백하니까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노조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게시판상에서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노조를 통해서 했으면 게시판이 굳이 아니더라도 노조분들... 모든 직원분들은 다 아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지요. 노조게시판은 실명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문현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희가 정식으로 거기에다가 해명의 글을 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문현신 위원

아~ 그런 판단에서 거기에 올리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정식으로 노조위원장님과 임원진들에게 대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진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정순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직원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윤정 과장님과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원영숙 위원

오늘 오전에 동 행감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동장님들께서 민원업무가 폭주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고, 그게 또한 주민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2동, 우3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다, 간혹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동주민센터는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인사를 배치할 때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1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 현황’이 있습니다.

‘격무부서 담당 직위공모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것은 우리 구가 2002년부터, 우리 구 자체 방침에 따른 시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런 직위공모제는 아니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방침을 2002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최초로 시작을 할 때는 10개 이상의 직위공모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대가 변하고 해서 2015년도에 공모직위를 5개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행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과 보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긍정적인 점은 아무래도 직위공모에 가면 조금 더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진급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진급도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지레 공모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는 잘 하는 사람이 가겠지, 기관장이 미리 찍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 됐는데, 이 직위공모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직위공모제를 원하는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게 보면 찍어서 그런 부서에 갔다는 향간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격무, 기피부서 대상 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추가 지급시간에 해당되는 분은 매월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지는 않고요. 도표를 보시면 11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11개 부서의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지급시간에 보시면 직에 따라서 월 조금씩 더 지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업무의 시기에 따라서 연 몇 시간을 더 쳐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청소행정과는 연 36시간, 연 24시간, 연 24시간, 이렇게 연으로 따지다 보면 월 3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조금 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매월 일정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데는 저희가 월로 해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2개 부서는 1년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야간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산정해 드리는 겁니다.

○원영숙 위원

추가 지급시간 적용 기준과 수당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건의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최근에 받은 것은 저희가 휴일에, 각종 경축일이라든지 국경일, 이럴 때 각종 기념식에 대상자들을 모시고 시민회관을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통근버스 기사님들이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타 구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중구의 경우에는 평정 시 실적가점이 인정되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점이 인정되고, 남구의 경우에는 평정 시 경력가점, 가산점 인정, 북구에도 보면 평정 시 실적가점 인정, 금정구에 보면 평정 시 경력가점 인정, 강서구는 희망부서 전보(1~3순위 내), 사상구는 기피업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실적가점 부여(0.3점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보면 ‘추가 지급시간’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금전적인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의 전 부서 중에 격무부서와 기피부서가 어디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직이 가는 부서는 4개 팀, 주차질서팀, 해수욕장운영팀, 축제팀, 도로관리팀, 전 직원이 격무,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이 4개 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노인팀과 장애인팀, 세무과는 취득세팀 재산세팀, 이렇게 전 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연구 중입니다. 타 구처럼 저희도 기피하는 부서의 팀에 가서, 물론 이 팀에 간다고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도 실적가점이라든지 희망부서로 전보를 보내준다든지 하는 점을 12월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원영숙 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157페이지를 보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실이 9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는 평균 11~12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이 2~3년 승진이 빠르고, 7급에서 6급의 승진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가 2년 이상 빠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2년 이상 빠른 부분은 기술파트 운전직이라 예외인 경우고, 조금 빠르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부서, 기획조정실이 조금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7월 1일 자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의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찬찬히 보면서 저도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구나... 어떤 점이나 하면 각 직급별로 대체로 경력이 쌓인 직원들, 고참급의 직원들이 주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로, 그러니까 진급을 목전에 두기 2~3년 전에 발령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행정지원과와 기획조정실이, 구청의 어느 부서나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

는 구정의 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책임져나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야간에 각 과를 한번 돌아보신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각 부서를 한번 돌아봐주신다면 고개를 끄덕이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는 밤늦게까지 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이 더 늦게 불이 꺼지고 휴일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행정지원과가 자기 시간에 대한 희생을 요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라고나 할까요? 그런 면에서 진급이 조금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고 저도 (온 지) 5개월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승진 인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결과에서 우리 구가 2016년, 2017년도 다 내부청렴도 4등급이 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었고 2017년도에는 5등급, 그래서 전국 구·군 순위 69개 중에 꼴등, 내부청렴도도 2년 연속 거의 최하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물론 청렴도의 전체 총괄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합시다마는 저희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렴도라는 것이 잠깐의 어떤 시책을 가지고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 간의 신뢰감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청렴도가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인사가 불공정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건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고맙습니다.

○박기훈 위원

행정지원과가 그렇게 고생이 많단니까, 김상수 위원님이 관광문화과가 제일 늦게 불이 꺼진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행정지원과가 제일 늦게 불이 꺼진다고 하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아까 오전에 18개 동의 동장님이 오셔서 민원사항을 이야기하실 때 장성철 위원님이 동장님께 한 말씀씩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매칭사업을 하나 제안을 할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박기훈 위원

반여2동의 김명룡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저의 뇌리에 스쳐서 제안할까 싶은데... 아까 행감을 할 때는 웃고 넘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반여2동에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원경찰제도가 아니라 요즘에 세무서에 가면 어르신들이 도우미를 해 줍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무슨 서류를 적으라든지, 요즘에 병원에 가면 코디라고 하죠? 입구에 서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보면 입구에 가면 썰렁합니다. 그냥 번호표만 뽑아서 그렇게 하면 다시 가서 무슨 서류를 적어오시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해보면 아까 반여2동의 김명룡 동장님의 말씀처럼 칼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입구에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18개 동이니깐 오전,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36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해운대구 동주민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입구에서 상냥하게 웃고 안내를 한다면 그것 또한 참 좋은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구의 위상, 또 아까 우3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ATM기를 아무도 안 쓴답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못 쓰는 거죠.

기계를 못 쓰는 거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이용도 해 주게 하고, 보통 은행을 가서 세금 내려 왔다고 하면 청원경찰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박기훈 위원

그렇듯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참 좋은 의견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  
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민원여권과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땡땡’을 해서  
가면 직원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동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들고 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 같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요즘에 어디 관에 가든지 처음에 가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를 웃으면  
서 말하면 민원인이 볼 때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해운대구청 민원실도 그게 안 지켜지고 그래 가지  
고 제가 민원여권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라고...

처음에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아서 오면 먼저 해야 될 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박기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이다, 주민센터에도 삭막한 데가 많습니다.  
가면 황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센터에도 과장님이 매뉴얼을 만드시고 지시를 해서 해운대구의  
친절, 해운대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행감 자료 172페이지에 보시면 ‘고충상담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처리 건수가 없고, 2018년에는 12건의 미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거는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타 부서를 희망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집이 가까운 데로 옮겨 달라, 그다음에 직원 간의 갈등으로 타 부서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처리는 인사를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반영할만한지, 사실 고충상담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인사를 해버리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을 돌려보내버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만하면 차기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밑에 ‘사유별 고충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고충상담 처리실적은 51건이고, 밑에 처리결과표를 보면 51건이 왔는데 전보가 42건, 인사 교류가 9건, 그러니까 51건의 고충 건수가 왔으면 100%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의 말씀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전자의 말씀은 100% 다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건수가 51건이 왔고, 전보가 42건, 인사 교류가 9건입니다. 그러면 고충을 말하면 전보라든지 다른 데 보내버리면 그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 고충 건수 51건이... 아마 저희가 처리를 안 한 것은 고충으로 안 잡았지 싶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충이 한 100건이 들어오고 그중에 51건이 고충 처리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여기에는 보면 51건의 고충이 들어왔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어느 공무원이 내가 고충이 있다고 말하면 무조건 전보를 보내버리거나 인사 교류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아까 말씀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00% 다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네요.

○박기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45건의 고충이 왔는데 30건은 전보를 보내고, 나머지 3건은 인사 교류이고, 미처리 건이 12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박기훈 위원

여기에서 상당히 의아한 게, 고충 건수를 올리면 여기에 보면 건강상의 문제, 육아의 문제, 인사 교류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전보를 보내거나 인사 교류를 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게 지금 제가...

○박기훈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소원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수리를 하면 받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구청 공무원이라면 이런 고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고충을 들어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고충에 대해 무조건 전보를 보내든지 인사 교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고충상담이 와서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보를 보내버리고, 아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인사 교류를 해버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지는 그 공무원의 마음까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박기훈 위원

너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서류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 있으십니다.

○박기훈 위원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결과표를 보면 무조건 인사 교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또한 고충 건수에 비해서 미처리 건수가 없고 다 해 준다는 게, 공무원이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사실 사유는 여러 가지이고, 제가 이것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류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충의 전체 건수는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서류를 공무원이 보든지 다른 타 구의 사람이 볼 때 고충처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거 같고, 또한 이게 전보나 인사 교류가 대책의 전부가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까지 읽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사 교류가 다 돼버리면 과장이나 위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비밀은 유지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전보나 인사 교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로 심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마음을 다듬고 제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보나 인사 교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고충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후에는 고충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해운대구가 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부산의 해운대구가 세계 속의 해운대구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할 때 같이 하면 늦습니다.

해운대구가 먼저 해보는 사업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해운대구의 위상이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건은 저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훈 위원**

이게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보다는 요즘에 주부들이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니까 좀 밖으로 나오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데, 제가 담당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서 즉답은 못 하겠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오전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다 듣고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행감 공부한다고 못 봤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순세 위원

(웃음) 그거를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참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정순세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직원 경조사비’ 해 가지고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있는데, 이거는 차등이 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5만 원만 지급하고, 10만 원은 두 사람, 20만 원은 네 사람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정순세 위원

아~ 그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정순세 위원

그러면 보통 5만 원씩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5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3월 20일에 20만 원,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특별히 15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고, 25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쭙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같은 날에 발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정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4-13, 이게 아침에 동장님 열어뒀 분이 이야기하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예산, 그런데 인원이 보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720명에서 많게는 2,556명까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 부분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동이 일이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이 더 고생을 하고, 덜 고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정원을 정할 때는 민원 발급량, 또 공무원 수, 주민 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사회복지민원, 환경정비, 청소, 이런 업무를 다 감안해서, 물론 저희 부서가 하지는 않지만 정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를 보시고 어느 동은 1인당 주민 수가 많고, 어디에는 적다, 그래서 어느 동이 더 많이 고생을 한다, 저는 딱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 1인당 주민 수가 적은 반여23동이라든지, 재송동, 반송1·2동, 우1동, 이런 데는 사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반여2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동보다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에는 한 사람의 민원을 상대하는 데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 숫자와 공무원의 숫자만을 가지고 어느 동이 더 많이 고생하고, 적게 고생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세 위원

아까 우3동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도 인구 수도 제일 많고 그럴까요?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아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제가 알기로 우3동이 창구민원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우3동은 사회 민원이 적죠.

○정순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수와 공무원 수만 보시고 단순히 어디에 민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동마다의 특성과 개성이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그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회 민원이 많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사회 민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습니다. 가령 우1·2동만 보셔도 우2동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더 많은데, 왜 직원 수는 더 적느냐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1동은 사회복지직이 더 많고, 행정직은 우2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어떤 민원이 많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디가 더 (민원이) 많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세 위원

혹시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발령하실 때에는 첨부되는 가산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동에 보낼 때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세 위원

다음에 승진을 하실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희가 9급으로 있다가 승진을 하면 구청으로 올라오고, 또 7급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게 됩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데 혹시 관내에서 승진을 할 때 가산점 같은 거,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면 가산점이 있듯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딱히 동 근무에 대한 가산점은 없으나 아무래도 민원 발급량이 많은 동이라든지, 특히 이런 동에는 연말 표창이라든지 사기양양[士氣昂揚],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법령에 따른 가점은 없습니다. 마는 평정을 할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배려를 한다고 하면 수상, 표창,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결론은 표창을 받으면 승진을 할 때는 가산점이 조금씩 부여되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정순세 위원

그런 혜택을 주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정순세 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부서로 본다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쪽에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 직원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가 해수욕장은 영팀하고 주차질서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해서 12월 중에 인사방침을 마련 하려고 검토·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순세 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정순세 위원님이 6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구청장님 경조사비하고, 64쪽에 부구청장님의 경조사비가 다르거든요. 날짜가 다릅니 다. 직원 경조사비인데,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직원 경조사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다 하실 수가 있고, 업무추진비 집 행규칙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기관장을 달리하는 곳의 직원들에게는 부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 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직속 상근직원에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원영숙 위원

날짜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이 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1월 16일에는... 아, 적십자회비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동에는 기관장이 동장이라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동 직원들에게는 축부의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직원 경조사비, 여기 뒤에다가 성하고 이름 뒤에 글자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행감 자료예요?

○원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거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서 설립된 법인에는 의연금품이나 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래서 적십자사 부산지사가 당시 2017년도에 전 구의 구청장님을 다 방문하셔서 갈수록 적십자회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구 차원에서, 이게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고, 업무추진비 규칙에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관련 법규에는 위반되는 게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비로 저희가 주민들이 좀 적게 내는 부분을...

○원영숙 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없는데 2017년도에는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올해는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김성군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예, 고생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이게 보면 25만 원에 2박 3일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수, 목, 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요일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군 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제주도를, 작년하고 올해를 보니까 절반을 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홍도도 한 번 가신 적이 있고, 서울은 딱 두 번 가셨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름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5만 원을 가지고 2박 3일을 가는 게 여비도 좀 적은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러니까 예산은 25만 원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더 드는 곳으로 가고 싶으면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됩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놔서 이름 자체가 맞나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해운대 주민들이 불신이나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확 깨놓고 말씀하시죠. 안 그러면 진짜 선진지를 가시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혹시 선진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성군 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가 원래 뭘니까? 이쪽보다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해운대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요, 그렇죠? (웃음)

○김성군 위원

그렇죠.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런데 직원들이 제주도를 선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전국 곳곳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정말

저런 것은 우리 구에 접목시켜야겠구나, 참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주도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달아놓고 하니깐...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까 봐 우려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관리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돼 있다가 2016년도에 5,600만 원, 2017년도에 8,200만 원, 올해는 3억 9,000만 원으로 한 4억 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올해 3억 9,000만 원에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2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구축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광명소(5)’에 보면 해운대 12경하고 해운대 야경 7선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이거는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이거 선정을 2015년 6월에 했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닙니다.

○김성군 위원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야경 7선은 2015년도에 하고, 12경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딱히 몇 년 만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배덕광 청장님 시절에 12경을 선정했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 기준이 관광문화심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제가 그 부분은...

○김성군 위원

선정 자체를...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선정 자체를 구민 설문과 직원 설문으로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아, 잘 모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그 당시에 설문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원 설문과 주민들 설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주민들도 참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해운대 12경을 보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길, 영화의 거리, APEC나루공원, 장산, 동해남부철도, 수영만 요트경기장, 청사포, 해운대온천, 아쿠아리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그리고 보기 좋은 야경 7선은 장산에서 바라본 해운대 전경, 영화의 전당도 들어가 있고, 누리마루도 들어가 있고, 해월정, 문탠로드, 해운대해수욕장, 마린시티,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반송·반여 쪽은 집어넣을 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박기훈 위원

장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위원님, 방금 옆에 박기훈 위원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웃음) 장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성군 위원

장산이 무슨 상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12경, 야경 7선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우리 해운대라고 하면 어디를 보여주고 싶은지, 어디가 멋있느냐고 할 적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빠진 것은 좀 섭섭하시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12경, 야경 7선이 해운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랑할 만한 명소가 아닌가, 그래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군 위원

반송에 보면 삼절사라고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게 유명하거든요. 절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아니고, 그 ‘사’자가 ‘절사[寺]’자가 아니고 ‘사당 사[祠]’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동래에 있는 충렬사나, 아산에 있는 현충사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성군 위원

저희들이 당선이 되고 하면 거기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거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게 빠졌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가치이고, 문화재이지, 우리가 ‘경’이라고 하면 ‘별 경[景]’자로 해서 어떤 경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주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김성군 위원

여하튼 고생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김성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과장님 삼절사도... (웃음)

(장내 웃음)

삼절경으로 바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반송만 빠지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웃음)

○위원장 조영진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

답이 없네... 안 반가우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웃음)

○장성철 위원

166페이지를 보십시오. ‘부서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배치 현황’인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나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지금 여기의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나 휴직을 간 자리에 다른 직원으로 배치를 했다는 애깁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오시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 빈자리는 신규로 충원이 되는 것이지요.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빈자리는 그렇게 하는데, 출산휴가가 다 끝나고 원상복귀된다면 그분들의 자리는 신경을 안 쓰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저희가 1년 연중 휴직도 생기지만, 복직도 생기고 계속 그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장성철 위원

2017년도에는 43명이고, 2018년에는 57명이고... 그러면 40~50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지요. 요새 젊은 30대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1년에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장성철 위원

제일 뒤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십시오. 국내 자매결연도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남군하고 하동군하고 영주시인데, 이것을 보면 해남군은 24년이나 됐고, 영주시, 하동군은 10년이 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시책교류를 해서 서로 간의 발전 방향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해남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1994년에 해서 올해까지 상호 교류한 실적이 거의 44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찌 보면 영호남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소년들이 격년제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리를 제공하고,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고요.

하동군하고 영주시는...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자매결연한 지 10주년이 되었고, 하동군은 작년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남군만큼의 횟수는 아니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도 그동안 30회의 교류가 있었고, 영주시 같은 경우는 13회 오고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교류는 도농 간의 상생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도시에서 매년 저희 구에 와서 농산물특판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싸게,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직거래장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경제진흥과에서, 매년 3개 도시에서 와서...

○장성철 위원

직거래장터 때문에 우의가 증진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직거래장터 때문은 아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그런 교류 차원이고, 서로 간의 어떤 다른 문화와 역사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이 그대로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계속...

○장성철 위원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네요? 다른 데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장성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어서...

○장성철 위원

그러면 한 번 맺으면 계속 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왕에 맺었는데, 서로 간의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지만, 상대방 쪽에서 해운대에 자주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웃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웃음) 그런 부분,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도 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받을 것이 있는 데를 찾자는 말씀이지...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최근에 저희 구에서 영주시에 10주년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라고 그런 데도 저희가 가서 보고, 들었고...

○장성철 위원

그 옆에 제천도 좋습니다. 제천,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정말 당부를 떠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장성철 위원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士氣昂揚]을 위해서 시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장성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만, 요약한다면 인사,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홈페이지나 승진, 전보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의 바람이... 여론은 구청장으로서 편파적이고, 신임을 받아야 고속 승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목질시[反目嫉視], 조직 전체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 같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문현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243페이지, 관리번호 4-24에 ‘구 홈페이지 관리운영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아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해서 내년 1월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거기에서 회의록 검색을 할 때 보면 회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237회 기획관광행정 위원회 1차, 2차 그렇게 써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 뒤에다가 해당 부서도... 만약에 오늘 행정지원과를 했다고 하면 거기 1차에 행정지원과를... 그것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의정 동영상에서 5분자유발언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238회 5분자유발언 땡땡땡 의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거기 뒤에도 5분자유발언의 제목까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건 검색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 검색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 검색을 시도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 많은 누적된 회의록 중에서, 축적되어 있는 회의록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래축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모래축제를 검색해 보면 모래축제에 대해서 언급됐던 회의록 내용이 짝 뜨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문현신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그 이전의 내용들을 파악할 때 훨씬 신속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된 그런 우수한 솔루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자매결연을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수 위원

해남군, 하동군 영주시를 보면 역사와 전통 이런 고장의 도시인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

특구, 해양레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 교류라든가, 벤치마킹... 서로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그냥 만나서 오고 가는 그런 교류가 아닌,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호남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저쪽 지역에서 우리한테 얻으려는 것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운대구를 원한다면 자매결연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해양레저, 관광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비슷한 곳, 그래서 서로 오고 가고 느껴야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과 비슷한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얼마나 큰 행사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강릉 경포대라든가 뭔가 유사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해양레저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이 의견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의중은 과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 청장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렇지요. (웃음)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와도 의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음에 이런 교류가 있을 때는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 이용이 있는데, 한화, 켄싱턴, 대명 세 군데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직원들은 한화하고 대명에 호응도가 좋고요. 켄싱턴은 좀 노후가 되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노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대명이 이번 1월 31일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올해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1억 원 정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1억 20만 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 1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1,000명인데, 1년에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럴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무래도 가고 싶은 때가 주로 여름 성수기가 많은데, 이때는 다 붐비는 시기이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콘도 말고도 2017년부터 펜션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분산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콘도하고, 펜션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비율은 비슷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펜션은 어느 쪽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펜션은 통영, 남해, 밀양, 여수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통영, 남해...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밀양, 여수...

○김상수 위원

그쪽에도 구입료는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여기는 그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만 원 이런 식으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 선호도가 1박 2일이 많습니까, 2박 3일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1박 2일이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1박 2일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유일하게 1년에 즐길 수 있는 게 휴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왕이면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한화는 구입이 1년에 1억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화 같은 경우는 1년에 112일인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밑에는 (켄싱턴) 90일이고, (대명) 90일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한화가 112일인데, 올해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해 것을 보면 69박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차액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비용은 만약에 대명 같으면 1억 20만 원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기간이 종료되면 전액을 반환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20년 후에 전액을 반환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1년에 90일은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90일을 다 못 쓰고, 31박밖에 안 썼다, 나머지 60일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이 부분은 따로 다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저희가 못 가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해운대해수욕장도 관광객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는 펜션 사업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가족 위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해수욕장에 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직원들도 그럴지 않나, 직원들도 콘도... 옛날에 콘도이지, 이제는 정말 자기네들만이 즐길 수 있고 아늑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지역으로 넓혀서 직원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부터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용률이) 반도 안 나올 경우에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한 숫자가 있고, 며칠에 얼마,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이 숫자

를 안 쓴다고 조정한다고 해서 취득가액을 줄인다든지 계약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화, 켄싱턴은 몇 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다 20년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부 다 20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2003년, 2010년 이렇게 되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한화 같은 경우는 2023년이면 끝이 나는 것이지요.

○김상수 위원

그전까지는 조정이 안 된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장기계약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시대의 흐름은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서두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수당에 비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 업무량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안을 짜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일이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시대가 흐르면서 제가 볼 때는 복지 분야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복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과거에는 나눠주고, 민방위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일이 많았다면 요새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또 뒤풀이에 가서 상황도 살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통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장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수당을 인상시킨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 업무가 안 그럴습니다. 통장 업무 내역을 보면 90%는 전부 다 구청 행사에 인원 동원입니다.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동원하는 게 통장입니다. 통장이 1순위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원수 채우는 겁니다.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맨날 불러 다니는 거예요. 뭐 하면 와라, 부녀회 바자회하면 와라 이게 통장의 주 업무입니다. 현재 주 업무가... 정말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각지대, 복지와 관련해서 진짜 다니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각종 그런 행사 때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준공무원이라는 책임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막 강요를 하지 않아도 통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구청에서 통장님들을 준공무원으로 묶어놓았어요. 동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행사 땀질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취임하신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에도 강요를 한다든지 동원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지시하셨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에서 통장님들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든지 그런 일은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행사마다 늘 다니지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꼭 지켜볼 것이고... 왜냐하면 통장님은 정말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장님 밑에 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반장님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반장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반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반장의 역할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통장을 보조해서 각 반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반상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참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웃음)

○김상수 위원

반상회는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장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주로 반장은 단독주택 쪽에 많이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해운대의 60~70%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아파트는 대부분 반장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통장 지시 하에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계속 반장을 넣었습니다. 반장한테 연 5만 원씩 이렇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김상수 위원

또 상여금 2만 5,000원씩 2번 나가고, 쓰레기봉투 나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지금 반장의 공석률이 50%입니다. 지침에 보면 공석인 반장은 4개 반까지 통장에게 대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장이 공석인 동은 통장님에게 설과 추석 때 상여금을 대신 4개 반까지 지원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반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과연 반장이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반장도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의 명단이 만들어 올라오니깐 안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라인에 아는 사람, 친구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름만 좀 올리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동에 접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접수하면 동에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든지 명단도 그런 게 허다하게 많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의 업무량이나 역할이 많다면 수당을 진짜 올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드리고, 반장 제도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동네에 반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통장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만들어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지요?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을 못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반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허수

로 잡혀있는 반장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장 문제라든지, 통장님들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올 초에 지자체에 건의를 하라고 한 게 있어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건의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통·반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뭔가 결론을 내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수당 건의 이런 부분, 반장 부분도 멀지 않은 기간에 뭔가 가시적인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마무리를 지으면... 반장의 역할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반장이란 아파트에서 그 동에서 명절 때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어서 경비원들한테 떡값을 주는 역할이 반장입니다. 각 동마다 1만 원씩, 5,000원씩 거두어서 명절에 경비한테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떡값을 주기 위해서 반장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세무1·2과하고... 남아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4) 세무1과

5) 세무2과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병가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행정관리국장 이창현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정 운 영 팀 장 김 정 미  
재 산 세 팀 장 김 성 태  
취 득 세 팀 장 정 승 기  
과 표 평 가 팀 장 정 왕 민  
주 민 세 팀 장 박 해 진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입 관 리 팀 장 박 재 영  
체 납 정 리 팀 장 박 중 일  
지 방 소 득 세 팀 장 이 창 호  
자 동 차 세 팀 장 강 정 대  
세 외 체 납 정 리 팀 장 김 영 수

세외수입관리팀 강철윤 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조영진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약 388억 원이라는 초과 세액을 징수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하는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의하면 애당초에 65억 원입니까? 연말까지 74억 원 정도, 예상보다 2억 원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세무1·2과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수금이라고 하지요? 수금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월말이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수금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2017년, 2018년도에 우리 세무2과에서 이렇게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세무1과에도 보니까 2017년 5월에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님, 이번에 LCT가 분양이 되면 부산시가 얼마의 수입이 되고,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가 되고, 우리 해운대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요. 팀장님이 하시지요.

○위원장 조영진

잠시만요. 원칙적으로는 세무1과장님이 계셨으면 답변하셔야 합니다만, 아마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편의상 세무1과 만큼은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드려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취득세는 1,919억 원이고요. 징수교부금은 57억 5,700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해운대구가 받는 게 말입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취득세는 시세라서 시가 받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러면 해운대구는 57억 원입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그러니까 1,919억 원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57억 원을 받거든요.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아까 전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승계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게 효율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빨리 납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까 보고에 17만 대 정도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31% 가량 연납으로 납니다. 연납으로 내는 이유가 세금이 10% 감면된다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일제 참여를 하면 또 10%가 감면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가 감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합니다.

○박기훈 위원

다른 제도는 10% 할인 제도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지금 세무 분야에서 이것 말고는 감액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 세금 납세 상으로...

○박기훈 위원

없다고요? 많이 있으면 제가 많이 이용할 것인데...

○세무2과장 김병수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세무2과, 2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초과근무 지문 허위입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저녁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가끔씩 보면 수당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나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이 이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 7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 내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담당자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방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주고, 안 하면 안 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 내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목별로 하면 담당자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자료를 제출할 때 포괄적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제출은 금방 김성군 위원님이 따로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들고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한 담당자 포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든지, 이 대로 하려고 하면 이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금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추경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좀 그랬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세원 발굴을 했다고 하면 발굴한 세무직원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직원도 있을 것인데, 또 과다하게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세원 발골을 해서 어떻게 실적을 올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1명인데, 업무는 2명에서 같이 하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한 직원들한테, 실제로 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됩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두 분의 실적만 올립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공적...

○박기훈 위원

팀장님, 제 말은 두 분의 실적을 올리고, 그러면 나머지 세무과 직원들은...?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그분들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박기훈 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박기훈 위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세원 발골 말고, 체납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한 분야만 계속 파다 보면 세무과가 기피 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rotation)이 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세원 발골을 많이 해서 그분이 포상을 많이 해가면 되는데, 또 위에서 볼 때는 포상을 많이 해가면 ‘많이 해갔으니까 이번에 회식비 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많이 하면 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그 공무원이 세원 발골을 했다, 50만 원의 포상을 받았다,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원칙은 개인한테 주는데, 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과에 찬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 회식도 합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어차피 업무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박기훈 위원

그중에 많이 발골하는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또 뒤에서 일만 봐주다가 못 받는 공무원도 있지 않

겠습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그래도 어차피 업무는 돌고, 고생한 만큼 받아가고, 많이 받은 만큼 찬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박기훈 위원

불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박기훈 위원

이런 불만이 많이 쌓이면 뒤에서 다독겨려주는 것도 세무과장님이나 세무팀장이 해야 할 역할이니까 너무 그분들한테 과도한 업무를 시키든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분배를 시켜서 하고, 또 요즘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제일 힘든 과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세무과가 제일 힘든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가게 로테이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분담을 해서 그런 세원 발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예, 고맙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김병수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현 행정관리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1과, 2페이지에 2018년도 2월 6일 제232회 임시회 때 유점자 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 요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올바르지 않다.’입니다. (쭈뼛)동백섬마리나이지요? 회사가... 일명 더베이101인데요. 우리 구 지방세인 재산세를 현재까지 우리 구가 얼마나 감면해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현재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고요. 건축물, 토지분 해서 2018년 기준으로 5,000만 원 정도 감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4,000만 원 정도, 2016년에는 3,500만



원, 3,200만 원, 3,000만 원 그 수준입니다.

○원영숙 위원

아니,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7월에 493만 8,000원, 9월에 3,754만 5,000원... 2017년도만 해도 합계가 4,048만 3,000원이고요. 5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7월에 496만 8,000원, 9월에 4,600만 8,000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2018년 기준으로 건축물과 토지를 합쳐서 5,100만 원 정도...

○원영숙 위원

건축물 토지라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건축물은 490만 원, 토지는 4,600만 원...

○원영숙 위원

건축물분 재산세...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토지분 재산세...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여기에는 2017년, 2018년도를 합쳐서 9,345만 9,000원을 감면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현재 더베이101이 우동 동백섬 일원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맞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더베이101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우리 구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간 5,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점자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방세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금정구의 금정산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은 적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적용을 안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 질의가 있고 나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건의한 공문을 보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바로 건의를 했는데...

○원영숙 위원

그 공문을 한번 제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

○원영숙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보면 다 검토하셨겠지만, 1항은 면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제55조제2항 때문에 지금 더베이101에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1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면제에 대해서... 다만, 수익 사업은 면제해 주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2항의 감면 조항에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원영숙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조치 결과’라고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단서조항 신설’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놓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건의를 했었고, 결과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렇습니다.

○원영숙 위원

더베이101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것은 다뤄봐야 할 소지가 엄청 있을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더베이101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것이 해양레저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해양레저특별법으로 해서 설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아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조금 일반 음식점으로 취급하기에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말 이렇게 진행... 진행보다는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새로, 이 2항의 단서조항을 넣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레저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안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해양레저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해양레저특별법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해양레저 사업을 50% 이상 해야 하는데,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 사업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더베이101 식당, 그 주변을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상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저희 세원인데, 확실하게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 우리 국장님... 10페이지를 보시지요. ‘원활한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원활한 마을세무사가 뭐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세무사들을... 지방 세무사요. 세무사들이 일반 지역 주민도... 세무의 어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세무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료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운영이 실제로 잘되고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65페이지에 ‘과오납 환급’이라고 나오는데, 매년 재산세 부과에서 과오납금 환급이 있는데, 과오납금 착오 적용 세율... 세무직은 전문적인데 과세 면적이나 적용 세율에 왜 착오가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병수

...

○장성철 위원

65페이지에...

○세무2과장 김병수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중납부라든지 부과 착오라든지 미등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여기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전자로 해서 자기 스스로 카카오페이라든지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로 또 내는 경우, 이렇게 주로 납세자가 착각을 해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부과 착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표에 대해서 세율을 잘못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납부해야 되는 기준치를 잘못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경우가 해운대 관내는 오피스텔 이런 것을 많이 짓는데, 오피스텔을 처음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용이 아니고, 실제로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사무용 같은 경우는 과표가 70%가 부과되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60%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46억 원이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 중에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후에 세무2과에서 방치한 겁니까? 왜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이 146억 원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징수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 벌에 대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나간다는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지 이러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 있어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방세에 준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증가산금이라든지 매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부담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체납은 계속해서 누액이 되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장성철 위원

몇 년 지나면 결손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그냥 물고 갑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희 과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체납으로 발생한 건을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을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전부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예?

○장성철 위원

생활을 살아가는... 경제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제가 청력이 약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살아가는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

예, 그것은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물에 있는 분들은 자기 금융 재산도, 부동산도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체납자들을 좀 더 색출해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81페이지를 보면요.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서 연번 2번, 3번 해운대순복음교회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감면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보니까요. 추징을 했거든요. 추징을 한 부분은 기존 종교단체와 관련된 감면법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현신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 감면법보다... ‘감면요건 미충족’이니까 그 감면을 더 해줬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으로 하면 10평을 감면해 줘야 되는데, 현황 과세를 해보니까, 가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5평이...

○문현신 위원

아~ 다른 내용에 대한 미충족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렇지요.

○문현신 위원

그런 면적이라든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적 부분이나...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감면을 안 해줄 것을 감면해 줬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문현신 위원

초과면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런 부분...

○문현신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000만 원이나 되는 추징금의 성과를 올린 것은 대단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에 대해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많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런 감면 대상들에 대해서 감면 요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별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아까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 보신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방세 지출 부분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종교 부분이 나와서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종교인이 비과세가 되는 유일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올해부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 부분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은 아니고...

○문현신 위원

아니, 이 부분 말고 개인소득에 관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문현신 위원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저희 구에서는 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기사를 보면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나오던데,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종교인이 신고를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정도는 신고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2,000만 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현신 위원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종교인들이 그 정도로 신고를 할 사람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거의 없지는 않겠지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문현신 위원

특정 종교단체를 지정해서 여쭙보기는 좀 그런데, 저희 관내에 기업체 느낌의 그런 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어느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아마 과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국세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세무 조사를 하면 외형적인 모습도 보



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대상자가 있지 싶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쭙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동백마리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김상수 위원

혹시 맨 처음에 동백마리나를 인허가할 때 해양레저 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이... 제가 5:5로 알고 있는데, 6:4인가...?

○김상수 위원

6:4로 저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게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도 6:4로 알고 있는데요. 6이 해양레저입니까? 안 그러면 4가...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6이 해양레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김상수 위원

6이 해양레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것은 지금 비율을 따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백성 입구에 기존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쪽에 조류가 있고 또 태풍이 있어서 기존 시설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자기네들은 태풍, 천재지변[天災地變],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당초 취지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은 천재지변과 관련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별개로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쪽에 특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백섬마리나 쪽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그 덜미로 자꾸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쪽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당초 취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대로 감면 대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층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라는 자체가 조세 법정주의이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만 조세를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일단 법을 보완하고 나서 그때 부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보완하는 단서조항을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건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수련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동백섬마리나가...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수련시설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의 당초 취지와 안 맞다, 가는 방향이 완전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양레저 사업은 뒷전이고 전부 다 수익 사업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 상태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는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이것은 개정 건의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공감합니다.

○김상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아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빨리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비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문화과 영상해양레저팀의 자료에 의하면 주 사업인 해양레저 시설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위원장 조영진

60% 이상 배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현재 해양레저 시설과 수익 시설 비율은 해양레저 시설 60.43%, 수익 시설은 39.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 시설은 수리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관련 시설이고, 수익 시설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근생 2종입니다. 기타 주차장, 계단, 흙, 복도, 화장실 등은 공유면적 비율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 확인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아까 5:5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6:4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설명하실 때 보면 울산 중구청 등 전국 세무 부서 벤치마킹 방문도 하시고, 동래구, 사하구 전국의 우수시책 관련해서 전파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아까 전에 제가 업무성과에서 보고한 것은 타 구에서 왔던 사례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관외 출장 현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히 이것은 벤치마킹 사례다, 이것은 관외 출장 사례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관외출장으로 다 넣어놓은 모양인데, 관외 출장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8%...

○김상수 위원

2017년도...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2017년도요?

○김상수 위원

올해가 28점 몇 퍼센트인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23.9%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23.9%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김상수 위원

2017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3.9%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26.5%,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게 우리 전체 재원에서,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예, 지방세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 자체적인 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추경이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전체 재원이 조금 적겠지요. 결산이 되면 전체 재원이 늘어나고, 그 비율에 비해서, 그렇지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전체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김상수 위원

결산이 되면 전체 늘어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그게 딱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본예산에서는...

○김상수 위원

본예산은 28점 몇 퍼센트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제가 정확하게는... 2017년도 결산이 23.9%이고, 2018년도 본예산 28.3%입니다.

○김상수 위원

28.3%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그러면 5%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체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부산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다 높습니다.

○김상수 위원

각 구별로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아~ 그런데 우리 구는... 기장군, 강서구 다음에 우리 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기장군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기장군이 높습니다.

○김상수 위원

해운대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올해 본예산에 28.3% 정도, 2017년도의 23.9%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는 보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포상금, 그 지급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에게 해주는 게...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은 내가 열심히 벌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열심히 돈만 벌니다. 파고 뒤집어서 돈만 벌고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돈만 벌니다. 그런데 쓰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만큼 포상금을 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병수 세무2과장님 같은 경우 정년퇴임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닐까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동백섬마리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감면이므로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탈루, 은닉 재원을 발굴하는 담당자의 성과를 치하하며, 격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및 포상 제도를 더욱더 확대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속기록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계속)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장님,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 좀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상세하게는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십수 년간 이렇게 흘러오던 마지막이 아마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왜 저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책임을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웃길을 여미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조금의 힘을 실어주셨다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 힘을 빌려서 정말로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왜 이렇게 됐느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까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 구에서 고생하는 부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인정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요.

그런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돼보자고 하는 차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서로 받아들여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 28년을 하면서 강단 있게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처 못 챙겨봤지만 이거는 앞으로 분명하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뀌나

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오늘 이 행강에서 바로 잡으면 우리 김인철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바닷가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누가 들고 왔어요. 이것을 들고 오면서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꼭 김인철 소장님이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김인철 소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공단을 세워서 확실히 해보자, 이런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이것을 오늘 갖다 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김인철 소장님이 못 미더워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습니다. 잘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전자에 깔고, 만약에 김인철 소장님이 칼을 꺼냈으면 이번에 구의회가 무를 썰게 하겠습니까. 드릴 테니까 무를 한번 썰어보세요. 되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무만 썰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강철이라도 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어제,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성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탈의장 및 편의점 등 매출현황, 이거 페이지가... 이번 에 새로 주신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성군 위원

IBC그룹이라는 게 있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습니다.

○김성군 위원

편의점하고 1호 탈의장... 이게 2018년도도 있고, 2017년도도 이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성군 위원

그 자료가 IBC그룹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1호 탈의장은 항상 IB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이게 민원사항인데 말입니다. 이 그룹이 독점 폐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독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민원이라는 게 분명히 구청으로 들어왔을 텐데, 또 계속 계약을 하는 거하고... IBC와 구청 간의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게 독점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했던 것을 아셔야 되는데, 당초에 하게 된 게 200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공공의 지출이 과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우리 구하고 IBC 측하고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 사업이 비치어담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탈의장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초기 비용이 한 37억 원 들었거든요. 그 초기 비용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 그때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래서 독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피해 같은 거나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저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올해 연말에 협약이 끝납니다. 과연 계속 협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

금위원님의 말씀처럼 독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지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이 비치 어답트라는 사업이 가지고 오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 업체하고 하면서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치울 때 다른 업체에 해 가지고 치우는 것보다는 즉시로, 그런 철거 부분들이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튜브, 파라솔을 가지고 오는 협찬을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구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런데 그런 편의성이 있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해운대해수욕장에 걸맞지 않은 이미지 같은 것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 부분은 결국 협약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이지, 협약서 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공의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2017년도에 와서 보니까 독점적으로 탈의장을 너무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호텔 앞에 작게 확 줄여서 하도록 조치를 했든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되지, 그 부분이 없으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군 위원**

글쎄요.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데 그 잘한다는 부분이 동전의 양면같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김성군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문제인지... 여하튼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면 돈이 물론, 올인지 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협약서상의 비용 보전 측면이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1월 1일 자로 와서 IBC 부분의 권한을 많이 축소시켰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성군 위원**

소장님께서 강단이 있으시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소장님, 어제 오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려도 그다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것 같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는 아닙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414페이지의 관리번호 16-19, 금방 김성군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비치 사업, IBC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일단 414페이지를 보면, 순서대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스마트비치 편의점 노천카페의 수익이 마이너스이고, 2017년도도 마이너스, 2018년도도 마이너스,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전체 수익상으로 봐도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5,6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적기는 하지만 그나마 플러스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7,780만 원, 밑에 보면 워터 슬라이드 정산서 미제출 (적자예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전에 2017년도 행감 자료를 봐도 아이스링크 같은 거, 워터슬라이드 정산, 둘 다 미제출로 돼 있습니다. 다 '적자예상' 돼 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번에 저는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비치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결산 세부내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님, 이게 작년도도 행감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약서 중에 제가 볼 때 미비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산서의 미제출 부분, 여기 협약서에 안 담겨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특별히 담겨있지는 않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못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IBC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제가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현신 위원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상으로 보면 꼭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제4조에 보면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해운대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는 바를 지켜봤을 때, 이게 과연 공공의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IBC의 천국이 아닌지, 스마트비치 운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해서 IBC의 천국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답변 드릴까요?

○문현신 위원

아니, 일단 보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415페이지를 보면 일단 2012년 12월 28일에 재협약을 체결해서 2015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2013년 12월 30일에 2016년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고요. 2014년 3월 26일에는 재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부 실행 가이드까지 마련해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재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기부채납된 우리 구 재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예산 확보하여 부담하도록 노력한다고 협약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때의 협약을 보고 세부 실행 가이드를 보니까 굉장히 명확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애매하게 나와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비용 보전 조항을 삽입해서 ‘스마트비치 시스템 매출액의 일정액을 스마트비치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도대체 노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구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2015년 12월 21일에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 언급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보면 일단 여기 조례 제7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돼야 되는데 3항이 점으로 찍혀있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일단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아예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현재 이 수수료는 수입 전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전체 수입의 12.5%를 받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12.5%에 해당되는 이 수수료를 개선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12.5%를 조례상으로 보면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결정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매년 4월이나 5월에 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그 회의록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에 4차 재협약 체결을 해서 2018년까지 협약기간을 연장 결정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협약서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451페이지를 보면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스마트비치 운영 계획’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쪽 나와 있는 중에 453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비치 100% 사용.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용자 편의성 최고’, 사업장용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온라인사이트에는 ‘공공서비스 통합 → 모바일이용 시스템 호환’,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창조경제형 관광여가도시 통합솔루션 도입’, 대단히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용자 편의성도 최고[最高]’, ‘IoT서비스 사용 극대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실례들을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모바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IoT(Internet of Things)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세계 최초라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으로 보면 스마트비치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맥락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거를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죠.

○문현신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른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현금 사용 시에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에는 페널티(penalty)를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신고포상제까지 있던데요. 포상 실적은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포상 실적은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작년에 3건인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는 결국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것도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거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볼 때 도입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건수가 미미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의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관한 협약서’, 2016년 12월 30일에 재협약된 것을 보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468페이지에, 뭐 그 앞에도 메이킹룸이다, 뭐다, 많이 있지만 일단 4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제6조2항을 보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스마트비치 시설 및 장비 중 “갑”의 재산에 대한 설치·철거, 보수, 공공요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 말인즉슨 아까 414페이지에서 나온 ‘시설 개선 설치 철거 공과금 등’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을 2015년도에 9억 8,0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문현신 위원

예, 다 새로 전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전면 다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부산시의 소유로 있던 것을 우리가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을 아마 바꿨던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이전 협약서를 보면 이 2항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은

구의 기부채납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그게 삭제되고 지금 “갑”의 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아까 2015년에 키오스크로 전면 교체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교체하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하면서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투입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되거든요. 부산시하고 IBC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시설물이 되고, 그 시설물을 우리 사업소로 관리 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밑에도 제7조1항의 ‘다.’ 여기를 보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스마트비치 업그레이드, 인건비 등 스마트비치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게 근거조항을 마련까지 해놓고도 여기에 노력한다고 또 재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어찌나 친절하신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님, 2016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저도 기획계장을 할 때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문현신 위원

그때 보고 드렸던 잘못된 몇 가지 점을 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게 지금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비용 보전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문현신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약서를 보면서 처음 느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현신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는 갑과 을이 좀 바뀌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현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현신 위원

갑이 을에게 절절매고 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협약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까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한데 저는 저희 선배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런 사유들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갑과 을의 형태를 반드시 좀 바로 잡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으로 맞춘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때의 상황도 조금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일 저희들이 전직 소장님, 계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것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갈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은 충분히 구분되어야 된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모호함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자, 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을 IBC가 독차지하고 있다, IBC 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대로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IBC가 무엇무엇을 운영하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 모든 운영을 여기에서 다하고 있더라고요. 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도, 물론 프로모션을 할 때 구의 인허가를 득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 협약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나 친절하고, 갑이 을에게 어찌나 절절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체크가 돼 있네요? 470페이지를 보면 제9조의 결산보고에 있어서 ‘을은 매년 스마트비치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및 통계수입 지출현황 등 결산자료를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결산서였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냥 총체적인 걸 말씀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렇게 해서 끝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을 하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명확한 재무제표를 받아야 비용 보전 부분도 지금까지 37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산을 하더라도 1년에 3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을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여기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런 부분도 바뀌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됐다...

○문현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1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항에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 재선정 시 “갑”은 “을”을 우선협약대상자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보니까 그전에도 매번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등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이걸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 두 번째를 보면 ‘협약기간인 2018년까지 스마트비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운영방안 대책을 마련하겠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도 이 운영 방안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맞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운영 방안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현신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치 시스템 협약 및 운영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직의 그런 상황들도 다 의논을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문현신 위원

예,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이라도 자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번에 정말 강력한 쇄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운대해수욕장을 공공의 공간으로 돌려주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우리 직원들도 필요할 거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고, 또 정책적인 방향이나 결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2017년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을 한 거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 됐고, 이게 잘돼야 해수욕장의 운영지침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진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아까 “왜 나여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여 분이 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한 거 5분만...

○위원장 조영진

아,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어디에서 나온 서류인지 아십니까?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하니깐 좀 그런데, 이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서류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공개할 하시죠. 저희들도 봐야 아니까...

○위원장 조영진

공개하십시오.

○박기훈 위원

공개합시다.

(사무직원에게)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주세요.

(사무직원, 박기훈 위원에게 자료 받음)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게 자기들의 결산표입니다. 모든 게 다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가 제보 받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계산기로만 했는데 6개, 소장님이 주신 서류 중에 특전동지회,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해병대, 모범운전자회, 의용소방대, 해운대구 재향군인회는 전에 서류가 똑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모범운전자회하고...

○박기훈 위원

아, 재향군인회는 아닙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재향군인회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하고...

○박기훈 위원

의용소방대하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하고,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마지막으로 특전동지회는 똑 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이거는 왜 그럴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두 개 의용소방대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저희들이 불렀습니다마는 안 왔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런데 해병대, 재향군인회는 처음에 금액이 맞았거든요. 틀리게 다시 왔어요. 왜 이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바다환경정화위원회하고 특전동지회는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길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인정을 하고...

○박기훈 위원

일단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복사본 배부)

제가 볼 때는 IBC에서 나오는 매출대장 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스마트비치...

○박기훈 위원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일 앞에 왼쪽이 스마트비치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서류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 이거 말입니까?

○박기훈 위원

예, 어디에서 나온 서류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IBC에서 나온 서류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여기에서 딱 보면 전체 매출이 다 나옵니다.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에서 카드, 현금으로 판 거 다 나오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이거 신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단체의 입장입니까? IBC의 입장입니까?

○박기훈 위원

이거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일단 스마트비치 시스템은 카드로 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아마 맞을 겁니다. 다만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리는 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하면 약 30% 정도의 로스(loss)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30% 정도 로스의 현금이 거래가 됐지 않느냐고 보고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박기훈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거는 IBC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님 이거를 보시고 다시 회수를 하시면 안 될까요? 제보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보시고,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영진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으시니까... 진행하십시오.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검토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보고 검토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또한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가 4,220만 4,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의 통장 내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보이십니까? 통장 내역을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주면서 자기들은 3,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질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게 지금 한 개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파라솔 단체의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공동 운영제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호별로 구역을 정해서 쪼갠 것을 인근에 있는 두세 개 단체를 묶었습니다. 왜 묶었느냐 하면 호객행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 때문에 단체 간의 싸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로 서로 피서객을 과잉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불친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제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 2호가 한 묶음이 돼서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묶어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을 균등 분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런데 4,2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3,200만 원... 1,000만 원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000만 원은 카드 수수료라든지...

○박기훈 위원

아니, 여기에서 수수료가 다 빠져서 나온 금액이 실 매출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 카드 매출 전체가 실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한 5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저희 해운대의 첫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만 씨는 게 아니라, 강철이라도 썰겠다.”라는 그 다짐의 말씀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우리 구민의 자산이자 자랑이고,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올여름에 우리 구가 벌어들인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총 말입니까?

○원영숙 위원

예, 총금액. 바다가 우리 해운대구민의 자랑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 해수욕장에...?

○원영숙 위원

예, 우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에서 얼마의 돈을 벌은 것인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몇 페이지입니까?

○원영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웃음) 한 9,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9,300만 원을 벌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해운대해수욕장,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바다에서 우리 구 세외수입이 9,30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청결유지비가 2억 2,000만 원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수수료 9,000만 원 등등 하면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매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총 수입을 말씀드리면요. 해수욕장만 하면, 점·사용료까지 합치면 4~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4~5억 원 정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인 해수욕장이지요. 우리 구민의 자랑이고... 4~5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여기에 파라솔 업체들은... 파라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탈의장...

○원영숙 위원

탈의장 이런 업체들은 일단은 스마트비치 매출로 7억 8,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비치 매출이 7억 8,100만 원이고, 우리 구민의 자산인 해운대해수욕장이 4~5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운대바닷가의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쓰여야 하는 게 해운대구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절반보다 더 적은... 해운대구민의 자산이 특정인의 매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매출에서 볼 때 스마트비치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 스마트비치 매출 안



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매출에 스마트비치 현금 함께 이것은 뭐 하러 내놓았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

○원영숙 위원

현금은 전부 제로입니다. 17개 업체 모두가 제로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현금이 있는데, 매출 누락을 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수정한 자료도 제가 볼 때 스마트비치 매출에 거의 맞춰왔어요. 몇 군데 외는 스마트비치 매출에 짜깁기를 해서 오늘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운영 단체를 보면 스마트비치 매출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 매출이라는 건 매출과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고, 우리가 세금을, 부가세를 신고하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이 부가세 신고하는 것들도 명확하지 못해요.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전 업체가 다 그렇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금이 스마트비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부가세 신고 부분은 맞다고 하는데, 사실 14번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비치 매출이 3,56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부가세 신고를 7,933만 637원, 실제 부가세를 신고했다고 하는 그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마트비치 매출과 7,000만 원이라는 게... 현금이 3,700만 원, 현금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이 업체만 보더라도 현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제가 정말 흥분되는데요. 사실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스마트비치 매출이 1억 5,361만 1,000원인데, 부가세는 7,332만 9,091원을 신고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8,028만 1,909원이 부가세 신고 누락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은 세금 포탈이지요? 5,400만 원 세금 포탈, 3,100만 원, 1,500만 원, 470만 원, 530만 원, 1,000만 원, 260만 원, 280만 원, 589만 2,000원, 518만 3,000원, 2,863만 3,000원... 다 매출에서 부가세 신고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님,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매출 정산서를 꼼꼼하게 저희들이 못 챙겨 본 부분은 제가 총체적으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안 맞는 게 청소년지도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운영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원영숙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를 들어서 13호, 14호가 같이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가 1억 5,361만 1,000원의 수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565만 5,000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균등 분배를 합니다. 균등 분배를 하는데, 왜 해병대전우회가 조금 더 많은가 하면 해병대전우회는 6월에 부분 개장할 때 했던 4개 단체 중의 한 단체입니다. 6월은 공동 운영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원영숙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 스마트비치 금액하고 그것을 나눠서 균등 분배를 하면 약 1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영숙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면 8천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해병대전우회가 6월에 한 것을 플러스로 더 가져갔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보시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원영숙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업체들이 정상이라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정상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발언으로... 스마트비치의 로스(loss) 부분도 아마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일일이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영숙 위원

본 위원이 부가세 신고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맞춰보려고 해도 개연성이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켰다는 것, 스마트비치는 분명히 그 기계에서 매출이 얼마인지 찍혀 나올 것이고, 아까 우리가 공개한 자료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해운대백사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그냥 현금으로 씁니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리고 그 단체들을 보면 운영을 어떻게... 우리 해운대의 봉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봉사단체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해운대백사장에 와서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대부분 마이너스 77만 원, 690만 원... 플러스가 되는 것은 48만 5,000원... 마이너스 662만 원, 마이너스 3,900 얼마, 플러스 23만 8,000원, 플러스 700만 원...

그리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에는... 수정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수정 안 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수정을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거기는 안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해운대모범운전자회에서

는 안 왔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총 수입이 2,98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순 수입이 5,961만 1,842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8,850만 원이고... 하고 나니까 2,888만 8,158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름 내도록 해운 대모범운전자회가 파라솔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니까? 이 서류가 말하는 것은 뭐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돈도 자기 돈을 내어가면서, 그 단체의 돈을 3,000만 원이나 내어가면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십니까?

서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비치든 파라솔이든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다 그래요. 총 수입이 170만 원 남은 것, 370만 원 이런 것밖에... 이 단체에 얼마나 많은 단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윤을 단체원들한테, 뭐 인건비도 비용에서 떨어졌지만... 그래서 총 수입이 370만 원이 나서 단체 기금 활용을 200만 원하고, 잔여 수익금 활용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100만 원을 하고, 참 훈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온몸을 던져서 해수욕장에서 무료 봉사를 하시고, 지역에서도 봉사하시고... 소장님, 너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2,888만 원이 나왔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는 그 8,800만 원 중에 자기들 회원이 근무해서 벌어가는 돈, 그것도 자기들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도 포함되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전제를 깔아놓고요. 이게 절대로 맞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지출 부분을 보시면 그 인건비에...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자기 회원들을 먹여 살렸던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준다면 일정 부분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개선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복리 증진을 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못 챙겼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가져오셨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조례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4조(설치)에,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를 둔다.’라고 해놓았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요. 구의원 두 분, 우리 일자리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원영숙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예,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부산해운대경찰서장까지는 못 박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유관단체 기관장을 언급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이 유관단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이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이 협의회가 어떤 것을 합니까? 부산지방해양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님께서 이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선사업 수수료, 피서용품 대여업 관리단체 선정,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을 결정하고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유관기관 단체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도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수욕장법에 그렇게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조금 개정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러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왜냐하면 실무 위원들이... 이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은 거의 안 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나 부산해운대소방서장은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실질적으로는 안 오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 위원으로 하는 조항으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좀 바꿀 생각입니다.

○원영숙 위원

맞습니다. 유관기관장들이 해수욕장 안전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영숙 위원

어느 상위법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해수욕장법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해수욕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가 편의시설 운영 안전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짜깁기한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탈의장을 쥐라, 점용료를 얼마로 결정한다, 파라솔을 업체 누구에게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해수욕장협의회...

○원영숙 위원

아니,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수욕장협의회를 둔다고 해놓았고요.

○원영숙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거기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산해운대소방서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것까지는 딱...

○원영숙 위원

못을 박아놓았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분들이 파라솔 대여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개장시간이라든지...

○원영숙 위원

개장시간, 그럴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해수욕장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원영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원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이런 분들의 범법행위에 우리 구가... 완전히 범법행위를 하는 유관단체에...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이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야 할 분들이 우리 해운대구가 자행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과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체 단체를 잘못하면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영숙 위원

아니, 서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니까 서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이 하시기 때문에...

○원영숙 위원

저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파라솔 업체의 단체를 만난 적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도 잘 모릅니다.

○원영숙 위원

서류가 말을 하고... 아니, 왜 소장님이 모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단체는 제가 다 모릅니다.

○원영숙 위원

파라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럴까 싶어서요. 저는 그 단체를 선정하는 데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원영숙 위원

다행히 거기 구성 멤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없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간사입니다. 그냥.

○원영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 구성 멤버에는... ‘간사를 둔다.’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이 멤버에...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없더라고요. ‘아~ 참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그리고 제8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제8조(점용허가 등) 1항에 ‘탈의장,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유하는 경우’, 2항을 보면...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일반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일반 입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다만’은 단서조항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런데 이 ‘다만’이 일반 입찰을 하고 일부 봉사단체에, 정말 봉사를 하니까 일정 부분 해주는 게 맞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입찰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은 단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다만’ 단서조항이 모든 것들을 파라솔... 제9조에 피서용품 대여업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입찰로 결정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 사회의 공익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른 이 단체들을 다 선정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

○원영숙 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해수욕장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번이 기회가 되어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고맙고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디만,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호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원영숙 위원

맞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왜냐하면 청장님도 바뀌셨고, 저야 있지만 우리 실무 계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이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요. 해수욕장협의회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어도 사전에 실무 회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17개의 파라솔 운영 단체들이... 사실은 부가세, 매출을 누락시킨 게 외부에 알려졌으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탈세를 안 한 단체가 없습니다. 현금 매출 전부 누락시켰고, 스마트비치 매출이라도 신고하면 되는데, 그 매출도 신고를 안 했어요. 이런 단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 주셔야 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잘못하면 이 단체들 다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없지요?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시간이 6시인데,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밥 먹고 합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고...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숙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식사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회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바뀐 별첨 서류도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행감의 자료를 안 보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소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이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단체를 정하지 않습니까? 1위부터 선정된 단체, 21개의 단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자기들의 신청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희들이 일단 그 배점기준에 따라서 점수화시키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박기훈 위원

날짜가 언제냐 하면 3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2월 2일에 회의를 한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이날 선정을 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2월이 아니고...

○박기훈 위원

그러면 선정은 2월에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니, 5월입니다.

○박기훈 위원

이날은 왜 2월에 했습니까? 구성 시기가 2월 2일이고, 위촉 시기도 2월 2일인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박기훈 위원

그러면 했다는 날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했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회 개최는...

(집행부 자료 찾음)

○박기훈 위원

아니, 위원회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하고, 이때 회의록이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6-20를 보시면...

○박기훈 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479페이지입니다. 구성을 2월 2일에 했고요. 협의회는 5월 4일 10시 반에 개최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자료를 보며) 참석인원이... 지금 민간인 2명이 누구죠?

참석인이 8명이면 유관기관에 4명, 여기에 참석을 누가 했다고 안 밝혀줍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38페이지에 보시면...

○박기훈 위원

38페이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돈 7만 원 나간 거 말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37페이지를 보시면 불참하신 분이...

○박기훈 위원

거의 다 불참인데 그러면 여기에 온 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래서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해수욕장협의회, 딱 정해져 있는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

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수욕장협의회 구의원 두 분은 문현신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입니다.

○박기훈 위원

지금 480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다섯 분, 민간인 한 분, 구의원 한 분은 불참이네요?

그러면 여섯 분이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479페이지는 2017년도고요. 480페이지를 보면 총 8명인데 유관기관 5명, 민간인 1명, 구의원 1명 불참이라고 하면, 8명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손유정 전 의원님, 000 교수, 그다음에 000 씨, 000 씨, 000 씨, 그다음에 전 청장님, 일자리산업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해서 여덟 분입니다.

○박기훈 위원

‘참석인원 : 8명(유관기관 5명, 민간인 1명, 구의원 1명 불참)’ 여기에서 볼 때는 6명으로 보이거든요? 안 그럴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끝에 보면 ‘불참’해놨지 않습니까?

○박기훈 위원

‘구의원 1명 불참’, 아~ 이 괄호 친 부분은 이 위원 중에 불참한 분이라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불참한 위원이라는...

○박기훈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보면 참석자를 적지, 불참자를 적어놓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5월에 개최해서 선정할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훈 위원

어디에서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협의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박기훈 위원

구의회에는 보고할 사항도 아니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는 조례에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감사증지를 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끼리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게 어떨습니까? 괜히 이렇게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위원장 조영진

아까 질의하실 분도 좀 있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박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예,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맥락이 조금 달라집니다. 관리번호 16-23번입니다.

‘송림공원 내 직원 주차장 시설사업소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과장님, 송림공원 내 직원 주차장 사용 용도하고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들어가는 입구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사설 주차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재무과에서 공영주차장하고 직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오른편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등록이 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 위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만약에 거기에 이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직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차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곳의 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신청자가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000 씨에게만, 보면 날짜도 특정일에, 주로 휴일을 위주로 해서 특정일에 대여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국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000 씨만 하게 된 사유가 저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공유지가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막아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문현신 위원

그러면 거기가 맹지라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막아버리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000 씨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직원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 국공유지가, 지금 여기 빌리는 데가 들어가서 보면 자기들하고 붙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혹시 오른쪽에 끈 같은 걸로 표시해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문현신 위원

직원 주차장 끄트머리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 끄트머리에서 송림공원 안쪽으로 두 필지가 있거든요. 그게 국공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 사람 외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그 부분을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임대를 안 해 주는 걸로 보고도 드렸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확정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여해 주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할 때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짜일 때, 금·토·일과 1월 1일이나, 이럴 때 주로 신청을 해서 빌리더라고요?

○문현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빌려주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이때까지 빌려줬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게 보면 날짜가... 일단 사용료 현황 전체를 따져보면, 아니, 사용료 현황은 둘째로 치고 날짜가 보면 다 토·일요일, 휴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연휴...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날인데 휴가철, 극성수기 기간에도 대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기간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또 484페이지의 2018년 사용 연번 4번을 보면 2018년 5월 19일에서 5월 21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5월 21일 같은 경우도 월요일로 평일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런 평일이나 극성수기, 이런 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 주는 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딱 자기가 필요한 시점인 금·토·일, 그렇게 3일만 빌리면 사용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그 사람도 점용료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 1주일 단위, 아니면 1개월 단위로 빌려라,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문현신 위원

제안을 하신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런 과정으로 오다가 6월부터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7월 28일부터 7월 29일에 내주고부터는 올 스톱을 시키고, 피서객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7월 29일부로 종료는 된 거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8월 1일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러면 올 스톱하고 일반인 주차장으로 할 때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는 아니고요. 직원 주차장은 앞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이 사람이 계속 빌리는 부분이 일백몇 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여름철에는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거죠.

○문현신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의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문현신 위원

그게 몇 면이나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20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돼 보였는데 120면이나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개만 빌릴 때도 있고 2개를 빌릴 때도 있거든요. 그 2개를 합치면 120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올 스톱됐다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간의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 알아는 들었는데 485페이지의 사용·수익 허가서를 보면, 계약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재산의 표시하고 신청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재산의 표시는 저희 직원 주차장을 명기하는 거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거기 주소하고 신청인 주소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산의 표시는 ‘부산광역시 \*\*\*\* \* \* \*-’\*, 그리고 신청인 주소는 ‘부산광역시 \*\*\*\* \* \* \*-’\*,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기에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주소를 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위에는 지번주소로 하고 아래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송림공원에 사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이렇게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로 해놨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자기 지번은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옆에는 제가 보니까 모르고 맨날 (작성)해오던 신청서가 아니겠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자기가 그렇게 신청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재산의 표시에 일반 주소로 표기를 해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 부분이야 마무리가 됐다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차후에 꼭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도로명주소면 도로명주소로 같이, 지번주소면 지번주소로 같이, 같은 형식으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어서 해수욕장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소장님. 해수욕장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신 게 언제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잘 안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혹시 팀장님, 마지막으로 접속해보신 게 언제입니까?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여름 개장식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여름 개장식 때요?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예.

○문현신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느낀 건 어떤 부분이지요?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문현신 위원

예.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실시간으로 자료의 업데이트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실시간 자료는 어떤 부분이요?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공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그때 제대로 안 올라갔다든지 그런 부분...

○문현신 위원

아, 행사하는 공지나 그런 부분이 제때 안 올라왔다?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공지사항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개선 지시를 하셨습니까?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예. 담당자에게 개선 지시를 했고 일단 홈페이지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써도 되겠습니까?

○문현신 위원

예.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제가 답변 드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장 시기에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접속을 했고, 개장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장 시즌에 봤었을 때는 일단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체로 홈페이지 통합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해수욕장까지 같이 통합이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같이 됩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그래서 그런 올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일단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관광객이 가장 필요한 정보가 날씨가든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게 관광객이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 홈페이지 정비를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제가 이거를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소장님께서도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래도 팀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개장시기에 맞춰서 들어가 보셨다고 해서 여쭙았는데요. 행사나 그런 공지가 다소 늦게 올라오고, 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늦다고 하셔서 그래서 개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을 포함해서 첫 화면 부분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아까 “올해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세부 카테고리(category)로 들어가 보면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도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게 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에도 보면 인터넷쉼터나 메이킹룸, 지금 해수욕장에 메이킹룸이 있습니까?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올해는 없었습니다. 수유실은 있고요.

○문현신 위원

수유실만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여름에는 수유실만 있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올해 여름에는 수유실만 있었고, 혹시 작년에는 (메이킹룸이) 있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메이킹룸이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이모저모’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세상에, 마지막 업데이트일이 2016년 11월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

○문현신 위원

스마트비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아니, 굳이 스마트비치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통합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큰 지적은 하지 않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큰 일에 안 빠치고 작은 일에 잘 빠치죠?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달맞이 어울마당 화장실 있죠? 무대 뒤쪽에 구석에 있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위험한데, 여기에는 안심벨이 설치됐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거기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는 진작, 우범지역이고 완전 구석에 있는데, 이런 곳에는 꼭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언제 할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올해 안에 합니다.

○김상수 위원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있죠?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IBC’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니까 ‘편의점 점·사용료’라고 해서 1,380만 원도 있고, 그런데 혹시 2017년도는 편의점 사용료를 다 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탈의장부터 해서 전부 안 냈습니다. 안 낸 원인이 ‘내부 재정상황 악화’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행감 후에 내더라고요. 단체들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결정하고 난 후에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부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혹시 IBC가 스마트비치, 그 회사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스마트비치 회사가 이 탈의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호 탈의장을, 바다마을이 있는 제일 끝에, 그랜드호텔 앞으로 들어오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탈의장 운영 선정 기준하고 맞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행정지원단체 구성원이 전 18개 동에 분배돼 있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IBC가 선정 기준에 해당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호 탈의장은 아까도 문현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거는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확 줄여서, 맨날 저희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결산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필요하다

고 해서 확 줄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고액채납자가 징수가 안 되면 이 업체는 배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또 냅니다. 12월이나 이렇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은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에 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공과 사는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 해운대 비치 사나이 격투기 대회’ 예산에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속합니까?

참여인원에 ‘3,000여 명’, 이렇게 해놨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관람객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3,000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송정에서 했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니요. 송정에서도 하고, 해운대에서도 하거든요. 이벤트광장에서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4,000만 원을 쥐가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해야 된다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4,000만 원을 쥐가하면서 계속해야 되느냐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색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데 내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 안 됐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누가 뺐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기획조정실에서 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7급 서석봉 직원은 4년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모양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꼭 필요한 직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야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래 근무한 경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직원이 다년간 송정해수욕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특화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조금...

○김상수 위원

배려 차원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배려 차원에서 전보를 안 하고 그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도 보면 ‘공원시설 관리’에 ‘죽도공원, 송일정 및 동백공원 팔각정 정비’하고 ‘죽도공원 거북바위 포토존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예산 삭감을 했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구를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왜 삭감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잡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송정 주민들이 자꾸 송정이 낙후됐다고 하죠. 송정 죽도공원 송일정이라든지 거북바위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맨날 해운대하고 이런 쪽만 신경 쓰시고 송정은 신경을 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작년에도 예산을 1,500만 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고기잡이 체험 같은 문화행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송정만의 특화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더 크게는 죽도 문화광장 조성을 내년에는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야간개장 연장 운영’ 건 있죠? 이거는 올해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폭염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호응을 잘 받은 시책사업 중에 한 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200m로 한정돼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 200m는 저희들보다 119소방구조대, 거기에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 같이, 똑같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넓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는 이를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끝을 내는 시점을 17일을 하더라도 일요일,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해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133페이지를 보면 ‘송정해수욕장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있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그냥 카드결제기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순수하게 이거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포스(pos)기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가게에서 쓰는 포스기 그거죠? 아무 카드나 갖고 와서 그냥 긁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운대해수욕장처럼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올해 처음 했으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

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업체를 선정하시면서, 지금 이 전자결제 시스템 업체가 한 개 업체가 들어왔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니요. 공모를 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

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금 한 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점수가 85점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한 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점수가 85점이나 나오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일단 송정의 위원장하고 단체장들이 오셨고요. 구의원은 김정욱 의원님이 오셨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줬더라고요. 이 분이 송정 사람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역구가 어디 사람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누가요? 운영하는 사람 말입니까?

○김상수 위원

동명개발시스템, 000 씨라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어디 사는지는...

○김상수 위원

송정 지역주민은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송정 지역주민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포토존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관리소장님이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주간에는 그나마 포토존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야간에 좀 어두워요. 야간에 사람이 왔을 때 사진을 찍으려면 현재 조명을 가지고는 상당히 약하다, 잘 보이지도 않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좀 약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좀 더 개선해서 해운대라는 글자 안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게끔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밤에도 멋지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 자체가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해운대에는 낮에도 많이 오시지만 밤에도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밤에 와서 포토존에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것도 좀, 개인의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의 ‘연도별 파라솔 운영단체 현황(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희망의 울타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해운대환경포유회가 맞습니까? 희망의 울타리가 맞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149페이지의 ‘희망의 울타리’, 이거 말씀입니까?

○김상수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희망의 울타리라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2018년도 파라솔 운영단체 명단을 보면 전부 ‘해운대환경포유회’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 이거는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잘못 친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희망의 울타리가 아니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10분 가량 남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그러면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29페이지에 ‘문탠로드 먼지떨이기 설치’가 있네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집행잔액이 543만 3,000원이 남았는데, 2,500만 원의 예산 중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보통 먼지떨이 에어 컴프레서(air compressor) 설치를 할 때 2,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생겨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원영숙 위원

시장조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46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3,576만 원’, 2018년도에 ‘4,252만 1,000원’ 돼 있는데요. ‘망원경, 자판기, 간이샤워기, 물품보관함 운영수입’, 이게 44쪽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44쪽요?

○원영숙 위원

예. 44쪽에 보면 ‘수익 금액’이 ‘망원경 운영,’ ‘공원 자판기 운영,’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운영,’ ‘해수욕장 물품보관함 운영’ 해 가지고 똑같은 건데, (44페이지에) 2017년도는 ‘3,328만 1,000원’, (46페이지에) 2017년도는 ‘3,576만 원’, 그렇게 돼 있고요.

(44페이지에) 2018년도는 3,035만 9,000원, (46페이지에) 2018년도는 4,552만 1,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두 개가 다른 것은 1-15 경영수익 사업은 이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이거 플러스 고철 매각한 세외수입 같은 거, 그게 포함된 겁니다.

○원영숙 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해 주셨으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사업명은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질의 끝났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제가 바닷가를 잘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블루마린, 여기에 관리 감독은 잘 했습니까? 울여름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원 목적을 가지고 만들자고 한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협약을 맺고 사업한 건데, 태풍이 와 가지고 상판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말도 좀 안 듣고 해서 지금 12월 3일까지 최후 공문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냈습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블루마린하고 송정마리나, 두 개 업체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잘 된 것 같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송정마리나 쪽에서는 사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양레저 사업을 했는데 작년보다 3배 정도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마린 요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피해, 그다음에 우리하고 협약했던 것을 여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할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 저는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 업체는 발전 기금 이런 것 없이 시작만 하고 이행보증금만 내면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행보증금하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방금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잔교 그 부분이 태풍으로 상판이 부서졌다고 하셨는데, 상판만 부서졌습니까? 상판만 부서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상판 밑에 고정 지지대...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고정 지지대가 부서졌던데, 그거는 안전상에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상판만 부서진 거하고 고정 지지대가 부서진 것과고는 큰 차이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백사장이라는 공간에 아까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조례, 그 부분에서도 공공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열린 공간 일정 부분을 특정업체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흉물스러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일단 575페이지의 요금을 한번 보십시오.

퍼블릭 투어 7만 원까지는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럭셔리 투어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170만 원, 190만 원, 210만 원, 섀넌 투어는 2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극성수기에는 20%까지 증가하고요.

605페이지에도 보면 ‘상품 이용요금’ 해 가지고 ‘요트파티 투어’가 있는데, 이 밑에 ‘영업기간 내 이벤트’를 보면 ‘주야간 요트파티 행사’ 해 가지고 유명 DJ, 가수 등을 초빙하여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요트 선상에서 이런 DJ나 가수를 초빙해서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대기 풀에서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요트 선상에 나가서...

○문현신 위원

그러니까 맞죠? 선상에서 하는 거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이게 지금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아예 시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까 설명하시던데 더베이101하고 공동 업체였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거기에서 할 때 이거를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와서 하자고 하는 제안서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백사장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병폐도 있지만 이런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도 어

떨게 보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호화스러운 면을 봤을 때...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거든요. 이 금액은 해수욕장 활성화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고자 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12월 3일까지 최후 공문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답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협약서상의 해지가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행정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할 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6,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철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사전에 철거업체에 문의해서 받아놓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행정절차하고 또 혹시나 대응을 할 행정소송 부분, 이런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침 이 사람들이 해양레저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경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경에 미신청을 해서 해양레저사업을 폐업한다, 이렇게 해경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돼 있어서 12월 3일까지 뒀고요. 그 이후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현신 위원**

잠시만요. 해경에 미신청을 해서 폐업한다는 해경의 그런 내용까지 최후 공문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12월 3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해경에서도 미신청해서 해양레저사업을 폐업한다는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도 크게 할 의지는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철거를 할 때 비용들, 자기들의 재정이 있을까, 저희들도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든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정산 후에 그 업체에 부과하는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현신 위원**

아~ 그러면 이행보증금 6,000만 원으로 철거가 가능하면 하고, 만약에 더 들면 행정대집행 후 정산 처리하고,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폐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들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면 제가 판단컨대 그 업체도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업체 사장이 다낭에서 해양레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들어왔길래 행감 때문에 월요일에 불러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앞으



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좀 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잘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아니 시간이 지금, 뒤에 또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박기훈 위원

딱, 10초만, 10초만 하면 돼요.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10초입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이 블루마린 업체 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제가 귀에 익은데, 리버크루즈를 하려는 업체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면 그 리버크루즈 하는 업체는 이름이 뭐니까? 무슨 마린인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업체하고 이 업체는 종이 다릅니다.

○박기훈 위원

무슨 마린이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마린은 뭐, 다 바다에서 하니까...

○박기훈 위원

블루마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확실합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쉬었다가 한 타임 더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게 되면 제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기훈 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감사중지를 하자고요.

○위원장 조영진

아니, 감사중지를 하면 그러면 더 질의를 하시는 걸로...?

○문현신 위원

아~ 아니, 아까 협의를 하고 진행하자는 그 말씀...

○박기훈 위원

감사중지부터 합시다.

○위원장 조영진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스마트비치 IBC와 재협상 건에 대해서, 12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연장 건에 대해서 내일 계장, 소장, 담당자분들 다 모여서 논의 후에 그 논의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연장

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로 갈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아까 소장님을 믿겠다, 결론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내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연장할 것인지, 공모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요. 저희 의회에도 바로 알려주시고요. 결정 난 사항을 바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IBC 측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봐도 이 협약서 제9조를 보면 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세부내역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어떤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공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정... 청장님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현신 위원

결정이 난 후에 말씀해 달라는 애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일단 청장님의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납니까? 상의 결과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문현신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결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진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8~47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비치 업체와 관련해서 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업체가 재연장이 된다면 이계약서를 대대적으로 손 볼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연장이 되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제가 법리해석이 조금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문을 다 받아야 되고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가졌던 특권은, 저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특권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화시켜 가는 부분을 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가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혹시 비용 보전 중에 ‘다’항에 보면, 468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인건비 등 스마트비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내용은 뭐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게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요. 운영을 할 때 한번 와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매표소 같은 게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 것을 설치하면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광객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비용들이 개발이나 보전에 어떤 방점을 안 찍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이번에 파라솔하고 탈의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이게 자꾸 연계되어서 오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것도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초기비용이라든가 아까 3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헛수가 2011년부터 흘러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해주든 간에 내용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다시 계약에 명기되고 해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직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도 결국은 보이지 않게... 인건비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주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비용하고 나중에 결국 누적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이 업체가 만약에 한다면 모두 손을 봐서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이 비용 보전 부분에서 가장 피서객이라든지 해수욕장 이용에 저해되는 부분이 저는 프로모션 권한, 그다음에 노천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 보전은 결국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프로모션 부분하고 노천카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정리가 없으면 협약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제가 와서... 파라솔, 튜브를 직접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면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 공문을 보내봤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루트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다면 충분히 정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김상수 위원

우리가 왜 코가 끼여 있느냐 하면 여름철에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업체에서 지원받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김상수 위원

얼마를 지원받는지 근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계속 이 업체에 코가 끼는 거예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안 되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세우든가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원이 아니고, 겉으로는 지원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쪽 읽어보면 전부 다 갑과 을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올 연말에 이 업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업체가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비용 보전 문제를 다 청구할 것이란 말이지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젯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 같이 손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용 보전 없이 2018년에 종료되면 협약해지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예상된다는 것이 저희들 검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달려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빌붙었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의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주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가야 하는 부분도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전직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만나보는 게 그때 상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에 조금 의지했던 부분들이 즉시 정비가 가능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정비하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 나가줘야 쉽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번에 이왕 우리 소장님이 칼을 들었으니까 파라솔, 탈의장, 스마트비치를 명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투명하게 해서 인정받는 그런 소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얼굴을 보면 못 믿겠는데, 아까 칼을 들었다니까 칼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철판은 못 주고, 무를 드릴 테니까 무든, 뭐든 싹 단절하시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소장님, 지금 위원회 말입니다. 여기에 회칙을 보면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맞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000 씨하고 000 씨는 연임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1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000 씨 000 씨 000 씨는 연임이 가능합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결국 선정은 청장님이 합니다.

○박기훈 위원

청장님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지금 의무적으로 못 하는 분들은 2017년도에 했던 000 씨하고 000 씨는 못 하게 됩니다.

○박기훈 위원

1년 연임했으니까 안 되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그다음에 000 씨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하실 것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행정의 신뢰도 부분도 있고 해서...

○박기훈 위원

잘 하시리라고 보고... 또한 이 위원회에서 단체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파라솔이든 선정을 할 건인데, 기준을 보면 2018년도에는 21개, 어떤 데는 20개, 19개 이렇게 있는데, 단체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수가 딱 안 정해지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백사장에 너무 파라솔이... 어떤 때는 기네스북에 올리자고 7,000개, 9,000개 이렇게 설치하던 부분들이 오히려 피서객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파라솔 단체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1개 이렇게 하고 올해는 17개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3개를 줄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 줄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내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3개를 줄이고, 송정해수욕장에 2개를 줄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단체를 선정할 때 한 치의...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한 치의 의혹 없이 결산 부분도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모든 회계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위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주차장에 가면 현금을 못 받게 합니다. 아예 카드로 다 받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런 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단체별로 아예 현금으로 받으면... 지금 보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그것을 만약에 도입해서 아예 단체별로 파라솔이든 뭐든 스마트비치 기능을 살려서, 어떤 기능을 살리든지 올(all) 카드를 도입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리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런데 스마트비치 시스템의 처음 도입이 재정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을 막자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30%의 로스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킨다고 지금까지 전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절까지는 제가 보기는 좀 우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기훈 위원

한번 칼을 들었으니까 해보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이번에 결산서도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는 저한테 힘이 좀 더 실렸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든 바로 불렀다시피 그런 부분이 아마 저한테 조금 호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기훈 위원

소장님, 보니까 단속 권한이 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단속 권한으로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면 아마 안 할 겁니다. 벌금을 부과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올해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기훈 위원

잡아내십시오. 칼을 들었는데, 왜 못 잡아냅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박기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얼마나 걸립니까?

○원영숙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단속합니다. (웃음)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영숙 위원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제8조(점용허가 등)하고, 제9조(피서용품 대여업 운영허가) 여기 2항을 보면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먼저 전제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맞습니다.

○원영숙 위원

그리고 ‘다만,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원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이 입찰이 우선이고, 그리고 봉사단체에게는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지, 봉사단체가 전체 우리 해수욕장의 파라솔을 다 점령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야 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원영숙 위원

지역...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여기에서는 지역을 부산시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데, 부산시의 단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

가가 또 상승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

단가가 상승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 수익이 많아지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원영숙 위원

정해진 단가를 준수해야 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 단서조항으로 일정 부분... 정말 이것은 전체를 좌우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이 있다고 하면, 10이라고 하면 9는 입찰을 하고, 1을 가지고 지역 봉사단체에 할애해 주는 정도로 하셔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조례의 취지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영숙 위원

정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마쳤습니까?

○원영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진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런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호기가 있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오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현금 사용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송정해수욕장은 또 있던 말입니다. 2천 얼마가... 하여튼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해수욕장 자료는 비치가 되었는데, 송정해수욕장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려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데, 전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꼭 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고 해서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은 챙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에서 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체 일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시행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 서류를 완벽하게 비치해 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적 사항이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예.

○위원장 조영진

꼭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장님이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양쪽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건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부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조례에 의한 수수료, 점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부과내역 및 사용내역서 제출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비치 결산 세부내역, 이것은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협의회 회의 자료, 수수료 지원한 것까지 해서 3건이 되겠네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내지는 대안 제시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대한 여러 협약서에 보니까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협약기간 종료 후 재 협약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며, 강력한 채신의 노력을 기울여 공공의 자원을 특정 업체의 점유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비치를 활용한 파라솔 운영 단체의 매출 현황에 현금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며, 부가세 신고 자료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결산서상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산서 검토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수익금 정산 서류 관리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상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편의시설 운영 시스템 개

선 사업 수수료, 피서용품 대여업 관리업체 선정,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토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는 대안 제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홈페이지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등에 관한 자료와 기타 관광객이 꼭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 달라는 그런 제안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해수욕장 야간개장이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았으므로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포토존이 야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속기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종지)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창	헌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윤	정				
세	무	2	과	장	김	병	수					
관	광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인	철
우	1	동	장	장	형	규						
우	2	동	장	이	두	영						
우	3	동	장	장	재	균						

중	1	동	장	윤	영	숙
중	2	동	장	문	병	국
좌	1	동	장	강	양	원
좌	2	동	장	전	미	경
좌	3	동	장	이	근	용
좌	4	동	장	조	권	선
송	정	동	장	김	용	환
반	여	1	동	장	강	경
반	여	2	동	장	김	명
반	여	4	동	장	이	은
반	송	1	동	장	김	용
반	송	2	동	장	김	성
재	송	1	동	장	김	상
재	송	2	동	장	손	정
세	정	운	영	팀	김	정
해	수	옥	장	운	영	팀
			장	박	아	영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전	문	위	원	유	창	희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
속		기	사	이	동	수

【 감사 제7일차 2018. 11. 29. (목) 】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조영진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소관 사항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늦은 시간까지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서류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여 해운대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해운대구 전 직원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반송2동이 선정되어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고, 중동 애항길의 보행환경 및 간판개선 사업 공모에서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으며, 구민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공감 구청장실 운영’으로 구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자리 상담, 기술 교육,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해운대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정보 전달을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한 민원실이 머물고 싶은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전국 민원실 운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게 한 것은 우리 구의 큰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받은 수많은 수상 실적과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우리 구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최고의 구로 거듭나게 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나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도 향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끄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의 내부·외부 청렴도가 전국 및 부산시 순위에서 최하위의 등급입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 어느 특정 부서, 특정 사건의 탓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직원 모두가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대한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불용액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재정 운영은 반드시 기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문제입니다.

수많은 위탁 사업이 있으나 위탁한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즉시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한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격무·기피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배려책을 마련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수욕장 운영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해수욕장의 탈의장, 파라솔, 스마트비치 등 각종 수익 사업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단체와 관련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익금 정산까지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원인 해수욕장을 특정 소수인이 점용하여 영리 행위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행정의 잘못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탁관리 운영 단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부정확한 회계처리를 한 단체는 페널티를 적용하며, 내년 해수욕장 개선 사업에 대한 재협약 시 협약 대상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무한 지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와의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니스 오픈하임의 ‘챔버’작품은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사 시 APEC 나루공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 장소 변경이 검토되고 있어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시에는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이목이 집중된 미포오거리뿐 아니라 그린레일웨이 산책로, 반송여중 통학로 등 관내에는 교통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즉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완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 경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순 실적 위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영세상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며, 각종 추진 사업의 성과 피드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감사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 요구한 자료는 거둬진 확인 절차를 거쳐 오류가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 착오, 부실한 자료 및 잘못 작성된 자료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 사항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시에도 소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년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보조금단체 관련자는 가급적 배제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구민감사관 제도의 처우개선을 통해 참여자 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쿠아리움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되어가므로 인수 또는 연장 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운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확대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획 우수공연 프로그램이 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 문화로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감성 함양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란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여, 재송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된 대단지 아파트 내 공원이 구청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표식조차 없어 공원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구 역점시책으로 다양하게 발굴 추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한 사항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행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 우리 41만 해운대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8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창 헌
일 자 리 산 업 국 장	백 종 기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상 희
도 시 재 생 추 진 단 장	권 영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윤 정
재 무 과 장	임 외 현
교 육 협 력 과 장	김 유 성
민 원 여 권 과 장	김 현 관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숙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류 영
경 제 진 흥 과 장	변 수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태 승
늘 푸 른 과 장	김 성 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인 철
문 화 회 관 장	권 창 오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김 용 욱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김 혜 미